

중구향토사 자료 제10집

중구의 세시와 풍속

 서울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 자료 제10집

중구의 세시와 풍속



서울중구문화원



오늘날 급격히 밀려드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의 근간이 되어 온 세시풍속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물질문명이 풍요롭다 하더라도 세월의 풍상을 뛰어넘고, 선인의 손때가 묻어 있는 문화유산으로의 세시풍속은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선인들이 남겨 놓은 역사의 발자취이며, 오늘의 우리를 더욱 새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에 있어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 해온 민속을 말합니다. 설날, 상원,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 관습에 의해 새 옷으로 단장하고 주찬을 장만하여 조상과 제신에게 제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상전래로 공감되고 토착화하여 계승되어 왔으므로 그 뿌리가 깊고, 우리 생활문화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도 한양도성의 한 축으로 궁궐과 남산, 청계천에서의 사대부들의 세시풍속과 도성 밖의 신당동, 황학동, 중림동 지역의 농경세시풍속이 혼재해 왔으며, 특히 남산8영, 단오부채, 청계천의 닭고놀이, 예장동의 씨름, 만리재의 석전 등은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문화원에서는 옛 모습을 잃고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 민간 신앙 등 전통 민속 문화의 보전과 현대적 계승을 위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중구향토사 자료 제10집 《중구의 세시와 풍속》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중구 세시풍속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데 다소간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가진 우리 중구 전래의 세시풍속을 계속 발굴하고, 보존시키는 데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과 중구 향토사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정동일 구청장님과 임용혁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2년여에 걸쳐 원고 집필에 힘써 주신 김선풍 (사)국제아세아 민속학회 이사장님과 중구 향토사 연구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2월

서울중구문화원장 남 상 만

축사

우리구의 문화 예술 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구 문화원의 향토사 관계자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사료를 수집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바람으로 강대국의 문화에 약소국의 문화가 편입, 동화, 소멸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갈수록 문화의 획일성과 상업성이 눈에 띄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족문화를 가꾸고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족문화를 지키지 못하면 민족정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쉽고 민족 공감대와 일체감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지역 향토 문화입니다. 지역 향토 문화는 고유성과 개성을 가진 특유의 문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년 발행하는 중구 “향토사 자료집”은 귀중한 자료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토사 자료집”은 중구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수반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중구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귀중한 향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정동일

축 사

우리 구 문화자산의 발굴과 전승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문화원의 <중구 향토사 관련자료> 제10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원 이래로 중구문화원은 중구사화(史話)와 구전설화, 남산의 역사와 문화, 명동과 충무로의 변천사 등 우리 중구의 향토사 관계자료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중구의 세시와 풍속>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자료집 역시 우리의 지역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문화강국이 곧 경제강국이 되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문화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주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로서 “문화의 세기”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유형·무형의 문화적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관광산업은 물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구 향토사 관련자료> 제10집이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문화유적과 선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쓰신 남상만 중구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2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임 용 혁

目 次

발간사	3
축 사	4
제 1 장 개 관	13
1. 세시의 개념	15
2. 세시신과 농경의례	17
3. 세시풍속과 농사점	23
1) 자연현상에 의한 농사점	25
2) 동·식물에 의한 농사점	27
3) 민속놀이에 의한 농사점	30
4) 민간의지에 의한 농사점	34
5) 월령체가의 농사점	40
제 2 장 역사를 통해 본 세시와 풍속	49
1. 상고시대의 세시와 풍속	51
2. 삼국시대의 세시와 풍속	54
3. 고려시대의 세시와 풍속	65
1) 고려시대 세시와 풍속 각론	65
2) 고려시대 세시와 풍속 자료	94
제 3 장 세시기를 통해 본 중구의 세시와 풍속 ..	143
1. 《동국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145
2. 《열양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152
3. 《경도잡지》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154
4. 《세시풍요》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159
5. 《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175

6. 《세시기속》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179
7. 《세시잡영》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184
8. 《한양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185
9. 《조선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207
10. 《해동죽지》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212
제 4 장 근대 이후 중구의 세시와 풍속	217
1. 청계천 축제의 개발과 발전방안	219
1) 청계천변 축제의 소재와 대상	219
2) 남산과 청계천이 만나는 축제	221
3) 성웅 이순신장군 축제	231
4) 광통교 다리밟기 축제	241
2. 청계천변 강독사 전기수의 부활	251
3. 청계천변 ‘옥쉬다리’의 부활	257
4. 청계천변 속담 몇 곁레	264
5. 청계천변 다동의 지방문화	267
6. 길모어가 체험한 중구의 세시와 풍속	280
7. 새비지-랜도어가 체험한 중구의 세시와 풍속	285
1) 새비지-랜도어가 체험한 중구의 민속놀이	285
2) 새비지-랜도어가 체험한 중구의 풍속	294
3) 새비지-랜도어가 체험한 중구의 무속	304
8. 신문 잡지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와 풍속	310
제 5 장 마무리	343
참고문헌	348
찾아보기	352



단오 - 신윤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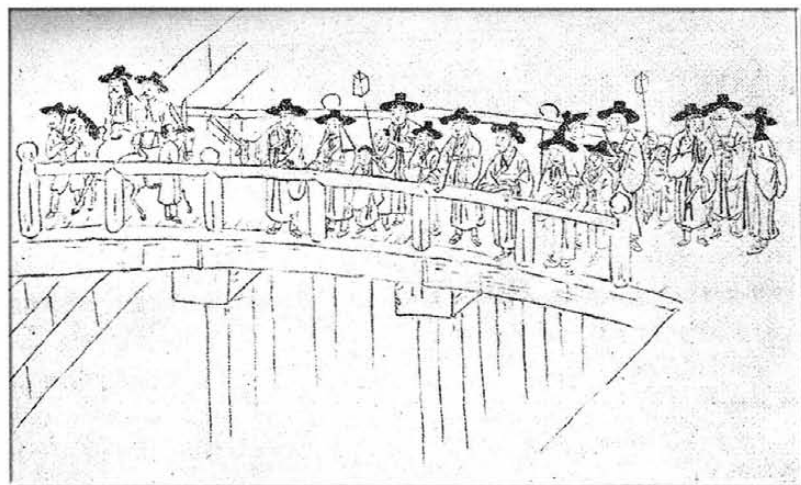
씨름 - 김홍도



연날리기



쥐불놀이



광통교 다리밟기(今 村軀의 《扇 左繩 打毬 籠》 수록)



хват싸움



등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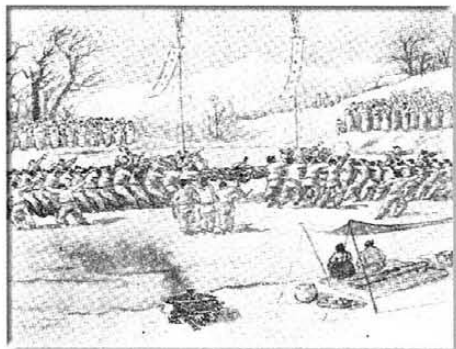


세서연

(광동교 다리밟기를 제외한 이상의 그림은 吳晴의 《朝鮮의 年中行事》 수록)



널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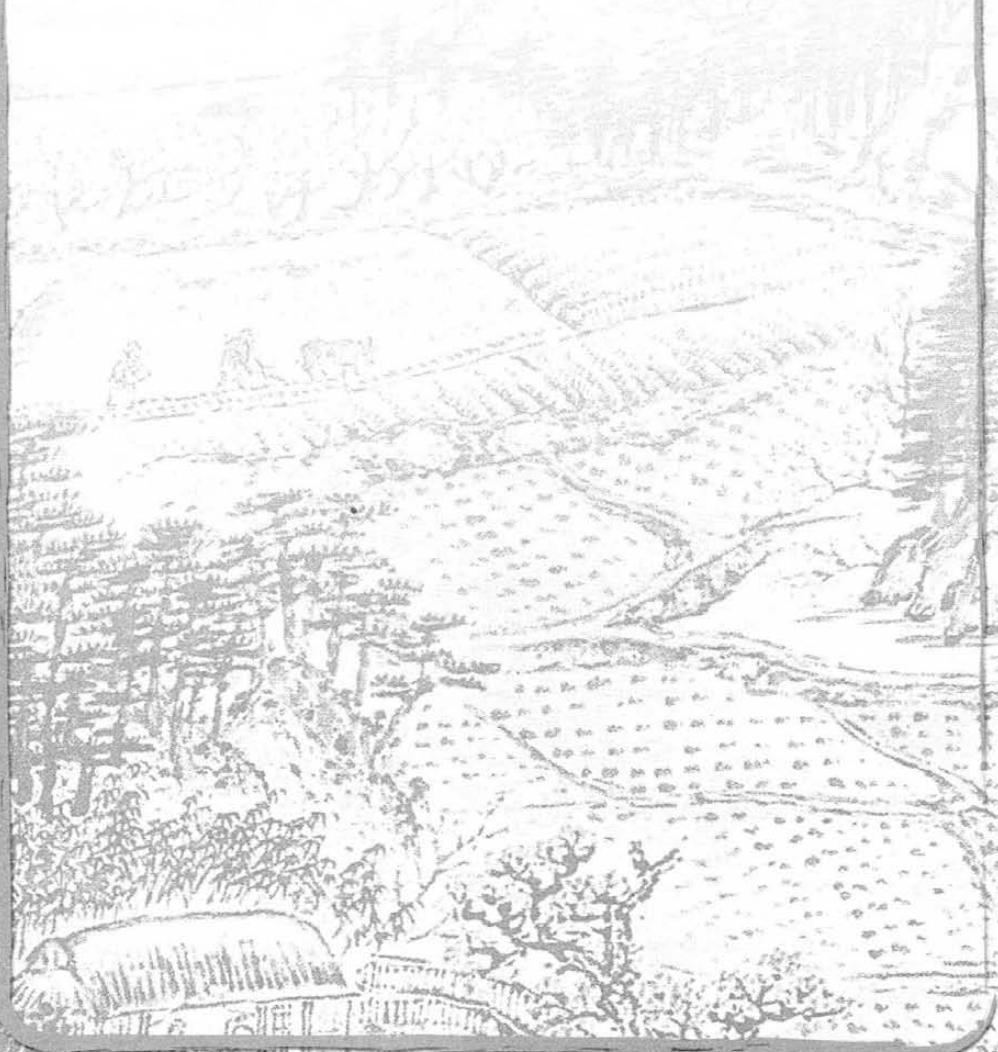
줄다리기



거북놀이

제 1 장

개 관



1. 세시의 개념

세시풍속을 흔히 ‘연중행사(年中行事)’라고도 하지만 고래로 세시(歲時)·세사(歲事) 또는 월령(月令)·시령(時令) 등으로 불려왔다. 이들은 모두 평상시의 일상생활과 구별하여 매년 일정한 시기에 행해지는 특별한 생활행위를 지칭한 용어들이다.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시의 어원을 살펴보면 ‘세(歲)’는 ‘연(年)’ 또는 ‘수확(收穫)’을 의미한다. 즉, 곡식알이 익어서 베는 시기인 수확기를 가리킨다. 천체의 운행과 생산주기는 매일의 연속적인 노동 사고를 보여준다. ‘시’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 같은 뜻으로서 지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한자문화권의 농경사회에 있어서 시간은 계절(season)이란 말로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4계절로 구분하여 서구의 역서풍습(calendar custom)보다 짧거나 길게 되었다. 계절이란 의미도 하나의 시간 뒤에 따르는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절마다 한 나라의 왕(王)이 우주의 이치에 따라야 할 준칙이나 농경신에 대한 복종을 명한 것을 ‘시령’이라 하였다. 그래서 세시풍속을 시령 또는 월령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동양의 달력은 인간생활의 지침서였고, 우주의 리듬을 음과 양의 주기나 반복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공적·사적 일상생활은 이러한 리듬에 순응하기 위해서였고, 달과 해의 끊임없는 교호작용(交互作用)이 인간사회와 우주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달력에 음과 양의 계절적 주기성을 기록하여 이에 따라 생산활동, 정치, 군사, 종교적 의례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달력을 통하여 자연의 물리적 시간 변화를 인지구조상(認知構造上)의 구조적 시간으로 변형·전환시킨 것이라 하겠다.

세시풍속은 달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모

습은 식물·동물·인간의 성장, 사멸과 관계가 있다. 즉, 세시풍속의 주기적 재생과 죽음의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의미가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로 구상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세시풍속의 계절축제는 달과 인간, 그리고 동·식물을 규제하고 다스리는 신의 죽음과 재생에 관한 연극적 표현이라고도 하겠다.

옛날에는 1일을 하루해라 하고 1개월을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성으로 헤아렸다. 원시적인 자연력일수록 달의 삭망(朔望)과 상하현(上下弦)이 가늠이 되어 세시풍속이 이루어졌다.

한국에 있어서 세시란 대체로 중국의 경우에 준해서 사용되어 온 것 같다. 사전류의 어의 해석에서도 단순한 자의(字義) 해석으로 '1년 중의 때', '일년 동안의 제철', '해와 시' 따위로 풀이하고 있고, 세시기에 대해서도 '일년 중 철을 따라 행하여지는 자연·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연속적인 연중행사를 쓴 글'로 해석하고 있다.

주옥같은 세시기들을 남긴 홍석모(동국세시기), 김매순(열양세시기), 유득공(경도잡지) 등도 세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설하지 않고 있으니, 분명히 중국식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서구에서 한국이나 중국의 세시의 개념과 거의 동어로 인식되는 용어로는 주기축제(순환축제·cyclical festival) 혹은 주기제의(순환의례·cyclical rite), 계절축제(seasonal festival), 역서풍습(calender custom) 등이 있다. 주기적(cyclical)이란 어떤 주기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서 연, 월, 일 등과 관련된 축제를 특히 주기(순환) 축제라 부른다.

'계절축제'란 사람들이 노동을 피하여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주기적인 시간에 행해지는 행사로서 계절의 변화가 어떤 특정한 기회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주기제의 또는 순환의례'는 복합적 행위의 실체인 의례와 관련

되는 특히 개인적인 관습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요컨대, “세시풍속은 우리의 생활에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전통적 생활행위로 한 사회의 표준적 행동양식의 한 계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무튼 세시풍속은 관습의 한 측면이거니와 일반적인 관습과 구분하여 그 개념을 규정짓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세시풍속의 주기성과 형태(form)를 들 수 있다. 주기성은 세시풍속을 일반적인 관습과 구분할 수 있는 우선적인 요소이다.

인간의 사회적 시간(social time)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유형(類型)이 있다.

한 가지는 시간주기 즉 A는 B를, B는 C를 수반하는 직선적(linear) 차원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일주일의 하루하루와 같이 시간의 연속이 한정, 무한정의 많은 시간들이 반복되는 주기적(cyclical) 차원이 그것이다. 양자의 복합으로 인간의 사회적 시간은 복합직선적(complex linear) 연속성을 지닌다.

세시풍속은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특수한 시계성(時季性)과 율동성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지닌다. 세시풍속이 특히 시계성과 율동성을 가지는 이유는 각종 의례행사가 ‘명절’ 혹은 ‘노는 날’, ‘신성한 날’로 인식되거나, 생산활동의 계절적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 세시신과 농경의례

한국의 농신[穀神]은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찾게 된다. 곧, 일정한 시기[계절]에 지상(農耕의 場)에 강림하였다가 다시 하늘 나라

로 돌아가는 내왕신(來往神)과 지상에 안주하는 지상신으로 분류된다. 물론, 이는 신의 이동을 중심으로 본 견해로 ‘영등할미’나 ‘태종신(太宗神)’이 전자에 속하고, ‘초당리부인지신(草堂里夫人之神 : 과거 강릉의 대성황사에 봉안되었던 농경신.)’이나 강릉관노가면극의 ‘장자마리’ 등이 후자에 속한다.

한국의 신은 성조신을 비롯하여 대부분 농신계의 신(神)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신화 중 대부분의 씨족 시조신화들이 신의 아들로 강림하고 있는데, 단군을 비롯한 신화상의 풍백·우사·운사가 모두 농신에 속하며, 주몽이나 혁거세·수로·알지 등 고대국가의 건국 시조신들이 또한 농신이다. 그들은 조령(祖靈)이면서 농신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신목이 세워진 곳은 우주의 중심이다. 주몽은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부여어라고 하나 본래의 뜻은 새 모양의 신이 내려왔은 신목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즉, 주몽이 큰 나무 아래에서 한 신모(神母)로부터 씨앗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상징하는 습속들이 있다. 곧, 고구려에서는 10월이면 목신(木神)을 세우고 제사했으며 삼한 때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귀신을 섬겼는데 이를 소도(蘇塗)라 불렀다.

강릉시 강문동(江門洞)에는 솟대가 있는데, 주민들은 짐대(진대)라고 부른다. 이 짐대 위에는 새가 있고 그 짐대를 잘 위해야만 농사 풍년이 든다고 전해 온다. 짐대는 긴 나뭇가지 위에 새 모양을 만들어 세운 신간(神竿)을 말하는데, 논바닥에 세워져 있으며, 그 옆에는 용정(龍井)이 있다.

강문동 윗 마을은 초당동으로 초당리부인지신이 이주한 곳이다. 초당리부인지신은 왜정 때만 해도 강릉 대성황사에 모셨던 분이다.

강릉시 성산면에 사는 한학자 권오규 할아버지에 의하면, 그 신은 원래 신라적 분으로 충청도에서 이곳 명주로 이주해 온 분이라고 한다. 그 신이 벼농사를 강원도에 맨 처음 전파시켰기 때문

에 신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강릉단오제에 등장하는 가면극을 관노가면극이라 한다. 주인공으로는 소매각시(1), 양반광대(1), 장자마리(2), 시시딱딱이(2)가 등장하는데, 이들 중 장자마리는 성적 모의행위를 통해서 풍농을 예견해 주는 농신 또는 해신이다. 장자마리는 일명 ‘배불뚝이’라고 부르는데, 뚱뚱한 몸에는 곡수(穀穗)나 식용해초가 너털너털 달려 있다. 그 형태로 보아서 곡신의 의인화임에 틀림없다.

영등할머니는 농신으로 바람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영등할미는 천상에서 내려와 2월 20일이 되어야 다시 상천한다고 전한다. 특히 영등신은 영등맞이(2월 1일) 이후 ‘영등할미’가 돌아가는 날인 20경에 절정에 달하는데 이 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조금 흐려도 길하다고 하는 점세적(占歲的) 믿음이 있다.

봉화군 북곡(北谷)에서는 영등할미가 2월 1일 딸을 데리고 보리씨를 가지고 내려온다. 딸은 2명, 맏을 때는 3명을 데리고 와서 가지고 온 보리씨를 먹고 가는데, 다 먹고 가면 그 해에 보리 흉년이 든다. 그러나, 딸을 1명 데리고 와서 보리씨를 먹다 남기고 가면 그 해는 보리풍년이 든다고 한다.

우리 민속에 ‘쌀어미’라는 곡신이 있다. 곡모신앙(穀母信仰)에서 나온 여신이다. 이 쌀어미는 결벽하고 질투가 심하여 대접을 소홀히 하거나 쌀을 흘리면 도망가 버린다. 그 신이 도망을 가면 그 집 농사는 끝장이 나고 패가망신한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 쌀어미는 부루단지나 신주단지에 담아 천장 높이 모셔 조석으로 예배를 했던 것이다.

조선조 태종 또한 곡령신으로 등장한다. 중부지방 모내기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밤송이에 가시가 생길 무렵인 5월 10일경이다. 이 5월 중순경에 조생종 벼를 심는다. 이 무렵에 꼭 비가 내려서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태종의 은덕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재위 22년에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마침 한발이 들어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를 보고 태종은, “내 상제께 청

하여 비를 오게 하여 백성을 구제하리라.”하고 돌아가셨다. 그는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항상 우순풍조(雨順風調)하여 풍년이 들기를 빌었다. 그는 몸이 불편하면서도 세종과 함께 용산 석전 구경을 가서 격려하고 포상을 한 임금이었다. 그러한 태종은 사후에도 그의 제삿날인 5월 10일경 모내기철에는 항상 흠족한 단비를 내려주어 농사짓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었으니 이를 ‘태종우(太宗雨)’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비를 신령스런 비라 하였으며, 어김없이 모내기철에 내려 주기 때문에 신의가 있는 비로 여긴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백성들이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태종의 능인 헌릉을 가리키며, “태종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는가.”라고 하면 그 날로 비가 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내기철인 5월 중순경에 비가 오면 농부들은 지금도 그것을 태종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유만공의 《세시풍요》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한다.

밤송이가 새로 맺어서 가시가 되려고 하는데,

5월 중순에 올벼를 심는다.

신령스런 비가 해마다 오는 것이 신의가 있으니,

지금까지 늙은 농부들은 선왕(先王)을 말한다.

<밤송이가 가시를 이룰 때 처음으로 벼를 옮겨 심으며, 태종우(太宗雨)는 조야사(朝野史)에 보인다.>

제주도의 세경신(世經神)도 역시 농경신이다. 제주도 무속제의의 제차 중 큰굿을 할 때 심방(무당)이 주로 농사와 가축의 풍등과 번성을 구송하는 본풀이의 하나이다. 세경본풀이는 농경관장신의 일대기를 다룬 신화로, 제주도 무가의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장편서사시의 존재양상과 무속서사시의 본디 모습 등을 알게 해준다. 세경본풀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김진국과 조진국 부부가 혼인 후 3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불공

을 올려 자청비라는 딸을 얻는다. 자청비는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천상국의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서로 사랑을 나누었으나 문도령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다. 자청비가 머슴인 정수남이를 데리고 문도령을 찾아나섰다가 정수남이의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머슴을 죽인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자청비는 집에서 쫓겨난다. 자청비는 천신만고 끝에 문도령의 부모를 만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문도령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불한당이 문도령을 살해한다. 이에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 꽃감과 막내딸을 돌보아주고 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문도령은 오지 않는다. 기다리다 못해 사연을 올리니 이에 문도령이 다급하게 돌아온다. 자청비가 옥황인 문선왕께 사연을 아뢰었으나 문성왕은 문도령을 두둔한다. 마침내 문선왕의 배려로 자청비는 상세경, 문도령은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에 봉하여진다.

또한 세경신을 위한 세경놀이가 있는데 이를 ‘세경무지침’이라고 한다. 이 놀이는 농상의 풍년을 빌자는 뜻에서 베푸는 일종의 유감주술극으로 세신(歲神)의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는 뜻이다. 놀이과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조·보리농사의 경작에서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먼저 주무가 세경놀이를 한다고 아되는 사설을 하면 여인으로 분장한 소무가 등장하여 배가 아프다고 한다. 세경놀이는 여인과 주무, 그리고 소무들간의 대화로 전개되는데, 배가 아픈 이유는 시집살이가 싫어 도망치던 여인이 건달총각과 정을 통해 임신한 때문임이 밝혀진다. 여인은 아이를 낳는데, 낳은 아기는 이미 배에 감아 묶었던 병 하나를 내놓는다. 팽골이라 이름 짓고 글공부를 시키나 못하므로 농사를 짓게 한다. 대주의 밭을 빌려 여장소무와 소무들은 밭가는 흉내를 내고 돌 고르는 것을 모의하면서 소리와 재담을 한다. 씨 뿌리고 밭을 밟고 김매고 익은 조를 거두어 묶고, 마소에 실어 운반하다가 타작하고는 빛을 깔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곡식을 광에 저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실연

하는 것이 세경놀이의 주요내용이다. 소무들은 필요에 따라 암소가 되기도 하고, 각종 모의를 하는데, 여장소무나 주무가 먼저 서두를 꺼내면 그 행위를 연출한다. 예컨대, 여장소무가 사설로, “자, 비자.” 하면 소무들은 베는 시늉을 한다. 그 다음, “뭉으자.” 하면 소무들은 신칼을 초석으로 싸 말아 뭉는다. 세경놀이의 전반부는 대화로 전개되지만 후반부는 지시하는 말(노래)에 의한 행위로 전개된다. 전반부는 팽돌이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연을 통해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후반부는 농사짓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실연한다. 제주도 무당굿놀이에서 세경놀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의 거리굿과 비교되는 자료이다.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고대 중국의 제왕인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를 주신으로 제사지냈던 곳이 선농단(先農壇)이다. 선농의 기원은 멀리 신라시대까지 소급되는데,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태조 이래 역대 임금들은 이곳에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선농제를 지냈다. 또한 제를 올린 뒤에는 선농단 바로 남쪽에 마련된 적전(籍田)에서 왕이 친히 밭을 갈아 백성들에게 농사일이 소중함을 알리고 권농에 힘쓰기도 하였다. 1476년(성종 7)에는 이곳에 관경대(觀耕臺)를 쌓아 오늘날의 선농단이 이룩되었다. 왕이 적전에서 친경할 때에는 농부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복 있는 사람을 뽑아 동참하게 하였다. 이처럼 왕이 선농단에서 친경하는 제도는 1909년을 마지막으로 일제하에서 폐지되었다.

사직신(社稷神)은 토지신과 곡신을 말한다. 보통 도성의 서쪽에 설치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성부 의인달방(儀仁達坊)에 있는데 지금의 사직공원 자리이다. 그 규모는 단을 2개로 만들어 사단은 동쪽에, 직단은 서쪽에 배치하여 사방이 각각 2장 5치로 북쪽에서 남으로 행하게 하였고 높이는 3척인데 사방으로 계단 3층을 쌓았다. 사단에는 국사의 신위를 남쪽에서 북을 향하여 봉안하고 후토

신(后土神)을 배향시켰으며, 직단에는 국직(國稷)의 신위를 봉안하고 후직의 신을 배향시켰다. 제례는 문묘(文廟)와 종묘의 예에 따르고 2월과 8월 및 동지와 제석(除夕)에 행하였다. 그 밖에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와 가뭄에 비를 비는 기우제와 풍년을 비는 기곡제 등을 여기에서 지냈다. 또한, 각 지방에서도 관아의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치제하여 국태민안과 풍년을 빌게 하였다.

한국의 경우 조령신앙과 곡령신앙은 가장 오래된 신앙으로 자리 잡아 왔다. 신은 남성뿐 아니라 초당리부인지신(草堂里夫人之神)과 같이 여신도 존재한다. 신의 이동은 내왕신이 있는가 하면, 불박이신도 있다. 제주도의 세경놀이 이외에 황해도의 농신 내방행사(來訪行事), 기호지방의 거북놀이, 남서부지방의 소놀이, 중남부 지방의 가장놀이와 전국의 지신밟기, 별신굿은 모두 농경의례에 따른 민속놀이로 볼 수 있다.

우리 민속의 공동체 놀이와 가장연희(假裝演戲)는 대부분 농신강림(農神降臨) 제의를 극화시킨 것이다. 곧, 신의 판을 만들어 신과 인간이 신명을 지피는 ‘희락사모지사(戲樂思慕之事)’가 정작 한국판(놀이판)의 주제라 할 것이다.

3. 세시풍속과 농사점

한국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상의 변이 속에 살아온 민족이다. 그러기에 한국인의 성격 형성도 농경민족의 세시(歲時) 순화·주기 속에서 이룩되었다고 하겠다. 그들은 반복 순환하는 자연현상에 순응하였고, 그를 극복하여 적절한 리듬을 타고 살아갈 수 있는 슬기와 힘까지 발견하게 된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농사점이다.

농사점은 정초에 한해의 풍흉을 미리 점쳐보는 점세법(占歲法)

의 하나로 일명 농점(農占) 또는 농사점(農事占)이라고도 한다. 점세법에는 연초에 거리에 나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1년간의 길흉을 미리 점치는 청참(聽讖), 설날에 오행에 의하여 신수를 보는 오행점, 역서, 비결참서(秘訣讖書)로 그 해 운수를 점치는 토정비결점, 가정에서 부녀자들과 아동들이 옷을 세 번 던져 그 괘를 만들어 점치는 옷점, 그리고 가장 많은 농점인 일기점, 곡물점, 소점(牛占), 새점[鳥占], 우물점[泉占], 키점[柳箕占], 수점(數占) 등이 있다.

이처럼 점세법 중에서 농점이 가장 많은 까닭은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祭天儀式)과 중농사상(重農思想) 때문이다. 천수답에 의존했던 우리 민족은 항시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하늘에 빌고 농곡(農穀)의 풍양(豐穰)을 빌었다. 풍양을 기원하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미리 결과를 알고 싶어 했고, 이러한 심리에서 연초에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농점이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별자리를 보고 풍흉을 점친 습속은 이미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예전에 보인다. 즉, “마포(麻布)와 누에가 있고 면(棉)을 만들었으며, 새벽에 별자리를 보고 그 해에 풍년이 들 것을 미리 알았다.”¹⁾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책 부여전에는, “군사(軍事)가 있을 때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그 말굽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²⁾고 되어 있어 이른 시기에 동물에 의한 점세법(占歲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근세에 들어 《동국세시기》 등 몇몇 세시기에 농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농점의 방법을 그 유형별로 나눠 보면 날씨와 자연현상에 의한 것, 동·식물에 의한 것, 민속놀이에 의한 것, 민간의지적인 것 등이 있다.³⁾

1) 有麻布蠶桑 作絲 曉侯星宿 豫知年歲豐約. [《三國志》 魏書 東夷傳(濊)]

2)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 以占吉凶. [《三國志》 魏書 東夷傳(夫餘)]

3) 任東權, 《韓國歲時風俗研究》, 集文堂, 1985, p. 129(自然現象과 民俗놀이, 人爲的인 것으로 나눔).

1) 자연현상에 의한 농사점

날씨와 자연현상에 의한 농점은, 곧 월점(月占)이나 용갈이[龍耕]처럼 천체나 기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농점이다.

《농가월령가》 정월령에,

상원날 달을 보아 수환(水旱)을 안다 하니
노농(老農)의 징험이라 대강은 짐작나니

라 하였거니와, 상원날에 달을 보아 그 해 풍흉을 점쳤다. 이 날 달맞이[迎月]를 하는데 달을 제일 먼저 보면 길하다고 믿어 서로 먼저 달을 보려는 속신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때 달의 색깔로 점까지 쳤다. 달의 색이 붉으면 가물 징조이며, 백색이면 수재가 올 징조다. 또 달의 윤곽과 사방의 후박(厚薄)으로 1년 농사를 점쳤는데 달의 사방이 두터우면 풍년의 징조이고 얇으면 흉년이 들 징조이며, 조금도 차이가 없으면 평년작이 될 징조라고 점쳤다.⁴⁾

달뿐만 아니라 별을 보고도 농점을 쳤다. 2월 초엿새날 밤 쯤생이별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쳤다. 곧, 쯤생이별이 달보다 앞서 가든가 또는 달과 멀리서 뒤 따라가면 풍년이 들지만, 달 뒤에 바짝 따라가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⁵⁾ 달은 ‘밥광주리’이고 쯤생이별은 ‘아이들’이라고 설화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배가 부르면 밥광주리에는 관심이 없어서 밥광주리의 앞에 가든가 또는 훨씬 멀리 가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밥광주리에 관심이 커서 바짝 뒤 따라간다고 믿었다.

《농가월령가》 2월령에도,

4)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 迎月.

5) 《洌陽歲時記》. 二月 六日.

이월은 증춘이라 경칩 춘분 절기로서
 초육일 쯤생이는 스프날 음청으로
 대강을 짐작나니⁶⁾

라고 되어 있어 이는 2월에 꼭 보고 넘어갔던 과학적 세시 점
 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쯤생이란 28성수(星宿) 중의 묘
 성(昴星 : 牡牛座에 있는 일군단)의 속성으로 서양의 폴레아데스
 라는 오미조밀한 많은 별의 무리를 이른다. 육안으로는 6개~14
 개를 셀 수 있지만 망원경으로는 100개 이상이 보이고 사진으로
 는 2,000개 이상이 촬영된다⁷⁾고 하는데, 《열양세시기》에 ‘험지
 파중(驗之頗中)’이라고 그 효험을 말했듯이 쯤생이점(쯤생이보기)
 이 그토록 잘 맞았던 것 같다.

《해동죽지》에는, “달의 일장(一丈) 짐을 따르면 풍년이오 달보
 다 앞서 일장이면 흉년이 든다.”⁸⁾고 했다. 쯤생이점은 거리뿐 아니
 라 그 빛깔로도 보는데 쯤생이 빛깔이 붉으면 가뭄이 심하고, 물을
 먹은 듯 약간 투명하면 비가 와서 곡식이 잘 된다고 한다.⁹⁾

강원도 통리 사람들은 그 동네 샘물의 물빛으로 풍흉을 점친다.
 물빛이 조금 뿌옇거나 붉은 색이면 그 해가 흉년이고 색깔이 맑
 으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¹⁰⁾ 그러나 농점의 대부분은 구름, 안
 개, 비, 눈, 우박, 번개 등으로 장차에 있을 수확의 성장, 한발, 재
 앙, 질병 등을 예측하는 일기점이라 할 수 있다.

- 설날 안개가 끼면 악질이 전염할 징조다.
- 정월 보름날 구름이 끼면 벼농사에 해롭다.
- 백로날 전후에 바람이 불면 다 된 농사도 허사가 된다.

6) 《東國歲時記》, 2月 月內.

7) 崔南善, ‘占昴(쯤생이)’, 《朝鮮常識》, 1948, p. 24.

8) 崔永年, ‘名節風俗’, 《海東竹枝》中編, 獎學社, 1921, p. 14.

9) 李江魯,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京畿篇), 1978, p. 422.

10) 金善豐, ‘동리의 험년천과 안장바위’, 《韓國口碑文學大系》(2~3), 江原道
 三陟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p. 276~277.

- 처서날 비가 오면 독안의 곡식도 준다.

는 말은 오랜 동안 농가의 견문과 경험에서 우리나라 농언(農諺), 곧 농사에 관한 속담인 것이다.

농가에 널리 전파되어 애송되고 있는 칠언절구식 <십이월절후 풍임가 十二月節侯豐稔歌>는 절후에 따른 영농법과 농사점을 노래한 속담시이다.

이처럼 농점의 대부분은 날씨와 자연현상에 대한 것이며 날씨와 자연현상에 대한 선형적 지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슬기롭게 점을 쳤다.

2) 동·식물에 의한 농사점

동물과 식물[곡물]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대개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유감주술(sympathetic magic)적 점복행위에 속한다. 소점은 소의 발톱을 보고 치는 것으로 현재도 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 삼남지방에 많이 분포된 점세법이다. 동물에 의한 농점 중에서 새점은 인도·동남아·중국의 중남부·일본 등 수도 재배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점세의 방법이거니와 우리의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축조(逐鳥)를 통한 풍농을 기원하는 모방주술이 보인다.¹¹⁾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관동 산간 지방 풍속에, 여러 아이들이 일제히 온갖 새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는 시늉을 한다. 이 또한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뜻”¹²⁾이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 책에,

“닭울음점(鷄鳴占)은 설날 꼭두새벽에 닭이 첫 번 우는 소리를

11)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p. 208.

12)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

기다려 그 우는 횃수를 세어 농점을 치는 것으로 열 번 이상 울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¹³⁾

고 설명하고 있다.

설날 새벽녘에 거리에 나가 방향 없이 돌아다니다가 날짐승이건 길짐승이건 처음 듣는 소리로써 일 년의 운수를 점치는 것을 청참이라 하거니와, 까치소리를 들으면 풍년이 들고 개인의 행운이 오며, 까마귀나 참새소리를 들으면 흉년이 들고 개인적으로 불운이 닥친다고 믿었다. 또 짐승의 동작으로도 점을 쳤으니, 소가 일찍부터 거동하면 풍년이 들고, 송아지가 울어도 연사(年事)가 풍조이며, 도깨비불이 일어도 길조이고, 개보다 사람이 먼저 일어나면 한 해를 무료하게 보내게 된다고 전한다. 《열양세시기》에 의하면,

“황해도와 평안도 풍속에, 보름 전날 밤 닭이 울 때를 기다려 집집마다 바가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정화수를 길러 가는데 이를 ‘용알뜨기’, 곧 ‘노룡란(撈龍卵)’이라고 하는데, 맨 먼저 걷는 사람이 그 해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¹⁴⁾고 한다.”

용은 비와 물을 다루는 영물로 민간에서는 보고 있다. 책력에 의하면, 해에 따라서 삼용치수(三龍治水), 오룡치수, 칠룡치수, 십일룡치수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거니와 그 해 용의 수를 보고 그 해 비가 많이 올린 지 적게 올린 지를 점쳐 알게 된다. 곧, 비를 다루는 용의 수가 적으면 그 해에는 비가 알맞게 와서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치수를 하는 용의 수가 많으면 가물어서 농사가 흉작이 된다고 한다. 이는 용의 수가 많으면 잘 화합할 수가 없고 서로 미루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믿는 속신에서 온 것이다.

동짓달에 들어 홍천(洪川)의 합덕지(合德池)에는 해마다 겨울에 용이 땅을 가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13) 《東國歲時記》，正月 上元.

14) 《東國歲時記》，正月 上元.

세로로 언덕 가까이 갈아 나간 자취가 있으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복판을 횡단하여 갈아 나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혹, 동서남북 아무데로나 종횡으로 일정하지 않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를 일러 ‘용갈이[龍耕]’라 하고 용갈이 현상이 다음해의 풍흉을 적중시킨다고 믿고 있다.¹⁵⁾ 이 용갈이 현상은 조선조 《태종실록》(8년 무자 정월·병자)에도 보이는데,

“연안부(延安府)의 남쪽 못은 신룡(神龍)이 있어 고로들이 서로 전하기를, 해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것을 용경이라 하니 그 짜임새로서 점을 쳤고, 물이 넘쳐 가로로 못 가운데 얼음을 잘라서 흙이 서로 갈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흉년이 든다고 점치는데, 올해 겨울에는 갈라졌으니 풍년이 들 조짐이라.”¹⁶⁾

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동절기에 눈 온 뒤에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하여 마치 밭고랑 같은 줄이 생겨 연못의 빙판이 고랑이진 것처럼 되는데, 선인들은 이런 현상을 용경이라 했고, 이런 현상도 풍흉의 징후로 해석하였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속초 청초호에도 용경현상이 있는데, 남쪽을 향해 갈아났으면 풍년이 들고, 북으로 향해 엇갈이로 갈아났을 때는 흉년이 든다고¹⁷⁾ 한다.

식물점으로는 보리뿌리점, 곧 맥근점(麥根占)이 그 대표가 될 것이다. 농가에서는 입춘날에 묵은 보리뿌리를 캐어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그 보리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평년이고,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든다고 ¹⁸⁾한다.

이 보리뿌리점은 정월 초하룻날 하는 곳도 있고 동짓달에 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보리뿌리를 캐어 보아

15) 《東國歲時記》, 月內.

16) 《太宗實錄》, 太祖 8年 戊子 正月丙子.

17) 金善豊, <청초호의 유래>, 《韓國口碑文學大系》(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p. 165-167.

18) 《洙陽歲時記》, 正月 立春.

한 개면 그 해는 가물 것이고, 두 개면 풍년이 들지만, 세 개면 수재가 난다고 한다.

입춘 무렵이면 추위도 거의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 동안 날씨가 따뜻해서 보리가 잘 자랐으면 뿌리가 많아서 잘 성장할 징조이고 풍작을 이룰 것이지만, 한해(寒害)나 한발(旱魃)이 심하거나 비료가 모자라면 잘 자라지 않고 흉년이 들 것이므로 맥근점(麥根占)은 현실성이 있었고 오늘날도 농가에서 간혹 볼 수 있다. 이 밖에 곡물로 하는 점도 여기에 속한다.

3) 민속놀이에 의한 농사점

한 해 농사를 줄다리기, 햇불놀이와 같은 민속놀이의 승패로 풍흉을 점치는 방법도 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호서지방에서는 햇불싸움으로 점을 쳤다. 즉, 햇불싸움을 하고 또 편을 갈라 줄다리기도 했는데 끌려가지 않는 편이 승리를 하는 것이며 풍년을 차지한다.”¹⁹⁾고 하였다.

줄다리기는 농경의식의 일종으로 농경사회에서는 널리 전파되어 있고, 농경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대개 줄다리를 해서 풍년이 들 것인가 흉년이 들 것인가를 점복하였다. 대개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싸움놀이를 하는데 이긴 편이 풍년이 든다고 믿고 있다. 또 동네에 따라 암줄과 수줄의 대결, 곧 여자와 남자로 패를 갈라 줄다리를 하는데, 여자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고 있으며 대개 여자 쪽이 이기도록 되어 있다. 전남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고싸움놀이’도 줄다리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놀이이다.

동해안 삼척시에서는 2월 보름에 게줄다리를 하는데 해안지방인 부내(府內)와 산간지방인 말곡(末谷)이 서로 승부를 겨룬다. 이 때 말곡 편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부내 편이 이기면 풍여가

19)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

든다고 믿고 있어 그 승부에 집착이 대단하다.²⁰⁾

춘천과 가평 지방에는 차전놀이가 있어 그 승패 여하에 따라 풍흉이 판가름된다. 외바퀴수레[獨輪車] 싸움인 차전놀이는 춘천의 서낭신인 신승검 장군을 추모하는 모의전쟁놀이(mock battle)이다. 이 놀이를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고 연사(年事)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놀이 이상의 기능 때문이다.²¹⁾ 농사가 하늘의 뜻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되듯이 승부놀이인 차전²²⁾ 역시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고 서낭신의 뜻대로 결정된다는 점복적 판단이 깃들어 있다.

석전(石戰) 역시 그 승부에 의하여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관행이 있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삼문(三門) 및 아현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편을 가르든 다음, 혹은 몽둥이를 들고 혹은 돌을 던지고 고함을 치면서 달려들어 접전하는 모양을 만리현 위에서 행한다. 이것을 변전(邊戰)이라 한다. 그리하여 패주하는 편이 지는 것이다. 속전(俗傳)에 삼문 밖 편이 이기면 경기도 안에 풍년이 들고, 아현 편이 이기면 여러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용산과 마포의 불량소년들은 작당하여 아현 쪽을 돕는다. 그것이 매우 심한 싸움을 때에는 고함치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머리를 싸매고 서로 공격하는데, 이마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고 하여 피를 보고서도 그치지 않는다. 비록 사상(死傷)에 이르러도 후회하지 않고 또 생명에 대한 보상법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돌이 무서워 회피하고, 이를 금지시켜야 하는 관청이 이런 싸움을 못하도록 금지해도 고질이 된 악습이 온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그 후 성안의 아이들도 이를 모방하여 종가(현 종로 네거리)와 비파정 등에서 편싸움을 했으며, 성

20) 金善豊, ‘三陟 기줄다리기에 대하여’, 《韓國民俗學》 제8집, 1975, pp. 69~77.

21) 金善豊, ‘외바퀴 수레[獨輪車] 싸움 研究’, 《韓國民俗學》 제19집, 1986, pp. 155~162.

22)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

밖에서는 만리현과 우수현이 편싸움의 장소가 되었다.”
고 하였다.

또 같은 책에,
“안동 풍속에, 매년 정월 16일이 되면 부내(府內) 시민들이 중계천(中溪川)으로써 경계를 삼아 좌우 양편으로 나뉘어 돌을 던져 서로 싸워 승부를 결정했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풍속에도 정월 보름날 돌을 던져 싸우는 놀이가 있다. 생각건대, 《당서》 <고려전>에, ‘매년 초에 군중들이 패수 가로 모여 노는데 물과 돌을 서로 끼얹고 던져 밀리기를 두세 번 하다가 그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풍속의 석전의 시초다.”²³⁾

라고 하였다.

손진태는 석전의 민속학적 의미를,
“고구려나 신라시대의 석전은 농업과 전연 관계없는 수호신전(守護神殿)의 연무적(鍊武的) 의전(擬戰)이었을 것이나, 석전이 전쟁과 인연이 떨어진 후세에 다른 의전의 점세적 성격에 유추되어 단순한 승부행사로서 점세적 연중행사로 인정된 것²⁴⁾이라고 논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석전의 역사는 승리를 기원하는 군신신앙(軍神信仰)에서 단순한 승부와 점세적 행사로 변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택규는, 농경문화권에서의 이러한 의례적 점세행사에는 소년·소녀의 성장 및 생산의 가능성에 대한 신앙적 관념이 바탕이 되어온 것이기 때문²⁵⁾이라고 보고 있으며, 김열규도 우리나라에 많은 수변석전(水邊石戰)은 시년식의 일부이며, 생산력 증대의 목적으로 양과로 나뉘어서 수중 혹은 하변(河邊)에서 석전회를 행하는 것은 강하(江河)가 가지는 생생력(生生力)을 한층 더 증가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⁶⁾

23)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

24) 孫晉泰, ‘石戰考’, 《韓國民族文化의 研究》, pp. 131~133.

25)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p. 222.

26) 金烈圭, ‘韓國民俗信仰의 生生象徵의 研究’, 《亞細亞問題研究》 9권 2호, 1967, p. 189.

제석의 폭죽놀이와 유사한 민속놀이를 상원의 ‘달집사르기’ 놀이를 들 수 있다. 경북 청도에서는, 달집을 짓고 이것을 사를 때 달을 보고 풍년을 기원하며 달의 크기와 색에 의하여 풍흉을 점친다. 아들이 없는 여자는 속옷을 달집과 같이 사르거나 달집이 타고 난 재로써 잣물을 받아 속옷을 세탁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²⁷⁾

전북 남원의 경우는 달집 속에 대나무를 넣어서 폭죽과 같은 소리를 내어 그 소리로 액을 쫓아 버리고, 동래나 달성의 경우는 달집이 타서 기울어지는 화세(火勢)로써 풍흉을 점친다.²⁸⁾ 생솔가지와 짚단, 그 밖에 현 동정, 옷섬, 땡기, 연 등을 쌓아 놓은 달집이 잘 타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한다. 또 달집이 타서 쓰러지는 쪽의 고장은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햇불놀이, 들불놀이, 달불놀이 등 상원의 회화행사(戲火行事)는 우리 선민들의 불에 대한 배화(拜火) 내지 숭화(崇火)사상을 나타내며 신성한 불을 통한 점세적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농경의례는 정월의 기풍의례, 오월과 칠월 사이의 성장의례, 구시월의 수확의례로 나눌 수 있거나와 그 중 기풍의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월의 농경의례는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는 순수한 예축(豫祝)을 위한 것과 그 해의 수확을 미리 점쳐 보려는 점풍을 위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50여 가지의 정월 의례 중에 기풍에 관한 것은 11가지에 불과하나 점풍에 관한 것은 34가지로 점풍의례가 압도적이다. 민속놀이를 점을 치는 것은 의례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농사의 앞날을 미리 알아보려는 조바심의 심리가 발동한 결과인 것으로 안다.²⁹⁾

27) 金烈圭, ‘韓國民俗信仰의 生生象徵的 研究’, 《亞細亞問題研究》 9권 2호, 1967, p. 200.

28) 村山智順, ‘月の家焼き’, 《朝鮮의 郷土娛樂》, p. 109.

29) 金光元,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2, p. 40.

4) 민간의지에 의한 농사점

민간의지(民間意志)에 의한 농사점으로 목영점(木影占) 곧, 그림자점, 사발재점, 달불음[月滋], 집불음[戶滋] 등을 들 수 있다.

그림자점은 대보름날 달이 중천에 뜰 때 농가에서 뜰 가운데 한 자가 되는 나무를 세워 놓고 그 나무 그림자를 보아 그 해 풍흉을 점치는데, 그림자가 여덟 치[八寸]면 풍우가 순조로워 대풍이 들고, 일곱 치나 여섯 치가 되어도 모두 길하며, 다섯 치가 되면 불길하고, 네 치가 되면 수해가 있고 해충이 성행하며, 세 치면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³⁰⁾고 한다.

또 사발재점은 대보름날 저녁에 농가에서 사발에다 재를 담고 그 위에다 곡식 씨 여러 가지를 재에 놓은 다음 그것을 지붕 위에다 얹어 놓았다가 새벽에 저절로 떨어진 곡식 종자를 보아서 그 해에 그 곡식이 풍년될 것임을 예측하는 농점이다.³¹⁾

집불음과 달불음 역시 인간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농점법이다. 대보름날 농가에서 콩 열두 알(윤년이면 열세 알)에 열두 달을 각각 표한 뒤에 수수깁을 짜개어 그 속에 콩을 열두 달 차례로 박은 다음, 짜개낸 한 쪽 수수깁을 맞춰 덮고 노끈으로 동여매서 우물에 집어 넣었다가 그 이튿날 꺼내어 보아서 그 콩알들이 분고 안 분는 것으로 그 달의 수해, 한해, 평년작을 징험하는데 이를 ‘달불음(달불이)’이라 한다. 또 동네 안의 호수(戶數)대로 콩을 골라 각 콩에다 호주의 표시를 하고 짚으로 묶어 우물에 넣었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꺼내 보아 콩알의 분은 것은 그 해에 그 집이 부유해진다고 하는데 이 점을 ‘집불음(집불이)’이라고 한다.³²⁾

앞에 든 농점들은 단지 어떤 자연현상만을 보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연현상을 조사한다거나

30)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

31)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

32)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

실험하여 과학적인 징후들을 찾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용갈이는 원래 자연현상을 통한 농점이지만 충청도 용천지방에서 성행한 용갈이는 단순히 주어진 현상을 통한 점법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인간행위와 의지가 깃든 점법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용천(龍川) 지방에서는 정월 14일 밤에 열두 그릇(12개월)에 물을 담아 밖에다 얼게 하여 15일 밤에 보아서 얼음의 양이 많은 그릇에 해당하는 달은 비가 많고 적은 달은 우량이 적다고 점친다.”³³⁾

고 하였다.

위와 같이 농점은 풍수가나 점복가가 점치는 것이 아니라, 농사 경험을 많이 한 고로(古老)와 박식가, 일관(日官)에 의해 점쳐지고, 과거부터 전승된 여러 농가의 지식도식에 의해서 점쳐지고, 당년의 책력에 기록된 문자와 간지에 의해서 점쳐진다. 즉, 대부분의 농점은 그 나타난 현상의 징후를 선험적(先驗的) 지식만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지만, 이처럼 적극적인 인간행위로 점쳐보려 했던 의지도 얼마간 있었다.

인간의 인위적 의지는 토정비결이나 오행점을 낳게 했다. 농사 점을 월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설날 : 설날은 1년의 시초이니 설날 날씨는 바로 1년 날씨의 예조(豫兆)이며, 따라서 설날의 날씨를 보아서 연사를 점쳤다.³⁴⁾

- 1일에 대설이면 오곡풍작이나 축재(蓄災)가 있고 과일이 흉작이다.
- 1일에 눈 오면 흉작이다.
- 1일에 동북풍이 불면 오곡이 풍등하고 서북풍이 불면 대수(大水)가 있다.

33) 柳完熙, ‘朝鮮各地の風俗の内かう’, 제 1집, 1927, p. 7.

34) 金東縉, ‘占元朝日陰晴’, 《家庭百方吉凶秘訣》, 德興書林, 1924, pp. 111~112.

- 1일에 폭풍이면 축제가 있고 한발로 채소가 적다.
- 1일부터 5일 사이에 날씨가 흐리면 악역(惡疫)이 전염할 징조다.

② 입춘 : 한국 속담에 ‘보리고개[麥嶺]가 가장 험하다’고 하거나 와 이 날 보리뿌리점을 친다. 입춘날에는 일진(日辰)의 간(干)을 보아 점을 치는데³⁵⁾ 이는 원단(元旦)의 점세처럼 입춘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입춘일에 이 날이 갑(甲)이면 풍숙(豐熟)하고, 병정(丙丁)이면 대한(大旱)³⁶⁾이라고 했다. 세전(歲前)에 입춘이 들어 있으면 대풍이고 입춘날 아침에 동북풍이 불면 오곡이 대풍하고 또 서북풍이 불면 홍수가 있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믿었다.

③ 14일 : 14일은 ‘누더름날’ 곧, ‘늦여름날’이란 뜻이다. 즉 13일은 춘절, 14일은 하절, 15일은 추절, 16일은 동절로 치며, 또 서로 관계가 있다고 믿어 왔다. 그래서 14일은 바로 하절의 전조(前兆)가 나타난다고 믿었다. 따라서 14일에 남에게 식수를 주면 김매는 날에 폭우가 와서 김매는 날[除草日]에 논두렁이 무너진다고 믿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서로 식수를 주지 않는다.³⁷⁾ 농작물의 성장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는 농경민족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14일 밤부터 15일 사이에 농가에서는 점세가 가장 많다.

④ 상원 : 정월 15일인 상원날에는 자연현상이나 오락, 동물 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연사와 길흉을 점치는 풍속이 많았다. 정월보름 이른 새벽에 닭이 첫 번 우는 소리로 점을 친다. 민간에서는 닭이 많이 울수록 풍년이 든다고 해서 길조로 여겼다. 또 정월

35) 金東縉, ‘占元朝日陰晴’, 《家庭百方吉凶秘訣》, 德興書林, 1924, p. 109.

36) 《山林經濟》, 朝鮮博物志, 朝鮮研究會本, p. 329.

37) 方鍾鉉, 《歲時風俗集》, 研學社, 1946, p. 17.

보름날 어느 새보다도 까치가 먼저 울면 그 해는 대풍이지만, 까마귀가 울면 흉년이 될 징조로 여기어 짐승의 울음으로도 길흉의 예조를 판단하였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월 보름날에는 석전이 나 줄다리기, 차전, 햇불놀이 등의 민속놀이까지도 점복적 의미를 부여하여 농사점을 쳤다. 정월 보름날의 일기점으로는,

- 정월 보름날 안개가 끼면 흉해가 많다.
- 정월 보름날 쾌청하면 풍년이 든다.
- 정월 보름날 아침에 바람이 불면 2월에 영동바람이 세다.

는 등 꽤 많은 일기점이 전해지고 있다.

농사점과는 다르나 지역에 따라서는 생산을 위한 금기 사항도 전해 온다. 평안도 지방의 삼[麻] 농사를 많이 하는 곳에서는 정월 15일 아침에 키가 작은 사람이 찾아 오는 것을 꺼리고 키가 큰 사람이 찾아 오면 반기고 잘 대접한다. 키가 작은 사람이 찾아 오면 삼이 크지 않고 키가 큰 사람이 찾아 오면 삼이 크게 자란다³⁸⁾고 믿기 때문이다.

⑤ 2월 : 2월달을 ‘영동달’이라고 한다. 2월 초하룻날에는 ‘영동할머니’라는 바람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 온다고 해서 바람에 관한 일기점이 많다.

- 2월 초하룻날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들고 비가 오면 풍년이 들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
- 2월 초하룻날이 바람영동이면 그 해는 바람부는 날이 많고 비가 오던가 구름이 끼면 그 해는 비가 흔해서 농사가 잘 된다.
- 2월 초하룻날 햇빛이 짹짹 쪼이면 그 해는 가뭄이 진다.
- 2월 12일에 바람이 불고 20일에 비가 오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

38) 宋錫夏,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p. 85.

⑥ 3월 : 삼월에는 점복이 가장 적고 민간에만 농점법이 전할 뿐이다.

- 4일날 번개하면 대풍이다.
- 그믐날 비가 오면 보리가 흉년이다.
- 청명날 남풍 불면 풍작이다.
- 한식날 서리가 내리면 대 한발이 온다.
- 늦봄에 고드름이 얼면 풍년이 든다.

⑦ 4월 : 4월에 들어 입하가 되면 초여름이 시작되는데 입하날의 일기로써 점을 쳤다.³⁹⁾ 4월의 일기점으로는,

- 초8일에 비오면 풍년이 든다.
- 갑자일에 천둥하면 해충이 많다.
- 1일에 동풍이면 콩에 좋고, 남풍이면 옥수수에 좋고, 종일 바람 불면 5곡이 대풍이다.

⑧ 5월 : 5월에는 하지의 일기로 점을 쳤다.⁴⁰⁾ 민간에 전하는 점복은 다음과 같다.

- 3일에 비오면 흉수가 있다.
- 5월에 망종이 들면 보리농사가 늦어 또 흉년이 든다.
- 하지에 비오면 풍년이 든다.

⑨ 6월 : 6월에는 비교적 점복속이 적다.

- 1일에 비오면 쌀이 귀하다.
- 삼복에 크게 더우면 겨울에 우설(雨雪)이 많다.

39) 金東縉, '占元朝日陰晴', 《家庭百方吉凶秘訣》, 德興書林, 1924, pp. 109~110.

40) 金東縉, '占元朝日陰晴', 《家庭百方吉凶秘訣》, 德興書林, 1924, p. 110.

- 6월에 파리가 없으면 곡가(穀價) 오른다.
- 6월 아침에 천둥하면 풍년이 든다.

⑩ 7월 : 7월에는 입추, 칠석 등이 있어 점복하였다.⁴¹⁾ 일기점으로
는,

- 1일에 비오면 쌀이 귀하고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 4일에 비오면 벼에 쪽정이가 많다.
- 천둥하면 양반이 많이 죽는다.

⑪ 8월 : 8월에는 추석과 추분⁴²⁾이 있다. 이미 농사일이 끝났으니
동절의 일기와明年的 일에 대하여 점복하였다.

- 가을에 바람이 없거나 구름 끼면 명춘에 비가 적다.
- 1일 대풍이면 명년에 춘한(春旱), 하우(夏雨).
- 1일에 청명하면 동한(冬旱).

⑫ 9월 : 9월에는 비교적 점복속이 적다.

- 1일에 서리가 내리면 백성이 손해 본다.
- 초순에 비바람이 있으면 명년 여름에 홍수진다.
- 구월에 천둥치면 쌀이 귀하다.

⑬ 10월 : 10월도 점복속이 적다. 《산림경제》에,

“삭에 풍우하면 수가 유하고 회일에 우래하면 맥에 호하고 15일에 청
하면 동난하니라.”
라고 되어 있다.

41) 金東縉, ‘占元朝日陰晴’, 《家庭百方吉凶秘訣》, 德興書林, 1924, p. 110.

42) 金東縉, ‘占元朝日陰晴’, 《家庭百方吉凶秘訣》, 德興書林, 1924, pp. 110~111.

⑭ 11월 : 11월초의 천간일에 의해 한우와 농곡의 성장을 점쳤고, 또 풍운으로 연사, 질병 등을 점쳤다. 동짓날의 일기점으로,

- 동짓날 추우면 명년에 호랑이가 많다(해충이 적다).
- 동짓전에 결빙하면 대풍, 동지 후에 결빙하면 흉년.
- 동짓날 밤에 청명하면 흉년이다.

등등이 있다.

⑮ 12월 : 12월은 1년 마지막 달이니 송구영신하는 것과 세시적인 여러 점복속이 전한다.

- 동절에 얼음이 두터우면 명년에 풍년이 든다
- 결빙 후에 다시 물이 빠지면 명년에 가뭄이 든다.
- 신달 그믐날 밤이 캄캄하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
- 처마 끝 고드름이 많고 굽으며 길면 풍년이 든다.⁴³⁾

5) 월령체가의 농사점

문학으로서의 농사점속(農事占俗)은 주술적인 무가와 민요, 세시 가[달거리가], 속담시, 금기어, 길조어 등에서 시가 형태로 나타난다.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 마지막 발사(跋辭)를 살펴보기로 하자.

“하쇼정 빈풍시를 성인이 지어시니 이 뜻을 본받다서 대강을 기록하니 이글을 자세이 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얼핏 우리 월령가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듯하다. 그러나 빈풍시(飢風詩)의 시정신을 본받자는 것이지 <농가월령가> 자체

43) 任東權, 《韓國歲時風俗研究》, 集文堂, 1985, pp. 102~117.

를 빈풍과 똑 같이 지었다든가 인용문을 그곳에서 차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인이 지은 빈풍시를 중국인이 따르듯이 이 월령가를 읽고 농가악(農家樂)을 즐기며 점풍(占豐)도 하며 농사에 힘써보자고 권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민간의 중지가 민속문화에 반영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그 특징을 찾아야 한다. 하나는 시가로서의 운문적 출발이요, 또 하나는 설화로서의 산문적 출발이다. 시가로서의 출발은 원시적 단계에서 주술적 표현양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짧은 형태 속에 응축된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미적 감각과 슬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설화는 역사의 장이요 설명의 장이다. 전자가 외계[他我]를 소화시켜 축소화하는 작용을 한다면, 후자는 자아(自我)를 외계로 발산, 확대해 나아가는 기능의 차이를 보인다.

신의 도움으로 풍농이 되기도 하고 흉작이 되기도 한다고 믿었던 옛 부족사회부터 주원적인 점복행위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주문과 주문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함에 일년 농사를 짓는 예지를 노래한 농사점 노래(農占詩)가 있는가 하면, 농사방법이나 세시풍물을 같이 노래한 달거리요(농사요, 월령가)가 생겼다. 그러나 이들 둘 다 교술적인 목적성은 같다.

농경사회에서 그 많은 신들에게 매달리는 것도 기실 풍년을 향한 일념 때문이었다. 풍신이 등장해도 토지신이 등장해도, 서낭신이 등장해도 오곡풍등(五穀豐登)을 우선 기원한다.

풍신님께 축원 발원드립니다

요금년 농사짓거든

짐바질이 저진봉 해드리고

또배 바쳐 여진봉 해드리고

독위에다 독을 엮고

섬위에다 섬을 엮고

앞에노적 뒤에 노적

명에노적 줄노적

국수노적 쌀노적
쌍아농게 하읍소서
인복은 걸어들고
구렁복은 기어들고
두껍복은 뛰어들고
꿀복은 흘러들어
시시문전 개짓듯이
만복대로 내려주소
동서남북 사해팔방
다니드라도 병없이 탈없이
재수신망 띄어주고
입설수 구설수
관재구설 삼재팔란
활로살로 막아주읍소서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 10리 3반, 신재선(54), 1975 조사)⁴⁴⁾

우리는 기우제를 지낼 때 군주 백성 할 것 없이 얼마나 풍농을 위해 투쟁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선민들은 영월(望月)하러 동산에 올라가도 놀기 위주식의 망월이 아니었다. 달이 뜨면 감탄사도 발했고 즐기기도 했지만 으레 달바퀴의 빛으로 그 해의 풍흉을 점쳐 보았다.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의 시에,

농가에서 정월 보름이면 달 뜨기를 기다린다
북녘에 가까우면 산골에 풍년이 들고
남으로 기울면 해변가 곡식이 잘 익나니
몹시 붉으면 초목이 탈까 걱정이고
매우 희면 냇물이 넘칠까 염려로다

44) 金善豊, '嶺東地方의 家神說話와 呪術歌考', 《關東語文學》 제1집, 1978, pp. 24~25.

둥글고 중황색이라야
대풍년을 알리로다⁴⁵⁾

그의 시가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어우(柳於于)의 평으로는 이 시가 여러 번 시험하여도 꼭꼭 맞았다고 슬회하고 있다.

또 고려 때 이규보 역시 농민의 고통을 자기 몸처럼 같이 하려 했던 재상이었다.

<동문 밖에서 들판을 보고>

마른 흙덩이 푸른 들로 변했으니
저것이 모두 몇 마리 소의 힘이던가
비늘 같은 짝이 누런 이삭 될 때까지
수 없는 사람들 노고하여
만일 수재 한재 없으면
모든 곡식 제대로 수확하겠지
농사란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봐
쌀 한 톨인들 어찌 차마 함부로 먹으랴
보라 농사 대신 녹 먹는 사람들아
마땅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지이다.⁴⁶⁾

상춘도 농점시를 써서 그 때의 풍속의 일단(一端)을 교훈적으로 남기고 있다. 곧, 화세(火勢)에 의한 점세적 관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달이 높이 뜨면 높은 밭이 영글고
달이 낮으면 낮은 밭에 풍년이 든다
올해에 새 달을 보고 점치니

45) 《洙陽歲時記》，正月，上元.

46) 《東國李相國集》全集，第14卷，古律詩.

높낮이가 마땅하지 않음이 없다
농부가 기뻐서 이 날을 경축하니
춤추며 아름다움을 맞는다
돼지날에 돼지 입을 지지고
쥐날에는 쥐창자를 굽는다
우거진 밭이랑 사이의 벌레를 없애고
장포에서 재앙을 씻어내어
오사(汚邪)하고 구루한 것 없애면
오곡은 풍요로와 곳간에 찬다
배불리 먹으니 욕망은 충족되고
이 몸 밖에는 생각이 없어지네⁴⁷⁾

아마 한시에 나타난 농점시의 효시는 이규보의 다음 시가 아닌가 한다.

어찌하여 겨울에 눈이 적더니
봄 되자 한 자도 넘게 내렸네
보리 싹 적시기는 늦은 듯하나
없는 것보단 낫네
올해 농사 어떠한가 징험하려고
이 일을 분명하게 써두는 걸세
밭이랑에 푸른빛 보게 된다면
어찌 납향(臘享) 전의 눈만을 기대할 손가⁴⁸⁾

동지 뒤에 셋째 술일(戌日)을 납이라 하는데 이 납 전에 오는 눈은 그 해의 채소나 보리에 아주 좋다는 농사점이 이 시에 은유되어 있다.

우리 민속에는 기상에 대한 점복이 많다. 하늘을 보고 점을 치

47) 《象村集》 卷 6.

48) 《東國李相國集》 後集, 第2卷, 古律詩.

는 점천(占天)이 있고, 해를 보고 점을 치는 점일(占日)이 있고, 무지개를 보고 점을 치는 점홍(占虹), 안개를 보고 점을 치는 점무(占霧), 번개를 보고 점을 치는 점전(占電)을 비롯하여 점상순내자일(占上旬內子日), 점사계갑자일(占四委甲子日), 점뇌명일(占雷鳴日) 등 실로 다양한 풍년을 비는 점법이 있었다.

문학이란 그 민족의 생활사를 벗어날 수 없다. 농경민족답게도 다양한 농사점과 풍속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농점시는 고전적인 <점매년십이월절후풍임가 占每年十二月節候豐稔歌>까지 만들기에 이른다.

이 노래는 칠언절구체의 한시로 되어 있으나 속담시 곧, 요언(謠諺)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작자가 있을 수 없다. 처음 단계에서 이 속담시가 어느 일관의 오랜 경험과 지식에 의해 기록되었다든지 또는 어느 노농(老農)의 종합적 지식을 시화시킨 작품이 퍼졌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가중[歌衆: 노래부르는 민중] 또는 언중[言衆: 말하는 민중] 속에 용해되어 습합되는 공유지가 되었을 때 이처럼 한시도 민속시가 된다는 호적례(好適例)를 남기고 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민속점풍행사와 민요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경남 고성 지방의 달집사르기는 액연을 같이 사르고 달집 주위를 돌아가면서 가창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속놀이의 점풍으로 줄다리기가 있거니와 줄다리기가 자체가 남녀간의 성행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민요가 없을 리 없다.

부엌네 부엌네 동쪽조X 부엌네
달았네 달았네 서쪽X이 달았네

(동래지방)⁴⁹⁾

상원 전날 농가에서는 짚을 묶어 기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 안

49)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p. 477.

에 벼, 기장, 피, 조의 이삭을 집어 넣어 싸고 장간 위에 목화를 달아맨다. 그리고 집결에 세우고 새끼줄을 늘어뜨려 잡아맨다. 이것을 화간(禾竿)이라고 하는데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산촌에서는 많은 나무를 베어다 외양간 뒤에 세우고 곡식의 이삭과 목화를 걸어 둔다. 그리고 아이들은 새벽에 일어나 이 나무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며 빈다.

조선시대의 옛 행사에 상원날 대궐 안에서 경작하고 수확하는 현상을 본떠서 좌우로 나누어 승부를 겨루었다. 이것 역시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며 향간에서 화간을 세우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이다.

화간 위에 기를 세우고 기에는 기풍을 위한 문구를 쓰는데 ‘농사장원’, ‘일년신수소멸(一年身數消滅) 다물다물우부귀(多勿多勿又富貴)’, ‘다물다물노적(多勿多勿露積) 무진무진우부귀(無盡無盡又富貴)라고 써서 풍년 들기를 주원하고 있다.

이규보는 재상이었던만 은퇴하고서는 토란 등 농작법에 관심이 많았다. 시랑이 다시 화답(和答)해 온 일곱 수에 그가 차운(次韻)한 일부만 인용하면,

농사를 배우려면 토란 심기 우선이라
가을되어 열매 따면 곡식과 다름없네
곡식 대응하는 이 물건 예부터 소중커늘
못 먹는 구슬 너만 못하구나
두어 섬을 심어서 천여섬을 거두거니
한 집 토란 잘된 것을 몇 집이 힘입었나
이 늙은이 먹을 적엔 가마솥에 차거니
손님들 자주 와도 국 솥을 끓지 말라
밤송이는 가시 있어 까기가 쉽지 않고
마 뿌리는 껍질 싸여 깎아야 고와지나
둥근 알에... 곧은 줄기 오직 이뿐이라
토란 물성 무엇보다 탄평하다 하겠네

줄거리에 달리는 물건 아니거니
 어찌 번성한 줄거리 따라 나겠는가
 흩어지면 물거품 튀듯하고
 굴러가면 우박처럼 가볍게 떨어지네
 빼난 줄기 은비너처럼 머리를 드러내고
 흰 살은 박옥같이 신비하게 이뤄졌네
 박을 찌며 거위 부른 옛말을 들었지만
 나물로 삶아도 토란이라 하니 이것이 새로운 국이네
 늦가을엔 얻어먹기 내 공연히 바쁘고
 한식 때엔 사람들이 깨끗이 도려내네
 그대가 전해주는 재배법을 받았건만
 (그대의 시에 재배법은 자세히 말했다.)
 심을 땅 울퉁불퉁 판단하기 어려워라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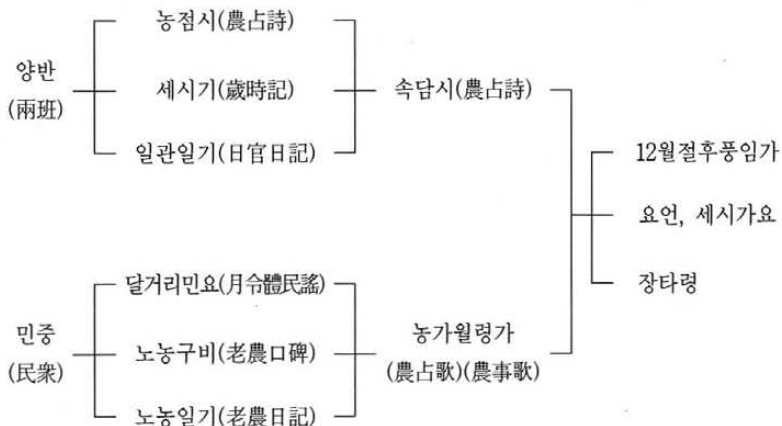
이처럼 옛 선인들은 벼슬을 고만두고서는 자연과 벗하며 유유 자적하게 살아 왔다.

위에서 세시풍속에 나타난 농점을 살펴보았다. 우리 선민은 자연 현상이나 일기, 동식물의 정령 등이 인간생활과 교섭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여기에서 원시신앙이 생겼으며, 미래의 행복한 운명과 삶을 위해 점복법을 채택하여 미래를 점쳤다. 특히 농경민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풍작에 있었고 그를 점쳐 보려했던 점풍은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어 생활화하기에 이르렀다. 농점은 시기별로 보아 정초 상원과 동절에 주로 행했고, 파종이 끝난 뒤에는 별로 행하지 않았다. 농점방법은 해와 달, 별, 비, 바람 등 자연현상과 동식물, 또 민속놀이인 줄다리기, 차전, 윷놀이의 승부로 징험하였고, 인위적인 것으로 목영점, 월자점 등이 있었다. 그 대상은 풍, 흉, 수해, 질병, 두태, 맥작, 지마(芝麻), 양잠, 육과, 화과(花果), 황화(蝗禍) 등이다. 내용은 연초에서 춘하(春夏)에 이르는 즉, 추수를 하기 이전에는 1년간의 일과 질병과 풍흉이 큰 관

50) 《東國李相國集》 後集, 第 7卷, 古律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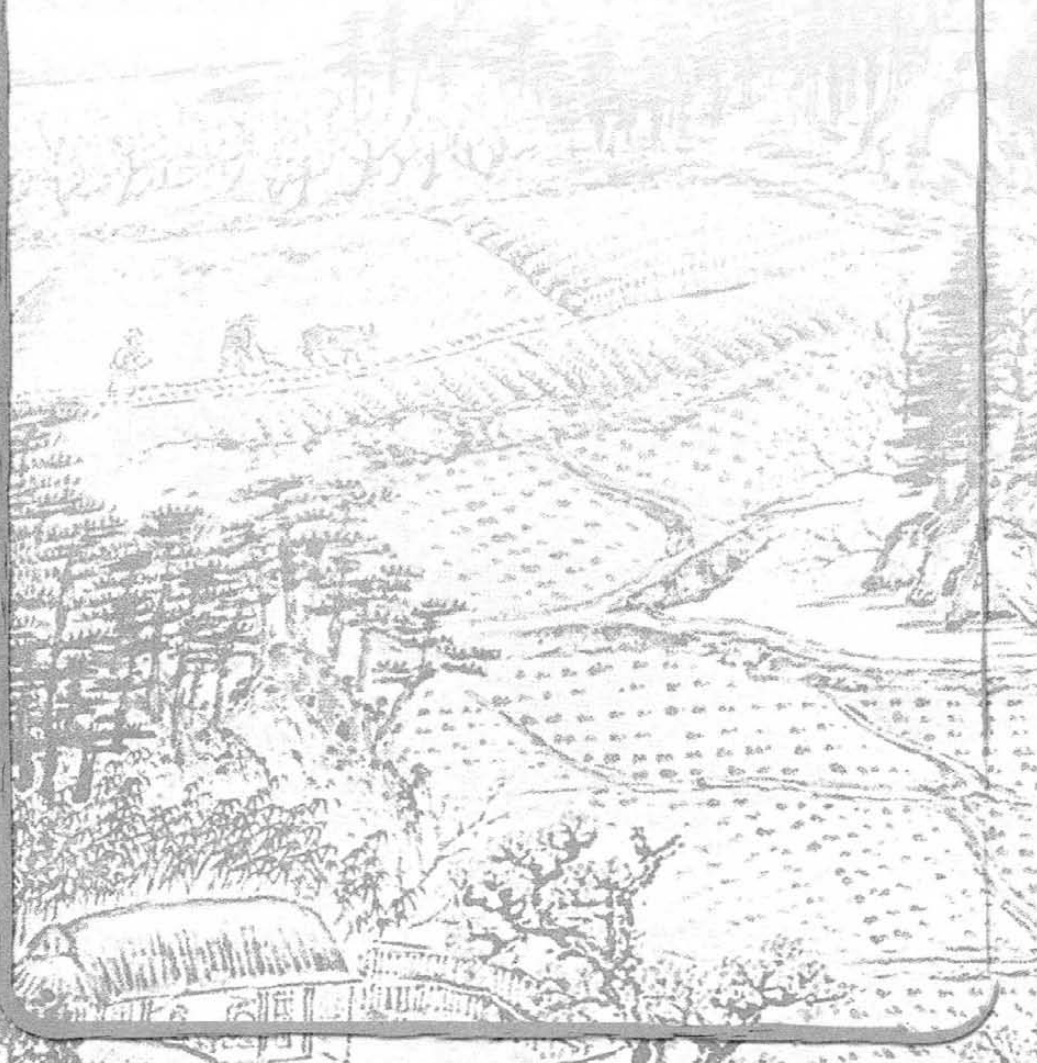
심거리였고, 추석에는 이미 추수도 끝났으므로 그 해보다도 다음 해의 연사, 특히 춘계의 한수(旱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선민들은 시가문학을 통해서 그 점세법을 대대로 이어 주었으니 <십이월절후풍임가>가 바로 그것이다.

양반과 민중들의 지혜가 담긴 시와 일기·민요 등의 상호관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 2 장

역사를 통해 본 세시와 풍속



1. 상고시대의 세시와 풍속

고문헌들과 출토품에 의하여, 사학자들은 중국의 요하(遼河) 및 송화강(松花江) 일대로부터 한반도(韓半島) 전지역에 걸쳐서 언어와 풍속, 그리고 생활과 의식이 비슷한 몇 개의 종족들이 깃을 들고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¹⁾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기도 하였으나, 서력기원 제 3세기를 전후하여서는 고조선(古朝鮮)·부여(扶餘)·고구려(高句麗)·읍루(挹婁)·옥저(沃沮)·예맥(濊貊)·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이라는 이름으로 정착 생활을 영위하면서 상당히 발전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비록 그들의 역사 발전의 시기나 문화 발전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겠으나, 대체로 비슷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자연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세계를 확대함으로써, 서로가 유사한 예술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날 전해 오는 영세한 문헌으로는 이 시기 사람들의 예술활동을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다만 진수(陳壽)의 찬인 《삼국지 三國志》 <위지 魏志> 동이전(東夷傳)에서 비교적 자세한 기술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부여(扶餘) 사람들은 은(殷)나라 정월달에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은나라 백성들이 크게 모여서 머칠을 두고 마시고 먹으며 춤추고 노래부르니, 그것을 곧 영고(迎鼓)라고 일컫는다. 또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길목에는 사람이 가득차 있으며, 늙은이·어린이 할것없이 모두가 노래를 불러, 그 소리가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夫餘 以殷正月 祭天 國中大會 連日 飲食歌舞 名曰迎鼓 行道晝夜 無老幼皆歌 連日聲不絕)

1) 김정학, <한국민속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1, 1964, pp. 317~356.

2) 김원룡,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문화사대계》1, 1964, pp. 254~274.

라는 것은 이 책의 부여조(扶餘條)에 있는 기록이고,

고구려 백성들은 노래부르기와 춤추기를 좋아하여, 나라 안의 모든 읍과 촌락에서는 밤이 되면, 많은 남녀가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즐겨 논다. 10월 달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온 나라 안 사람들이 크게 모이는데 그것을 동맹(東盟)이라 부르고 있다.(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聚 相就歌戲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라고 한 것은, 같은 책의 고구려조의 기록이다. 그리고 또 예조(濊條)에도,

매양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되, 낮밤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것을 무천(舞天)이라 한다.(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은 주로 북쪽에 웅거하고 있던 종족들에 대한 기록이고, 한반도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던 한(韓)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한(馬韓)에서는 매양 5월에 모종을 끝마치고 나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술을 마셔서, 밤낮을 쉬지 않았다. 그 춤추는 모양은 수십 인이 같이 일어나서 서로 따르며, 땅을 혹은 낮게 혹은 높게 밟되 손과 발이 서로 응하여 그 절주는 마치 중국의 탁무(鐸舞)와 같았다. 10월에 농사일이 다 끝나고 나면, 또한 같은 놀이를 하였다.(馬韓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飲酒 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上)

이것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속의 마한조의 기록이고, 다시 변진(弁辰)조에는,

그 풍속이 노래와 춤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슬(瑟)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모양은 마치 중국의 축(筑)과 비슷하고, 그것을 탈 때에는 또한 음곡이 있다.(俗喜歌舞飲酒 有瑟 其狀似筑 彈之亦有音曲)

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 ① 영고·동맹·무천이라는 이름의 종교 의식이 있었고, 그 때에는 반드시 가무를 했다는 사실,
- ② 농공의 시필기(始畢期)에도 가무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
- ③ 종교 의식이나 농공 시필기 이외에도 수시로 음주와 가무를 즐겨했다는 사실,
- ④ 모든 가무는 반드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 ⑤ 중국의 탁무(鐸舞)와 비슷한 춤과, 중국의 축(筑)과 비슷한 슬(瑟)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독특한 악기와 음곡을 가졌다는 사실들이 곧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 땅의 선민들의 예술 생활의 모습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 ① 종교 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었고,
- ② 농경 생활과도 관계가 깊었다.
- ③ 가무와 음주를 즐겨했으며,
- ④ 그 형태는 집단적이었고,
- ⑤ 독창적인 예술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탁월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파악된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고대인들의 예술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추려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 ① 이 땅의 고대 예술은 종교나 농경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 ② 그 형태는 언제나 집단적이었다.
- ③ 우리의 선민들은 예술 생활을 즐겨했고, 창조적 능력이 탁월했다.

《삼국유사》 권 제2 기이(紀異) 제2의 가락국기(駕洛國記)조에,

후한(後漢)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壬寅) 3월 계욕(禊浴)의 날에 마을 북쪽에 있는 구지봉(龜旨峰)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로, 마을 사람 2, 3백 명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어디선가 사람의 소리는 들리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하기를 “이곳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 구간(九干) 등이 대답하기를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쯤이냐.”, 구간 등이 대답하되 “구지봉입니다.”, 또 하늘에서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을 다스려 새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셨기로 이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구지봉 봉우리의 흙을 파서 모으면서 노래 부르되, ‘거북아 거북아 네 목을 내어라 네 목을 아니 내면 구워서 먹으리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 그것이 곧 너희들이 대왕을 맞는 일이 될 것이니 기뻐하고 뛰놀아라”라고 하니, 구간 등이 다 같이 벌고, 또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³⁾

라고 한 기록이 있다.

2. 삼국시대의 세시와 풍속

《삼국유사》나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3) 後漢世祖光武帝 建武十八年 壬寅三月 禊浴之日 所居北龜旨 有殊常聲氣呼喚衆庶二三百人 集會於此 有和人音 隱其形 而發其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 又曰 吾所在爲何 對云 龜旨也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爲君后 爲茲故降矣 爾等須掘峰頂 掘土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歡喜踴躍之也 九干等 如其言 感祈而歌舞云云.

삼국시대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시가 있다면 설날과 가뱃날이다. 설과 가배는 오늘날도 한국의 2대 명절이지만 이미 삼국시대부터 한민족 고유 명절이자 축제였음을 문헌적 전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원단(元旦)’은 새해의 첫날로 ‘세수(歲首)’·‘연수(年首)’·‘원조(元朝)’·‘정조(正朝)’·‘삼원(三元)’이라는 이칭(異稱)이 있으나 설이 우리말이다.

특히 정월 초하룻날 아침은 과거·현재·미래의 시작이요, 봄·여름·가을의 시작이요, 아침·점심·저녁(세 때)의 시작이요, 연·월·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삼시(三時), 삼원(三元), 삼조(三朝)라고도 부른다. 모든 일이 정월초하룻날 아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삼가는 일도 각양각색이다. ‘새해 시절이 좋으면 끝이 좋다’는 속신(俗信)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설에 관한 기록은 3세기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전에 이미 나타난다. 은(殷) 나라 역법(曆法)으로 정월에 하늘에 제사지내고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술을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고, 형벌과 옥사를 중단하고 죄수 무리들을 풀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영고(迎鼓)’라 하는데 이는 “북을 울리며 새해를 맞이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때의 맞이곳은 햇님맞이, 곧 천신(天神)맞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새해 신맞이곳으로부터 새해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 후 《수서 隋書》 동이전 신라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매년 정월초 아침에는 서로 경하하고 왕이 연회를 베풀며 손님과 관원들이 모인다. 이날 일월신을 배례한다. 8월 15일이 되면 또 연악을 베풀다.(每正月旦 相賀 王設宴會 班賓群官 其日拜日月神 至八月五日設樂)”

이 때 와서야 그 형식이 왕권국가다운 설날 체제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삼국사기 三國史記》에는 신라 초기 유리왕대에 8월 가위(추

석)가 등장하였으니, 현재 우리의 2대 명절의 발생을 이때로 잡아
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했을까가 흥미롭다.

《삼국유사 三國遺事》에서는 설을 ‘달도(怛切)’라 했는데 이 또
한 “엄숙한 기분으로 백사(百事)를 조심하고 비수(悲愁)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밟으면서 설의 역사는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인간은 성속(聖俗)이라는 이원론적(二元論的) 주기성 속에서 삶
을 영위해 나간다. 일년의 첫 출발일인 설은 세속적인 삶의 주기
에서 성(聖)적 세계로 들어가는 한 해가 바뀌는 날 곧 환세일(換
歲日)이다. 설날에는 일단 잡사(雜事)를 중단하고 신성시간과 신
성공간을 마련한다. 이 때 치뤄지는 의례(儀禮)가 바로 차례(茶
禮)요 세배이다. 이처럼 혼돈에서 질서로 전환되는 시점에 정조차
례나 세배, 설빔, 덕담, 그 밖의 각종 민속놀이들이 발생하게 되
는 것이다.

원래 설의 주기는 정초부터 보름까지이다. 흔히 정월 초에 몇
번의 신일(愼日)(上亥日·上辰日·上子日·上午日)을 두었다가 15일
에 약식(藥食)을 먹고 나서야 금기일(禁忌日)에서 해방이 되는 것
이다.

그런데 조선조의 《지봉유설 芝峰類說》에는 동방의 옛 풍속에
세수(歲首)와 정월 첫 쥐날(上子日), 첫 말날(上午日), 2월 1일을
‘삼가는 날(愼日)’이라 했으며 매년 세수나 용, 말, 돼지, 쥐날에는
제를 지내고 백사를 금기한다고 했다.

이같은 내력은 신라 소지왕 때의 실사(實事)에서 찾을 수 있다.

22대 소지왕 즉위 10년 무진(戊辰)에 천천정(天泉亭)에 거동하시더
니,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다가 쥐가 사람의 말을 하여 가로되, “이 까
마귀의 간 곳을 찾아가 보라.” 하거늘, 왕이 기사(騎士)를 명하여 뒤쫓
아 남으로 피촌(避村)에 이르니, 두 돼지가 싸우거늘 한참 서서 보다가

홀연히 까마귀의 간 곳을 잃어버리고 길옆에서 머뭇거리는데, 이 때 한 노인이 못 가운데서 나와 글을 올리는데 곁에 쓰여 있기를, “이것을 떼어 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떼어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하고 기사를 시켜 왕에게 드리니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을 것이면 차라리 떼지 않고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옆에 있던 일관(日官)이 아뢰되, “두 사람이란 서민이요, 한 사람이란 왕을 지칭한 것이니이다.”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겨 떼어보니 글에 있으되, “거문고의 갑을 쏘라(射琴匣).” 하였거늘, 곧 대궐에 들어가 거문고 갑을 쏘니 내전(內殿)에 있던 중이 궁주(宮主)와 몰래 정을 통하고 있다가 죽고 말았다. 이에 나라에서는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上午) 등의 날에는 백사를 삼가게 하고 ‘까마귀 제삿날’로 정했다.

《삼국유사》 권 제1 사금갑조(射琴匣條)

이같이 설의 주기가 변한 이유는 은 나라 역법을 썼는가 아니면 하 나라 역법을 썼는가에 따라 날짜가 변했던 것이다.

그러면 가뱃날은 어떠한가? 한국 속담에 ‘남 추석 북 단오(南秋夕北端午)’란 말이 있다. 이는 남쪽 지방은 추석을 잘 쇠고 북쪽 지방은 단오를 잘 쇠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추석은 놀이와 제의의 내용이 다양하다.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날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다. 너나없이 잘 먹고 잘 놀고 살았으면 하는 소망에서 우러난 표현일 것이다. 추석은 이처럼 설과 더불어 우리나라 2대 명절의 하나로 농촌에서는 이 날을 일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로 여긴다. 추석은 봄부터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무르익어 수확하는 계절이요, 기후도 또 춥지도 덥지도 않아 생활하기에 좋고, 또 일 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때이다.

추석은 가위·가배(嘉俳)·한가위·중추절(中秋節, 仲秋節) 등으로도 불린다. 중국에서는 음력 8월 15일이 구추(九秋)의 정반(正半)이라 하여 ‘중추(中秋)’라 칭하고, 이 날 밤에는 달빛이 일년

중 가장 좋다 하여 ‘월석(月夕)’이라고도 하였다. 추석은 고려시대 이후에 생긴 말로 중추와 월석의 뒷자를 써서 추석(秋夕)이라고 한 것이다.

몇 년 전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五常市) 민락향(民樂鄉) 조선족 마을에 갔더니 그곳 할머니들이 ‘설은 아침이요, 단오는 점심이며, 추석은 저녁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단오 때는 점심이기 때문에 성묘를 거를 수 있지만 설과 추석은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산소에 가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저녁 식사를 쓴 까닭도 여기서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원래 대보름이나 추석은 모두 보름달을 상징으로 삼는 큰 명절인데 동양 삼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명절로 지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에도 추석의 ‘관월(觀月)’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만 일반적인 흥미는 적어서 한식이나 단오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송나라 때는 당나라 때보다 성한 듯하나, 입추(立秋)·칠석(七夕)·중양(重陽)에는 관청에서 휴가를 주었으나 중추에는 휴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명절보다 비중이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윗날의 기원에 대한 기록은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나타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이 육부(六部)의 여자들을 두 패로 나누고 왕녀 두 사람에게 각각 두 편 부녀자들을 통솔하게 하여, 음력 7월 16일 기망(既望)부터 육부의 마당에 모여 길쌈[積麻]을 시작, 8월 보름까지 그 사이의 성적을 비교하여 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이 때에 온갖 놀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를 ‘가배’, 곧 ‘가위’라 한다 하였다. 이 길쌈의 공동작업은 ‘두레삼’ 또는 ‘두레’라 하여 남한 일대, 특히 영동·영남지방 일대에 그 유풍이 남아 있다. 또 《수서 隋書》 신라전에 보면, “……8월 15일에는 풍악을 잡히고 관원으로 하여금 활쏘기 대회를 행하여 상품으로 삼배(麻布)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나라 문종 때 당나라에 와 있었던 일본인 원인(圓仁·794~838)이라는 중이 지은 《입

당구법순례행기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산둥지방에 거주하는 신라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고 쓴 그의 기록 중에, “절(法華院)에서 떡과 국수를 만들어 먹고 8월 15일 명절놀이를 하는 것은 오직 신라에만 있는데, 그 곳 늙은 중의 말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이 날이 발해와 싸워 승리한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명절로 삼고 일반 백성들이 온갖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무(歌舞)로써 즐겁게 노는 것인데, 이 절도 역시 신라 사람의 절이므로 그 고국을 그리워하여, 8월 15일에 명절놀이를 한다.”고 하였다.⁴⁾

본 기록은 신라와 발해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라와 백제·고구려 문제일 것으로 보아 김성호는 《중국 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 오백년》(1996)에서 이들이 신라 출신이 아니라 백제 내지 고구려 유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였다. 이에 대해 이덕일은 2000년 전쯤 경주 여성들의 길쌈에서 시작된 추석은 삼국 통일 후 그 의미는 굴절되었지만 전 민족의 명절로 확산되었던 것(<이덕일 사랑>, 《조선일보》 26682호, 2006. 10. 5.)이라고 보았다.

김승찬은 가배(嘉俳)의 어근을 ‘갹’에서 찾고 있다. 즉, 어근 ‘갹’은 ‘갹(갹)가시’와 더불어 부녀자를 뜻한 말이다. 따라서 가배는 부녀자들의 큰 놀이이므로 한가위란 곧 대부인회(大婦人會)이요, 이 대부인연회(大婦人宴會)의 유풍이 전승·전화(轉化)하여 뒷날 조상에 신곡을 천신(薦新)하는 명절로 정착하게 된 것⁵⁾이라고 논급하였다.

아무튼 《삼국사기》의 가배가 잘 살기 위한 경제적 위기의 축제였다면, 원인의 기행문 속의 가배는 다분히 정치적·군사적 의미의 축제로 환골탈퇴하고 있다. 가배는 고려조·조선조로 넘어 오면서 추원보본(追遠報本)형의 축제로 또 한번 굴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삼국시대의 세시와 풍속을 월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김선풍, <추석>, 《한은소식》 9월호, 2000, p. 32.

5) 김승찬, 《부산지방의 세시풍속》, 세종출판사, 1999, pp. 162~163.

1월

[신라]

- 하정례(賀正禮) · 정단례(正壇禮)

매년 정월 원단(元旦)에 서로 하례(賀禮)하는데 왕이 연회를 베풀고 여러 관원에 두루 하사(下賜)한다. 그 날에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한다.(每正月旦 相賀 王設宴會 班賓羣官 其日拜日月神)

《隋書》 卷 81 列傳 46, 新羅.

원일(元日)을 중하게 여겨서 서로 경하하고 연회를 베풀다. 해마다 이 날에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한다.(重元日 相慶賀燕饗 每以其日 拜日月神)

《舊唐書》 卷 199 列傳 149, 新羅.

원일(元日)에 서로 경하(慶賀)한다. 이 날에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한다.(元日相慶 是日拜日月神)

《新唐書》 卷 220 列傳 145, 新羅.

그 나라의 풍속에 원일(元日)을 중하게 여겨서 서로 경하(慶賀)한다. 해마다 이 날에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한다.(其國俗重元<元>日相慶賀 每以是月拜日月之神)

《舊五代史》 卷 138 外國列傳 2, 新羅.

- 오기일

이런 일이 있는 뒤로, 그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 첫 번째 해일(亥日), 자일(子日), 오일(午日) 등의 날에는 모든 일에 조심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16일(15일)을 오기일(烏忌日 : 까마귀의 기일)이라 하여 찰밥으로 제사지냈으니 지금도 행하고 있다. 이언에는 이것을 달도라고 하니, 슬피하고 근심해서 모든 일을 꺼리어 금한다는 말이다. 그 뜻을 이름하여 서출지라 한다.(自爾 國俗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 忌愼百事 不敢動作 以十六<五>日爲烏忌之日 以糯飯祭之 至今行之 俚言怛切言悲愁而禁忌百事也 命其池日事之出池)

《三國遺事》 卷 1 紀異 卷 1, 射琴匣.

• 선농 제사

입춘 후 해일(亥日)에는 명활성 남쪽 응살곡에서 선농에 제사지낸다.(여러 예전을 검토해 보니, 단지 선농에만 제사지내고, 중농과 후농은 없다.)[立春後亥日 明活城南熊殺谷祭先農(檢諸禮典 只祭先農 無中農後農)]

《三國史記》 卷 32 雜志 1, 祭祀.

• 풍백 제사

입춘 후 축일(丑日)에는 견수곡 어구에서 풍백(風伯)에 제사지낸다.(立春後丑日 犬首谷門祭風伯)

《三國史記》 卷 32 雜志 1, 祭祀.

[백제]

• 천지 제사

봄 정월에 천지에 제사지내는데 북과 피리를 사용하였다.(春正月 祭天地用鼓吹)

《三國史記》 卷 24 百濟本紀 2, 古爾王 5年.

2월

[신라]

• 복회

신라 풍속에 해마다 2월이 되면 초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남녀가 다투어 흥륜사의 전각과 탑을 도는 것으로써 복회(福會)를 삼았다.(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逸興輪寺之殿塔 爲福會)

《三國遺事》 卷 5 感通 第7, 金現感虎.

[백제]

• 천지 제사

20년 봄 2월에 왕이 대단(大壇)을 설치하고 친히 천·지에 제사지냈다.(二十年春二月 王設大壇 親祠天地)

《三國史記》 卷 23 百濟本紀 1, 始祖溫祚王 20年.

《책부원귀》에 이르기를, ‘백제는 매년 4중월(仲月) 즉, 네 철의 중간 달에 왕이 하늘과 5제(五帝：五方神)의 신에 제사지낸다. 그 시조 구태의 묘를 나라 도성에 세우고 사계절로 제사지낸다.’고 하였다.(생각컨대 《해동고기》에는 혹은 시조 ‘동명’이라 하고, 혹은 시조 ‘우태’라 하였으며, 《북사》 및 《수서》에는 모두 동명의 후손으로 ‘구태’라는 이가 있어 나라를 대방에 세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시조를 ‘구태’라 하였다. 그러나 동명이 시조인 것은 사적이 명백한데 기타의 것은 믿을 수 없다.)[冊府元龜云 百濟 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帝之神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按海東古記 或云始祖東明 或云始祖優台 北史及隋書皆云 東明之後有仇台 立國於帶方 此云始祖仇台 然東明爲始祖 事迹明白 其餘不可信也)]

《三國史記》 卷 32 雜誌 1, 祭祀.

3월

[신라]

- 태백산망제

3월에 우두주(지금의 춘천)에 이르러 태백산에 멀리서 제사지냈다.
(三月 至牛豆州 望祭太白山)

《三國史記》 卷 2 新羅本紀 2, 基臨尼師今 3年.

- 신라 김유신 문중의 봄철 잔치

김씨의 문중어른이 되는 재매부인(財買夫人)이 죽으매 청연(靑淵)의 윗 골짜기에 장사하니, 이로 인하여 그 곳을 재매곡(財買谷)이라 하였다. 매년 봄철이면 일문(一門)의 남녀들이 이 골짜기 남쪽 개울에 모여 잔치를 하는데, 이 때면 백화(百花)가 만발하고 송화(松花)는 골짜기 숲 속에 가득 찬다. 골짜기 입구에다가 암자를 짓고 송화방(松花房)이라 이름지었다. 이것이 전해져서 나중에 김유신의 명복을 비는 원찰(願刹)이 되었다.(金氏宗財買夫人死 葬於靑淵上谷 因名財買谷 每年春月 一宗士女會宴於其谷之南澗 于時百卉敷榮 松花滿洞府林 谷口架築爲庵 因名松花房 傳爲願刹)

《三國遺事》 卷 1 紀異 1, 金庾信.

• 금령(신라 세속오계 중 살생금지 풍속)

법사(圓光法師)가 말하기를 “불가의 계율에 보살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류가 열 가지이다. 그대들은 남의 신하로서 이를 감당해내지 못할 듯하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하나는 임금 섬기기를 충으로써 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 섬기기를 효로써 하고, 세 번째는 친구 사귀기를 신의 로써 하고, 네 번째는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고, 다섯 번째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한다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를 실행하되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법사가 말하기를 “육재일(불가에서 말하는 재계 일로 8, 14, 15, 23, 29, 30일임. 이 날에는 사천왕이 사람의 선악을 엿보는 날이라고 함.)과 봄과 여름달에는 살생치 아니한다는 것은 때를 택하는 것이다. 부리는 가축을 죽이지 않는 것은 말, 소, 닭, 개와 같은 종류를 말한 것이며, 미물을 죽이지 않는 것은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이니, 이것들은 물건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오직 그 소용되는 것에 있어 많이 죽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이 가히 세속의 선계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法師曰 佛戒有菩薩戒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以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 若等行之無忽 師曰 六齋日春夏月不殺 是擇時也 不殺使畜 謂馬牛鷄犬 不殺細物 謂肉不足一臠 是擇物也 如此唯其所用 不求多穀 此可謂世俗之善戒也)

《三國史記》 卷 45 列傳 5, 貴山傳.

[고구려]

• 제천·산천 제사

(고기예) 또 이르기를 고구려에는 항상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돼지와 사슴을 잡아서 하늘과 산천에 제사지낸다고 하였다.〔(古記) 又云 高句麗 常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獲猪鹿 祭天及山川〕

《三國史記》 卷 32 雜志 1, 祭祀.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면 낙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그 날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에 제사지내는데, 그 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 때에 온달이 기른 말을 타고 수행하였다.(高句麗 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祭天及山川神 至其日王出獵羣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溫達以所養之馬隨行)

《三國史記》, 卷 45 列傳 5, 溫達

8월

[신라]

• 추석

8월 15일 풍악을 베풀고 관인으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여 말과 베를 상(賞)으로 준다.(八月十五日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北史》 卷 94 列傳 82, 新羅.

8월 15일에 이르러 풍악을 베풀고 관인으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여 말과 베를 상(賞)으로 준다.(至八月十五日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隋書》 卷 81 列傳 46, 新羅.

[고구려]

• 동맹

《후한서》에 이르기를 ‘고구려에서는 귀신과 사직과 영성(零星)에 제사지내기를 좋아한다. 10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면서 크게 모이는데, 이름을 동맹(東盟)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어 이를 수신(隧神)이라 하는데, 역시 10월에 맞이하여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북사 北史》에는 이르되 ‘고구려는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지내고 음사(淫祠)가 많다. 신묘(神廟)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여 나무를 새겨 부여신의 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고등신이라 하여 이를 시조라 하고 부여신의 아들이라 한다. 모두 관서를 설치하고 사람을 보내어 지키게 하니 대개 하백녀와 주몽이라 한다.’ 하였다.

《양서 梁書》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거처하는 곳 좌편에 큰 집을 짓고 귀신에 제사지낸다. 겨울에는 영성과 사직에 제사지낸다.’ 하였다. 《당서 唐書》에 이르기를 ‘고구려 풍속에는 음사가 많고 영성(靈星)과 해, 기

자(箕子), 가한(可汗) 등의 신에게 제사지낸다. 나라 좌편에 큰 구멍이 있는데 신수(神隧)라고 한다. 매년 10월에 왕이 모두 친히 제사지낸다.’ 고 하였다.(後漢書云 高句麗好祠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祿(隧)神 亦以十月迎而祭之 北史云 高句麗常以十月祭天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二曰高登神 云是始祖夫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 朱蒙云 梁書云 高句麗於所居之左 立大屋祭鬼神 冬(又)祠零星社稷 唐書云 高句麗俗多淫祠 祀靈星及日箕子可汗等神 國左有大穴曰神隧 每十月王皆自祭)

《三國史記》 卷 32 雜志 1, 祭祀.

12월

[신라]

• 8자 제사

12월 인일(寅日)에는 신성(新城) 북문(北門)에서 8자(八禮 : 옛날 제왕들이 12월에 여덟 신에게 지내던 제사)를 제사지내되, 풍년에는 큰 소를 쓰고, 흉년에는 작은 소를 썼다.(十二月寅日 新城北門祭八禮 豐年用大牢 凶年用小牢)

《三國史記》 卷 32 雜志 1, 祭祀.

3. 고려시대의 세시와 풍속

1) 고려시대 세시와 풍속 각론

고려시대(高麗時代)는 국호(國號)가 시사(示唆)하듯 온갖 문화가 고구려와 신라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상이 짙다.

우선, 민간신앙면에서 우리는 천신제(天神祭)인 원구(圓丘)와 태묘(太廟), 국조(國祖), 산천(山川), 사직(社稷)(土地), 팔관회(八關

會)를 들 수가 있다. 원구에는 태조(太祖)를 하늘에 배향(配享)하였고, 사경(四京)에 평양군사(平壤君祠)(檀君祠), 동명성왕사(東明聖王祠)를 세워 매년 제사(祭祀)를 지냈으며 일반 백성도 선조(先祖)를 제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충효(忠孝), 인자(仁慈), 공경(恭敬)의 도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선 팔관회와 선랑(仙郎)의 발생과 그 유래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팔관회와 선랑은 불교와의 습합과정(習合過程)은 있었으나 한국인이 창조한 토속(土俗) 종교인 것이다. 태고적 우리 무풍(巫風)은 시대를 지나면서 자기 성장(自己成長)과 확충을 위해, 곧 문화의 수용(受容) 과정에서 새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오늘날의 종교 심성에서 찾을 수 있듯이 우리 체질과 우리 문화의 속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전파(傳播)와 감염(感染)이 이루어졌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같은 무교(巫敎)의 변이(變移)를 하나는 외래종교를 받아서 이것을 표면에 내세우고 그 내용은 무교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형(型)(팔관회·연동회)과, 또 하나는 외래종교와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종교문화를 창조해 내는 형(花郎道)으로 나누고 있다.⁶⁾ 그러나 필자는 전자는 수궁이 가나 후자 또한 주체의식(主體意識)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 곧, 화랑도 역시 재래 종교에서 생긴 자생적(自生的) 산물로 이해하여야 옳다는 말이다. 실제,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세속오계(世俗五戒)에 보면 화랑정신(花郎精神)에 불교적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 화랑도의 뿌리 역시 우리의 무교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화랑도는 신라 때 시작하여 고려조로 넘어 오고 조선조로 넘어 와서 결국은 ‘화랭이’, 곧 무당으로 다시 환원되었던 것이다.

문화의 수용이란 어느 제도나 종교를 초월한다. 우리는 어느 종

6)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pp. 129~145.

교가 들어오고 어느 제도 밑에서도 우리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다만 이행(移行) 과정에서의 걸치장과 행식(行式)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오늘날 굿판에서 보면 큰 굿일수록 유교적 제의가 따르고 불교식 무의(巫衣)를 걸치고 춤을 춘다. 그러나 주체자(主體者·行爲者)인 무(巫)와 청중(보살님)의 소망은 태고 이래의 원형심성(原形心性), 그 주원(呪願)을 오늘에 그대로 잇대고 있다.

우리 문화가 주어(主語)와 동사(動詞)라면 유교(儒敎)나 불교(佛敎)는 형용사(形容詞), 부사(副詞) 내지 조사(助詞)에 불과하다. 우리 문화는 외래적 수식사인 형용사, 부사에 의해 다채롭게 변모되었지만 우리 주체성을 상실치 않았고, 유자(儒者)나 불자(佛者)의 탄압 속에서도 면면히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 팔관회와 선랑 관계는 어떠한가? 이인로(李仁老)는 그의 《과한집 破閑集》에서 신라 화랑을 설명하고, 화랑 가운데서도 4선(仙)의 문도(門徒), 곧 영랑(永郎), 술랑(述郎), 안상(安詳)을 상징한 양가자(良家子) 4인을 뽑아 팔관의식(八關意識)에서 춤을 추게 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 선랑의 깊은 뿌리가 여조(麗朝)에도 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유교의 성장은 우리 민속인 무속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다. 실제 중국풍 유교에 젖어 있던 성종(成宗)의 유교지상주의정책(儒敎至上主義政策)을 풍자하여 이지백(李知白)은 “국가의 태평을 이룩하려면 다시 선왕(先王)의 연등, 팔관, 선랑, 등사(等事)를 행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고 극간(極諫)한 것으로 보아, 허식적(虛飾的)인 유교사상(儒敎思想)에 매이지 말고 재래 민중적인 신앙에 밀바탕을 둔 주체적인 선랑사상(仙郎思想)을 이어 받도록 종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왕은 그의 간절한 충언(忠言)을 받아 들였다.

다시 의종(毅宗)이 22년 3월에 반포한 신령(新令) 중에는, “일(一)은 선풍(仙風)(화랑의 유풍)을 준수(遵尙)한 지 오래인 것이다.”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이는 용신신앙(龍神信仰)과 천신신앙

(天神信仰)을 강조한 말이다. 이어서 말한, “근래 양경(兩京) 팔관(八關)의 회(會)가 날로 옛 격식이 감해지고 유풍이 점점 쇠하여졌다. 지금으로부터 팔관회는 미리 양반으로서 가정이 요족(饒足)한 자(子)를 가려 정해서 선가(仙家)를 삼고 고풍(古風)을 따라 행하여 사람과 하늘로 하여금 모두 즐겁도록 하게 하라.”라고 지목한 말 속에서 팔관민속제(八關民俗祭)와 화랑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화랑도, 곧 선랑은 우리의 용신·천신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 무당은 비록 계급은 낮으나 고유 민간신앙의 원류를 계승한 것으로써 그 무풍은 상하를 막론하고 민중 사이에 널리 행해졌다.

인종(仁宗)이 병들어 무당에 보이니 그 신을 퇴치하는 데는 벽골제(碧骨堤)(못)의 물을 말려야 한다고 했다. 고려 때에는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신으로 받든다. 그래서 신사(神祠)가 많이 생겼으니 예종(睿宗) 때는 신라 장군 김유신(金庾信) 장군까지 흠모해서 신격화(神格化)시켰던 것이다.⁷⁾ 이규보(李奎報)나 안향(安珦) 등이 무당을 경멸하였던 일화에서 나타났듯이 유학자군(儒學者群)은 무격(巫覡)이란 한낱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것으로 무지한 세인(世人)을 미혹케 하는 존재로만 여겼다. 실상, 무풍의 폐해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막대한 소모를 끼쳤다. 예를 들어 별례기은소(別例祈恩所)만 하여도 10여 곳이 되고, 4계절의 제사와 무시(無時)로 지내는 별제(別祭)로 말미암아 1년에 허비하는 비용은 막대했으며 이에 종사하는 무격들은 국행(國行) 곧, 국가 행사를 청탁하고 가무(歌舞)를 마음대로 자행하고 마음대로 대로에서 술을 마시고 방자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무당을 도성 밖으로 내쫓자는 주장이 일찍부터 나타났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일시 성외로 축출되었다가도 다시 모여들곤 하였다. 그리하

7) 申采浩, 《朝鮮史研究草》, 1946, pp. 118~119.

여 고려 말에 이르러 유교의 대두와 더불어 출무(黜巫)·폐음사(廢淫祀)의 논(論)이 여러 번 일어났던 것이다.

《고려도경 高麗圖經》 권 17 사우(祠宇)에, “고려는 본래 귀신을 외신(畏信)하고 음양(陰陽)을 구기(拘忌)하여 병에 약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주저(呪咀)·염승(厭勝)을 알 뿐이다.”라고 했듯이 이는 좀 지나친 말 같기도 하나 당시 무풍이 그만큼 지배적이었던 사회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세시와 풍속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조의 세시풍속은 나대풍속(羅代風俗)을 계승한 듯 하나 그런대로 특징이 있다. 우선 절일(節日)로는 《고려사》의 형법(刑法) 지일(志一) 금형조(禁刑條)에 원정, 상원, 한식, 상사, 단오, 중추, 중구, 동지, 팔관이 나오는데 이를 속칭 9대 속절이라 했다. 그러나 그 밖의 속절(절일)로 인일(정월 칠일), 입춘, 이월 연등, 삼월 삼일(상사가 이에 통용되었음), 사월 팔일, 유월 유두, 칠월 십오일(우란분회 : 백중), 제석 등이 있다.

실제 《고려사》는 왕조사이기에 소상한 민간풍습이나 세시기록이 별반 없고 궁중을 중심으로 한 얼마간의 풍속사만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를 통해 민간 풍속을 추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단오 풍속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 다소 있으나 그네뛰기 등의 민간풍속은 《동국이상국집》이나 기타 문헌을 통해서만 그때의 상황유추(狀況類推)가 가능할 뿐이다. 민간의 세시만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세시풍속이 외래사상 곧, 유교나 불교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나 세시문화는 외래 종교의 허울을 썼을 뿐 기실 내용은 순수한 재래 우리 민속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우선 절일 중 팔관회와 연등회만을 예로 들어 보자. 불가(佛家)의 연등회를 고려조 선민들이 그들 문화에 수용한 것은 다름 아

닌 주야무휴(晝夜無休)하면서 햇불 아래서 축제를 벌였던 상대제천유습(祭天遺習)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문화의 습합 과정에서 2월 연등과 4월 연등으로 양분되었던 것이다. 4월의 연등이 순수 불가식축제(佛家式祝祭)였다면, 2월 연등은 재래적(在來的) 불꽃놀이와 고래(古來)의 햇불놀이축제가 아니었나 한다. 고래의 잔존 유속(殘存遺俗)이기에 음귀(陰鬼)를 퇴치하고 복과 영광을 기원했던 것이다.

태조의 <훈요십조 訓要十條>에, ‘연등소이불사(燃燈所以事佛)’이라 한 말도 신빙성이 없음을 이미 몇몇 학자가 지적한 바 있거니와 중국의 기복(祈福)·유락(遊樂)의 목적으로 행하던 상원 장등(長燈)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 또한 확실치 않다. 관견(管見)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태고 적부터 시작된 천신과 산천의 신령(神靈)을 제사했던 불꽃의 축제, 밝음(白)을 향한 축제의 흔적으로 보고자 한다.

재론할 것 없이 연등의 시작이 태조 때 정월 15일에 했다는 것과 2월 15일에 각기 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축제와 행사가 과거에나 오늘이나를 막론하고 이 때 몰려 있다고 하는 점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팔관회는 어떠한가. 팔관회는 매년 서울에서 11월 15일에, 서경(西京)에서 10월에 거행하였다.

원래 팔관회는 신라 진흥왕 33년에 전몰사졸(戰歿士卒)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외사(外寺)에서 팔관정회(八關筵會)를 7일 동안 베풀었다는 것이 사상(史上)에 나타난 시초라 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신라시대의 팔관회는 처음에 호국의 영을 위로하기 위하여 베풀어진 것임을 알겠다. 그러나 《송사 宋史》 고려전에는 팔관회는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의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천신제였던 것이니 고래의 제천유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명된다.

고려시대의 민간의 세시와 풍속은 민간신앙과 더불어 발생된

것도 있고, 순 외래적인 것이 잠시 유행했던 것도 있었다. 그러나 세시풍속 역시 축제라는 한국적 양식 속에서 발생·성장한 것이 많았고 불가식 세시형식 속에서 습합되어 세시풍속화된 것도 꽤 있다. 특히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는 발생·성장 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멸과 쇠잔이라는 면에서도 동궤(同軌)를 밟고 있는 것이 많다.

필자는 본고(本考)에서 고려시대의 세시풍속만을 대상으로 얼마간의 통시적(通時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자료는 《고려사 高麗史》·《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포은집 圃隱集》·《가정문집 稼亭文集》·《서하집 西河集》·《목은집 牧隱集》 등이고, 1월에서 12월까지 행해지는 세시풍속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나누어 다루었다.

1월에는 원정(元正)·인일(人日)·상원(上元)·입춘(立春), 2월에는 연등회(燃燈會), 3월에는 상사(上巳)·한식(寒食), 4월에는 4월 8일(四月八日)·입하(立夏), 5월에는 단오(端午), 6월에는 유두(流頭), 7월에는 칠석(七夕)·백종(百種), 8월에는 중추(仲秋), 9월에는 중양(重陽)(中九), 10월에는 팔관회(八關會)(11월에도 함), 11월에는 동지(冬至), 12월에는 제석(除夕) 등 모두 18개 항(項)을 선정하였다.

1월

① 원정(元正)

정월 초하루는 원정이라 해서 고려시대의 9대 속절(九大 俗節)의 하나였다. ‘신정(新正)’이란 단어는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고율시(古律詩)에 보인다.

화산의 열 번째 맞는 봄으로
 신축년 정월 초하루일세
 사람들은 응당 신정을 축하하느라
 저마다 모여 마을 문을 메웠을 텐데
 세월이 돌고 돌아 다시 시작되는 건

천지가 개벽한 후로 그러하였네

고려적 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행정(行省)에서 정월을 축하하였고, 궁에 돌아와 연회를 베풀었다. 또 어정전(御正殿)에서 축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원정에 민간에서는 조·부모의 차례를 지내며 새해를 축복하는 놀이가 행하므로 관리급가(官吏給暇)에 있어서도 전후 7일을 주었다. 또 《목은집 牧隱集》의 시를 보면 세화(歲畵)를 주고 받았던 풍속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⁸⁾

② 인일(人日)

인일은 음력 정월 7일을 이르는 말이다.

정초에는 남의 집에 가서 유숙하지 않지만, 특히 7일, 즉 인일에는 외숙(外宿)하지 않는다. 이 날 객이 와서 묵고 가면 그 해는 연중 불운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부득이 객이 와서 묵게 될 때는 불운을 막기 위해서 주인과 객은 머리를 반대로 두고 거꾸로 자야만 한다.

인날에 대한 기록은 6세기 중엽 중국 종능(宗愨)의 《형초세시기 荆楚歲時記》에 처음 나온다. 같은 책에 이 날 화승(花勝)을 만들어 서로 선물을 하는 풍속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전설적인 선녀 서왕모(西王母)가 머리에 꽂고 있던 대승(大勝)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장수와 행복을 비는 뜻이 담겨 있다.” 하였다. 또,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도 동인승(銅人勝)은 작고 둥근 거울로 자루가 달리고 뒤에 신선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중국세시기 中國歲時記》(송대의 세시기)에 의하면, 수(隋)나라 유진(劉臻)의 아내 진씨(陳氏)가 인날에 동인승을 올리는데 흑 비단실을 자르거나 혹은 금박을 새기거나 해서 장식하

8) 《高麗史》 世家 卷 37, 忠穆王 元年(乙酉), 正月.
 《高麗史》 世家 卷 38, 恭愍王 元年(壬辰), 正月.
 《牧隱集》 牧隱詩集, 詩, 歲畵十長生.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第8, 古律詩, 辛丑, 正旦.

여 만들었다고 했다.

고려시대는 궁중에서 인날에 하례(賀禮)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인날을 축하하면서 인승녹패(人勝祿牌)를 양반들에게 사(賜)하였다. 이 때 인승녹패를 나눠주면 양반이 꿇어앉아 그 인승을 받는데 3품 이상은 지후(祗候)가 나누어 주고, 4품 이하는 대부인리(大府人吏)가, 판사(判事) 이상은 삼사판관(三司判官)이, 그 이하는 인리(人吏)가 나누어 준다.

《동국이상국집》 권 제2 고을시 <인일수은승 人日受銀勝>에 의하면, 인날 은승을 받고 지은 3수의 시가 보인다.

머리 장식 화려하여 늙은 눈이 놀라고
 임금께서 내려준 것 전해 받음에 봄기운 더하는듯
 머리에 꽃으매 어찌 그리 무거운가
 임금의 은혜 때문이지 은 때문은 아닐세
 날도 인일이요 머리 장식도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은빛이 흰 머리와 빛을 다투네
 올해도 무심히 예에 따라 받고 보니
 성은이 물러나 한가로운 몸에까지 미친 걸세

서왕모가 남긴 의식 아직도 남아 있어
 화승을 만들어 서로 서로 선물하네
 이 늙은이야 풍속 따름을 기필함은 아니지만
 임금의 은택이라 잠시 머리에 꽃아보네

이 시로 보아 은승 풍속도 서왕모 전설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고 머리에도 꽃았음을 알 수 있다.

《목은시집 牧隱詩集》 권 13 <칠일반복시 七日頒祿詩>⁹⁾에는 이 때 왕모상(王母像)을 만들어 위했던 흔적도 나타나 있다.¹⁰⁾

9) 省宰押班閭闔深 左文武簇如林 時當人日頒王命 食是民天簡帝心.

10) 《高麗史》 世家 卷 19, 明宗1, 3年(正月).

《高麗史》 志 卷 21, 禮 9, 嘉禮.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第2, 古律詩(人日受銀勝).

③ 상원(上元)

고려의 절일에는 《고려사》 지권(志卷) 형법 금형조에 원정, 상원(정월 15일), 한식, 상사(3월의 첫 巳日), 단오, 추석, 중구, 동지, 팔관을 9대 속절이라 하여 열거하고 있다. 원래 대보름은 달에게 풍년을 빌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날로 믿어지는 말이며, 일년 중 민속놀이가 가장 많은 명절이기도 하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 芝峰類說》 권 1 절서조(節序條)에 의하면 상원에 답교(踏橋)의 희(戲)가 성행하였다고 하나 《고려사》에는 상원 연등과 도량(道場)에 관계된 이야기만 나올 뿐이다.

그러나 《동국이상국집》에 나타난 상원 저녁 분위기는 그 때의 사정을 얼마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정월 보름의 저녁을 당한지라 성대한 풍악의 의식을 베푸시니, 칠정육합(七政六合)의 생황(笙)은 그 소리가 천상의 풍악보다 우렁차고, 구광사조(九光四照)의 등불은 그 그림자가 별빛처럼 찬란하다. 모든 오락을 교대로 연주하여 백성들과 함께 즐기시도다. 귀신과 사람이 서로 경하하고, 미개인이나 문화인이나 모두 손님처럼 오게 되도다.

뿐만 아니라 등석시(燈夕詩)에 나타났듯이 호위병에게 명하여 밤에 엄한 경계를 해제하고 도성 사람들을 우대하여 마음껏 관등 놀이를 하고 놀게 했던 것이다. 성왕(成王)이 중국 풍속을 즐기므로 국민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민중의 주체의식을 《익재난고 益齋亂藁》에서 찾을 수 있거니와 끝내 성왕도 이지백(李智白)이, “선조의 법도를 다시 행하고 남의 나라 법을 쓰지 않으면 국가가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충언(忠言)에 다시 민족 고유의 연등, 팔관, 선량 등의 행사를 부활시켜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갔다고 한다.

상원 연등회 의식은 팔관회와 대동소이한데 《고려사》 권 제23 예(禮)11, 가례(嘉禮), 잡의(雜儀) <상원연등회의 上元燃燈會儀>에 소상히 나와 있다. 즉, 기일(期日) 전에 도교서(都校署)는 부계(浮

階)를 강안전(康安殿)의 계전(階前)에 만들고 상사국(尙舍局)은 왕악(王幄)을 전상(殿上)에 베풀며 왕악(王幄)의 동쪽에 다시 편악(便幄)(便次)을 마련한다. 한 쌍의 수로(獸爐)를 앞에 놓고 왕좌(王座)의 좌우 기둥 앞에는 화안(花案)을 놓고 등롱(燈籠)은 부계의 상하·좌우에 나열하고 채산(綵山)을 전(殿)의 뜰에 설치한다. 여기에는 교방(敎坊)의 악대(樂隊)(좌우 양부의 음악이 있는데 좌는 중국음악이고 우는 국악임)와 무대(舞隊) 그리고 산대희(山臺戲) 등 백희와 잡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 회(會)는 팔관회처럼 소회(小會)와 대회(大會)로 나뉘어 불야성을 이루며 태자를 비롯하여 재(宰)·추(樞) 문무백관(文武百官)의 진하의식(進賀儀式)도 있었다.¹¹⁾

④ 입춘(立春)

입춘은 24절기의 첫째로 양력 2월 4일경이 된다.

입춘날에 대궐 안의 기둥에 써붙였던 주련(主聯)을 춘첩자(春帖子)라고 한다. 입춘에 하례(賀禮)하는 의식은 인일에 하례하는 의식과 같고 단지 춘첩자를 받는다. 《고려사》에 춘첩자를 사(賜)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궁중뿐 아니라 각 사대부 가정에도 부쳤던 것 같다.

《동국이상국집》 권 제17 고을시(御殿春帖子)에는 ‘춘첩자(春帖子)’라고 나온다.

서운은 채장 위에 떠오르고
수주는 금 술잔에 넘치네
나라를 교화함에 봄이 무슨 힘이랴
언제나 봄별은 스스로 길어
황은이 발생 조화와 더불어 가뜩 펼쳐져

11) 《東國李相國集》 卷 第14, 古律詩(燈夕文機障子詩).
《高麗史》 志 卷 第23, 禮史 嘉禮雜儀(上元燃燈會儀).
《益齋亂藁》 卷 第9下, 史檮, 成王.

곰고 상서로운 하늘에 동풍을 재촉하네
 그 누가 태평함이 제력(帝力)인 줄 알리
 노래하고 짓대 불며 새해를 맞이하네

입춘에는 더 날이 덥기 전에 얼음을 저장하면서 북방신인 사한(司寒)에게 축문을 올렸고, 또한, ‘입춘토우(立春土牛)’라 하여 흙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으니 이는 농경민족의 영춘적(迎春的) 의식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¹²⁾

2월

○ 연등회

태조가 <훈요십조> 제6조에, “짐(朕)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연등과 팔관회에 있노니 연등은 불(佛)을 섬기는 바이오, 팔관은 천령(天靈) 및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과 용신(龍神)을 섬기는 바이다.”라고 증언했듯이 고려시대의 연등회는 팔관회와 더불어 가장 큰 행사였다. 훈요에, ‘연등소이불사(燃燈所以佛事)’이라 하여 불교적 행사인 것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의식은 팔관회와 대동소이하고 불가식(佛家式)이 아니어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소설(所說)대로 기복(祈福)과 유악(遊樂)을 목적으로 하고 천신을 제사했던 무속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최남선(崔南善)도 파일의 관등을 설명하면서, 이는 우리의 원시광명 숭배사상(原始光明崇拜思想)의 여류(餘流)와 중국·인도 전래의 연등공덕 관념(燃燈功德觀念)이 결합하여 세시연등(歲時燃燈)의 풍(風)이 생겼고 신라 이래로 자못 성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등회의 새신적(賽神的) 유풍은 오늘날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12) 《高麗史》 志 卷 21, 禮 9, 嘉禮, 立春, 賀義.

《高麗史》 世家 卷 3, 成宗 7年.

《高麗史》 志 13, 世家, 卷 13, 睿宗 5年 12月.

《東國李相國集》 卷 第17, 古律詩(御殿春帖子), 五言七言.

《東國李相國集》 卷 第40, 釋道疏祭祝, 立春藏氷 司寒祭祝.

등의 풍신제(風神祭)인 연등제(燃燈祭)에 그대로 남아 있다. 《송사 宋史》 고려전에는, “이월망 승속연등 여중국상원절(二月望 僧俗燃燈 如中國上元節)”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연등회는 새해 첫 보름을 기해 법회가 열렸고, 그 후 2월 보름에, 때로는 4월 초 8일에 열기도 했다. 이로 본다면 정월과 2월의 연등회는 재래 한 국적인 연등행사로 공민왕(恭愍王) 23년 이후에도 행하여졌고, 4월 초과일의 연등은 신라 적부터 재래연등회와 병행하여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등행사와 놀이는 팔관회와는 달리(팔관회는 개경과 서경에 한해서 행함.) 전국에서 소회(정월 14일)와 대회(정월 15일) 2야(夜)에 걸쳐 행하였다. 문종(文宗) 2년(戊辰)에는 연등대회를 흥왕사(興王寺)에서 5주야(晝夜) 동안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원의 연등(正月 望日)이 태조 이래 이어오다가 성종대(成宗代)에 이르러 번잡하고 소란하여 온당치 못하다는 이유로 팔관회와 같이 일시 행사를 그만 두었다가 현종(顯宗) 원년 윤(閏) 2월 14일(甲子)에 연등회를 회복했다. 이는 전 해 12월에 거란(契丹)의 개경 침략을 피하여 나주(羅州)로 갔다가 그들이 물러감에 따라 개경으로 환행(還幸)하던 도중에 청주(淸州)에서 이 연등을 거행했던 것이다. 또 문종(文宗) 33년 2월 11일(丙辰)에는 한식이 14일이므로 3일은 먼저 행하고 11일에 연등을 거행하라고 발령(發令)하였다. 이처럼 성종조(成宗朝)에 폐지된 외에는 전부 2월 14일을 연등일로 정하여 내려 왔고, 문종조(文宗朝)에 이르러 그 33년 2월 14일이 바로 한식날이므로 3일을 미리 당겨 연등일을 거행한 것이다. 윗 기록을 감안한다면 고려 속요인 <동동 動動>이 지어진 연대도 자연 현종(顯宗) 이후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월(二月) 보로매

아으 노피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이샷다

이 연등행사는 여러 인중(人衆)을 징발하여 노역(勞役)이 심히 번거롭다 하였고, 그 사치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충렬왕(忠烈王)(壬辰) 때는 공주가 신희사(神孝寺)에 행차하여 연등하였는데 다 주옥(珠玉)으로 짜서 등롱을 만들었고, 연일 잔치를 베풀고 악관(樂官)으로 하여금 연등주악을 새벽까지 연주케 하였다. 공민왕 때는 호기희(呼旗戲)를 전정(殿庭)에서 관람하고 포(布)를 사(賜)하였으며, 연등화산(火山)과 잡희(雜戲)까지 했다.¹³⁾

3월

① 상사

오늘날 3월 3일은 화전놀이나 하는 날이 아니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어 명절로서의 비중이 약하나 상대에는 상사일(上巳日)을 전후해서 중요한 의례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3월의 초생(初生)으로 삼춘최대(三春最大)의 명절을 삼는 풍속은 우리나라에서 가락(駕洛)·신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순수한 절일이었던 ‘삼짇날’이 중국의 3월 사일절(巳日節)의 영향으로 상사절(上巳節)의 명칭이 생겼던 것이다.

《가락국기 駕洛國記》에도 영신(迎神) 맞이를 하기 위한 불계(祓禊)의 날짜가 임인(壬寅) 3월 ‘계욕지일(禊浴之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를 맞이한 알천(闕川) 언덕의 부족장들의 회의도 ‘3월삭(月朔)’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3월 상사·한식·청명 등의 서로 아주 가까운 날짜는 우리 농경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사에는 이 날 고구려에서도 낙랑원(樂浪原)에서 사냥을 겨루고, 가야·신라 때에는 계육도 행했으며, 고려 때에도 답청(踏靑)도 시(試)하였고, 곡수유상(曲水流觴)의 고적까지 경주의 포석정(鮑

13) 《高麗史》 世家 卷第8, 文宗 2, 21年 正月.

《高麗史》 列傳, 卷 第2, 后妃2, 忠烈王.

《東國李相國集》 第39, 佛道疏, 奉恩寺, 場文.

《東國李相國集》 卷 25, 記·旂文·雜著, 大安寺同 前旂.

石亭)에 남은 것으로 보아 사녀(士女)가 상회(相會)하여 즐기던 춘계의 의례적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보면 3월 3일에 상사시(上巳詩)를 지어 시신(侍臣)들에 명하여 화답(和答)하여 올리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¹⁴⁾

② 한식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 쯤 되는 날로, 양력 4월 5~6일경이 된다.

최남선은 한식의 풍속을 고대의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신화(新火)를 만들어 쓰는 때에 구화(舊火)를 일체 금지하던 예속(禮俗)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에까지 소상(遡上)할 수 있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한식 숭배사상의 사실이 사승(史乘)에 나타나 있으며 대표적 명절의 하나가 되어, 관리(官吏)에게 상묘(上墓)를 허락하고 죄수(罪囚)에게도 금형(禁刑)을 베풀었으며 조정에서는 이 날 연향(宴饗)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 미풍양속은 재래의 효사상(孝思想)과 접목되어 조선조까지 이어졌으나 오늘날은 성묘 행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식 때의 놀이는 추천(鞦韆), 호기희(呼旗戲), 투란(鬪卵) 놀이가 있다.

한식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는 거의 없고, 《동국이상국집》에 그 이칭(異稱)인 ‘백오(百五)’란 말이 나오고, 그 유래와 음식·금기 등이 나오며, 《서하집》·《목은집》에도 나타난다.

소나기와 질풍은

한식이면 언제나 겪는 일이네

하늘이 개자추를 위하여

타 죽은 영혼 위로함인 듯

바람은 서늘한 기운 날리고

14) 《高麗史》 世家 8, 文宗 2, 23年 3月.

《高麗史》 世家 10, 宣宗 2年 3月.

《高麗史》 志, 卷 11, 地理 2, 慶尙道(全州).

비는 맑은 기운 흐르게 하네
어찌하여 올따라
바람도 미미하고 비도 안 오는가
하늘도 오랜 옛날 일이라
외곶 길을 꾸준히 못 지키는가
또다시 명년 봄을 맞이해 보면
그제사 하늘 뜻을 밝게 알리라

더욱 흥미를 끄는 것은 '투란놀이'다. 이 민속놀이는 중국에도 있는 것으로 당대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다.

살구꽃 만발한 늦은 봄 다가왔으니
서울 거리에 투란할 시기рода
술에 취해 금화일인 줄도 알지 못하니
훈훈한 술기운 사람을 데워주네

임춘(林椿)의 《서하집》 권 제3에는 한구(寒具)라는 시절(時節) 음식도 눈에 띈다.

얼음이 물보다 차가와짐 천성에서 얻음이니
스승의 서법(書法)을 구구히 어찌 본받으리
풍류 우아하고 화려하며 뜻 아울러 갖추었으며
공계는 번거로우나 다시 낙신부(落神賦) 써 주게나
뒷날 객을 모아 한구(寒具) 차리려 하니
미리 두텁도다 한 주발음식 사람들 노하게 함이¹⁵⁾

15) 《東國李相國集》 卷 第3, 古律詩(寒食日 待人不至).
《東國李相國集》 卷 第1, 古賦·古律詩(寒食感子推事).
《東國李相國集》 卷 第1, 古賦·古律詩(次韻 梁權勸寒食日邀飲).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第3, 古律詩(寒食日有風無雨).
《西河集》 卷 第3, 眉叟見和復用前韻 三首.

4월

① 파일(八日)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고 전해지며, 욕불일(浴佛日)이라 부르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흔히 파일 혹은 초파일(初八日)이라고 한다. 고려 중엽으로부터 조선조에 걸쳐 차츰 일반성(一般性)의 등석(燈夕) 또는 아동 중심의 명일(名日)로 변모하였다. 고려 초에 2월 보름에 지내던 것은 한국의 연등행사였던 것이고 불교가 점점 성하자 2월 연등에서 4월로 고정되게 된 듯하다.

문헌에 의하면 신라 때에 정월 15일날 등을 달아 매는 일이 있었고, 고려시대에 들어와 현종(顯宗)(1010) 때에는 2월 15일에 연등회를 거행했고 그 후로 관례가 되었다가 고종(高宗)(1214) 때부터 초파일에 연등을 했다. 이처럼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불탄일(佛誕日)의 속절화(俗節化)는 대개 고려의 강화시대(江華時代)에 시작된 것 같고,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채봉(綵棚)과 잡회를 하며 축제를 벌였고 아동은 ‘호기(呼旗)’라고 하는 경축적 유가(遊街)를 행하여 그 흥을 돋았다.¹⁶⁾

② 입하

입하는 24절기의 하나로 양력 5월 5~6일경이 된다. 《고려사》에 의하면 얼음 사용하는 방법은 춘분(春分)에서부터 입추(立秋)까지 마치는 것이고, 해가 북능(北陵)에 있을 때 얼음을 저장하고 서능(西陵)에 있을 때 내는 것인데 널 때는 새끼 염소를 바쳐 제사를 하고 문을 연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

5월

○ 단오

단오란 말은 《삼국유사 三國遺事》에 그 단편적인 기록이 보

16) 《高麗史》 世家, 卷 第41, 恭愍王 15年 4月.

17) 《高麗史》 世家, 卷 6, 靖宗 2年 4月.

이고 그것은 고려왕조로 들어와 9대 속절의 하나가 되었다. 단오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외에 《동국이상국집》과 《익재집 益齋集》 등의 문헌에서 얼마간의 단오풍속을 찾을 수 있다.

《악학궤범 樂學軌範》에 있는 고려 속요(俗謠) <동동>에 보면,

오월 오일(五月 五日)에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즈믄 장존(長存) 헛살
약(藥)이라 받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라고 되어 있다. 이 때의 약이 무슨 약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의 기록대로라면 익모초를 먹지 않으나 추측된다.(端午……午時 採益母草, 《동국세시기》)

《동국이상국집》에는, “나라 풍속에 단오 때면 여자가 이 놀이를 한다”면서 그네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시귀로 표현하고 있다.

밑 때는 선녀가 달나라로 가는 듯
돌아올 땐 선녀가 하늘로 오는 듯
쳐다보니 뛰어오를 땐 땀방울 흐리더니
금방 펼렁이며 되돌아오는구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을 마소
베 짜는 북처럼 왔다 갔다 하며
아마도 피꼬리가 좋은 나무 가릴려고
날아 왔다 날아 갔다 하는 것인가

《익재난고》 제2권에는 단오에 마신 술과 그 유래가 나타난다.

……주점에서 또 창포주 한 잔 들이키니
깨서 읊은 초나라 신하 배울 필요 없지

그러나, 《고려사》에 의하면 충렬왕(忠烈王) 9년 5월에는 추천희(鞦韆戲)를 금한 적도 있다.

또 예종이 단오시를 지어 좌우(左右)에 선시(宣示)하고 화답을 올리도록 하였고, 왕과 공주가 단오이므로 양루(涼樓)에서 잔치하고 격구하는 것을 관람하였는데 마침 목단화(牧丹花)가 다 떨어졌으므로 채랍(綵蠟)으로 꽃을 만들어 지조(枝條)에 칠(綴)하기도 하였다. 신우(辛禡) 또한 단오를 이유로 하여 시가루(市街樓)에 올라 격구와 잡희를 구경했다. 또, 단오에 중들이 통구(通衢)에서 시식(施食)하는데 사녀(士女)가 다투어 모이는지라 최영(崔瑩) 장군이 중들에게 꾸짖는 대목도 나온다. 이로 보아도 불교가 우리 서민의 고유 명절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신우가 격구(擊毬)와 화포(火砲) 잡희를 즐겨 본 기록도 보인다.¹⁸⁾

6월

① 유두

우리나라 옛 풍속에 삼짚날 동류수(東流水)에 가서 오랜 때를 세정(洗淨)하는 불계(祓禊)라는 물에 의한 종교적 정화의례(精華儀禮)가 있었거니와 이 유두 역시 삼짚날과 마찬가지로의 종교적 의례에서 출발했다.

《열양세시기 冽陽歲時記》에, “고려·신라 시대에 나라 안의 남녀들이 주식(酒食)을 갖추어 동쪽으로 흐르는 냇물가에 가서 목욕하고 즐기면서 상서롭지 못한 일들을 빌어 물리쳤다(麗羅時國人士女 具酒食 就東流水 頭沐浴宴樂 祓除不祥).”고 하거니와, 오늘날처럼 단순한 형식이 아닌 중요한 촌락의 여름철 농경의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동서(同書)에 신라·고려의 속절이라

18) 《高麗史》列傳, 卷 26, 崔瑩.

《高麗史》列傳, 卷 42, 叛逆 3, 崔忠獻.

《東國李相國集》後集 3, 古律詩(端午見鞦韆女戲).

《圃隱集》詩, 端午日戲題.

고 하여, 옛날 중국 주유(涑洵)의 풍속과 같다고는 했으나 중국에서 전래한 풍속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 달거리 문학의 하나인 <동동>의 가사(歌詞)에도,

유월(六月)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밋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좃니노이다

이 노래 중 “내 신세는 머리를 빗고 수애(水厓)에 버린 빗과 같고나.”라고 한 데서 당시 부녀자들은 1년 내내 써왔던 빗을 이 날 버리고 새 빗으로 바꿨던 것 같다. 고려시대의 절일에 속하건만 《고려사》에는 다만 유두음의 풍속 유래만이 기록되어 있다.¹⁹⁾

② 백중(百種)

백중은 음력 7월 15일을 가리키는 말로, 일명 중원(中元)이라고도 하고 백중(百中)·백중(百衆)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백중은 고려 때 9대 속절에는 들지 않았으나 절일로 지켜왔다. 일명 중원절(中元節) 또는 백중일(百種日)·백중일(百衆日)이라고 하는데, 이날 일반 남녀가 약수터나 혹은 절간 같은 데를 가서 약수를 뜨고 또 부처님께 재를 올려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처자, 친척의 명복을 빌며 하루를 즐기던 날이다.

우리의 고유 명절이었던 백중은 불교의 영향으로 ‘우란분회(盂蘭盆會)’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대략 신라 법흥왕(法興王) 3년(梁武帝 大同 4年)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 같다. 고려 때의 우란분회의 광경 묘사는 《중경지 中京志》 권2 풍속조(風俗條)에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 중원조(中元條)에는, 이 백중에 관한 두 설에 대하여 김매순은 ‘미상숙시(未詳孰是)’라 하였으나, 유

19) 《高麗史》 世家 卷 19, 明宗 2, 15年 6月.

득공(柳得恭)도, “금소운 백종 즉백미자위야(今所云 百種 卽百味之謂也)(《동경잡지 東京雜志》 권2, 중원조)”라 한 것처럼 후자의 설이 타당한 듯하다.²⁰⁾ 그리고, 백종의 명칭은 고려시대의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고려속요(高麗俗謠) <동동>에는 나온다.

칠월(七月)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하야 두고
 니를 혼디 녀가져
 원(願)을 비읍노이다

이처럼 망인(亡人)을 위하여 100가지 음식과 과일을 벌려 놓고 정성껏 발원을 했던 것이다.²¹⁾

7월

○ 칠석

칠석(七夕)은 고려의 9대 속절에 들지 않고 또 중요한 절일에도 끼지 않는다. 《고려사》에는 왕이 공주와 더불어 내전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에게 제를 지낸 기록만이 나온다. 칠석은 원래 남녀 문제로 생겨난 명절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남녀의 정화가 펍 많다. 《동국이상국집》 권 제13 고을시 <칠석음우인가 七夕飲友人家>에도 그 같은 내용이 길게 깔려 있다.

은하수 옆으로 비끼고 반달도 밝으니
 이 좋은 밤 한쌍의 견우 직녀 마음껏 즐기라
 여보게 어여쁜 아가씨 하나 불러 주게나
 하늘이나 인간이나 쾌락은 일반이랴오

그 밖에도 칠월 풍속으로 재미있는 것은 소위 ‘결교(乞巧)’란 것

20) 故七月望日 爲百種節 八月望日 爲嘉俳日 或曰 羅麗崇佛 倣孟蘭盆供遺俗 以中元日 果百種花果 供養祈福 故以名其日 二說未詳孰是.

21) 《高麗史》 世家 卷 12, 睿宗 1, 元年 7月.

이 있다. 걸교란 바느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축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궁중에서는 채색비단으로 엮어서 백여 척이나 되는 누전(樓殿)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좋은 과일과 주육(酒肉)을 성대하게 차려 놓은 다음 여러 궁녀들이 모여서 견우 직녀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금과 은으로 만든 일곱 구멍의 바늘(七孔針)에다 실을 꿰어 가지고 기도하되 아무쪼록 바느질을 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한다. 만일 그 때 낮거미가 그 차려 놓은 음식 위에 내려오면 그 기도를 하는 여자들이 바느질을 잘하게 된다고 기뻐하여 풍류를 잡히고 노래를 하며 즐겼다고 한다.

이로 본다면 《고려사》에 나타난 왕과 공주의 뽕도 걸교의 하나였음이 틀림없다. 칠석에 처녀 여공(女功)을 기원한 시가 《목은시고》 권8에 나오고,²²⁾ 임춘의 《서하집》에는 걸교제(乞巧祭)를 지내고 과자(菓子)를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³⁾

8월

○ 중추

8월 추석은 한국 4대명절 중 제일 좋은 명절이다. 중국에서는 8월 15일이 구추(九秋)의 정반(正半)이라 하여 중추(中秋)라 칭하고, 그날 밤에는 달빛이 일년 중 제일 좋다 하여 후 월석(月夕)이라고도 하였다. 추석은 중추와 월석의 뒷자를 써서 추석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달구경이라는 유희적인 절일로 출발했으나 우리의 절일은 명칭도 가배일(嘉俳日)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원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념에서 생겨났던 것이다.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중국식으로 용어도 변했으며, 《고려사》 예종 2에 나타난 대로 왕이 완월(玩月)하고 영월시(詠月詩)

22) 橋成鳥鵲是何祥 牛女佳期趁夕涼 乞得巧來稱抱拙 儀曹表表擅文章.

23) 《高麗史》 世家 卷 38, 恭愍王 12年(癸巳) 7月.

《東國李相國集》 卷 第13, 古律詩(七夕飲友人家).

《西河集》 卷 第1, 七夕三首.

를 짓고 문신(文臣)들에게 화답(和答)케 하는 중추 풍속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춘의 《서하집》에는 ‘추석’이란 단어가 나온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신라적 가배란 말을 썼던 것이니 <동동>이란 고려시대 달거리체 시가에서 알 수 있다.

팔월(八月) 보로몬
 아아 가배(嘉俳)나리마론
 니물 피셔 녀곤
 오늘낫 가배(嘉俳)삿다²⁴⁾

9월

○ 중앙

중앙(重陽)은 9월 9일로 중구(重九)라고도 한다. 중앙은 9월 중의 유일한 제의력상의 명절로 중추절과 같이 성대히 지냈다.

중구란 말은 9가 겹쳤다는 뜻이며, 중앙이란 양수(陽數)가 겹쳤다는 뜻이다. 9는 양수의 극(極)이기 때문에 9가 겹친 9월 9일은 양기가 좋은 날로 여겨 양기존중(陽氣尊重)의 신앙적 관념으로부터 이 날을 명절로 삼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중구를 숭상한 것은 신라적부터라 하겠는데 임해전(臨海殿) 또는 월상루(月上樓)에서 군신(君臣)의 창화(唱和)가 이루어졌고, 고려로 내려오면서 중국문화의 영향이 깊어짐에 따라 중구의 연향(宴饗)이 완전히 국전화(國典化)되어 내외신하(內外臣下)는 물론 송(宋)·탐라(耽羅)·흑수(黑水) 등 외객(外客)까지도 하연(賀筵)에 참렬(參列)하였다.

고려의 속요 <동동>에 나타난 대로 중구일에는 국화를 따서 화전(花煎)을 해 먹거나 술을 만들어 먹는 풍속이 있었다.

24) 《牧隱集》 牧隱詩藁, 詩 中秋翫月上黨樓上.

《西河集》 卷 第1, 八月十五夜.

《高麗史》 世家 卷 36, 忠惠王 4年(癸未) 8月.

《高麗史》 世家 卷 20, 明宗 2 20年 8月.

구월 구일(九月 九日)에
아으 약(藥)이라 먹는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서가 만흐애라

그러나, 최남선이 지적한 대로 구일은 뒤에 와서 어디까지나 궁정(宮廷)의 귀족계급 또 문인과 같은 특수계급의 절일에 그치고 말았다. 《동국이상국집》 권 제7 고을시에,

지난해 상주에서 중구절을 지낼 적에
병으로 오래 누워 술을 마시지 못하고
억지로 지팡이를 짚고 중을 찾아가
손수 향불 피워 향내를 맡았더라
가버린 지난해는 뉘우친들 무엇하랴
올해는 좋은 모임 꼭 가지려 별렀건만
뉘 알았으랴 올해도 또 손앓이로
좋은 시주 모임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물 마시고 국화를 씹으니
속됨을 못 면하고 그저 지낼 뿐이로다
아내 웃으며 권한 술도 죽히 기쁘거니
어찌 산에 올라 마냥 취해야만 하나
서생의 기막힌 운명 어이 말하랴
해마다 좋은 절기 병중에 지나는구료
석양에 울밑 국화를 읊으며 소요하니
그래도 서풍은 신의 있어 모자에 불어오네

이 시에서 “어찌 산에 올라 마냥 취해야만 하나”란 구절은 세속에서 9월 9일이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菊花酒)를 마시며 놀았던 속례(俗禮)를 말한다. 곧, 중앙절은 상국(賞菊)과 등고(登高)의 절(節)이기 때문이다. 임춘의 《서하집》 권 제3에는 중

국풍의 ‘용산지회(龍山之會)’가 소개되고 있다.²⁵⁾

중구절은 신라적 화랑들의 산길 순례(巡禮)와 맞물려 고려인의 풍류도로 승화되어 나갔다.

10월

○ 팔관회(八關會)

팔관회(일명 八關齋)는 《고려사》·《가정문집 稼亭文集》·《송남잡지 松南雜識》·《해동악부 海東樂府》 등의 기록에 의하면 나대(羅代) 진흥왕 때부터 시작된 제전(祭典)으로 연등회와 더불어 고려의 2대 행사였다. 송나라 서궁(徐兢)이 그가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 宣和奉使高麗圖經》 권 제17 사우(祠宇)에서 말했듯이 팔관회의 기원이 고구려 동맹제(東盟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회야 말로 민족 고유의 제전이 불가식 형식만 빌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홍왕사, 장경사, 법왕사 등 사찰에서 행사를 치렀으나 순수 불교적 범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오히려 음주가무(飲酒歌舞)와 잡회를 위주로 한 민족 유습의 제전이자 축제였다.

태조의 《훈요십조》에 의하면, ‘연등은 불(佛)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령 및 오악 명산대천과 용신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고려사》 태조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의봉루(儀奉樓)에서 베풀었으며 매년 시행토록 명했다. 처음 성종이 이 팔관회를 관람하고 너무 잡기에만 흘러 번요(煩擾)함이 심하므로 이같은 잡기는 일체 금하고 오직 절에 가서 행향(行香)하고 구정(毬庭)에 돌아가서 문무제신(文武諸臣)의 하(賀)를 받았다고 한다.

25) 《高麗史》 世家 卷 20, 明宗 2, 20年 9月.

《高麗史》 世家 卷 13, 睿宗 2, 5年 9月.

《高麗史》 世家 卷 9, 文宗 3, 36年 9月.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第7, 古律詩 十月 見黃菊盛開.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第5, 古律詩 重九日 聊有空空 上人盧同年 來訪小酌泛 菊因有感作詞一首.

《西河集》 卷 第2, 九日獨坐 聞諸公有會作詩奇之.

그 후 현종 원년 11월 15일인 경인(庚寅)에 다시 팔관회를 회복시키고 왕이 위봉루(威鳳樓)에 행어(幸御)하여 그 정경을 관람하였고 이 날을 즐겼다고 하니 성종 때 폐한 후로부터 현종 원년이 회를 복설(復設)하기까지 거의 30년이 된다.

시기는 신라제도를 따라 매년 중동(仲冬)(음력 11월 15일)에 왕경에서 하였고, 맹동(孟冬)(10월)에는 서경에서 행했는데 회일(會日)에는 국기(國忌)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고려사》 열전 권 46 신우 3년 11월에는 월식으로 인하여 팔관회를 멈춘 일이 있고 성종의 유교주의정책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으나 정종조에서 고종조에 이르는 125년(1034~1259)간 가장 성행하였다.

《고려사》에는 이 밖에 이 날 재상에게 화주(花酒)를 사했고(명종조), 군신이 무답(舞蹈)했으며(지권 23, 예11가례, 잡회), 대송·흑수·탐라·일본 등 제국인(諸國人)이 각기 예물(禮物)과 명마(名馬)를 바쳤다(문종)는 기록이 나타난다.²⁶⁾

11월

○ 동지(冬至)

동지는 24절후의 하나로 양력 12월 22~23일경이 된다. 동지는 고려 9대 속절의 하나이다. 우리에게는 11월은 동짓달이라고 부르는 것이 11월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통속적으로 들린다. 동짓달에 특별한 행사는 별반 없다. 단지 동짓날에 팔죽을 쑤어 먹는 것이 성행하여 으레 동지하면 시절 음식으로 팔죽이 연상되고 있으니 고려 때 시인들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했다. 이제현(李齊賢)의 시 <동지>에,

26) 《高麗史》 列傳 卷 第2, 后妃 2, 忠烈王.

《高麗史》 志 卷 第18, 禮 6 凶禮 國恤.

《東國李相國集》 第39, 佛教疏 法王寺……經文.

《東國李相國集》 年譜, 己卯(貞祐).

《稼亭文集》 卷 10, 序·表·牋·疏語·青詞·八關齋疏.

옛날 연성에서 송경으로 향해 갈 때 우거진 길 숲에 매미소리 요란했지.....

오늘은 송경에서 연성으로 향해 가는데 십이율(十二律)로는 황중에 닿고 북두(北斗)는 자방에 닿았는데

일양이 생기는 남지일이 오늘이라네

우리집 오늘 아침 형과 아우는

여러 종을 시켜서 팔죽을 끓일 거야(우리나라 사람은 동지에 반드시 팔죽을 끓여 먹는다.)

채색옷을 입고 부모님께 헌수할 때

세상에 이런 즐거움 형용하기 어려울 텐데 아 못생긴 나는 무엇을 해 보려고

이 좋은 동지철에 먼 길을 걷고 있는지

.....조만간 봄바람이 사해에 고루 퍼지면 만물이 절로 생성함을 알아서 볼 거야

윗 시의 할주(割註)에도 있듯이 동지 팔죽의 풍속은 고려의 향풍(鄉風)이었다고 《목은시고》(권 20)에도 나타나 있다. 혹자는 팔죽을 문에 뿌려 불상(不詳)을 제거하려 했던 풍속을 《형초세시시》의 설화에서 그 연원을 찾기도 하나 이는 근거가 약하고 삼국시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무풍(巫風)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하지로부터 짧아 가는 낮의 길이가 동지에 이르면 극한을 넘고 이로부터 조금씩 길어진다. 이런 자연현상을 우리 고대 선민들은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니 여기 축제가 없을 수 없었다. 생명과 광명의 신인 태양신이 재탄생을 맞는 날이므로 이 때를 원단(元旦)으로 하는 풍속도 생기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주(周)나라가 중동(仲冬)을 가지고 정월을 삼았고 《역경 易經》에 복괘(復卦)를 11월에 배정한 것은 동지와 부활과의 관념적 연락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지를 ‘작은 설’ 또는 ‘아세(亞歲)’라 하여 조상신(祖上神)을 위했고, 소녀들은 단장에 색의(色衣)를 입고 집집마다 서로 심방(尋訪)하였다. 이처럼 조야(朝野)를 통하여 두루 행했고 조하(朝賀)의 예

도 정월처럼 했으며 이 날 명년 역서(曆書)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신라·고려의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 역시 고래의 동지제가 불교적 영향으로 형태만 바꾼 축제인 것이다.²⁷⁾

12월

○ 제석

제석(除夕)에는 민가와 궁중에서 묵은해의 잡귀를 몰아내기 위한 축귀의식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나례(儺禮)를 행하였고, 민간에서는 수세(守歲)라 하여 문 위에 도지(桃枝)를 꽂고, 집안 곳곳에 등불을 밝히고, 마당에서는 폭죽을 터뜨려 귀신이 놀라 달아나게 하였다. 궁중의 나례는 중국에서 유래된 의식으로, 《후한서(後漢書)》 의례지(儀禮志)에 그 기록이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종(靖宗) 6년에 기록이 나타난다. 궁중에서는 대나(大儺)라 하여 12세 이상 16세 이하의 소년들을 진자(振子)와 황금사목(黃金四目)의 가면(假面)을 쓰고 현의(玄衣)·주상(朱裳)에 웅피(熊皮)를 무릅쓴 방상씨(方相氏)의 축귀의식(逐鬼儀式)이 있었는데, 이 의식에서 사용되는 가면, 붉은 옷, 방상씨, 가무악 등은 모두 잡귀를 몰아내기 위한 것으로 민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희생으로는 닭 다섯 마리를 잡아 역기(疫氣)를 쫓았는데 정종이 이를 애통하게 여기고 닭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대용하도록 하여 황토우(黃土牛) 네 마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나례 때에는 벽사의식(辟邪儀式)으로 처용무(處容舞) 등 여러 잡희가 베풀어졌는데 이를 나희(儺戲)라 하였다. 그런데 나희는 나례 이외에도 왕의 행차 때 주연이나 사신의 위로연 등 의식적인 성격을 떠나 오

27) 《益齋亂藁》 卷 第2, 詩 冬至.

《東國李相國集》 後集 第2, 古律詩 見冬至曆.

《東國李相國集》 後集 第2, 古律詩 冬至……李學士 二首.

《高麗史》 世家 卷 第36, 忠惠王 辛巳 11月.

《高麗史》 世家 卷 第4, 顯宗1 2年 10月.

락적인 연희로 전용되기도 하였다.²⁸⁾

세시풍속의 연구란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그 외연적 사항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생활 및 정신사의 진수를 접하게 된다.

세시풍속의 구조는 개혁을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부단히 고수해 나가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한다. 일례를 들어 투란희는 고려시대로 끝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귀중한 풍속으로 통시적(通時的) 상황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호기동회는 4월 8일 아동들의 경축적 유가(遊街)로 아동들이 종이를 오려 장대에 붙여 기를 만들어 가지고 성중의 거리와 마을을 돌고 외치면서 미포(米布)을 구하던 일종의 걸립희(乞粒戲)다. 호기회를 전정에서도 행했던 바 왕은 관람을 하고 나서 포를 사하기도 하였다. 투란희는 한식을 전후로 하여 조상의 재생·재림을 염원하는 계란 깨뜨리기 놀이이다.

현대를 사는 공시인간에게는 기억에도 없고 문헌적 상황만을 이해할 뿐이지만 통시인간에게는 현실적이었고 훌륭한 철학이 담긴 축제놀이요 그들의 당대 문화였다.

세시풍속과 축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세시풍속이 정체적이고 현상적이라면 축제는 폭발적이고 행동적이다. 이 둘은 동질적일 수도 있으나 실상 세시풍속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축제이다. 세시풍속이 시현시간(示現時間)이요 신성화의 시간이요 질서의 시간이라면, 축제는 비신성화의 시간이고 일종의 신분깨기 시간이다. 이것을 백틴(Bakhtin)은 ‘탈구기시간(脫拘忌時間·desacalized time)’이라 했다.

고려시대의 문헌적 조사를 통해 볼 때 극히 일부 세시풍속만이

28) 《東國李相國集》全集 卷 13 古律詩 守歲.
 《東國李相國集》後集 第8 古律詩 外孫 孩兒學拜.
 《高麗史》64 卷 18, 禮 6 軍禮 季冬大儼儀.

드러나고 있다. 문헌적 사록(史錄)이 왕조 중심의 기록이고 그나마 몇몇 기록도 귀족들의 생활사 위주였기 때문에 무수한 민속상황(民俗狀況)이 사장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참된 삶의 영위는 표층문화에서는 자세히 살필 수가 없다. 단편적인 기록에서나마 기층문화 속에 나타난 민중의 생활풍속을 찾는 일은 보람된 일이라고 사료된다.

2) 고려시대 세시와 풍속 자료

1월

① 1일 : 원일, 정조, 원정

- 관리급가

원정은 1월 1일로, 관리에게 이날을 전후로 7일간의 휴가를 준다.(元正前後并七日)

《高麗史》 卷 84 志 38, 刑法 公式 官吏給暇.

- 삼원

봄 정월 초하루 무오일에 우왕이 이인임의 집에 있었다. 이인임의 아내가 큰 술잔을 올리며 아뢰기를, “오늘은 삼원(三元)이니, 삼가 수(壽)를 올립니다.” 하였다. 우가 잔을 다 마시고 희롱하기를, “내가 한편으로는 손자요, 한편으로는 계집종의 서방인데, 지금 마주 앉아서 마시는 것이 실례가 아닐까.” 하고, 처용(處容)가면을 쓰고 놀이를 하여 그를 기쁘게 하였다.(春正月 戊午朔 禡 在李仁任第 仁任妻 進大爵曰 今日三元 謹上壽 禡盡爵 戲曰 吾 一則爲孫 一則爲婢壻 今而對飲 得無失禮耶 乃冒處容假面 作戲悅之)

《高麗史節要》 卷 32 辛禡 12年, 正月.

- 정조 축하 의식

9년 봄 정월 초하루 갑신일에 비와 눈이 내려서 정조 축하 의식을 정

지하였다.(九年 春正月 甲申朔 以雨雪 放朝賀)

《高麗史》 卷 10 世家 10, 宣宗 9年 正月 甲申日.

9년 봄 정월 초하루 병진일에 일관(日官)이 왕에게 일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므로 연회를 중지하였다.(九年 春正月 丙辰朔 日官奏日當食 停宴會)

《高麗史》 卷 29 世家 29, 忠烈王 9年 正月 丙辰日.

봄 정월 초하루 신사일에 원나라에서 “일식(一蝕)이 있을 것이니 원조 축하 의식을 중지하고, 모든 관원들이 소복 차림으로 일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일식이 나타나지 않자 계미일에 정조 축하 의식을 거행하였다.(春正月 辛巳朔 元 來告 日當食 停賀正禮 百官素服 以待 不食 癸未乃行賀禮)

《高麗史節要》 卷 24, 忠肅王 7年 正月.

술잔 모서리에 서린 서광은 푸르고, 단정히 현(軒)에 오르니 예복(黼黻)이 빛나네.

책력을 때에 따라 반포하여 엄히 통일하고, 글을 헤아리고 바퀴자국을 같게 하여 사방을 함하였네.

구름을 걷고 나온 해는 의장기를 비추고, 바람에 실린 향기는 임금의 자리를 감도네.

조화가 끝난 이후에 대궐에서 잔치를 베풀니, 궁궐 안의 봄기운이 초주(椒酒) 따른 술잔에 가득하네.

(觚稜曙色正蒼蒼 端拱臨軒黼黻光 頒曆隨時嚴一統 考文同軌混多方 雲開天日明仙仗 風細香烟傍御牀 朝罷丹墀霑錫宴 九重春氣滿椒觴)

《泰齋先生文集》 卷 3, 詩 七言四韻 元日獨坐.

• 축문

시각이 다섯 점을 지나니 봄이 왔다 아뢰고, 술에 산초의 향내 풍기니 축배가 새롭네.

조관(朝官)의 축하 반열에 춤추는 소매자락 나부끼고, 경사스런 자리

에는 궁녀가 노래하는 입술 보이네.

만물의 생겨남은 비록 하늘의 조화이나, 그 발육은 성상의 균등한 은 덕이네.

사해가 다 태평함은 우리 세대에 시작되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같다고 이르지 마소.

하늘이 정녕 만년의 성수(聖壽)를 내렸으니, 올해부터 다시 원년(元年)으로 했으면 하네.

스며드는 선향은 춤추는 옷소매를 재촉하고, 진동하는 갈고(羯鼓)는 노래하는 입술 격려하네.

풀과 나무는 무심하니 무엇을 알라마는,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내는데 본래 균등하네.

노인이 비록 늙었으나 정은 남아 있어, 저 남산을 가지고 우리 성상의 장수를 기원하네.

(更籌五點報王春 酒泛椒香上壽新 庭驚賀班旋舞袖 宮罵慶席弄歌唇
物生雖自天機密 乳育全歸聖澤均 四海同歡由我代 勿言今古一般人
天錫皇齡的萬春 請從今歲始稱新 仙香入杏催紅頰 羯鼓驚雷督絳脣
草木無心何自識 乾坤化物本來均 老人雖老情猶在 直把南山壽一人)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9, 奉和王太子元日令製 祝聖壽二首.

• 설 제사

해마다 정월 초하루와 5월 5일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에 제사지낸다.(每正月一日 五月五日 祭祖禰廟)

《宋史》 卷 487 列傳 246, 高麗

• 세배(신년 하례)

저자거리에는 신년하례의 수레들이 떠들썩한데,

적절한 궁벽한 집에서는 꿈에서 막 깨었네.

새봄이라 강산이 화려해짐을 문득 깨닫고,

늘그막엔 유독 세월이 한가함을 알겠네.

(賀歲輪蹄鬧闐闐 幽居寂寂夢初殘 新春陡覺江山麗 老境偏知日月閑)

《牧隱先生文集》 卷 7, 新春.

• 영상시

정월이라 북두성을 도니, 만물이 봄을 향하네.
 좋은 날 궁전에 오르니, 푸른 봄은 현수하는 술잔에 가득차네.
 임금의 나이(寶曆)가 황지에 올려지니, 상서로운 구름이 궁전을 둘러싸네.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곳에 천지도 두루 봄이네.
 (三陽廻北斗 萬物向東方 麗日昇金殿 青春滿壽觴 寶曆膾黃紙 祥雲繞紫宸 君臣同樂處 天地一般春)

《雙梅堂先生文集》 卷 1, 元日迎祥詩二首.

• 울루와 신도

술잔에는 도소주가 넘치고,
 문에는 울루(鬱壘)와 신도(神荼)라고 썼네.
 바라는 것은 백성이 평안한 것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네.
 (盃激屠蘇酒 門書鬱壘神 所祈民奠枕 不患我居貧)

《復齋集》 卷 上, 戊辰年元日.

• 초주

사계절이 비늘처럼 늘어서 자연히 가니, 누구인들 겨울이면 저장하고 봄이면 발생하는 것을 모르겠는가?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도 비록 헤아릴 수 있지만, 아홉 폭 종이에 쓴 것은 더할 수 없이 자세하네.
 설날에는 초주(椒酒)를 바삐 들 뿐이니, 아침 해에 붓타래 싹이 돌아남을 묻지 말라.
 책력을 받들고 임금의 장수를 빈다는 옛 말이 있으니, 해마다 약속이나 한 듯 이내 마음도 그러하네.
 (四時鱗次自然行 誰昧冬藏春發生 指屈五端雖可算 紙翻九幅一何明 但忙元日椒花酌 休問初陽荔挺萌 奉曆壽君前語在 年年如約是予情)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5, 次韻李學士百全 用丁公韻亦謝冬至曆柑子.

• 신단

닭도 울기 전에 이불 쓰고 앉아서, 신단을 먹기 위해 술 한 잔 마시네.
 일흔 두 알이 뱃 속에 쌓였을 것이니, 창자를 기울여 찾으려면 한 말이

넘칠 것이네.

어찌 세월만이 내 나이를 더하겠는가? 신명환도 또한 나이를 세는 산가지가 되네.

이 신단은 젊어지는 약이 아니니,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아마 신단도 먹지 않았을 것이네.

(擁衾閑坐未鷄鳴 爲服神丹吸一觴 七十二丸應積貯 搜腸傾倒斗堪量
豈獨歲華加我齒 神明丸亦作年壽 此丹非是還童藥 不爲傾盃殆必休)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5, 己亥正旦飲神明丹戲作.

② 7일 : 인일

• 관리급가

인일은 1월 7일로, 관리에게 1일의 휴가를 준다.(人日正月七日)

《高麗史》 卷 84 志 38, 刑法 公式 官吏給暇.

• 인일 하례

당일에 전문외(殿門外)에 유사(有司)가 진설함을 의식과 같이 한다. 각문원(閣門員)이 먼저 동변(東邊)에 서고 지후(祗候)가 양반(兩班)을 인도하여 중심을 머리로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행렬을 중복하고 북향하여 서며 시신(侍臣)은 품에 따라 서로 선다.

각사(閣使)가 나가 읍하고 문에 들어가 한번 절하고 꿇어앉아 먼저 인승면(人勝面)을 꿋고 절하고 문을 나가서 자리에 나아가 읍하고 선(宣)을 받들었다고 하면, 사인(舍人)의 외침으로 양반이 재배한다.

각사가 또 “경 등에게 인승녹패(人勝祿牌)를 사(賜)한다.”고 하면 사인의 외침으로 양반이 배무(拜舞)하고 절한다. 인승녹패를 나누어 주면 양반이 꿇어앉아 그 인승을 받는데 3품 이상은 지후가 나누어 주고 4품 이하는 태부인리(太府人吏)가 녹패를 나누어 올리고 판사(判事) 이상은 삼사판관(三司判官)이 나누어 주며 이하는 인리(人吏)가 나누어 올린다.

사인의 외침으로 양반이 재배하고 각각 지후가 인도하여 나간다. 각문이 횡행으로 가서 스스로의 외침으로 배무하고 절하며 각각 인승녹패를 받기를 위에서와 같이 하여 마치고 재배하며 읍하고 물러간다.
(其日 殿門外 有司 陳設如儀 閣門員 先立東邊 祗候 引兩班 中心爲頭

異位重行 北向立定 侍臣 隨品交立 閣使出 行揖入門 一拜跪 先挿人勝面 拜出門 就位揖 云奉宣 舍人喝 兩班再拜 閣使 又云賜卿等人勝祿牌 舍人喝 兩班 拜舞拜訖 分授人勝祿牌 兩班 跟受其人勝 三品以上 則祇候分授 四品以下 太府人吏 分上祿牌 判事以上 則三司判官分授 以下人吏分上訖 舍人喝 兩班再拜 各祇候 引出訖 閣門 橫行自喝 拜舞拜 各受人勝祿牌 如上訖 再拜揖退)

《高麗史》 卷 67 志 21, 禮 嘉禮 人日賀儀.

• 반록

기강은 나라의 혈맥이요, 봉록은 백성의 기름이네.

동방에는 법을 세워 봉록을 내려받은 바가 있어, 정월 7일과 칠월 7일에 은총을 내리네.

태산은 흔들어도 나누어 옮기지 못하듯, 여러 신하들의 봉록은 기약을 어긴 적 없네.

창고지기가 문서를 살피어 등급을 매기는데, 대궐뜰 아래 곡식은 산처럼 쌓여 있네.

대갓집의 건장한 노복은 서로 팔뚝을 뽐내며, 곡식을 지고 창고문을 나와 성화같이 달리네.

튼튼한 수레와 힘센 소가 함께 떠들어대며, 그 위에 징과 북소리까지 서로 어울리네.

(紀綱國血脈 俸祿民膏脂 東方立法有所受 正七七七頒恩私

泰山可搖判不移 群臣仰給無愆期 倉官按藉考次第 八列庭下堆如坻

大家豪奴競攘臂 負出倉門星火馳 車攻牛健共叫噪 助以鉦鼓聲相隨)

《牧隱先生文集》 卷 13, 受祿歌.

인일을 세상에서 중하게 여기니, 짐짐마다 웃음소리 정답네.

산 그늘에 구름은 앞에서 일고, 바람은 세계 불어 눈으로 꽃을 만드네.

짐짓 서재 휘장을 향하여 떨어지나, 도리어 춤추는 소매자락 따라 기울어지네.

잔 가득히 술 부어 어버이 장수를 기원하니, 먼 곳에 있음도 한스럽지 않네.

(人日鄉閭重 團圍笑語譁 山陰雲發葉 風急雪吹花 帷故向書帷落 還從舞

袖斜 稱觴獻親壽 未恨在天涯

《陶隱先生文集》 卷 2, 人日有雪.

• 은승·화승

또 정월 7일에 집집마다 서왕모상을 만들어 떠받든다.(又正月七日 家爲王母像戴之)

《宋史》 卷 487 列傳 246, 高麗.

늙은이가 화려한 머리 장식을 보고 놀라고, 임금이 하사한 것을 절하여 받음에 봄기운이 더하는 듯 하네.

(은승을) 머리에 꽂으매 어찌 그리 무거운지, 임금의 은혜 때문이지 은 때문만은 아니네.

날도 인일이며, 머리 장식도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은빛이 도리어 흰머리와 빛을 다투네.

올해도 생각없이 의례적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성은이 물러나 한가로운 몸에게까지 미치었네.

서왕모(西王母)가 남긴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 화승을 만들어 서로 선물하길 좋아하니,

이 늙은이는 반드시 풍속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의 은혜라 여겨 잠시 머리에 꽂아보네.

(老眼驚看縷勝新 拜承天賜別生春 插來何事頭偏重 只爲皇恩不爲銀
日爲人日勝爲人 銀色還能鬪鬢銀 今歲無心隨例受 聖恩猶及退閑身
王母遺儀今尙在 剪成花勝好相投 老夫不必遵風俗 爲是天恩暫插頭)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2, 人日受銀勝.

③ 상원

• 연등

여름 4월 초하루 기미일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임신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으며 이튿날 대회에는 연경궁에서 풍악를 구경하였다. 태후의 국상과 관련하여 임시로 상원(上元)의 연등행사를 정지하고 이 날에 이르러 이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꽃을 꽂는 등 여러 가

지 놀이만은 금지하였다.(夏四月 己未朔 日食 壬申 燃燈 王如奉恩寺 翌日大會 御延慶宮 觀樂 以國恤 權停上元 至是行之 唯禁插花諸伎)

《高麗史》卷 20 世家 20, 明宗 14年 4月 壬申日.

연등대회에 왕이 연경궁에 나가서 풍악을 관람하였다. 국상(國喪)으로 상원에는 정지하였다가, 이 때에 와서 행하였는데 다만 꽃을 꽂는 등 여러 놀이만은 금지하였다.(燃燈大會 御延慶宮 觀樂 以國恤 權停上元 至是行之 唯禁插花諸伎)

《高麗史節要》卷 13, 明宗 14年, 4月.

15년 봄 정월 무술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다. 이튿날 대회에는 왕이 천부전에서 풍악을 구경하였는데 국상으로 인하여 꽃을 꽂는 삽화는 그만두게 하였다.(十五年 春正月 戊戌 燃燈 王如奉恩寺 翌日大會 王觀樂于天敷殿 以國恤除插花)

《高麗史》卷 20 世家 20, 明宗 15年 正月 戊戌日.

④ 입춘

• 관리급가

입춘에는 관리에게 1일의 휴가를 준다.(立春一日 官吏給暇)

《高麗史》卷 84 志 38, 刑法 公式 官吏給暇.

• 입춘하례

동쪽 거리에 봄을 맞이하는 제사가 한창이니

토우가 새벽에 일어나 첫 밭갈이를 하네.

구망(句芒)이 감농사(監農使)를 보지 못하고

아마도 사람들이 부질없이 이름만 도적질함을 비웃을 것이네.

정치는 농사를 가장 우선 하는 것에 근본하는 것이니

성군도 몸소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네.

누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가

아무래도 저 하늘만은 속이기 어려울 것이네.

(東陌迎春祀事明 土牛乘曉起初耕 句芒不見監農使 應笑時人浪竊名

治本於農政所先 聖君躬秉耒耕田 誰憂國命兼民命 雖復難欺是上天)

《耘谷行錄》卷 5, 十二月二十六日立春卽事.

일년은 삼백 육십 일인데, 입춘일에는 토우를 사용한다.(年中有三百六十日 立春日用土牛)

《破閑集》 卷 中.

• 얼음 저장

사한은 맹동 및 입춘에 얼음을 저장하고, 춘분에 얼음 창고를 열 때 제사지낸다.(司寒 孟冬及立春 藏冰春分 開冰 享之)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小祀 司寒.

⑤ 월내

• 원구 제사

원구단에서 제사지내는데, 정해진 날은 정월 첫 신일(上辛)로 기곡제를 지낸다. 정해지지 않은 날로는 맹하에 길일을 택하여 우제(雩祀)를 지낸다.(祀圜丘 有常日者 孟春上辛 祈穀 無常日者 孟夏 擇吉雩祀)

《高麗史》 卷 59 志 13, 禮 吉禮 大祀 圜丘.

성종 2년 정월 신미일에 왕이 친히 원구단에서 기곡제를 지내고 태조를 배향하였다. 기곡제는 이 때로부터 시작되었다.(成宗 二年 正月 辛未 王親祀圜丘祈穀 配以太祖 祈穀之禮 始此)

《高麗史》 卷 59 志 13, 禮 1 吉禮 大祀 圜丘.

봄 정월에 왕이 원구단에서 기곡제를 지내고 태조를 배향하였다. 몸소 적전(籍田)을 갈았으며, 신농씨(神農氏)를 제사지내고 후직(后稷)을 배향하였다. 기곡제와 적전의 예는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春正月 王祈穀于圜丘 配以太祖 躬耕籍田 祀神農 配以后稷 祀穀籍田 始此)

《高麗史節要》 卷 2, 成宗 2年 正月.

• 방택 제사

현종 22년 정월에 왕이 친히 방택에 제사지냈다.(顯宗 二十二年 正月 親祭方澤)

《高麗史》 卷 59 志 13, 禮 吉禮 大祀 方澤.

● 사직 제사

선종 4년 정월 기사일에 사직단에 제사지내어 신병(神兵)의 조전(助戰)을 빌었다.(宣宗 四年 正月 己巳 祭社稷 以祈神兵助戰)

《高麗史》 卷 59 志 13, 禮 1 吉禮 大祀 1 社稷.

● 태묘 제사

태묘의 향사(享祀)로서 정해진 날은 한식과 납일로, 납향(臘享)에는 물고기를 올린다. 정해지지 않은 날로는 모두 사맹월(四孟月: 1, 4, 7, 10월)에 택일한다. 3년에 한 번 맹동(孟冬)에 협제(禘祭)를 지내고, 5년에 한 번 맹하(孟夏)에 체제(禘祭)를 지낸다. 그 체협제사 지내는 달에는 곧 시향(時享)을 지내지 않는다.(太廟 享有常日者 寒食臘 臘兼薦魚 無常日者 並擇日四孟月 三年一禘 以孟冬 五年一禘 以孟夏 其禘禘之月 卽不時享)

《高麗史》 卷 59 志 13, 禮 吉禮 大祀 太廟.

“본조의 옛 제도에 원구, 종묘, 사직, 산릉, 진전, 신사의 제향 축문과 도전(道殿) 불사(佛寺)의 사소(詞疎)는 본래 사관(寺官) 한 사람이 매일 번갈아 숙직하여 깨끗하게 재계하고 써서 올리면 상(上)이 목욕재계하고 친히 압인(押印)하여 천지종사(天地宗社)에는 반드시 친히 제사하고 불우와 도전, 신사에는 혹 대신을 명하여 섭행(攝行)하게 하였습니다. 근자에는 기양(祈禳)이 외람되어 많음으로써 혹 정자(正字), 소신(小臣)에게 명하여 대신 압인하니 그 근원이 한번 열리매 지금은 오직 사시대향(四時大享)에만 친히 압인하고 그 나머지는 다 대신 압인하여 심히 성경(誠敬)의 뜻에 멀어지고 있습니다. 원컨대 조종(祖宗)의 옛 제도를 따라 축문과 사소는 목욕재계하고 친히 압인하여 원구, 사직, 종묘, 적전의 대향은 반드시 다 친히 제사하고, 삭망전(朔望奠) 및 모든 사양(祠禳)은 대신을 택하여 섭행하게 하되 정전(正殿)에 나가 시어 친히 축문과 사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창왕이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하는 이미 신 등이 친히 제사지내라는 청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종묘에 대향함을 대신으로 대위(大尉)에 충당하니 이는 전하

가 친히 제향하고자 함이 아니옵니다. 이것을 제문과 제물을 갖추지 못함 때문이라 하면, 진실로 밝은 성신(誠信)이 있으면 골짜기나 개울이나 연못의 풀도 가히 신명(神明)에 드릴 수 있거늘, 어찌 제문과 제물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그 정성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국사(國事)를 권서(權署)하며 감히 제사를 주재(主宰)하지 못함이라 하면 순(舜)이 종(終)을 받고 우(禹)가 명을 받음은 다 섭정(攝政)이로되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문조신종(文祖神宗)의 묘(廟)에 이르렀으니 순(舜)과 우(禹)는 천하의 대성(大聖)이라 만세의 제왕이 마땅히 법한 바이거늘 전하는 이를 법하지 않으니 신 등은 그옥이 전하를 위하여 이를 애석히 여기나이다. 이제 전하가 친히 제사하지 않음에 세 가지 옳지 못함이 있으니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은 것 같음인즉 이것은 불성(不誠)함이고, 질병과 큰 이유 없이 구중(九重)에 편안히 앉아서 신하로 하여금 섭행하게 함인즉 이는 불경(不敬)함이고, 이미 친히 제사함을 허락하고 양부(兩府)에 하명(下命)하여 백성에게 널리 알렸다가 얼마 안 되어 제사 대행(代行)의 명이 있음은 이는 나라 사람에게 이로써 불신(不信)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저 성, 경, 신(誠敬信)의 3자는 인군의 대보(大寶)이니 이 3자를 버리고 능히 그 나라를 지키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예기》에 장차 제사함에 산재(散齋)는 4일하고 치재(致齋)는 3일 하는데 지금 전하는 단정히 손을 모으고 날로 경연에 가서 정도(正道)를 듣고 정인(正人)을 가까이 하면 산재는 진실로 거림이 없으니 원컨대 금일로부터는 치재에 성(誠)을 생각하시고 태묘에 이르러 몸소 곤면(袞冕)을 입고 이로써 즉위함을 아뢰고 이로써 효할 생각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니 창왕이 이를 도당(都堂)에 내리어 의론케 하였다.(本朝舊制 凡圓丘宗廟社稷山陵眞殿神祠祭享祝文 道殿佛宇詞疏 本寺官一人 每月輪直 清齋寫進上 齋沐親押 天地宗社 則必親祀 佛宇道殿神祠 則或命大臣 攝行 近以祈禳猥多 或命正字小臣 代押 其源一開 今唯四時大享 親押 其餘 則皆代押 甚遠誠敬之義 願遵祖宗舊制 祝文詞疏 齋沐親押 圓丘社稷宗廟 籍田大享 必皆親祀 朔望奠及凡祈禳 擇大臣 攝行 御正殿 親授祝文詞疏 昌 從之又奏 殿下 既允臣等親祀之請 今大享宗廟 乃以大臣 充大尉 是殿下不欲親享也 以謂禮文未備 奠物未具耶 則苟有明信 濶溪泓泚之毛 可薦於神明 豈以文之未備 物之未具 而并棄其誠也哉 以謂權署國事

不敢主祀耶 則舜之受終 禹之受命 皆攝政也 而率百官 親格于文祖神宗之廟 舜禹 天下之大聖 萬世帝王之所當法也 殿下 不法之 臣等 竊爲殿下 惜之 今殿下之不親享 有三不可焉 吾不與祭 如不祭 則是不誠也 無疾病大故而燕居九重 使臣攝行 則是不敬也 既許親祀 下之兩府 播之百姓 未幾而有攝祭之命 是示國人 以不信也 夫誠敬信三字 人君之大寶也 捨是三者 能有其國者 未之有也 禮 將祭 散齋四日 致齋三日 今殿下 端拱日御經筵 聞正道 近正人 則散齋 固無嫌矣 願自今日 致齋思誠 格于大廟 躬服袞冕 以告卽位 以申孝思 昌 下都堂議)

《高麗史》 卷 120 列傳 33, 尹紹宗.

● 적전

22년 봄 정월 을해일에 왕이 친히 적전을 갈고 유죄 이하 죄수들을 사면하였으며, 원구와 방택의 제례를 집행한 관원들과 효자, 순손(順孫), 의부, 절부, 노인, 폐질자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二十二年 春正月 乙亥 親耕籍田 赦流罪以下 圓丘方澤升壇執禮員吏及孝子順孫義夫節婦耆老篤疾者 賜物有差)

《高麗史》 卷 5 世家 5, 顯宗 22年 正月 乙亥日.

22년 정월 을해일에 친히 적전을 갈았는데, 왕은 쟁기를 다섯 번, 제왕(諸王)과 삼공(三公)은 일곱 번, 상서(尙書)와 제경(諸卿)은 아홉 번 쟁기질을 하였다.(二十二年 正月 乙亥 親耕籍田 王 五推 諸王三公 七推 尙書列卿 九推)

《高麗史》 卷 62 志 16, 禮 吉禮 中祀 籍田 仁宗.

● 성황제

어떤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 와서 바치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 고을에는 옛부터 매월 초하루에 저희들로 하여금 사슴 한 마리와 꿩 또는 토끼를 바쳐 제육(祭肉)에 충당하게 하고, 그런 뒤에 아리(衙吏)들이 공봉(公俸)을 받아서 주찬(酒饌)을 갖춰 성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하기에, 내가 노하여 매질하면서 꾸짖기를, “어찌 나물 끼니로 가난하게 지내는

나로서 달마다 생물을 죽여 귀신을 살찌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의 죄를 더하겠는가? 그리고 귀신도 정직한 귀신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 하고는, 곧 아리(衙吏)들에게 훈계하여 이제부터는 다시 고기를 쓰지 않기로 하고, 채소·과일과 주찬 따위의 진설은 아리들에게 맡겼다.(有獵夫致一鹿于門 予徵其由 則曰此州自古每月旦 使吾等貢一鹿若雉兔充祭肉 然後衙吏等受公之俸 備酒饌致祭于城隍 此成例也 予怒而鞭之曰 豈以予蔬食之窮 約月殺生物圖神之肥 而積罪予躬耶 神若正直 亦不予是望也 因戒衙吏 自今不復奠肉 其菜菓酒饌之設 則任爾爲也)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37, 哀詞祭文 祭神文 全州祭城隍致告文.

• 초제

《논어》에, ‘제게 해당된 귀신이 아닌데도 이를 제사지내면 아첨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좌전》에, ‘귀신은 그 족류(族類)가 아니면 흠향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른바 ‘음사(淫祀)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조는 종묘·사직의 제사는 오히려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많으면서 그 산악의 제사와 성수(星宿)의 초제는 도에 지나치게 번거로우니, 이른바 ‘제사는 자주 지내서는 안 되니, 자주 지내면 번거롭고 번거로우면 불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상께서는 마음을 재계하고 공경을 다하여 진실로 게으름이 없으시지마는, 그 제향하는 관원이 이를 예사로운 일로 보아 싫어하고 게을리 하여 공경을 다하지 않으니 귀신이 기꺼이 흠향하려 하겠습니까.(崔承老 時務二十八條) 一語曰 非其鬼而祭之 諂也 傳曰 鬼神 非其族類不享 所謂淫祀 無福 我朝宗廟社稷之祀 尙多未如法者 其山嶽之祭 星宿之醮 煩黷過度 所謂祭不欲數 數則煩 煩則不敬 雖聖上 齋心致敬 固無所怠 然其享官 視爲尋常事 厭倦而不致敬 則神其肯享之乎)

《高麗史節要》 卷 2, 成宗 元年 6月.

• 금령

봄 2월에 좌보궐 이양이 상소하기를, 월령(月令)에, “정월 중기(中氣) 후에는 희생에 암컷을 쓰지 말고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며, 새기와 알을 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모으지 말며, 드러난 해골을 덮어 묻어 주

라 하였으니, 원컨대 봄에 행하는 정령(政令)을 펴서 모두 절후에 따라 금지하는 조항을 알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따라 교하여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알리게 하였다.(春二月 左補闕李陽上疏曰 月令 正月中氣後 犧牲 毋用牝 禁止伐木 無靡無卵 無聚大衆 掩骼埋胔 願布行春之令 咸知時禁 王從之 下教 頒示中外)

《高麗史節要》 卷 2, 成宗 7年 2月.

윤달에 문하시중 유진 등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음양이 고르지 못한 것은 모두 형정이 시기에 맞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삼가 월령(月令)을 참고하건대, ‘3월의 절기에는 옥을 줄이고 질곡(桎梏)을 제거하며 함부로 매질하지 않고 옥소(獄訴)를 중지하며, 4월의 중기(中氣)에는 죄가 무거운 죄수에게는 관대하게 하고 가벼운 죄수는 내보내며, 7월의 중기에는 옥을 수리하고 질곡을 갖추며 가벼운 형을 결단하고 작은 죄를 처결한다.’ 하였으며, 또 옥관령(獄官令)에는, ‘입춘에서 추분까지는 사형을 아뢰어 결정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니다. 악역(惡逆)을 범한 경우라면 이 영(令)에 구애되지 않지만 법리(法吏)가 다 자세히 살피지 못할까 염려되니, 이후로는 서울과 지방의 맡은 관원이 모두 영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閏月 門下侍中劉瑄等奏 民庶疫癘 陰陽愆伏 皆刑政不時所致也 謹按月令三月節省圜圉 去桎梏 無肆掠 止獄訴 四月中氣 挺重囚 出輕繫 七月中氣 繕圜圉 具桎梏 斷薄刑 決小罪 又按獄官令 從立春至秋分 不得奏決死刑 若犯惡逆 不拘此令 然恐法吏未盡審詳 請今後 內外所司 皆依令施行 從之)

《高麗史節要》 卷 2, 顯宗 9年 4月.

2월

① 1일 : 중화절

- 관리급가

매월 초하루에는 관리에게 휴가를 준다.(每月初一日 官吏給暇)

《高麗史》 卷 84 志 38, 刑法 公式 官吏給暇.

- 신일

2월 초하루는 신일이다.(愼日二月初一日)

《高麗史》 卷 84 志 38, 刑法 名例.

② 15일

• 연등회

훈요(訓要)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아침저녁으로 펴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를 바란다. 5조는, 짐은 삼한 삼천의 드러나지 않은 도움을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사계절의 중월(仲月)에는 행차하여 백 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安寧)을 이루도록 하라. 6조는, 연등(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八關)은 천령(天靈)·오악(五嶽)과 명산(名山)·대천(大川)과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특한 신하가 더하거나 즐기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꼭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마음에 맹세하기를 법회일(法會日)은 국기일(國忌日)을 침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스럽게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爰述訓要以傳諸後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其五曰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脈之根本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其六曰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後世姦臣建白加減者切宜禁止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高麗史節要》 卷 1, 太祖 26年 4月.

신돈이 연등에 화산(火山)을 설치하여 왕의 행차를 그 집에 맞이하고자 이운목, 기현과 지신사 염홍방, 응양군 상호군 이득립 등과 함께 문무 수백 인을 거느리고 좌우대(左右隊)를 삼아 이를 독려하니, 등(燈)이 백만을 헤아려 그 기교를 다 하였으며 또 잡희(雜戲)를 성하게 베풀니 왕이 포(布) 100필을 하사하였다.(噸 燃燈 設火山 邀王幸其第 與云牧顯知申事廉興邦鷹揚軍上護軍李得霖等 率文武數百人 爲左右隊 督之燈以百萬計 極其奇巧 又盛陳雜戲 王賜布百匹)

《高麗史》 卷 132 列傳 45, 反逆 辛噸.

양부의 풍악 소리는 맑은 옥을 깨뜨린 듯하고, 구문(대궐)에 켜 놓은 등불은 별처럼 찬란하네.

못난 선비는 광대들만 못한데도, 붉은 관복 입은 채로 대궐 뜰에 들어

가네.

대궐에서 오늘밤 시신을 모아 잔치를 벌이니, 듬뿍 내려주신 술에 취기가 몸에 감도네.

아미반(동서로 줄서 있는 시종관)의 꽃을 꽃은 객들도 반드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아닐 것이네.

(兩部笙歌清碎玉 九門燈火爛分星 愚儒不及倡優輩 猶着緋袍入帝庭
玉殿今宵宴侍臣 十分宣勸醉淋身 蛾眉班上插花客 未必純爲過我人)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10, 燈夕入闕有感二首.

구문(궁궐)에 임금님 행차하시니 벽제 소리 우레와 같고, 궁중의 화사한 연회는 밤을 정해 베풀네.

촛불 그림자 속에 새 깃으로 만든 의장기가 줄지어 서있고, 옥동소 소리에 금 술잔 보내오네.

만세 삼창하니 삼신산 솟아오르고 천년만에 한 번 익는 해과(海菓)가 실려오네.

시신에게 마음대로 즐기도록 허락해 주어, 꽃 가득 꽃고 취하여 부축 받아 돌아왔네.

상서로운 연기가 자신전(紫宸殿)을 높이 들렀는데, 보좌(寶座)의 중앙에 임금님이 계시네.

동부(洞府 : 신선이 사는 곳)에서 노래 부르며 옥색을 두드리고, 교방에서 기생을 뽑고 선발하여 선도(仙桃)에 취하네.

구층의 향로에는 용뇌 향 피웠고, 사방을 비추는 등불에는 봉황기름을 사용하였네.

서왕모도 찾아와서 천년 장수를 바치니, 제자들을 불러 운오(雲璈)를 연주하게 하네.

오색 구름 가운데 옥황상제에게 절하니, 별과 달은 머리 위에서 깜박이네.

도성 사람들은 천문의 찬란함은 모르고, 멀리서 은등이 깜박거리는 빛으로 아네.

비단 등롱은 물결 속에 진주가 비친 듯하고, 황금 궁전에는 밤이 되어 밝은 달이 떴네.

장안에 환히 빛을 비쳐 불야성을 이루니, 계인(鷄人 : 시간을 알리는 관리)이 물시계를 잘못 계산할까 염려되네.

붉고 푸른 비단 등롱은 연꽃처럼 아름다우며, 용의 기름으로 불꽃을 토해 붉은 연기가 휘도네.

등석으로 연달아 불꽃을 이루어 만세 천년 장수 술잔을 비추네.

황금 등잔은 불꽃을 토해 홍사 초롱에 통하니, 동쪽에 해 돌아 새벽 노을이 무리지네.

천하가 한집 되고 임금님 인자하시니, 상서로운 빛으로 일백 가지 꽃을 취하여 보네.

(九門清蹕走驚雷 藥闕華筵卜夜開 龍燭影中排羽葆 鳳簫聲裏送金杯
三呼萬歲神山湧 一熟千年海菓來 恩許侍臣司宴樂 宣花萬插醉扶迴
祥煙繚繞紫宸高 幄座中央認赭袍 洞府徵歌敲玉索 教坊選妓醉仙桃
九層爐爇金龍腦 四炤燈燃白鳳膏 西母獻來千歲壽 指呼弟子鼓雲璈
五色雲中拜玉皇 壓頭星月動寒芒 都人不覺天文爛 遙認銀燈爍爍光
紗籠剪水分珠蚌 金殿移天掛玉蟾 炤遍鳳城渾不夜 鷄人應誤漏壺籤
絳碧紗籠菡萏開 龍膏吐暈紫煙迴 憑渠好續常生炤 萬歲千年炤壽盃
金燈吐炤透紅紗 日散千暉暈曉霞 四海一家天子聖 瑞光看取百枝花)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13, 己巳年燈夕翰林奏呈.

해마다 이월 보름에 연등회[燈夕]를 행하는데, 하루 전에 왕이 개성에 있는 봉은사에 행차하여 고려 태조의 진영(眞影)에 예를 행한다. 이것을 '봉은행향(奉恩行香)' 이라 부른다.(每歲二月望爲燈夕 前一日 駕幸奉恩寺 禮祖聖眞 號爲奉恩行香)

《補閑集》 卷 上.

③ 춘분

• 얼음 진상

2월 보름에는 얼음을 천신(薦新)한다. 만약 춘분날이 15일 후에 있으면 다른 날에 천신한다.(二月望 薦氷 若春分之日 在望後 則以別日薦之)

《高麗史》 卷 61 志 15, 禮 吉禮 大祀 太廟朔望薦新及祈禱及奏告儀.

● 사한 제사

사한은 맹동 및 입춘에 얼음을 저장하거나 춘분에 얼음 창고를 열 때 제사지낸다. 신위는 단상(壇上)의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왕골로 자리를 마련한다. 축판에는 “고려 국왕은 삼가 모신(某臣) 성명(姓名)을 보내어 공경스럽게 제사합니다.”라고 하며, 희생은 돼지 1두(頭)를 쓴다.(司寒 孟冬及立春藏冰 春分開冰 享之神位 設於壇上北方 南向 席以莞 祝版 稱高麗國王 謹遣某官姓名敬祭 牲牢豕一)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小祀 司寒.

④ 월내

● 석전

석전일(釋奠日)은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上丁日)이다.(釋奠日 仲春·仲秋上丁)

《高麗史》 卷 62 志 16, 禮 吉禮 中祀 文宣王廟.

중생들의 복을 심어 백세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남긴 초상이 아직 있어 완연하게 강당에 계실 때와 같습니다. 봄철이 다가왔기에 명수를 받드는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도의 거울이 멀지 않았으니, 이 성심에 흠양하시길 바랍니다.(種群生之福 爲百世之師 遺影尚存 宛若開堂之日 韶陽載屈 遺陳酌水之羞 道豎不遙 誠心可享)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40, 釋道疏祭祝 春例諸國師眞前祝.

● 마조단 제사

마조단의 넓이는 9보, 높이는 3척으로 4개의 출폐(出陸)가 있고, 유(壇)는 25보(步)이다. 요단(燎壇)은 신단의 남쪽에 있으며 넓이는 5척이고 출입구는 사방이 2척으로 위로 열고 남쪽으로 나간다. 중춘에 길일을 택하여 제사지내는데, 축판에는 “고려국왕은 삼가 모관(某官) 성명(姓名)을 보내어 공경스럽게 제사를 지냅니다.”고 하며, 희생은 돼지 1두(頭)를 쓴다.(馬祖壇 廣九步 高三尺 四出陸 壇二十五步 燎壇 在神壇 丙地 廣五尺 戶方二尺 開上南出 仲春 擇吉祀之 祝版 稱高麗國王 謹遣某官姓名敬祭 牲牢豕一)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小祀 馬祖.

• 감악신 산신제

(감악) 신라 때부터 소사(小祀)로 산 위에 사우가 있어 봄과 가을에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를 지냈다. 현종 2년에 거란군이 장단악(長湍嶽)에 이르니 신사(神祠)에 정기(旌旗)와 사마(土馬)가 있는 것 같아 거란군이 두려워하여 감히 전진하지 못하였으므로 명하여 보답하는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민간에 전하는 말로 신라 사람이 당(唐)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를 제사하여 산신(山神)으로 삼았다고 한다.(紺嶽)(自新羅爲小祀 山上 有祠宇 春秋 降香祝行祭 顯宗二年 以丹兵 至長湍嶽 神祠 若有旌旗土馬 丹兵 懼而不敢前 命修報祀 諺傳 羅人 祀唐將薛仁貴 爲山神云)

《高麗史》 卷 56 志 10, 地理 王京開城府 續城懸.

• 온신 제사

숙종 6년 2월 갑오일에 사신을 보내어 산천에 질제(秩祭)를 지내고, 병신일에 오부(五部)에서 온신(瘟神)에 제사지냄으로써 온역(瘟疫)을 물리쳤다. (六年 二月 甲午 遣使 秩祭于山川 丙申 祭瘟神于五部 以禳瘟疫)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雜祀.

• 사시제

공양왕 2년 8월 초하루 경신일에 사대부의 가제의(家祭儀)를 반포하여 사중월(四仲月)에는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의 3대를 제사하되 적장(嫡長)의 자손이 제주(祭主)가 되고, 중자손(衆子孫)과 친백숙부(親伯叔父) 및 자손과 당백숙조(堂伯叔祖) 및 자손은 모두 제주의 집에서 함께 제사지내며 함께 제사지내는 자의 조고(祖考)로 이 제사에 함께 제사지낼 수 없는 자는 신주를 만들어 각각 그의 집에서 봉사하고 적장의 자손이 후사가 없으면 차적(次嫡)의 자손의 장자가 제주가 되고, 제주가 되는 자의 질(秩)이 낮고 중자손(衆子孫) 안에서 질이 높은 자가 있으면 제사의 품등은 질이 높은 자를 따르고, 조고의 질이 낮고 제주가 되는 자의 질이 높으면 제사의 품등은 제주가 되는 자의 질을 따르게 한다.

주인은 초헌이 되고 주부는 아헌이 되며 중형제(衆兄弟)는 종헌이 되

는 주부가 사고가 있으면 중형제가 이를 대신한다. 삼헌(三獻)이 되는 사람은 각각 1일간 치제(致齋)하고 그 나머지 종족은 산제(散齋)한다. 제주가 되는 자손이 신주를 받들고 따로 먼 곳에 있으면 그 중자손은 세속의 제의로써 그 집에서 제사지낸다. 만약 신주가 제주의 집에 있는데 제주가 되는 자가 일로 인하여 멀리 나갔으면 차적의 자손이 그 집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데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방계 친척의 후사가 없는 자는 그 반열(班列)로써 이를 부제(附祭)하여 지전(紙錢)을 쓰며 신주는 없다. 처가 남편 먼저 죽은 자도 또한 동일한데 자손이 있으면 지전으로 그 집에서 제사지낸다. 사중월과 정제(正祭)를 제외한 정조, 단오, 중추에도 마땅히 시식(時食)을 드리고 술을 드리는데 축문은 쓰지 않는다.

만약 조고의 기일이면 단지 조고 및 조비만을 제사하고, 조비의 기일에는 단지 조비만을 제사하고 반드시 두루 받들지 않는다. 인하여 신주를 청하여 중당에 나가 제사를 흠향하게 하고 여타의 위(位)의 기일에도 동일하다. 제사 품등은 때에 따라 줄이고 더하여 반드시 시제(時祭)의 의식을 본받지 않는다.

외조부모 및 처부모의 제주가 없는 자는 정조, 단오, 중추 및 각 기일을 당하면 세속의 제사 의식을 써서 이를 제사지내며, 행례 의식은 일체 《주문공가례 朱文公家禮》에 의거하여 마땅함을 따라 줄이고 더한다.

1품에서 2품에 이르기까지는 소(蔬)·과(果) 각 5점, 육(肉) 2점, 면(麵)·병(餅) 각 1기(器), 갱(羹)·반(飯) 각 2기, 숟가락·젓가락·잔(盞) 각 2개를 설치하고, 3품에서 6품에 이르기까지는 소채(蔬菜) 3점, 과 2점, 잔·병·어(魚)·육 각 1기를 설치하고, 7품에서 서인으로 관에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는 채(菜) 2점, 과 1점, 어·육 각 1기이고, 갱·반·잔·숟가락·젓가락은 모두 같고 양위(兩位)를 함께 한 탁자에 차린다.

위의 증가의 만아들이 제사하는 법을 이제로부터 중외(衆外)가 준수하여 예속을 이루도록 하고 그 중에 인정과 사세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중법에 구애되지 말고 그 현존한 족장(族長)이 신주를 받들어 사당을 주관하고 그 여적(餘嫡)의 중자손은 모두 그 집에서 함께 제사지내고 중자손의 소생 부모는 각각 신주를 만들어 그 집에서 제사지내고 치제(致齋)는 보통 의식과 같게 하였다.(八月庚申朔 頒行士大夫

家祭儀 四仲月 祭曾祖考妣祖考妣三代 嫡長子孫主祭 衆子孫親伯叔父及子孫堂伯叔祖及子孫 並於主祭家 與祭 與祭者之祖考 不得與享此祭者 則別作神主 各於其家奉祀 嫡長子孫無後 次嫡子孫之長者主祭 主祭者 秩卑 衆子孫內 有秩高者 祭品 從秩高者 祖考秩卑 主祭者秩高 祭品 從主祭者之秩 主人初獻 主婦亞獻 衆兄弟終獻 主婦有故 衆兄弟代之 三獻人 各致齋一日 其餘宗族散齋 主祭子孫 奉神主 別居遠地 其衆子孫以俗祭儀 祭於其室 若神主 在主祭家 主祭者 因事遠出 則次嫡子孫 就其家行祭 如常儀 旁親之無後者 以其班祔之 用紙錢 無神主 妻先夫亡者 亦同 有子孫 則以紙錢 祭於其家 除四仲月正祭外 如正朝端午中秋 宜獻時食奠酒 不用祝文 如祖考忌日 只祭祖考及祖妣 祖妣忌日 只祭祖妣 不必備舉 仍請神主 出中堂饗祭 餘位忌日同 祭品 隨時損益 不必視時祭儀 外祖父母 及妻父母 無主祭者 當於正朝端午中秋 及各忌日 用俗祭儀 祭之 行禮儀式 一依朱文公家禮 隨宜損益 一品至二品 設蔬果各五楩 肉二楩 麵餅各一器 羹飯各二器 匙筋盞各二 三品至六品 設蔬菜三楩 果二楩 麵餅魚肉各一器 七品至庶人在官者 菜二楩 果一楩 魚肉各一器 羹飯盞匙筋並同 兩位 共一卓 右宗子祭法 自今中外遵守 以成禮俗 其中有人情事勢不便者 不必拘宗法 其見存族長 奉神主主祠 其餘嫡衆子孫 於其家與祭 衆子孫所生父母 各作神主 祭於其家 致齋如常儀)

《高麗史》卷 63 志 17, 禮 吉禮 小祀 大夫士庶人祭禮.

아! 지금 세상의 풍속에서는 불법(佛法)을 숭상하여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에 흔히 채소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법인가? 만일 불사(佛事)를 행하여 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그 조상에게 제사지낸다면 채소를 쓰는 것도 가하거니와, 이른바 사시의 제향이란 길제(吉祭)며 대례(大禮)인 것이다. 마땅히 관품의 고하를 따져서 혹은 태뢰(太牢)로, 혹은 소뢰(小牢)로 제사지내는 것이 예이다. 만일 가난해서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물이나 새 종류로서 대신 구워서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채소를 쓰는 것보다는 낫다.(噫 今世之風俗 崇尚佛法 其祭先多以蔬菽 是何法耶 若欲營佛事薦冥福 而并祭其先 則用蔬菜可也 所謂四時之饗者 吉祭也 大禮也 當以官品之高下 或以大牢 或以小牢 禮也 若貧不能辦之 則以魚物禽鳥之類代之 燔炙以薦 則猶愈於蔬菜矣)

《東國李相國集》全集 卷 22, 雜文 論四時饗先事略言.

• 상춘

불태우고 난 들판에 초록 빛이 새롭고,
우는 새는 오르내리며 나그네를 괴롭히네.
술병 들고 곳곳마다 모두 감상할 만하니,
바로 성 남쪽이 이월 봄이네.

(燒後郊原綠色新 鳴禽上下惱遊人 携壺處處皆堪賞 正是城南二月春)

《復齋集》 卷 上, 春日城南卽事.

3월

① 3일 : 삼짚날, 상사, 삼삼, 중삼

• 계음

3월 기사일에 왕이 흥왕사에 가서 남쪽 산봉우리에 올라 계음(禊飲) 행사를 치르고 나서 상사시(上巳詩)를 친히 짓고 수행한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三月 己巳 幸興王寺 登南峯禊飲 製上巳詩 命侍臣和進)

《高麗史》 卷 8 世家 8, 文宗 23年 3月 己巳日.

• 답청

상사일에 봄 경치가 하도 좋으니, 도성에도 기쁜 기분을 재촉하네.
사람들은 곡강(曲江)을 따라 취하니, 음악을 태상(太常)에서 마련해 오네.
성대한 일은 당장 이어나가기 어려우니,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어찌 쉽게 모시겠는가.

답청 놀이는 뜰에서도 할 만하니, 꼭 당나라 풍습을 만회해야 하겠네.
(上巳春光好 中都喜氣催 人從曲江醉 樂自太常來 盛事今難繼 高才豈易陪 踏青隨庭是 須挽李唐回)

《牧隱先生文集》 卷 5, 上巳.

② 청명

• 기후

청명(淸明)은 3월 절기이다. 괘(卦)는 진(震) 육이(六二)이다. 초후(初候)에 오동나무 꽃이 피기 시작한다. 차후(次候)에 두더지가 종달새로

변한다. 말후(末候)에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清明 三月節 震六二 桐始華 田鼠化爲鴛 虹始見)

《高麗史》 卷 50 志 4, 歷 宣明曆 上.

청명은 3월의 절기이며 곡우는 3월의 중기이다. 오동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고 두더지가 종달새로 변한다.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개구리밥풀이 나기 시작한다. 우는 비둘기가 나래를 치기 시작하고 대승새가 뽕나무에 내려와 앉는다.(三月 清明 三月節 穀雨 三月中 桐始華 田鼠化爲鴛 虹始現 萍始生 鳴鳩拂其羽 戴勝降于桑)

《高麗史》 卷 51 志 5, 歷 授時曆 上.

• 답청

일기가 청명하여 절기에 꼭 알맞으니, 화기를 유포시킨 하늘땅에 감사하네.

늦은 봄에 봄옷 입고 남자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면, 스스로 시옹(詩雍)에 견주기도 남음이 있네.

방종한 내가 어찌 편지 쓰는 것을 두려워 하겠는가. 때때로 부축할 정도로 취하여 남여(藍輿)를 타고 있는데.

답청에는 누가 나를 부를런지 모르겠네. 수일 전에 금주령이 내렸다는데.
(風日清明應曆書 宣流和氣謝堪輿 暮春成服携童冠 自比時雍尚有餘 放曠何曾畏簡書 時時扶醉在藍輿 踏青未識誰招喚 酒禁傳言數日餘)

《牧隱先生文集》 卷 16, 清明節.

③ 곡우

• 기후

곡우(穀雨)는 3월 중기이다. 괘(卦)는 진(震) 육삼(六三)이다. 초후(初候)에 개나리밥풀이 나기 시작한다. 차후(次候)에 우는 비둘기가 나래를 치기 시작한다. 말후(末候)에 대승새가 뽕나무에 내려와 앉는다.(穀雨 三月中 震六三 萍始生 鳴鳩拂其羽 戴勝降于桑)

《高麗史》 卷 50 志 4, 歷 宣明曆 上.

④ 한식

• 금화일

살구꽃 만발한 늦은 봄 새벽에,
서울 거리에는 다투어 문을 두드릴 때이네.
술을 마심에 장화일(藏火日 : 禁火日)인 줄 모르니,
훈훈한 술 기운이 오히려 사람만 데워 주네.

(杏花齊拆暮春晨 正是長安鬪叩辰 杯酒不知藏火日 醺醺猶遣暖加人)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1, 次韻梁校勘寒食日邀飲.

• 종묘 제사

태묘에 향사(享祀)로서 정해진 날은 한식과 납일로, 납향(臘享)은 물고기를 겸하여 올린다. 정해지지 않은 날은 모두 사맹월(四孟月)에서 택일한다. 3년에 한 번씩 맹동(孟冬)에 협제(祫祭)를 지내고, 5년에 한 번씩 맹하(孟夏)에 체제(禘祭)를 지낸다. 그 체협(諦祫) 제사를 지내는 달에는 곧 시향(時享)을 지내지 않는다.(太廟 享有常日者 寒食臘 臘兼薦魚 無常日者 並擇日四孟月 三年一祫 以孟冬 五年一禘 以孟夏 其禘祫之月 卽不時享)

《高麗史》 卷 60 志 14, 禮 吉禮 大祀 太廟.

• 한식 제사

3월 병신일에 왕이 자기 아버지인 문종의 반혼당(返魂堂)에 가서 한식(寒食) 제사와 아울러 상사제(上巳祭)를 거행하려고 하니, 해당 관청에서 왕이 서서 올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행사를 난처하게 여겼다. 왕이 말하기를, “예는 마땅히 적당함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드디어 간편한 차림으로 반혼당에 갔다.(三月 丙申 王欲詣文考返魂堂 行寒食兼上巳祭 有司以無哭位難之 王曰 禮當從宜 遂減法從而往)

《高麗史》 卷 10 世家 10, 宣宗 2年 3月 丙申日.

• 한식 성묘

원컨대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주자가례》를 써서 대부 이상은 3세를 제사지내고 6품 이상은 2세를 제사지내고 7품 이하 서인에 이르기

까지는 다만 그 부모만 제사지내되 깨끗한 방 1칸을 택하여 각각 한 감실을 만들어 그 신주를 모시고, 서쪽을 상(上)으로 삼아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잔 드리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알리며 새 곡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천신(薦新)하고 기일에는 반드시 제사지낼 것입니다. 기일을 당하면 말을 타서 출행하는 것을 허락치 말고, 빈객을 대할 때에는 상례와 같이 하고 매년 3영절(令節)과 한식에 분묘에 올라가는 예는 속례(俗禮)에 따를 것을 허락하여 이로써 조상을 추모하는 풍습을 후하게 하고 여기는 자는 불효로 논죄하시길 바랍니다.(願自今 一用朱子家禮 大夫已上 祭三世 六品已上 祭二世 七品已下 至於庶人 止祭其父母 擇淨室一間 各爲一龕 以藏其神主 以西爲上 朔望必奠 出入必告 食新必薦 忌日必祭 當忌日 不許騎馬出行 對賓客 如居喪禮 每歲三令節 寒食 上墳之禮 許從俗禮 以厚追遠之風 違者 以不孝論)

《高麗史》 卷 118 列傳 31, 趙浚.

⑤ 월내

• 성황

문종 9년 3월 임신일에 선덕진의 새로운 성에 성황신사(城隍神祠)를 세우고, 승위(崇威)라 이름을 하사하여 춘추(春秋)로 치제(致祭)하게 하였다.(九年 三月壬申 宣德鎮新城 置城隍神祠 賜號崇威 春秋致祭)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雜祀.

공민왕 9년 3월 갑오일에 여러 신묘(神廟)에서 여러 도의 주군(州郡) 성황에 제사지내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사례(謝禮)하도록 하였다.(九年 三月甲午 祭諸道州郡城隍於諸神廟 以謝戰捷)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雜祀.

4월

① 8일 : 초파일

• 호기놀이

신축일에 연등(燃燈)하고 대궐 뜰에서 호기희(呼旗戲)를 관람하고 포(布)를 하사하였다. 나라 풍속에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생일이므로 집집

마다 연등하였다. 수십일 앞서부터 여러 아이들은 종이를 오려 장대에 붙여 기(旗)를 만들어, 도성 안의 거리와 마을을 돌며 외치면서 미포(米布)를 구하여 그 비용을 삼았는데, 이를 호기(呼旗)라 하였다.(辛丑 燃燈 觀呼旗戲於殿庭 賜布 國俗 以四月八日 是釋伽生日 家家燃燈 前期數旬 群童剪紙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 求米布 爲其費 謂之呼旗)

《高麗史》 卷 40 世家 40, 恭愍王 13年 4月 辛丑日.

(4월에)왕이 호기동(呼旗童)의 놀이를 대궐 뜰에서 구경하고 포 100필을 내려주었다. 나라 풍속에 4월 8일이 석가모니의 생일이므로, 집집마다 연등하였다. 여러 아이들은 종이를 오려서 장대에 붙여 기(旗)를 만들어 도성 안의 거리와 마을을 돌며 외치면서 미포를 구하여 그 비용에 삼았는데, 이를 호기(呼旗)라 하였다.(王觀呼旗童戲於殿庭 賜布百匹 國俗 以四月八日 是釋迦生日 家家燃燈 群童剪紙 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 求米布 爲其費 謂之呼旗)

《高麗史節要》 卷 28, 恭愍王 15年 4月.

② 입하

• 기후

입하(立夏)는 4월 절기이다. 괘(卦)는 진(震) 구삼(九三)이다. 초후(初候)에 청개구리가 울기 시작한다. 차후(次候)에 지렁이가 나온다. 말후(末候)에 쥐참외가 나온다.(立夏 四月節 震九三 螻蟈鳴 蚯蚓出 王瓜生)

《高麗史》 卷 50 志 4, 歷 宣明歷 上.

입하는 4월의 절기이며, 소만은 4월의 중기이다. 청개구리가 울며 지렁이가 나온다. 쥐참외가 나오고 씬바귀가 길게 올라온다. 미초는 말라 죽고 보리 거들 때가 온다.(四月 立夏 四月節 小滿 四月中 螻蟈鳴 蚯蚓出 王瓜生 苦菜秀 靡草死 麥秋至)

《高麗史》 卷 51 志 5, 歷 授時歷 上.

• 얼음 진상

임자일이 입하절이므로 얼음을 진상하였다. 제(制)하기를, “올해는

일찍 덥지 않으니 5월을 기다려 얼음을 진상하라.”고 하였다. 유사가 아뢰기를, “해가 북륙(北陸)에 있을 때 얼음을 저장하고 서륙(西陸)에 있을 때 내는 것인데, 낼 때는 새끼 염소를 바쳐 제사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얼음을 저장하고 쓰는 것을 고르게 하면, 천시(天時)에서 음양과 한열(寒熱)의 조화를 잃은 건복처고(愆伏凄苦)의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음을 사용하는 법은 춘분에서부터 입추까지 마치게 되는 것이니, 만약 5월에 비로소 진상하게 되면 옛법에 어김이 있어 음양을 순조롭게 하는 바가 아니옵니다. 청컨대 입하절로써 진상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니, 이를 청중하였다.(壬子 以立夏節 進冰 制曰 今年不早熱 其待五月進冰 有司奏 日在北陸而藏冰 西陸而出之 獻羔而啓之 藏之也周 用之也徧 則無愆伏凄苦之災 故凡用冰之法 自春分至立秋而盡 若於五月始進 則有乖古法 非所以調順陰陽也 請以立夏 進之 從之)

《高麗史》 卷 6 世家 6, 靖宗 2年 4月.

③ 월내

• 기우제

예종 11년 4월 정묘일에 사신을 보내어 상경(上京) 천상(川上)과 송악(松岳) 동신(東神)의 여러 신묘(神廟)와 박연(朴淵) 및 서경(西京) 목덕동명사(木覓東明祠)와 도철암제연(道哲岳梯淵)에서 비를 빌었다.(十一年 四月丁卯 遣使 祈雨於上京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及西京木覓東明祠道哲岳梯淵)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雜祀.

• 흘형

예종 6년에 판(判)하기를, “《월령 月令》의 맹하의 달에는 가벼운 죄인을 내어 주고, 중하의 달에는 무거운 죄인을 관대하게 해준다는 설에 의하여, 4월에는 가벼운 죄인을 놓아주고, 5월에는 무거운 죄인의 칼을 늦추어 주는 것으로써 영구한 법식으로 삼는다.”고 하였다.(睿宗 六年 判 依月令 孟夏之月 出輕繫 仲夏之月 挺重囚之說 四月 保放輕囚 五月 重囚緩枷 以爲永式)

《高麗史》 卷 85 志 39, 刑法 恤刑.

5월

① 5일 : 단오

• 단오 제사

방계 친척의 후사(後嗣)가 없는 자는 그 반열(班列)로써 이를 부제(附祭)하여 지전(紙錢)을 쓰며 신주는 없다. 처가 남편 먼저 죽은 자도 또한 동일한데, 자손이 있으면 지전으로 그 집에서 제사지낸다. 사중월과 정제(正祭)를 제외한 정조, 단오, 중추에도 마땅히 시식(時食)을 드리고 술을 드리는데 축문은 쓰지 않는다. (...) 외조부모 및 처부모의 제주가 없는 자는 정조, 단오, 중추 및 각 기일을 당하면 세속의 제사 의식을 써서 이를 제사지내며 행례 의식은 일체 《주문공가례》에 의거하여 마땅함을 따라 줄이고 더한다.(旁親之無後者 以其班附之 用紙錢 無神主 妻先夫亡者 亦同 有子孫 則以紙錢祭於其家 除四仲月正祭外 如正朝端午中秋 宜獻時食奠酒 不用祝文 (...) 外祖父母 及妻父母 無主祭者 當於正朝端午中秋 及各忌日 用俗祭儀 祭之 行禮儀式 一依朱文公家禮)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小祀 大夫士庶人祭禮.

• 단오 선사

5월 을사일에 12공신에게 각각 은병 5개와 쌀 20석을 주고, 그 나머지 공신에게도 물품을 차등있게 주었다. 이것을 단오선사(端午宣賜)라고 한다.(五月 乙巳 賜十二功臣銀瓶各五事 米二十石 其餘功臣 亦賜有差 名爲端午宣賜)

《高麗史》 卷 24 世家 24, 高宗 46年 5月 乙巳日.

• 석전

우왕이 석전 놀이를 관람하고자 하니, 지신사(知申事) 이존성이 간하기를, “이것은 임금이 마땅히 관람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우왕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소수(小豎)로 하여금 이존성을 때리게 하고, 이존성이 도망하여 나가니 우왕이 탄환을 취하여 쏘았다. 나라의 풍속에 단오에는 무리배가 큰 길가에 때를 지어 좌우로 나누고 기와조각과 돌맹이를 가지고 서로 던지며, 혹 짧은 막대기를 같이 사용하여 승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석전(石戰)이라 한다.(禡 欲觀石戰戲 知申事李存性

諫曰 此非上所當觀 禍不悅 使小豎 毆存性 存性趨出 禍 取彈丸射之 國俗 於端午 無賴之徒 群聚通衢 分左右隊 手瓦礫相擊 或雜以短梃 以決勝負 謂之石戰)

《高麗史》 卷 134 列傳 47, 禍王 6年 5月.

우왕이 석전 놀이를 치암(鷗巖)에서 관람하고, 그 능한 자 몇 사람을 불러 술을 주고 또 지팡이를 주어 그 기술을 다하게 하였다.(禍 觀石戰 戲于鷗巖 召其能者數人 與酒又與杖 使盡其技)

《高麗史》 卷 135 列傳 48, 禍王 10年 5月.

• 애인

훈풍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기운이 청신하니,
수많은 집의 문호(門戶)에 애인(艾人)이 걸려 있네.

조용히 창포주 한 잔을 대하고서,
난저(蘭渚)에서 홀로 깐 신하를 생각하며 웃네.

(熏風微軟氣清新 萬戶千門掛艾人 靜對菖蒲一尊酒 笑他蘭渚獨醒臣)

《耘谷行錄》 卷 2, 端午.

• 창포 노리개

모두 창포 노리개(蓀佩)에 술향아리를 갖고 오는데,
창포김치 그 짙은 향기가 술잔에 가득하네.

지금부터 이 좋은 날을 저버리지 않으려니,
술 취해 일어난 호연한 시흥을 잘라내기 어렵네.

(惣持蓀佩酒壺來 菖歎濃香自滿杯 從此良辰不辜負 倚酣詩興浩難裁)

《耘谷行錄》 卷 5, 端午偶吟.

• 창포김치

이 날이 바로 단오 날인데, 지금 나는 오랜 세월 나그네 신세이네.
철 느끼니 강개한 생각이 많이 나고, 지난 일 생각해보니 모두 고되었네.
세상 맛은 창포김치와 같고, 타고난 자질은 애인(艾人)과 비슷하네.
해마다 좋은 날을 만나지만, 먼지 많은 벼슬길에 분주하기만 하네.

(此日是端午 今吾久客身 感時多慷慨 撫事倍酸辛
 世味如菖歎 天資似艾人 年年逢令節 奔走宦塗塵)

《陽村集》 卷 5, 端午日次李待制詩韻.

● 창포주

기정(旗亭 : 주점)에서 또 창포주 한 잔을 마시니,
 술에 깨서 읊은 초나라 신하(굴원)의 글을 배울 필요가 없네.

(旗亭且飲菖蒲酒 未用醒吟學楚臣)

《益齋集》 卷 2, 端午.

② 망종

● 기후

망종은 5월의 절기이며 하지는 5월의 중기이다. 사마귀가 생겨나고
 왜가리가 울기 시작한다. 반설새는 울지 않으며 사슴이 뿔을 간다. 매
 미가 울며 반하가 나기 시작한다.(五月 芒種 五月節 夏至 五月中 螳螂
 生 鵙始鳴 反舌無聲 鹿角解 蝸始鳴 半夏生)

《高麗史》 卷 51 志 5, 歷 授時曆 上.

③ 하지

● 기후

하지(夏至)는 5월의 중기이다. 괘(卦)는 리(離) 초구(初九)이다. 사슴이
 뿔을 간다. 차후(次候)에 매미가 울기 시작한다. 말후(末候)에 반하(半夏)
 가 나오기 시작한다.(夏至 五月中 離初九 鹿角解 蟬始鳴 半夏生)

《高麗史》 卷 50 志 4, 歷 宣明曆 上.

6월

① 15일 : 유두

● 유두음 · 계음

6월 계축일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병인일에 시어사(侍御史)
 두 사람이 환관 최동수(崔東秀)와 함께 광진사에 모여서 유두음(流頭
 飲)을 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풍속에는 6월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음으로써 좋지 못한 일을 제거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이것을 유두음(流頭飲)이라고 하였다.(六月 癸丑 王如奉恩寺 丙寅 有侍御史二人與宦官崔東秀 會于廣眞寺爲流頭飲 國俗以是月十五日 沐髮於東流水 祓除不祥 因會飲 號流頭飲)

《高麗史》 卷 20 世家 20, 明宗 15年 6月 癸丑日.

소년 시절의 계음의 풍류를 생각해보니,
 굵은 물에 술잔을 띄워 마시던 숲과 샘이 좋았네.
 지금 나이 들어 마을에 물러나 있으니,
 실컷 술 마시고자 해도 한 푼의 돈이 부족하네.

(禊飲風流憶少年 流觴曲水好林泉 如今衰謝煙村裡 從飲爲歡欠一錢)

《遁村雜詠》, 六月十五日書懷.

6월 15일은 시골 사람들이 동류수의 근원지에 모여 노는데, 이를 유두일이라 한다.(六月十五日 鄉人就東流水頭作會 名曰流頭日)

《牧隱先生文集》 卷 24, 六月十五日.

상쾌한 오늘 저절로 사악한 것이 없어진 듯한데, 간장(肝腸)을 깨끗이 하여 찌꺼기를 없앴네.

술잔에 넘치도록 죽엽주를 기울이고, 은그릇에서 깊은 경화(瓊花)향을 마시네.

쌍계수(雙溪水)에 밝은 달은 완연한데, 빼어난 풍경과 맑은 바람에 칠완다(七椀茶)를 마시네.

채마밭에 양이 있는 지를 물어보고, 빙장(冰漿)과 설빙(雪餅)을 어지러이 뒤섞어 먹네.

(爽然今日自無邪 冷徹肝腸絕滓查 盞盞玉杯傾竹葉 深深銀鉢吸瓊花 宛如明月雙溪水 絕勝清風七椀茶 爲問菜園羊在否 冰漿雪餅亂交加)

《牧隱先生文集》 卷 24, 詠流頭會.

• 수단

쌍계수(雙溪水)에 밝은 달은 완연한데,

빼어난 풍경과 맑은 바람에 칠완다(七椀茶)를 마시네.

채마밭에 양이 있는 지를 물어보고,
빙장(氷漿)과 설병(雪餅)을 어지러이 뒤섞어 먹네.
(宛如明月雙溪水 絕勝清風七椀茶 爲問菜園羊在否 氷漿雪餅亂交加)
《牧隱先生文集》 卷 24, 詠流頭會.

② 복일

• 팔죽

여름철 구름과 찌는 햇별이 불같이 성하여,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 두
눈이 캄캄하네.

곧장 팔죽을 가져다 더위 독을 풀어봐도, 소나무 아래 물 흐르는 집만
은 못하네.

깊고 조용한 대궐엔 더운 기운이 미미하겠지만, 시립한 신하들은 땀으
로 옷을 적시네.

푸른 사발의 팔죽에 벌꿀을 타서 마시니, 바로 서늘한 기운이 살 속에
스며드는 듯했네.

혹여 절간에도 다 없어진 듯하여 물어보니, 당시 팔죽은 연유와 같이
부드러웠다고 하네.

순채국과 양 유즙을 두루 맛보니, 흥취는 전과 같은데 산과 못이 말라
있네.

(火雲蒸日熾如焚 瀋汗交流兩眼昏 直把豆湯消暑毒 不如松下水流門
禁宇沈沈暑氣微 群臣侍立汗霑衣 豆湯翠鉢調崖蜜 便覺冰寒欲透肌
借問僧窓似舊無 當時豆粥軟如酥 蓴羹羊酪嘗來遍 興味依然山澤癯)
《牧隱先生文集》 卷 17, 豆粥.

③ 소서

• 기후

소서는 6월의 절기이며 대서는 6월의 중기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오고 귀뚜라미가 벽에서 산다. 매가 새를 잡기 시작하고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 나온다. 흙에 습기가 많으며 무덥고 큰 비가 때때로 온다.
(六月 小暑 六月節 大暑 六月中 溫風至 蟋蟀居壁 鷹始摯 腐草爲螢 土
潤溽暑 大雨時行)

《高麗史》 卷 51 志 5, 歷 授時曆 上.

④ 대서

• 기후

대서(大暑)는 6월 중기이다. 괘(卦)는 리(離) 구삼(九三)이다. 초후(初候)에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 나온다. 차후(次候)에 흙에 습기가 많으며 무덥다. 말후(末候)에 큰 비가 때때로 온다.(大暑 六月中 離九三 腐草爲螢 土潤溽暑 大雨時行)

《高麗史》 卷 50 志 4, 曆 宣明曆 上.

⑤ 월내

• 반빙

무자일에 제(制)하기를, “해마다 6월로부터 입추까지 얼음을 나누어주되 치사(致仕)한 여러 보신(輔臣)들에게는 3일에 1번씩 하고, 복야(僕射), 상서(尙書), 경(卿), 감(監), 대장군(大將軍) 이상에게는 7일에 1번씩 함을 정제(定制)로 하라.”고 하였다.(戊子 制 每歲自六月 至立秋 頒氷于 諸致仕輔臣 三日一次 僕射尙書卿監大將軍以上 七日一次 以爲永制)

《高麗史》 卷 7 世家 7, 文宗 3年 6月 戊子日.

7월

① 7일 : 칠석

• 칠석제

임신일에 칠석이므로 왕과 공주가 내정(內庭)에서 견우와 직녀에게 제사지냈다.(壬申 七夕 王與公主祭牽牛織女于內庭)

《高麗史》 卷 38 世家 38, 恭愍王 2年 7月 壬申日.

• 결교

맑고 얇은 은하수에 아름다운 둥근 달이 뜨니, 신선도 이 밤에 만나는 것을 즐거워 하네.

맑고 많은 이 세상에 까마귀와 까치가 해마다 고생스럽게 선교(仙橋)를 만드네.

앞아서 생각하니, 허백(許伯)과 사고(史高) 같은 귀문에서 다락 위에 화려한 옷을 말리네.

세속을 면치 못해 그저 남 따라서 마당에 쇠코잠방이 높이 걸었네.
 짐집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새 시절을 거르고, 열심히 걸교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네.

오로지 천손과 약속이 있어서, 장차 어리석고 웅졸함을 정신에 맡기려
 하네.

(銀河清淺月華饒 也喜神仙會此宵 多小人間烏與鵲 年年辛苦作仙橋
 坐想豪奢許史門 曝衣樓上綺羅繁 未能免俗聊爲爾 高掛中庭犢鼻褌
 千家看菓競時新 無限區區乞巧人 獨與天孫仍有約 更將愚拙付精神)

《西河集》 卷1, 七夕三首.

• 칠석일 감회

은하수는 옆으로 비끼고 달은 점점 활처럼 굽어지니,
 이 좋은 밤에 신령한 배필은 기쁨을 이루네.
 여보게, 어여쁜 아가씨 하나 불러 주게나,
 천상이나 인간 세상이나 즐거움은 같은 것이라네.

(銀漢橫斜月漸彎 良宵靈匹正成歡 憑君要喚娥眉艷 天上人間樂一般)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13, 七夕飲友人家.

② 입추

• 기후

입추는 7월의 절기이며 처서는 7월의 중기이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오고 이슬이 내린다. 쓰르라미가 울며 매가 새를 잡아 제를 지낸다. 천
 지에 가을 기운이 돌고 곡식들이 익어간다.(七月 立秋 七月節 處暑 七
 月中 涼風至 白露降 寒蟬鳴 鷹乃祭鳥 天地始肅 禾乃登)

《高麗史》 卷 51 志 5, 歷 授時曆 上.

③ 처서

• 기후

처서(處暑)는 7월의 중기이다. 괘(卦)는 리(離) 육오(六五)이다. 초후
 (初候)에 매가 새를 잡아 제를 지낸다. 차후(次候)에 천지에 가을 기운
 이 돈다. 말후(末候)에 곡식이 익어간다.(處暑 七月中 離六五 鷹乃祭鳥

天地始肅 禾乃登)

《高麗史》 卷 50 志 4, 歷 宣明曆 上.

8월

① 15일 : 추석

• 달맞이

정해일에 왕이 중추이므로 문신들을 데리고 중광전 편전에서 달구경하고, 친히 영월시(詠月詩)를 지었다. 그 끝 구절에, “후일 우리 백성이 부유하고 장수하게 되면, 이 명절을 유쾌히 맞아서 중대신들과 함께 잔치놀이를 하겠다.”라고 썼다. 문신들에게 화답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丁亥 王以中秋 率文臣 翫月於重光便殿 御製詠月詩 其末聯云 他日吾民富壽好酬佳節 燕公卿 命文臣和進)

《高麗史》 卷 13 世家 13, 睿宗 4年 8月 丁亥日.

달(氷輪)이 처음 뜰 때에 검은 구름이 드리우니, 밝음과 어둠이 기약이 나 한 듯 서로 교차하네.

내일 밤으로 미루어서 맑은 달을 다시 보려 하나, 다른 광채에 의해 달이 조금이나 이지러질까 두렵네.

(氷輪初上黑雲垂 明暗相交似有期 欲遲來宵晴更看 恐他光彩一分虧)

《雙梅堂先生文集》 卷 1, 中秋不見月.

• 활쏘기, 말타기 연습

겨울 10월에 도병마사 이부상서 왕충지가 아뢰기를, “옛글에, ‘편안할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 하였고, 또, ‘적이 오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우리의 방비를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매양 중추가 되면 동남반(東南班)의 원리(員吏)를 교외에 불러모아 활 쏘고 말타는 것을 교습시켰습니다. 더구나 위(衛)의 군사들은 나라의 조아(爪牙 : 맹수는 발톱과 어금니로 무기를 삼으므로, 국가의 무사를 조아라 이름.)이니, 농사가 한가한 틈을 타서 금고(金鼓 : 군중에서는 북을 치면 전진하고, 징을 치면 퇴각하는 것) · 정기(旌旗) · 좌작(坐作)의 절차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마군(馬軍)은 모두 단련하지 않았으니, 선봉마병을 뽑아서 1대(隊)마다 마갑(馬甲) 10벌씩을 주어서 달아나고 쫓

는 법을 익히게 하고, 이어 어사대와 병부육위(兵部六衛)가 그 교열을 맡게 하십시오.” 하니, 따랐다.(冬十月 都兵馬使 吏部尙書王寵之奏 傳曰 安不忘危 又曰 無恃敵之不來 恃吾有備 故國家每當仲秋 召會東南班員 吏於郊外 教習射御 而況諸衛軍士 國之爪牙 宜於農閒 教金鼓旌旗坐作之節 又馬軍 皆不鍊習 請先選先鋒馬兵 每一隊 給馬甲十副 俾習馳逐 仍令御史臺 兵部六衛 掌其教閱 從之)

《高麗史節要》 卷 4, 文宗 4年 10月.

② 백로

• 기후

백로는 8월 절기이며 추분은 8월의 중기이다. 기러기는 오고 제비는 돌아간다. 모든 새들이 먹을 것을 저장하고 우레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벌레들이 동면할 자리를 마련하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八月 白露 八月節 秋分 八月中 鴻鴈來 玄鳥歸 群鳥養羞 雷始收聲 蟄蟲培戶水 始涸)

《高麗史》 卷 51 志 5, 曆 授時曆 上.

③ 추분

• 기후

추분(秋分)은 8월의 중기이다. 괘(卦)는 태(兌) 초구(初九)이다. 우뢰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차후(次候)에 벌레들이 동면할 자리를 마련한다. 말후(末候)에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秋分 八月中 兌初九 雷乃始收 蟄蟲培戶 水始涸)

《高麗史》 卷 50 志 4, 曆 宣明曆 上.

④ 월내

• 노인성 제사

그림자가 내형에 비추니, 바야흐로 추분의 절후를 가리키고, 정기가 남극에 오르니 아침에 볼 수 있는 상서를 점칠 수 있습니다. 공손히 옛법을 따라서 정결한 제사를 받드웁니다. 바라옵건대, 흠향의 혜택을 내리시어, 길이 수명을 연장해 주시기 바라웁니다.(揆景內衡 方紀秋分之候 騰精南極 可占旦見之祥 恭率舊章 寔修明祀 冀借歆容之賜 俾延壽考之休)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40, 釋道疏祭祝 老人星祭文.

• 동명성제

숙종 10년 8월 갑신일에 사신을 보내어 동명성제사(東明聖帝祠)에 제사 지내고 의폐(衣幣)를 드렸다.(八月甲申 遣使 祭東明聖帝祠 獻衣幣)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雜祀.

9월

① 9일 : 중앙, 중구

• 중앙 잔치

9월 기사일에 중앙절 연회를 베풀었다. 왕이 시를 짓고 시중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화답시를 바치게 하였다. 무인일에 시종 관리들을 시켜 활을 쏘게 하고 과녁을 맞힌 자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는 동시에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九月 己巳 設重陽宴 王賦詩令從臣和進 戊寅 命侍從官射中的者賜物有差仍賜宴)

《高麗史》 卷 13 世家 13, 睿宗 6年 9月 己巳日.

가을 9월에 최충헌이 빈객을 모아 중앙절 잔치를 베풀었는데, 도방의 힘이 센 자들에게 수박(手搏)을 시켜 이긴 사람을 교위(校尉)와 대정(隊正)으로 임명하고 상을 주었다.(秋九月 崔忠獻會賓客 設重陽宴 使都房有力者手搏 勝者 授校尉隊正 以賞之)

《高麗史節要》 卷 14, 熙宗 5年 9月.

• 등고

늦가을 긴 바람이 만리에서 오는데,
등고하여 바라보니 생각이 어지럽네.
막걸리를 사양하지 않고 은근히 마시나,
국화가 문드러지게 핀 것이 아깝네.

(秋晚長風萬里來 登高極目思難裁 莫辭白酒殷勤飲 可惜黃花爛熳開)

《東文選》 卷 15, 丁酉重陽.

• 국화주

오음(五陰)이 연이어 서늘한 바람을 이는데,

해와 달이 서로 도와가며 일양(一陽)을 보호하네.

조원(調元)하는 원로회(鵷鷺會)를 축하할 만한데,

부정을 물리쳐 장수하려고 함께 술잔을 권하네.

(五陰聯引産風涼 日月相扶護一陽 堪賀調元鵷鷺會 辟邪延壽共催觴)

《別洞先生文集》 卷 1, 詩 丁卯重陽日次河政丞韻.

② 한로

• 기후

한로는 9월의 절기이며 상강은 9월의 중기이다. 기러기가 와서 머물고 참새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로 된다. 국화꽃이 누렇게 피며 송냥이가 짐승을 잡아 제를 지낸다. 초목의 잎이 누렇게 되어 떨어지고 벌레가 다 동면할 자리로 들어간다.(九月 寒露 九月節 霜降 九月中 鴻鷹來賓 雀入大水爲蛤 菊有黃華 豺乃祭獸 草木黃落 蟄蟲咸俯)

《高麗史》 卷 51 志 5, 曆 授時曆 上.

③ 상강

• 기후

상강(霜降)은 9월 중기에 있다. 괘(卦)는 태(兌) 육삼(六三)이다. 초후(初候)에 송냥이가 짐승을 잡아 제를 지낸다. 차후(次候)에 초목의 잎이 누렇게 되어 떨어진다. 말후(末候)에 벌레들이 다 동면할 자리로 들어간다.(霜降 九月中 兌六三 豺乃祭獸 草木黃落 蟄蟲咸俯)

《高麗史》 卷 50 志 4, 曆 宣明曆 上.

④ 월내

• 태조동명, 목먹묘 제사

현종 3년 12월에 서경 목먹사(木覓祠)의 신상(神象)을 만들었다.(三年十二月 作西京木覓祠神象)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雜祀.

충렬왕 4년 9월 신묘일에 평양에 사신을 보내어 태조동명목먹묘(太祖東明木覓廟)에 제향(祭享)하게 하였다.(九月辛卯 遣使于平壤 享太祖)

東明木覓廟)

《高麗史》 卷 63 志 17, 禮 吉禮 雜祀.

10월

① 입동

• 기후

입동은 10월의 절기이며 소설은 10월의 중기이다. 물이 얼기 시작하고 땅도 얼기 시작한다. 꿩이 큰 물에 들어가 큰 조개가 되며,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땅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온다. 천지 기운이 막혀서 겨울이 된다.(十月 立冬 十月節 小雪 十月中 水始冰 地始凍 雉入大水爲蜃 虹藏不見 天氣上升 地氣下降 閉塞而成冬)

《高麗史》 卷 51 志 5, 曆 授時曆 上.

② 소설

• 기후

소설(小雪)은 10월 중기이다. 괘(卦)는 태(兌) 구오(九五)이다. 초후(初候)에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차후(次候)에 하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땅 기운은 아래로 내려온다. 말후(末候)에 천지 기운이 막혀서 겨울이 시작된다.(小雪 十月中 兌九五 虹藏不見 天氣騰地氣降 閉塞而成冬)

《高麗史》 卷 50 志 4, 曆 宣明曆 上.

11월

① 15일 : 팔관

• 팔관회

11월에 팔관회를 베풀었다. 유사가 아뢰기를, “전대의 임금이 해마다 중동(仲冬)에 팔관재(八關齋)를 크게 베풀어서 복을 빌었으니, 그 제도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짐이 덕이 없는 사람으로 왕업을 지키게 되었으니 어찌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구정에 윤등(輪燈)을 설치하고 향등(香燈)을 곁에 벌여 놓고 밤이 새도록 땅에 가득히 불빛을 비추어 놓았

다. 또 채봉(綵棚) 들을 매달았는데, 각각 높이가 5장여(丈餘)였다. 모양은 연대(蓮臺)와 같아서 바라보면 아른아른하였다. 백희가무(百戲歌舞)를 앞에서 보았는데, 그 사선악부(四仙樂部)와 용(龍), 봉(鳳), 코끼리(象), 말(馬), 수레(車), 배(船)는 모두 신라의 고사(古事)였다. 백관이 도포를 입고 홀(笏)을 들고 예를 행하였으며, 구경하는 사람이 서울을 뒤덮어 밤낮으로 즐기었다.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이를 관람하고, 그 명칭을 ‘부처를 공양하고 신을 즐겁게 하는 공불악신지회(供佛樂神之會)’이라 하였는데, 이 뒤로부터 해마다 상례로 삼았다.(十一月 設八關會 有司言 前王每歲仲冬 大設八關齋 以祈福 乞遵其制 王曰 朕以不德 獲守大業 盍依佛教 安輯邦家 遂於毬庭 置輪燈一所 香燈旁列 滿地光明徹夜 又結綵棚 兩所 各高五丈餘 狀若連臺 望之縹緲 呈百戲歌舞於前 其四仙樂部 龍鳳象馬 車船 皆新羅故事 百官 袍笏行禮 觀者傾都 晝夜樂焉 王 御威鳳樓 觀之 名爲 供佛樂神之會 自後 歲以爲常)

《高麗史節要》 卷 1, 太祖 元年 11月.

이에 《훈요십조》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아침저녁으로 펴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를 바란다. (...) 5조는, 짐은 삼한 산천의 드러나지 않은 도움을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사계절의 중월(仲月)에는 행차하여 백 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6조는,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령(天靈), 오악(五嶽)과 명산, 대천과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특한 신하가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꼭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마음에 맹세하기를 법회일(法會日)은 국기일(國忌日)을 침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스럽게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爰述訓要 以傳諸後 庶幾朝披夕覽 永爲龜鑑 (...)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脉之根本 宜當四仲駐蹕 留過百日 以致安寧 其六曰 燃燈 所以事佛 八關 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 大川龍神也 後世姦臣 建白加減者 切宜禁止 吾亦當初 誓心會日 不犯國忌 君臣同樂 宜當敬依行之)

《高麗史節要》 卷 1, 太祖 26年 4月.

(이지백이 아뢰기를) 가뉘이 토지를 떼어 적국에 버리는 것보다는, 선왕께서 행하시던 연등, 팔관, 선랑(仙郎) 등의 일을 다시 행하고 외국의 다른 법을 쓰지 않아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을 이루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與其輕割土地 棄之敵國 曷若復行先王 燃燈 八關 仙郎等事 不爲他方異法 以保國家 致太平乎)

《高麗史節要》 卷 2, 成宗 12年 10月.

11월 경진일에 팔관회를 베풀었다. 왕이 막차(幕次)로 행차하여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전상의 여악(女樂)은 제거하도록 하고, 그 길로 법왕사에 행차하였다.(十一月 庚辰 設八關會 御幕次 受賀 命去殿上女樂 遂幸法王寺)

《高麗史》 卷 17 世家 17, 毅宗 卽位年 11月 庚辰日.

충렬왕 원년 11월 경신일에 본궐(本闕)에 행차하여 팔관회를 베풀고, 금오산 편액의 ‘성수만세(聖壽萬歲)’ 4자(字)를 ‘경력천추(慶曆千秋)’라고 고쳤다. 그 ‘1인에게 경사가 있으면, 8표문이 궁전으로 오니, 천하가 태평하다.’는 등의 글자도 모두 고쳤으며, ‘만세(萬歲)’라 부르던 것을 ‘천세(千歲)’라 부르게 하고, 임금이 다니는 길에 황토를 까는 것을 금하였다.(忠烈王元年 十一月庚辰 幸本闕 設八關會 改金鼇山額 聖壽萬年四字 爲慶曆千秋 其一人有慶 八表來庭 天下太平等字 皆改之 呼萬歲 爲呼千歲 輦路 禁鋪黃土)

《高麗史》 卷 69 志 23, 禮 嘉禮雜儀.

11월 기축일에 월식(月食)으로 팔관회를 중지하였다.(十一月 己丑 以月食 停八關會)

《高麗史》 卷 133 列傳 46, 禡王 3年 11月 己丑日.

팔관회의 성대한 의식을 11월(黃鐘)에 행하니, 해마다 상서를 내려 우리나라를 보호하네.

음식은 아직도 동이의 풍속을 지키고 있으나, 의관은 옛스러워 또한 중국 풍속을 중히 여기네.

기원하고 보답하면 천심이 이르니, 오직 효와 충이 세상에 풍성하네.
다식(茶食)을 잘게 씹으니 입안에 단맛이 생기고, 그 때 여러 사람과
어울렸던 일이 희미하게 생각나네.

(八關盛禮應黃鐘 歲降禎祥保海東 肴膳今猶守夷俗 衣冠古亦重華風
有祈有報天心格 惟孝惟忠世道豐 細嚼微甘生齒舌 依稀當日逐諸公)

《牧隱先生全集》 卷 30, 種德副樞送八關改服茶食.

의장기는 펠럭펠럭 날리고, 북 소리는 둥둥 소리나는데,
호종하는 선관(仙官)들은 많은 녹(黃鐘祿)을 받네.

(旌旗獵獵鼓逢逢 扈從仙官祿萬鍾)

《楊若齋學吟集》 卷 上, 己酉年 八關大會.

조신들이 여기에 모여 엄숙히 줄을 서고, 재배하고 덕을 칭송하니 예
의 법도가 밝게 드러나네.

좌우에는 천보의 긴 행랑이 펼쳐져 있고, 중앙에는 반공중 솟은 전각
이 서 있네.

피리 소리가 바람에 실려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용 의장기가 산을 응
립하니 일월이 빛나네.

조회가 끝난 후에 백관에게 연회를 베푸는데, 정원에 눈발이 날리면서
상서로움을 알리네.

(鴛鴦會此儼成行 再拜揚休禮度彰 千步脩廊分左右 半空危殿拱中央
風飄鳳管雲烟斷 山擁龍旗日月光 朝罷百僚開錫宴 一庭微雪報嘉祥)

《春亭先生文集》 卷 1, 八關大會.

● 팔관하표

지금 중동에 성대한 예식을 크게 여시니, 상서로운 징조가 마구 이르
러, 자라는 산을 이고 거북은 그림을 지었습니다. 또한 온갖 악기를 다
벌이니, 용은 피리를 불고 범은 비파를 연주합니다. 첩 등은 궁중에 처
한 몸으로, 뜰에 가지런히 나아가 구주(九奏)의 소리를 들으니, 하늘
중앙에 들어간 듯한 꿈을 꾸었습니다. 만수무강을 빌면서 송악(嵩岳)
과 같은 환호를 간절히 바랍니다.

(爰屬仲冬 大開盛禮 休祥沓至 龜戴山而龜負圖 廣樂畢張 龍吹箎而虎鼓瑟 妾等身栖紫府 迹筵彤庭 聞九奏聲 似入鈞天之夢 奉萬歲壽 切期嵩岳之呼云云)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12, 書表雜著墓誌 教坊賀八關表.

직책이 외직에 매여서, 여러 인재들이 모인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나, 중천을 사모하여 항상 임금을 그리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천년에 한 번 풍운성세를 열었고, 팔관 양회에 옥백을 드리는 아침을 빛내니, 신민에게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종묘사직에는 경사가 잇달았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정제하고 중정하며 관대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조심하여 태실(太室)에 신성한 제사를 받들었고, 아침 일찍 크게 빛나 넓은 뜰에 찬란한 의식을 베풀었으며, 보련(寶輦)을 타고 행차하여 법궁에서 예를 지극히 하였습니다. 이에 계율의 말을 듣고 더욱 엄숙한 마음을 독실히 하시니, 많은 녹이 이에 모이는 것은 천지신명의 도움이요, 사방에서 와서 축하한 것은 배와 수레로 실어온 온갖 공물입니다. 이치가 갖추어지니, 예악이 흥하며, 화기가 도니, 봉황이 이릅니다. 엮드려 생각하건대, 옥되이 외직으로 성상을 뵈지 못하지만, 음악을 아홉 번 연주하는 것은 백관의 융화를 이루는 것이니, 즐겁게 소소(韶簫) 연주를 생각하며, 세 가지를 들어 축하한 것은 성인의 장수를 드리는 것이니, 화봉(華封)의 정성을 본받기를 바라옵니다.(職靡外服 阻參筵立之班 情戀中天 恒切葵傾之懇 千載一時 對啓風雲之盛 八關兩會 光膺玉帛之朝 喜溢臣工 慶綿宗社 恭惟齊莊中正 寬裕溫柔 夙夜惟寅 奉明祀於大室 昧爽丕顯 陳縉儀於廣庭 乘寶輦以啓行 莅法宮而致禮 爰聞戒律之語 益篤齊敬之心 百祿是適 天地神祇之協贊 四方來賀 舟車貢賦之畢臻 理具備而禮樂興 和氣應而鳳凰至 伏念叨承受鉞 阻瞻垂衣 九成致庶尹之諧 欣想韶簫之奏 三祝獻聖人之壽 願效華封之誠)

《陽村集》 卷 24, 八關賀箋.

② 대설

• 기후

대설은 11월의 절기이며 동지는 11월의 중기이다. 갈단(鶡鳴) : 鶡은

평과 비슷한 새, 鶡(은 산박쥐)은 울지 않으며 호랑이가 교미하기 시작한다. 여정이 나오고 지렁이가 얽힌다. 고라니가 뿔을 갈고 샘물이 언다.(十一月 大雪 十一月節 冬至 十一月中 鶡鶡不鳴 虎始交 荔挺出 蚯蚓結 麋角解 水泉凍)

《高麗史》 卷 51 志 5, 曆 授時曆 上.

③ 동지

• 동지하장

평장 기홍수에게(奇平章洪壽)

묘성(昴星 : 서쪽의 넷째 별자리)의 성좌가 바로 되고, 북두자리가 북쪽(子方)으로 돌아왔으니, 바야흐로 동지(一陽)가 다시 도탑게 되는 때를 맞아 오는 오복(五福)을 거두시길 축원합니다.(星正昴躔 杓迴子位 方一陽之敦復 斂五福之來臻)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32, 狀 冬至賀狀.

• 팔죽

십이율은 황중에 맞고 북두는 자방에 닿는데, 짧은 그림자가 남쪽에 이르니, 일양(冬至)이 생겨나네.

우리 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형과 아우가 모이고, 여러 종들이 순식간에 팔죽을 끓이는 것이라네.

채색 옷을 입고 부모님께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리니, 세상에 이런 즐거움 형용하기 어렵네.

(律調黃鍾斗插子 短晷南至一陽生 最憶吾家弟與兄 齊奴豆粥咄嗟烹 舞綵高堂獻壽觥 人間此樂難爲名)

《益齋集》 卷 2, 冬至.

동지는 음기가 다한 것이니, 그런 이유로 일양(一陽)이 생겨나네.

성인이 매우 좋아하여, 괘(卦)를 보고 다시 이름을 부쳤네.

오늘은 하늘의 봄이니, 만물이 싹을 틔우네.

인심이 욕심에 가리워지나, 사단(四端)은 때때로 드러나네.

이를 양성하는 것은 군자가 해야 할 것이니,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성

(誠)을 세워야 하네.

부지런히 예가 아닌 것을 버리니, 비로소 본연지성(本然之性)이 밝아지네.

팔죽을 오장을 씻어주고, 혈기를 조절하여 편안하게 하네.

이익됨은 진실로 알지 않으니, 가히 성인의 마음을 볼 수 있네.

세상의 도가 점점 떨어지니, 이공(理工)은 언제 이루겠는가.

(冬至陰乃極 故有一陽生 聖人喜之甚 考卦以復名 是日天之春 萬物所由萌
人心散於欲 善端時露呈 養之在君子 匪他先立誠 勤勤去非禮 始見本然明 豆
粥深漑五內 血氣調以平 爲益信不淺 可見聖人情 世道漸以降 理工何日成)

《牧隱先生文集》 卷 27, 冬至豆粥.

이웃 늙은이에게 팔죽을 보내오니, 아마도 송경의 부윤인 것 같네.

부윤이 가져오니 기쁘고 또 놀라네.

다시 아름다운 부인이 대접한 토랑(兔郎)을 먹으니,

늙어서 늙은 부모에 대한 정을 알 수 있네.

우리나라 풍속과 예식에 점점 어진 자가 장수하니,

계절에 맞는 시구로 태평세월을 써내네.

응당 남경(南京)과 함께 옛 일이 되었으나,

촌사(村舍)에서 마음을 나누니, 이 역시 이름이 전해지네.

(초 8일은 동지날이다. 한청성(韓淸城)이 팔죽과 꿀을 보내왔다. 부추(副樞)도 이어서 오고, 부윤도 또 보내왔다.)

(隣翁送粥似松京 府尹得來喜且驚 更啜兔郎佳婦饋 可知鮐背老親情
鄉風俗禮稍仁壽 節物詩聯寫太平 應與南京爲故事 班心村舍亦傳名)

《牧隱先生文集》 卷 33, 初八日冬至也 韓淸城送豆粥并蜜 副樞繼至, 府尹又送來

음이 사라지고 양이 다시 절후에 돌아오니, 팔 향기가 푸른 빛 도자기에 뜨네.

처음 소금을 넣자 방금 솔이 끓어올라, 다시 꿀을 넣고서 숟가락을 젓네.

호타맥반(溲施麥飯: 호타는 중국의 허북성의 강으로, 호타맥반은 팔죽이나 보리밥을 가리킴.)의 전공도 같이 중하고, 금곡(金谷: 관인과 문인이 놀고 연회하는 장소.) 평경(萍莖)의 맛도 가장 특이하네.

나 또한 곤궁하게 살아 매우 창졸(倉卒)함이 심하니, 순식간에 갖춤을 모름지기 알아야 하겠네.

(陰消陽復正當期 紅雪香浮碧玉瓷 始下鹽時方沸鼎 更投蜜處正翻匙
 滄漣麥飯功兼重 金谷萍莖味寂奇 我亦窮居倉卒甚 咄嗟成辦要須知)

《耘谷行錄》 卷 4, 冬至 豆粥.

12월

① 납일

• 납일

계해일에 지태사국사(知太史局事) 양관공(梁冠公)이 아뢰기를, “선칙(宣勅)을 받들고 지금 내년 역서(曆書)를 교열하니, 의심하거나 그릇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납일(臘日)을 기미년 이후로 송나라 역법을 따라 술일로 써 왔습니다마는, 신이 음양서를 상고하건대, ‘대한(大寒) 전후로 가장 가까운 진일(辰日)이 납일이 된다.’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써온 지가 오래였습니다. 하물며 고사(古史)에 ‘하나라에서는 가평(嘉平), 은나라에서는 청사(淸祀), 주나라에서는 대사(大蜡), 한나라에서는 납(臘)이다.’ 하여 그 명칭은 각기 달랐으나 모두 그 해의 일을 마쳤으므로 사냥하여 짐승을 잡고 만물을 모아서 온갖 신에게 보답하던 것인데, 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을 함부로 변경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유사에 맡겨서 상정한 뒤에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니, 제하여 따랐다.(癸亥 知太史局事梁冠公奏 奉宣勘進來壬戌年曆日 並無疑誤 惟臘日 自己未年以來 依大宋曆法 用戌日 臣未詳可否 臣按陰陽書云 近大寒前後 先得辰爲臘 我國用此日 久矣 況古史曰 夏曰嘉平 殷曰淸祀 周曰大蜡 漢曰臘 其稱各異 皆以卒歲之功 因臘取獸 合聚萬物 以報百神 可不重歎 不宜擅變其法 請委有司詳定 然後施行 制 可)

《高麗史》 卷 9 世家 9, 文宗 35年 12月.

• 태묘 제사

납향에 만물을 모아서 삼가 향기로운 제수를 진설하는데, 물에 많은 생선이 있으므로 겸하여 별미의 천신을 갖추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총명의 흠향을 더하시어 이 효도의 정성에 응하시길 바랍니다.(蜡索萬物

式陳苾苾之羞 潛有多魚 兼備莘莘之薦 幸加聰享 以答孝悰)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40, 釋道疏祭祀 大廟臘享兼薦魚祭祀.

② 제석

• 수세

대문 위에 복숭아나무 꽃음이 어찌 이상하지 않은가.

뜰 가운데 폭죽 소리 시끄러운들 어찌 하겠는가.

벽은단(辟瘟丹)으로 온역 피함도 헛말이지만,

술을 마시기 위해 짐짓 말하지 않았네.

(門上插桃何詭誕 庭中爆竹奈支離 辟瘟丹粒猶虛語 爲倒醇醅故不辭)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13, 古律詩 守歲.

• 나례

못 영웅들이 병풍을 구중궁궐에 바치고, 오경에는 징과 북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네.

궁궐의 아이들은 소리에 서로 응하여, 열두 신을 시켜 악귀들을 내쫓네. 등간(騰簡 : 食의 鬼神)은 본디 상서롭지 못한 것을 잡아먹으니, 급히 못가 뒤편인 흥귀는 먹힐 뿐이네.

내일 아침에 대궐에는 삼산처럼 장수하시길 축수하거든, 인애로운 풍화가 사방에 움직임을 앞서서 보네.

(屏障群英進九重 五更鉦鼓振晴空 黃門偃子聲相應 十有二神追惡凶 騰簡由來食不祥 諸凶急去後爲糧 明朝鳳獻三山壽 坐見仁風動四方)

《牧隱先生文集》 卷 13, 除日.

• 저포놀이

세밑 경신일에 밤새도록 떠들어대고,

관현악과 등불 아래에 취하여 정신이 없네.

아이들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저포놀이를 하는데,

백발의 늙은이는 스스로 높은 체하네.

(歲杪庚申徹夜喧 管絃燈火醉昏昏 圍爐兒子樗蒲戲 白髮衰翁妄自尊)

《牧隱先生文集》 卷 13, 十二月二日庚申 移寓妙覺洞權判閣家.

③ 소한

• 기후

소한은 12월의 절기이며 대한은 12월의 중기이다. 기러기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까치가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꿩소리가 들리고 닭이 알을 안는다. 맹조류가 빠르게 날고 못에 물이 두껍게 얼어서 굳어진다. (十二月 小寒 十二月節 大寒 十二月中 鴈北鄉 鵲始巢 雉雊 雞乳 征爲厲疾 水澤腹堅)

《高麗史》 卷 51 志 5, 曆 授時曆 上.

④ 대한

• 기후

대한(大寒)은 12월 중기이다. 괘(卦)는 감(坎) 육삼(六三)이다. 초후(初候)에 닭이 알을 안기 시작한다. 차후(次候)에 맹조류가 빠르게 난다. 말후(末候)에 못에 물이 두껍게 얼어서 굳어진다.(大寒 十二月中 坎六三 鷄始乳 鷺鳥 疾 水澤腹堅)

《高麗史》 卷 50 志 4, 曆 宣明曆 上.

제 3 장

세시기를 통해 본 중구의 세시와 풍속



1. 《동국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는 조선 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洪錫謨)가 우리나라의 주요한 연중행사와 전래해 오는 여러 풍속을 상세하게 기술한 세시기이다.

홍석모는 풍산인(豐山人)으로 조선조의 대문장가이며 대제학(大提學)으로 이름난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의 종손(從孫)으로서 자(字)를 경부(敬敷), 호(號)는 도애(陶厓)라 한다. 그 역시 덕망있는 학자였지만 사환(仕宦)은 음사(蔭仕)를 지내는 데 그쳤다.

《동국세시기》는 1849년(헌종 15년)에 당대의 학자 이자유(李子有)의 서문을 붙여 편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의 모든 연중행사와 풍속을 23항목으로 분류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민속 행사가 어느 날의 행사인지 분명치 않은 것은 ‘월내’라는 항목으로 해서 그 달의 끝에다가 한데 몰아서 설명했으며 맨 마지막으로는 윤달에 관계되는 것을 실었다.

본서 《동국세시기》는 옛 중국 종녕(宗寧)의 《형초세시기 荆楚歲時記》를 다분히 참고로 하였으며 이 《동국세시기》보다 삼백여 년이나 먼저 완성되었던 《여지승람》에서도 상당 부분을 전재(轉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30년(중종 25년) 발간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옮겨 적어 놓았을 경우에는 “《여지승람》을 보라.”라고 그 출처를 철저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풍이나 민속을 해설한 책으로는 본서가 가장 광범하고 상세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 중의 더러는 그 당시에 이미 없어져 버린 그런 민속까지도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서보다 훨씬 먼저 기술된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 京都雜志》 제2권 세시편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보다 상세히 부연하여 참고자료로 삼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로서는 우리의 민속을 되도록 빠짐없이 채집하고 발굴하려는 노력으로 해박하게 수많은 이 방면의 문적(文籍)들을 찾아 고증하기에 힘썼으며 각각 전래하는 민속마다 그 시원을 밝히고 유래를 캐내려는 그런 노력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본서 필자 역시도 중국의 문물을 높여 숭상하는 그 같은 당시의 사상을 떨치지 못하고 우리 민속의 기원을 중국 풍속에서 찾으려 했던 그런 흠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당시까지의 우리의 풍속을 기술한 세시기로서는 본서가 당연 으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1911년 홍승경이라는 이가 광문회(光文會)에 기증하여 광문회에서 1911년에 간행하였고, 1967년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열양세시기》·《경도잡지》와 더불어 합본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동국세시기》의 차례와 이 책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와 풍속의 내용을 추출(抽出)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서문]

[정월] 원일(元日)/ 입춘(立春)/ 인일(人日)/ 상해일(上亥日)/ 상자일(上子日)/ 묘일(卯日)/ 사일(巳日)/ 상원(上元)/ 월내(月內)

[2월] 삭일(朔日)/ 월내(月內)

[3월] 삼일(三日)/ 청명(淸明)/ 한식(寒食)/ 월내(月內)

[4월] 파일(八日)/ 월내(月內)

[5월] 단오(端午)/ 월내(月內)

[6월] 유두(流頭)/ 삼복(三伏)/ 월내(月內)

[7월] 칠석(七夕)/ 중원(中元)/ 월내(月內)

[8월] 추석(秋夕)/ 월내(月內)

[9월] 구일(九日)

[10월] 오일(午日)/ 월내(月內)

[11월] 동지(冬至)/ 월내(月內)

[12월] 납(臘)/ 제석(除夕)/ 월내(月內)

[윤월]

정월

① 원일

서울 풍속에 이 날 사당에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茶禮)라 한다. 남녀 어린이들이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세장(歲粧)이라 하고,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을 세배(歲拜)라 한다. …… “서울 풍속에 매년 설날이면 주인은 모두 하례하러 나가고 다만 백지로 만든 책과 붓·벼루만 책상 위에 배치해 두면 하례객이 와서 이름만 적을 뿐, 환영·환송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이것이 곧 세함(歲銜)의 시초다.

② 상원

서울 성의 북문을 숙청문(肅淸門·肅靖門)이라 한다. 항상 닫고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부근의 계곡이 무척 아름답고 그윽하여 보름날 전에 향간의 부녀들이 세 차례씩 와서 논다. 이 문이 액을 막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꼭두새벽에 종각(鐘閣·現 鐘路) 네거리의 흙을 파다가 집 네 귀퉁이에 뿌리거나 부뚜막에 바른다. 이는 재산 모으기를 바라는 뜻이다.

서울 장안의 연소자(年少者)로서 연싸움을 잘하여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부자이며 권세있는 집에 가끔 불려가 연 날리는 것을 구경시킨다.

그리고 매년 정월 보름 하루 이틀 전에는 수표교(水標橋) 근처의 개울[淸溪川]을 따라 아래 위로 연싸움 구경꾼이 담을 쌓은 듯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남의 연줄을 끊느라고 서 있는 자도 있고, 혹은 패하는 연을 쫓아가느라고 공중만 보고 물결 속을 달리다가 담을 뛰어넘고 지붕 위를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 형세를 막을 수 없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놀랐다. 보름날이 지나면 다시는 연을 날리지 않았다.

오색 종이를 풀칠하여 알팍한 댕가지의 양쪽에 붙인다. 그리고 모가지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모양의 일정하지

아니한 자루 끝에다 그 댓가지의 가운데를 뚫고 못이 돌아가도록 허술하게 박는다. 그런 뒤에 아이들은 그것을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거슬러 달린다. 그러면 그것이 뱅글뱅글 돈다. 그것을 회회아(回回兒·팔랑개비)라 한다. 시장에서 많이 판다.

한 가닥으로 된 생명주실로 거위의 솜털을 붙들어매어 아이들이 바람을 따라 날린다. 이것을 고고매(姑姑妹)라 한다. 이 말은 몽고어로 봉황이란 뜻이다.

장안 남녀들이 온통 저녁 종소리를 들으려고 열운가(闕雲街)의 종각(鐘閣)으로 몰려든다. 종소리를 다 들은 다음 흩어져서 여러 곳의 다리로 가서 산책하는데 밤을 새워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답교(踏橋·다리밟기)라 한다.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교(橋)가 우리나라 말로는 다리[脚]로 발음되므로 속담에, 이렇게 하면 일년 동안 다리[脚]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답교는 주로 큰 광통교(廣通橋)와 작은 광통교 및 수표교(水標橋)에서 가장 성했다. 그리하여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은 통소를 불며 북을 치며 야단법석이었다.

생각컨대 옹낙(雍洛)의 《영이록 靈異錄》에, “당(唐)나라에서 정월 보름날 밤을 중심으로 한 전후 3일 저녁을 야행(夜行)하도록 했더니 남녀들의 놀러다니는 거마(車馬)가 길을 메웠다.”고 했다. 또 생각컨대 육계굉(陸啓宏)의 《북경세화기 北京歲華記》에는,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모두 집에서 나와 다리를 거닐었다.”고 했다. 또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 帝京景物略》에는,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서로 이끌고 나와 거닐므로써 질병을 없애는 것을 주백병(走百病·모든 병을 물리친다는 뜻.)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 심방(沈榜)의 《완서잡기 宛署雜記》에는, “16일 밤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노는데 대개가 다리가 있는 곳에서 놀았다.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 위를 지나갔다. 이것을 도액(度厄·액막이)이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풍속의 답교의 연원이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 芝峯類說》에는, “보름날 밤 답교의 놀이는 전조(前朝·고려조)로부터 시작했다. 태평시에는 매우 성하여 남녀들이 줄을 이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관들이 급해서 체포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므

로 지금 풍속에는 부녀자들이 다시 다리를 밟는 일이 없다.

삼문(三門)밖 및 아현(阿峴)¹⁾ 사람들이 떼를 이루어 편을 가른 다음, 혹은 몽둥이를 들고 혹은 돌을 던지고 고탈을 치면서 달려들어 접전하는 모양을 만리현(萬里峴) 위에서 행한다. 이것을 변전(邊戰·편싸움)이라 한다. 그리하여 패주(敗走)하는 편이 지는 것이다. 속담에 삼문밖 편이 이기면 기내(畿內·경기도 안)가 풍년이 들고 아현 편이 이기면 다른 도들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에 용산(龍山)과 마포(麻浦)의 불량소년들은 작당하여 아현 쪽을 돕는다. 그것이 매우 심한 싸움일 때에는 고탈치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머리를 싸매고 서로 공격하는데 이마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고 하여 피를 보고서도 그치지 않는다. 비록 사상(死傷)에 이르러도 후회하지 않고 또 생명에 대한 보상법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돌이 무서워 회피하고, 이를 금지시켜야 하는 관청이 이런 싸움을 못하도록 금지해도 고질이 된 악습이 온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그 후 성안의 아이들도 이를 모방하여 종가(鐘街·현 종로 네거리)와 비파정(琵琶亭) 등에서 편싸움을 했으며, 성 밖에서는 만리현과 우수현(雨水峴)이 편싸움의 장소가 되었다.

3월

○ 월내

생각컨대 《세시잡기 歲時雜記》에, “두 사일(社日)에 떡먹기를 좋아하는데 대추로 떡을 만든다.”고 하였다. 지금의 풍속도 또한 그렇다. 남산(南山) 아래에서는 술을 잘 빚고 북부에서는 좋은 떡을 많이 만드므로 서울 속담에 ‘남주북병(南酒北餅)²⁾’이란 말이 생겼다.

서울 풍속에, 산언덕·물굽이에 나가 노는 것을 화류(花柳·꽃놀이)라 한다. 이것은 곧 상사(上巳·삼짇날)의 답청(踏青)하는 데서 끼쳐진 풍속이다. 필운대(彌雲臺)의 살구꽃, 북둔(北屯)의 복사꽃, 흥인문(興仁

1) 삼문(三門)은 숭례문(崇禮門·남대문)·흥인지문(興仁之門·동대문)·돈의문(敦義門·서대문)을 말하여, 아현(阿峴)은 현재의 아현동 고개, 곧 아현 육교가 있는 부근. 애오개라고도 함.

2) 옛날 서울 안의 구역을 동·서·남·북·중의 오부(五部)로 가른 중의 하나로 동쪽의 부분.

門·동대문) 밖의 버들이 가장 좋은 곳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4월

○ 파일

등의 이름에는 수박등·마늘등·연꽃등·칠성등·오행등·일월등·공등(毬燈)·배등(船燈)·종등(鐘燈)·북등·누각등·난간등·화분등·가마등·머루등·병등·항아리등·방울등·알등·용등·봉등·학등·잉어등·거북등·자라등·수복등(壽福燈)·태평등(太平燈)·만세등(萬歲燈)·남산등(南山燈) 등이 있는데 모두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다.

시내의 등 파는 집에서 파는 등은 천태만상으로, 오색이 찬란하고 값이 비싸며 기이함을 자랑한다. 종가(鐘街·현 종로)에는 이 등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담벼락 같이 몰려선다. 또 난조(鸞鳥)·학·사자·호랑이·거북·사슴·잉어·자라 모양의 등과, 선관(仙官)·선녀가 말 탄 형상의 등을 만들어 팔면, 여러 아이들은 다투어 사가지고 장난하며 논다. 연등회 날 저녁에는 전례에 따라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다. 온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 달아 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혹 어떤 이는 약기를 들고 거리를 쏘다니며 논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불의 성을 만든다. 그렇게 떠들썩하기를 밤을 새워서 한다.

장안 밖의 시골 노파들은 서로 붙들고 다투어 와서 반드시 남산의 잠두봉(蠶頭峯)³⁾에 올라가 이 장관을 구경한다.

5월

① 단오

젊은이들이 남산(南山)의 왜장(倭場)이나 북악산(北嶽山)의 신무문(神武門·경복궁 후문) 뒤에 모여 각력(角力·씨름)을 하여 승부를 겨룬다.

3) 남산 서쪽에 있는 봉우리. 바위로 되었는데, 누에머리와 같으므로 누에머리, 또는 잠두(蠶頭)란 명칭이 생겼다. 속칭 가을두(加乙頭) 또는 용두봉(龍頭峯)이라고도 하였음.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여 구부리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오른발을 잡고 일시에 일어나며 상대를 번쩍 들어 팽개친다. 그리하여 밑에 깔리는 자가 지는 것이다. 내구(內句·안걸이)·외구(外句·밭걸이)·윤기(輪起·둘러메치기) 등 여러 자세가 있고, 그 중 힘이 세고 손이 민첩하여 자주 내기하여 자주 이기는 사람을 도결국(都結局)이라 한다. 중국인이 이를 본받아 그것을 고려기(高麗伎)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교(撿跤)라고도 한다.

② 월내

서울 풍속에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 항아리에 장을 담가 과동(過冬)의 계획을 세운다. 온갖 것을 꺼리는 날인 신일(辛日)은 장 담그는 데도 맞지 않으므로 신일만은 피한다.

6월

○ 월내

피·기장·조·벼를 종묘에 천신한다. 생각컨대 《예기 禮記》 월령(月令)에, “중하(仲夏)의 달에 농촌에서 기장을 진상하면 천자께서 맛보시고 먼저 종묘에 올린다. 또 맹추(孟秋)의 달에 농촌에서 햇곡식을 올리면 천자께서 새것을 맛보시고 먼저 종묘에 올린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서울 풍속에, 또 남산과 북악산 계곡에서 탁족의 놀이를 한다.

9월

○ 9일

서울 풍속에, 남산과 북악산에서 이 날 마시고 먹으며 즐긴다. 이는 등고(登高)의 옛풍습을 답습한 것이다. 청풍계(淸楓溪)·후조당(後澗堂)·남한산(南漢山)·북한산(北漢山)·도봉산(道峯山)·수락산(水落山) 등이 단풍 구경하는 데 좋다.

10월

○ 월내

생각컨대 《세시잡기 歲時雜記》에, “서울[北京] 사람은 10월 초하루에 술을 걸러 놓고 저민 고기를 화로 안에 구우면서 둘러앉아 마시며 씹는데 이것을 난로(煖爐)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생각컨대 《동경몽화록 東京夢華錄》에, “10월 초하루에 유사(有司)가 난로와 숯을 올리면 민간에서는 모두 술을 가져다 놓고 난로회(煖爐會)를 한다.”고 했다. 지금의 풍속도 그러한 것이다.

11월

○ 월내

청어(靑魚)를 종묘에 천신한다. 경사대부의 집에서도 이를 행한다.

생각컨대 《예기 禮記》 월령(月令)에 “계동(季冬)의 달에 천자는 물고기를 맛보시고 먼저 종묘에 천신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제도도 그와 같다.

2. 《열양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열양(洌陽)’이란 한양(漢陽)의 딴이름으로서 《열양세시기 洌陽歲時記》는 조선 정조 때의 학자 김매순(金邁淳)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연중행사와 민속을 기록한 책이다.

필자 김매순은 1776년~1840년 간의 학자로서 안동인(安東人)이며 세칭 육창(六昌)의 한 사람으로 불리던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현손(玄孫)이다. 그의 자는 덕유(德與)요 호는 대산(臺山)인데 1795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검열(檢閱)과 사인(舍人) 등의 벼슬을 거치면서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도 선발되었으며 예조참판(禮曹參判)과 강화유수(江華留守)를 지냈다.

그는 학문과 덕행이 높아 세인들의 도타운 숭앙을 받았지만 특히 그의 뛰어난 문장은 세칭 여한(麗韓) 십가(十家)의 한 사람으로 꼽혔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고종 때에 와서는 문청(文淸)이

란 시호(諡號)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대산집 臺山集》이라고 하는 20권이나 되는 방대한 문집을 남겼고, 《열양세시기》 일책(一冊)이 사본(寫本)으로 전하고 있다.

본서 《열양세시기》는 《동국세시기》보다 약 30여 년 전이나 앞선 1819년에 저술된 것으로서 역시 같은 시대의 학자인 윤직(尹稷)의 교열(校閱)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풍속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동국세시기》보다는 약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열양세시기》의 차례와 이 책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와 풍속의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서문]

[정월] 입춘(立春)/ 원일(元日)/ 인일(人日)/ 상해일(上亥日)/ 상원(上元)

[2월] 삭일(朔日·초하루)/ 육일(六日)

[3월] 한식(寒食)/ 삼일(三日)/ 곡우(穀雨)

[4월] 팔일(八日)

[5월] 단오(端午)/ 십일(十日)

[6월] 십오일(十五日)/ 복날(伏日)

[7월] 중원(中元)

[8월] 중추(中秋)

[9월]

[10월] 이십일(二十日)

[11월] 동지(冬至)

[12월] 납일(臘日)/ 제석(除夕)

[발문]

○ 상원(上元)

보름날 저녁에 열두 다리[橋]를 건너면 열두 달 동안의 액을 막는 것

이라 하여 재상(宰相)과 귀인(貴人)으로부터 촌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늙고 병든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는 이가 없다. 가마도 타고, 말도 타고, 지팡이도 짚고, 나무신도 신고하여 이들은 거리를 메운다. 혹 악기와 술병 등이 사람 모이는 곳마다 벌여 있어 일년 중의 도시에서의 유람의 성함이 정월 보름과 4월 파일에 가장 성하다.

이 두 밤에는 매양 임금이 명령을 내려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한다.

○ 삼월(三月)

서울의 꽃과 버들은 삼월에 성하다. 남산의 잠두(蠶頭)와 북악산의 필운대(弼雲臺)와 세심대(洗心臺)는 유람객의 집합소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안개같이 피어 한 달 동안 줄어들지를 않았다.

3. 《경도잡지》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경도잡지 京都雜志》는 조선조 정조 때의 실학자 유득공(柳得恭)의 저서로서 그 제1권에는 우리나라의 의·식·주에 관한 것과 시화에 관한 것 등의 제반 문물 제도를 19항목에 나누어 기술하였고, 그 제2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시풍속을 역시 19항목으로 분류해서 기술하였다.

유득공은 조선조 영조 때에 출생하여 정조조에 크게 이름을 떨친 실학의 대가로서 본관(本貫)은 문화(文化)이며 자를 혜보(惠甫) 또는 혜풍(惠風)이라 하고, 호는 냉재(冷齋)·냉암(冷庵) 또는 고예당(古藝堂)이라고도 하였다.

그는 일찍이 진사(進士)로 출발하여 이내 외직(外職)으로 나가 여러 고을의 군수를 역임하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검서(檢書)라는 직분도 얻고 있었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이덕무·박제가·서이수와 함께 사검서(四檢書)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 북학파(北學派)의 거장인 연암(燕岩) 박지원(朴趾源)의 제자로서 박제가·이덕무 등과 더불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논리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의 모든 산업을 일으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적극 주장하며 앞장서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실학의 대가인 박제가·이덕무·이서구와 함께 조선조 후기 한학의 사대가로 불리었다.

그는 저서로 《냉재집 冷齋集》을 전하는 외에 본서 《경도잡지》 두 권을 따로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도잡지》 제2권은 후에 홍석모가 《동국세시기》를 저술할 때에 크게 참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도잡지》의 차례와 이 책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와 풍속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권1 풍속(風俗)

건복(巾服)/ 주식(酒食)/ 다연(茶烟)/ 과과(果瓜)/ 제택(第宅)/ 마려(馬驢)/ 기집(器什)/ 문방(文房)/ 화훼(花卉)/ 발합(鶉鴿)/ 유상(遊賞)/ 성기(聲伎)/ 도희(賭戲)/ 시포(市舖)/ 시문(詩文)/ 서화(書畫)/ 혼의(婚儀)/ 유가(遊街)/ 가도(呵導)

[권2 세시(歲時)]

원일(元日)/ 해일(亥日)/ 자일(子日)/ 사일(巳日)/ 인일(人日)/ 입춘(立春)/ 상원(上元)/ 2월초일일/ 한식(寒食)/ 중삼(重三)/ 사월 파일(四月八日)/ 단오(端午)/ 유월 십오일(六月十五日)/ 복(伏)/ 중원(中元)/ 중추(中秋)/ 중구(重九)/ 시월 오일(十月午日)/ 동지(冬至)/ 납평(臘平)/ 제석(除夕)

권2 풍속

• 유상(遊賞)

필운대(弼雲臺)의 살구꽃, 북문(北門)의 복사꽃, 동대문 밖의 버들, 천연정(天然亭)의 연꽃, 삼청동(三清洞)·탕춘대(蕩春臺)의 수석(水石),

산보객이 모두 여기로 몰린다.

서울 성의 주위 40리를 하루 동안에 두루 돌아다니고 성 내외의 꽃과 버들을 다 본 사람을 제일로 쳤다. 그리하여 꼭두새벽에 오르기 시작하여 해질 무렵에 다 마친다. 그러나 산길이 험하여 포기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다.

● 시포(市舖)

비단·명주·종이·베 등의 여러 점포가 종가(鐘街·현 종로)를 끼고 죽 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대체로 장보러 가는 사람은 새벽에는 이현(梨峴)과 소의문(昭義門·西小門) 밖으로 모이고, 점심 때는 종가(鐘街)로 모인다. 온 장안의 수요품 중에 동부(東部)에서는 채소가, 칠패(七牌)에서는 생선이 가장 풍성하다.

남산 아래에서는 술을 잘 빚었고, 북부에서는 떡 파는 집이 많았으므로 속칭 남주북병(南酒北餅)이라 한다.

권2 세시

○ 상원

새벽에 종각(鐘閣) 네 거리의 흙을 파다가 부뚜막을 바르면 재물이 모인다고 한다.

삼문(三門·동, 서, 남대문) 밖과 아현(阿峴) 사람들이 만리현(萬里峴)에서 돌을 던지며 서로 싸웠다. 속담에 말하기를, 삼문 밖 사람들이 이기면 경기도 안에 풍년이 들고 아현 사람이 이기면 다른 도에서 풍년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용산(龍山)·마포(麻浦)의 불량소년들이 결당하여 아현 쪽을 도왔다고 한다. 이 돌싸움이 한창 심할 때는 함성이 천지를 울리는 것 같고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후회하지 않으며 당국에서 왕왕 못하게도 했다. 장안의 아이들이 이를 모방하기도 하고 행인이 돌을 무서워하여 피하기도 했다.

생각컨대 《신당서 新唐書》 고려전(高麗傳·高句麗傳)에, “매년 초에 패수(溟水·大同江) 가에 모여 물과 돌을 서로 끼얹고 던지며 두세 차례 밀었다 밀려갔다 하다가 멈춘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풍속의 석전(石戰)의 시초다.

아이들이 ‘액(厄)’ 자를 연에 써서 해질 무렵에 줄을 끊어 날려 보낸다. 연 만드는 법은 대를 뼈로 하고 종이를 풀로 발라 마치 키의 모양 같다. 오색연(五色蓮)·기반연(碁斑蓮)·묘안연(貓眼蓮)·작령연(鵲翎蓮)·어린연(魚鱗蓮)·용미연(龍尾蓮) 등 명색이 특히 번잡하다. 중국의 연놀이는 늦은 봄의 유희인데, 우리나라 풍속은 겨울부터 정월 보름날까지 날린다. 그 날리는 법도 한곳에 국한되지 않고 종횡(縱橫)으로 휩쓸어 남의 연과 마주쳐 남의 연줄을 많이 끊음으로써 쾌락을 삼는다. 실을 겹치고 아교를 문질러 매끈하기가 흰 말의 꼬리 같다. 혹은 누런 치자물을 들여 바람을 거슬러 쨍쨍 울리는 줄이 가장 남의 줄을 잘 자른다. 심한 사람은 자석 가루나 구리 가루를 바르기도 한다. 그러나 연줄을 잘 교차(交叉)시키는 능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서울 장안 소년 중에 연싸움을 잘하기로 이름이 난 자는 부귀한 집에 왕왕 불려가기도 한다. 매년 정월 보름 전 하루 이들은 수표교(水標橋) 연변 상하를 따라 연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쌓듯이 모여 선다. 여러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연줄을 끊는데 혹은 패하는 연을 따라 담을 넘고 집을 뛰어넘기도 하므로 사람들은 대개 두려워하고 놀란다. 그러나 보름날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연을 날리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한 가닥으로 된 생명주실로 거위의 솜털을 붙들어 매어 바람을 따라 날린다. 이것을 고고매(苦苦妹)라 한다. 몽고어로 봉황(鳳凰)이란 뜻이다.

황혼에 햇불을 들고 높은 데로 오른다. 이것을 영월(迎月·望月·달맞이)이라 한다. 달을 먼저 보는 사람이 길하다.

달이 뜬 후 서울 사람들은 모두 종가(鍾街·현 종로)로 나와 종소리를 듣고 헤어져 여러 다리[橋]를 밟는다. 이렇게 하면 다리[脚]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광통교(大廣通橋)·소광통교(小廣通橋) 및 수표교에 가장 많이 모인다. 이 날 저녁은 예(例)에 따라 통행금지를 완화한다. 따라서 인산인해를 이루어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떠들썩한다.

생각컨대 육계굉(陸啓滋)의 《북경세화기 北京歲華記》에,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들이 모두 집에서 나와 다리를 거닐었다.”고 했다. 그리고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 帝京景物略》에는,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들이 서로 이끌고 밤에 나와 다님으로써 질병을 없애는 것을

주백병(走百病 : 모든 병을 달아나게 한다는 뜻.)이라 한다.”고 했다. 또 심방(沈榜)의 《완서잡기 宛署雜記》에는, “16일 밤 부녀들이 떼를 지어 대체로 다리 가에서 노는데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도액(度厄·액막이)이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풍속의 다리밧기의 근원이다. 《지봉유설 芝峯類說》에는, “보름날 밤 답교의 놀이는 전조(前朝)로부터 시작했는데, 태평세대에는 매우 성하여 남녀들이 줄을 이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으므로, 법관들이 엄금하여 위법자는 체포하도록까지 하였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금 풍속에는 부녀들은 다시 답교하는 일이 없다.

4월

○ 파일(八日)

어린이들이 동이에 물을 등대[燈竿] 아래 떠다 놓는다. 그리고 바가지를 엮어 놓고 빗자루로 그 바가지의 등을 두르려 소박한 소리를 낸다. 이를 수고(水鼓·水缶·물장구)라고 한다.

생각컨대 장원(張遠)의 《오지 隩志》에, “서울 풍속에 부처의 이름을 외는 사람은 모두 콩으로써 그 수를 헤아렸다가 4월 8일 석가의 탄신일에 이르러 소금을 살짝 뿌려 그 콩을 볶아서 사람을 길에서 맞이해서 먹게 함으로써 인연을 맺는다.” 했다. 지금 풍속에 콩을 볶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생각컨대 《제경경물략 帝京景物略》에, “정월 보름날 밤 어린이들이 북을 치며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내는 것을 태평고(太平鼓)라고 한다.”고 했다. 지금 풍속의 수고(水鼓)가 곧 태평고와 같은데, 부처 생신날이 등석(燈夕)이므로 옮겨온 것이다. 인가에서는 자녀의 수대로 등을 켜는데 밝아야 길하다. 등대[燈竿]는 큰 대나무 수십 개를 이어 만드는데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오강(五江)의 돛대를 실어다가 만들고 꼭대기에는 평의 털을 꿸고 각색 깃발을 매어 단다. 혹 일월권(日月圈)을 꿸아 바람에 따라 눈이 부시게 돌게도 한다. 종로 네거리의 여러 가게에서도 높고 큰 것을 숭상하여 수십 개의 줄을 펼쳐 놓고 ‘어기어차’ 하며 끌어 올려 세운다. 이 때 키가 작은 사람을 남들은 비웃는다. 이 날은 예에 따라 통행금지가 해제된다. 이 등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은 남산·북악산 기슭으로 올라가 널렸고 혹 어

면 이는 통소와 북을 가지고 시가를 따라 멋대로 구경하기도 한다.

○ 단오

서울의 소년들이 남산 기슭에 모여 서로 씨름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상대하고 굽으려 각각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잡은 다음 일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번쩍 들어 매어친다. 여기에는 내구(內句)·외구(外句)·윤기(輪起)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인이 이를 본받아 고려희(高麗戲) 또는 요교(撿跤)라 한다.

4. 《세시풍요》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세시풍요 歲時風謠》는 정갈한 체제를 갖춘 세시풍속 시집이다. 정월 초하루부터 선달 그믐까지 우리의 세시풍속을 왕실·관인·사대부로부터 민가·기생·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형평에 맞게 시로 읊으면서 친절하게 간주까지 달아 설명하고 있다. 사·농·공·상의 서울권 중심의 세시풍속을 이와 같이 시로 고르게 써 놓은 것은 이 책이 유일한 것이 아닐까 한다.⁴⁾

《세시풍요》의 서(序)는 옥산(玉山) 장완(張琬)⁵⁾이 썼는데, 그는 조선조가 건국된 지 460년 만에 들에는 전쟁이 없고 백성은 농공에 전념하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고, 서울은 사방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배와 수레가 많이 다니고 화려하고 사치로움

4) 임기중 역주·해설,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p. 3.

5) 枕雨堂 張之琬이다. 그는 《枕雨堂集》 六卷 三冊과 《裴然箱抄》 三卷 一冊 (1857)을 지어 간행하였으며 《枕雨談艸》를 지었다. 그리고 <永明寺碑文>을撰하여 1846년에 그 비가 섰다.

으로 관습을 이루어서 항상 좋은 때와 아름다운 절후에는 놀고 구경하고 잔치하고 모임을 갖는 것이 해마다 빈 달이 없었으니 그것은 하늘이 준 은혜 때문이라면서 간송의 《세시풍요》를 다 음과 같이 예찬하고 있다.

간송(澗松) 유만공(柳晩恭)께서 서울의 사녀(士女)들이 시절(時節)에 잔치하고 즐기던 일을 취해서 소시(小詩) 200여 수를 짓고 《세시풍요》라 이름하여, 위로는 왕조(王朝)의 고사(故事)로부터 아래로는 시골의 유속(遺俗)에 이르기까지 천시(天時)의 변하고 고친 것과 인사(人事)의 짓고 행하는 것을 모아서 나열하고 다듬고 탁마(琢磨)하여 이아(爾雅)로 일변(一變)해 놓았으니 간송의 일 좋아하는 것은 가위 근실하다고 이르겠다.

그가 나에게 이 책의 서문(序文)을 요구하여 그의 글을 찬찬히 읽어 보니 감탄할 바가 많았다. 전편(全篇)에 실린 바는 아녀(兒女)들의 장난과 시정(市井)의 이어(俚語)가 많아 비록 세상과 무관한 것 같았으나 옛 사람이 낙양(洛陽) 동산이 성하고 쇠하는 것으로써 천하(天下) 치란(治亂)의 징후를 삼은 바 있는데, 곧 이 책은 그 지극한 정치에 향기로운 것이 공중에 한 점 구름이다. 만약 교화가 흠족하지 못한 것이 있고 백성이 생업에 편안하지 않다면 어찌 다시 그런 즐거움이 있는 줄을 알겠는가.……그러나 간송자(澗松子)가 태평(太平)의 기상을 장식하고 국가의 성한 것을 노래한 것과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을미년 정월에 옥산 장완은 서한다.)

아무튼 한시로 된 세시기로서는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연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시마다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 당시의 세시 상황을 살피는 데 일조가 되고 있다.

특히 청계천 주변의 낭만과 풍속 등을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어, 임기중의 역주와 해설을 참고·요약하기로 한다.

복토(福土) 훔치기는 정월 14일 저녁에 남의 집 훔을 훔쳐오는 풍속

의 하나로 가난한 집 사람들이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대문 안의 흙을 훔쳐와서 그 이튿날 아침 자기 집 부뚜막에 퍼놓거나 바르는 풍속이다. 《동국세시기》에는 “꼭두새벽에 종각(鐘閣) 네거리의 흙을 파다가 집 네 귀퉁이에 뿌리거나 부뚜막에 바른다. 이는 재산 모으기를 바라는 뜻이다.”고 쓰여 있다. 부잣집 흙을 파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 주술적인 속성이 있는데 네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그 사람들 중에는 고관대작도 있고 부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밟고 다닌 흙을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으면 재수가 좋을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부잣집에서는 만일 자기네 대문간 흙을 도둑맞든지 하면 도둑맞은 만큼 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저녁 때가 되면 일부러 문간에서 감시하는 집도 있었다.

울퉁불퉁한 흔적이 많은 사방으로 통한 거리에(凹痕無數四通衢)
집집마다 흙덩이를 뭉쳐다가 부엌 때우는 것을 일삼는다(撮壤家家事補廚)

다만 황금이 이 흙과 같다면(但使黃金如此土)

백성마다 잘 살아서 가히 우리나라는 당나라에 비길 만하다(可封民屋比唐虞)

<통구(通衢)의 흙을 가져다가 부엌을 바르면서 집이 부자되기를 기원한다(取通衢土 以補廚 祈屋富)>

다리밟기[踏橋]는 대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다리병[脚病]을 앓지 않는다고 하여 경향 각지에서 성행하던 세시풍속의 하나다. 이 날 12다리⁶⁾를 밟으면 일 년 열두 달 액을 면한다고 해서 밤을 세우며 많은 다리를 밟았다고 한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 芝峰類說》에는 이것이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답교지희(踏橋之戲)라고 적었다. 조선시대의 기록 등은 당나라 이래 중국 다리밟기의 기록들을 인용하고 이것이 중국에서 유

6) 서울의 열두다리는 모전교, 대광통교, 소광통교, 수표교, 장통교, 효경교, 태평교, 송기교, 혜정교, 철물교, 초교, 이교를 말한다.

래했다고 하며 이를 액막이[度厄] 또는 주백병(走百病)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리밟기를 하면 다리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리[脚]와 다리[橋]의 발음이 같은 데서 생긴, 언어질병적(言語疾病的)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서울에서는 대보름 밤은 모두 다리밟기를 나오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였고 또 양반들은 상민과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서 앞당겨 14일에 다리를 밟았는데 이를 ‘양반다리밟기’라 했으며, 부녀자들은 하루 늦춰 16일에 밟기도 했다. 다리 중에는 광통교(廣通橋)와 수표교(水標橋)가 인기를 끌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피리를 불거나 북 등을 쳐서 떠들썩했다고 한다.

“오늘 밤에 다리를 절며 기어다니는 자가”란 다리밟기를 오랫동안 많이 하면 할수록 다리병이 없어지고 다리가 건강하다는 속신에 따라 다리밟기를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 다리밟기는 남녀간의 문란한 만남의 기회로 변모되어 가자 마침내 조정에서 답교금지를 한 일이 있다.

여덟 개의 큰 다리에 한 길이 통했으니(八大橋頭一路通)
 돌 난간을 어루만지며 다리에 무지개를 드린다(石欄攀學踢垂虹)
 오늘 밤에 다리를 절며 기어다니는 자가(今宵疲脚蹠跚者)
 혹 내년에 잘 걷는 늙은이가 될른지(儻作明年健步翁)
 <이 날 밤 돌다리를 밟으면 다리병이 없다고 한다(是夜踢石橋云 無脚病)>

《주역》에서는 일수와 시간을 적당히 끊어 나가는 방법이 쓰인다. 7일씩, 60년씩, 180년씩 하는 식으로 끊는다. 그 중 삼원갑자(三元甲子)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상원(上元)·중원(中元)·하원(下元)의 각 갑자년을 말한다. 그 주기는 180년이다. 옛 사람은 일백(一白)·이흑(二黑)·삼벽(三碧)·사선(四線)·오황(五黃)·육백(六白)·칠적(七赤)·팔백(八白)·구자(九紫)의 구성(九星)을 매년마다 1성씩 배당하여 점술에 배당하였다. 서기 연수를 180으로 나눈 나머지가 64일 때 이 해를 중국에서 상원갑자년이라 하였

다. 그리고 나머지가 124년일 때 중원갑자년, 4년일 때는 하원갑자년이다. 조선시대에는 독특하게 1444년(세종26, 갑자년)을 상원갑자로 정하였다. 《칠정산내편 七政算內篇》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원갑자년은 중국의 하원갑자년이나 이것은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했다. 동물을 내용으로 하는 몽점(夢占)에 의하면 꿈을 꾀안거나 보는 꿈은 귀자(貴子)를 얻거나 낳는다는 뜻을 갖는다.

상원이 갑자일이면 규운(奎運)⁷⁾이 열리는 것이니(上元甲子屬奎開)
 꿈을 꾸는 아름다운 기회가 이 날 돌아온다(熊夢佳期此日回)
 다리에서 노는 소년배들한테 말은 전하노니(傳語走橋年少輩)
 오늘 밤 달을 보고는 일찍 돌아오라(今宵看月早歸來)

종루(鐘樓)의 타종에 관한 《동국세시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 날(대보름)은 순라군(巡邏軍 : 도둑,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해 밤에 궁중과 서울 주변을 순시하던 군사)의 군문(軍門)에서 야금(夜禁)을 완화한다. 생각컨대 위술(韋述·중국 당나라 때 사람)의 《서자잡기 西者雜記》에 ‘정월 대보름 밤 칙명으로 금오(金吾)에 명하여 보름날을 전후하여 각각 1일씩 야금을 완화하게 했는데 이를 방야(放夜)라 불렀다.’고 했다. 우리나라 제도도 이를 본뜬 것이다. 온 장안 남녀들이 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려고 열운가(閱雲街 : 지금 종로 네거리의 옛 이름인 운종가(雲從街)의 별칭)의 종각으로 몰려든다. 종소리를 다 들은 다음 흩어져 여러 곳의 다리로 가서 산책하는데 밤을 새워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여 타종의 축제를 썼다.

어두울 무렵에 스물여덟 번의 종을 땅이 움직이도록 치니(動地昏鍾二十八聲)

만인이 와서 듣느라고 종루(鐘樓)를 둘러싼다(萬人來聽繞樓楹)

7) 문운(文運)과 같은 말로 학문이나 예술이 발전하는 운수 또는 기운이나 학예의 추세, 문인으로서의 운명.

대궐에서 거리의 백성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두려고(宮家欲遂衢民樂)
특별히 의금부(義禁府)에 그 행사를 금하지 않게 한다(特使金吾不禁行)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답교(踏橋)놀이를 할 때 주로 큰 광통교와 작은 광통교, 그리고 수표교에 몰려들어 그 모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통소를 불고 북을 치며 야단법석을 떨었다고 한다. 온 장안의 남녀들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려고 열운가의 종각으로 몰려들어 종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흩어져 여러 곳의 다리로서 산책을 즐긴다. 이 때 가장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 수표교(水標橋)와 광통교(廣通橋)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파에 밀려 뚫고 지나가기가 어렵다.

시내의 남쪽, 시내의 북쪽에서 길이 갈라지니(川南川北路分條)
흰 담을 서로 바라보면서 수표다리[水標橋]를 지나간다(白墻相望過水標)
바람에 탕건이 벗어지고 꺾어지는 인파 속에서(盪折風巾人海裡)
광통교(廣通橋)를 뚫고 가기란 가장 어렵다(最難穿去廣通橋)

부녀자들과 일반 서민들이 힘겹게 다리밟기를 할 때 지배층 관인들은 다리 난간 옆에 휘장을 치고 그 안에다 촛불을 켜 놓고 화로로 보온을 하면서 따뜻한 자리에 편히 앉아서 시를 읊고 있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여러 세시기(歲時記)에 잘 보이지 않는다. 다리밟기가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킨 일반 축제로 변모되면서 이 축제에 관인들까지 참여한다.

잇달아 뻗친 휘장이 다리의 난간 옆에서(連廷帷幕傍橋欄)
앉아서 풍소(風騷)를 읊는 이들이 고관대작이더라(坐領風騷盡達官)
밝은 촛불 더운 화로 훈훈한 기운이(煌燭煖爐熏焰氣)
가두(街頭)의 빙설에도 추운 것을 모르겠더라(街頭冰雪不知寒)

《동국세시기》에 보면 옹락(雍洛 : 중국사람. 연대, 약력 미상)의

《영이록 靈異錄》을 거론하면서 “당나라에서 정월 보름날 밤을 중심으로 한 전후 3일 저녁을 야행(夜行)하도록 했더니 놀러다니는 남녀들의 거마(車馬)가 길을 메웠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이 날은 집안에 등잔불을 켜 놓고 밤을 새운다. 마치 설달 그믐날밤 수세(守歲)하는 예와 같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로써 상원(上元)날에는 대체로 잠을 자지 않고 밤세워 노는데 남의 집에 놀러가 밤새 모임을 갖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다.

인파를 뚫고 지나가는 귀한 이의 행차가(衝過人海貴遊行)
 굴레를 자개로 장식한 말이 기세 등등하게 길을 인도하는 소리더라(珂馬騰騰喝導聲)

어느 곳 좋은 집에서 야회(夜會)를 약속했는지(何處華堂期夜話)
 다리 머리에서 달 구경하는 것은 관심이 적었다(橋頭看月小關情)
 <야회(夜會)를 야화(夜話)라고도 한다(夜會曰夜話)>

《동국세시기》에 “이 날[上元]은 순라군(巡邏軍)의 군문(軍門)에서 야금(夜禁)을 완화한다.”고 한 것처럼 대보름날에는 답교(踏橋)를 하고 놀이에 참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밤늦도록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히 통금해제를 한다. 밤에 도성 내외 및 궁장외(宮牆外)를 순시하던 순라군 외에 도순찰(都巡察)이 있는데 이들은 별정교련관(別定敎鍊官)·별군관(別軍官) 등으로 구성되어 그들 중 1인이 경군(京軍) 1인을 데리고 돌아가며 도순찰칙(都巡察飭)을 하였다.

위엄이 두려울 만한 도순찰사가 지나가니(風威可怕過都巡)
 좋은 말을 타고서 용복(戎服)을 입었으니 장수인 줄을 알겠더라(寶馬戎裝認將臣)
 흥이 나서 짐짓 금하지 않는 밤을 다니면서(乘興故行弛禁夜)
 왔다갔다 하면서도 다리밟는 사람들은 금하지를 앓더라(任他來去踏橋人)
 <도찰(都察)이 밤에 순행하는 것을 도순(都巡)이라고 한다(都察夜巡曰都巡)>

민요 중에 다음과 같은 청상요(靑孀謠)가 있다. “정월(正月)이라 대보름 답교하는 명절이라/청춘남녀(靑春男女) 짝을 지어 양양삼삼이 노는데/우리 님은 어딜 갔기에 답교가잔 말이 어이 없나.” 답교놀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게 어울리는 놀이마당이었으니 젊은 청춘들이 소란스럽게 노는 것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 날 이런 부류 중에 서울의 기녀들이 남장을 하고 나와 한량들과 어울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기녀들까지 나와서 노는 것을 보면 답교놀이는 큰 행사였던 것 같다.

남복을 입은 기녀(妓女)들이 남자로 속이니(男子衣裝妓女謾)
호방한 남자들이 끌고가서 어울려 한덩어리가 되었다(俠兒携去運成團)
달 가운데 소란스레 다니며 노래하는 곳에서(月中擾擾行歌處)
밝은 눈으로서도 누가 능히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별할 것인가(慧眼誰能辨木蘭)

광화문 앞에 국가의 정무를 보던 육조(六曹)의 관아가 있었는데 이 앞을 ‘육조거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거리는 상당히 넓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따라서 창가(娼家)도 있었던 모양이다. 창가 앞에는 늘상 호색한들이 기웃거리게 되는데 이런 모양을 보고 지은 시다.

지금의 광화문 육조거리 변화가의 소나무다리 쪽에 기생집이 있었다는 기이한 현상이 당시 성풍속의 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육조 앞에 바로 기생집이 있다는 점이다.

종루(鐘樓)에서 서쪽으로 가는 데는 길이 넓으니(鐘樓西去路如天)
광화문 남쪽이 가장 넓구나(光化門南最豁然)
곧바로 소나무 다리를 향하매 호협(豪俠)한 젊은이가 많으니(直向松橋多俠少)
기생집이 육조 앞에 있는 것을 알겠도다(娼家知在六曹前)

서울의 아전들은 녹사(錄事)와 서리(書吏)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서울의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중부지역은 남부와 북부로 대별되는데 남부란 종가(鍾街) 이남부터 남산 아래 광교(廣橋)를 중심으로 한 곳으로 상고부인(商賈富人)이 많아 부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북촌은 주로 노론들이 살았고 남촌은 남인과 소론들이 많이 살았으며, 중촌에는 서리들이 살았다.

세악(細樂)은 거문고·가야금·양금·젓대·세피리·해금·단소·장고 등으로 현악 영산회상(靈山會相), 별곡(別曲), 웃도드리[細還] 수룡음(水龍吟) 등을 연주하는 것이다.

운중가의 북쪽 광교의 서쪽은 당시 서울의 부자마을이다. 그들은 밤에 여러 자루의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촛불놀이[燭遊]를 즐겼다. 이 때 당시의 실내악이라 할 수 있는 삼현(三絃)의 연주를 들던 서울 중인촌(中人村) 부자들의 수준 높은 풍류생활을 노래한 것이 이 시다.

운중가 북쪽 광통교 서쪽에(雲從街北光通西)

부자집에서 밤놀이에 촛불을 가지런히 잡았더라(富屋宵遊秉燭齊)

세세한 삼현으로 곡보(曲譜)를 노래하니(細細三絃歌曲譜)

방 가운데의 풍류를 달 가운데서 가져왔도다(房中之樂月中携)

<중촌의 야회를 촛류(燭遊)라 하고 세악(細樂)을 삼현이라고 한다(中村夜會曰燭遊 細樂曰三絃)>

밤이 깊어 가면서 술잔의 수가 늘어 가게 되면 취기가 올라서 삼만하고 자유분방한 여흥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처음에 분위기가 있고 짐작했던 정통 성악곡 편가(篇歌)를 부르다가 십이잡가(十二雜歌)라는 일종의 유행가와 같은 노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춘면곡이나 황계사, 백구사 같은 노래는 이제 부르지 못하게 된다. 십이잡가란 서울의 열두 잡가인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 달거리,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 등을 말한다. 춘면곡(春眠曲), 백구사(白鷗詞), 황계사(黃鷄

詞)는 《청구영언》에 실려 전하는 조선조의 12가사이다.

술상이 난만한 곳에 밤이 어찌 되었는가(杯盤爛處夜如何)
 곡조를 파하니 편가(篇歌)가 잡가(雜歌)로 변했더라(曲罷篇歌變雜歌)
 춘면(春眠) 옛 곡조를 지금은 부르지 않으니(古調春眠今不唱)
 황계사(黃鷄詞) 백구사(白鷗詞)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黃鷄鳴咽白鷗哇)
 <연석(宴席)을 배반(盃盤)이라고 하고 가곡을 한 말로 통틀어 편(篇)
 이라고 한다(宴席曰杯盤 歌曲一通謂之篇)>

정월 대보름인 상원(上元)은 다리밟기 놀이를 한다. 이 답교놀이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보면 고려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였다. 조선조에 와서 이 놀이는 더욱 성해져서 태평시대 서울에서는 남녀들의 답교행렬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서 풍기가 문란하고 여러 가지 범죄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정에서는 군관(軍官)들을 동원 이 날 저녁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자는 체포까지 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군관들은 은밀하게 그들대로 기생집을 찾아 축제를 즐겼다.

길을 따라서 가볍게 가볍게 창 끄는 소리를 내며(遵路輕輕響杖鏜)
 비단 도포에 전립(氈笠)을 쓴 이는 작은 군관(軍官)일러라(錦袍氈笠小軍官)
 호한(豪悍)한 정은 밤중에 다리 밟는 것을 일삼지 않고(豪情不事深更踐)
 문득 청루(靑樓)를 향해서 반 밤을 즐긴다(却向靑樓半夜歡)

액정서(掖庭署)는 조선시대 내시부 부설의 잠관서인데 구성원은 사알(司謁 : 왕명전달·알현 담당), 사약(司鑰 : 문단속), 사안(司案 : 쉼내·의전행사시 床案 담당), 사포(司鋪 : 내정의 설비 담당), 사소(司掃 : 청소담당)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행사에 동원될 때는 화려하고 위 의 있는 차림을 하였다. 별감복은 예복과 상복(常服)으로 구분되는데 예복은 홍침이(紅帖裡)와 황초립(黃草笠)을 착용하

였으며 상복은 황초립, 홍직령(紅直領) 등을 착용하였다. 별감복의 구성에 대해 <한양가>에 구체적인 묘사가 있다.

편편(翩翩)한 별감(別監)들 가는 것이 어찌 그리 바쁘나(翩翩掖隸去何忙)
의복색은 붉은 색의 적삼과 누런 초립일러라(茜色彩紅草笠黃)
말을 들으니 교방(敎坊)에 새로 속해 있는 기생이(聞說敎坊新屬妓)
기꺼운 정으로 저 별감 신랑을 잔치한다고 하더라(歡情宴爾別監郎)
<액레(掖隸)를 별감이라고 한다(掖隸稱別監)>

전통가악(傳統歌樂) 중의 하나인 시조는 단가(短歌)·시절단가(時節短歌)·시절가(時節歌)·시조창(時調唱) 등으로 불려왔다. 시조곡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글로 영조 때의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 石北集》 관서악부(關西樂府) 15에 나오는 “일반시조배장단 내자장안이세춘(一般時調排長短 來自長安二世春)”이라는 구절에 의해 시조장단이 이세춘에서 비롯됐음을 알려 준다. 정조 때의 시인 이학규(李學逵)가 쓴 시 중에 “누가 꽃피는 달밤에 슬프다 하시고 ……”라는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시조란 시절가(時節歌)라고도 부르며 대개 민간의 속된 말로 긴 소리로 이를 노래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시조라는 명칭은 영조 때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시조라는 명칭의 본뜻은 시절가조(時節歌調)라는, 그 시대의 유행가라는 뜻이 있으므로 해서 문학보다는 음악곡조의 뜻을 지닌다. 시조를 노래로 할 때는 ‘시조’, ‘가곡(歌曲)’, ‘시조창’ 등으로 나뉘는데 장형식과 조와 창법 등이 각기 다르다.

방탕한 아이들 한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치광이 같아서(寶兒一隊太癡狂)
길을 쓰는 듯이 적삼과 작은 소매로 단장한 것을 연하고 다닌다(截路聯衫小袖裝)

시절단가(時節短歌)로 음조(音調)가 방탕하니(時節短歌音調蕩)
바람은 차고 달은 밝은데 삼장(三章)씩 부르더라(風冷月白唱三章)
<속가(俗歌)를 시절가(時節歌)라고도 한다(俗歌曰時節歌)>

석전(石戰)은 ‘편쌈’, ‘편전(便戰)’ 또는 ‘변전(邊戰)’이라고도 한다. 또 줄다리기는 삭전(索戰), 조리지희(照里之戲), 갈전(葛戰)이라고도 한다. 이는 너른 장소나 개천, 강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나 지방이 양편으로 나뉘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으로 달아나는 쪽이 진다. 《경도잡지 京都雜志》에 “《신당서》 고구려전에 ‘매년 초에 패수(溟水·대동강) 가에 모여 물과 돌을 끼얹고 던지며 두세 차례 밀었다 밀렸다 하다가 멈춘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풍속인 석전(石戰)의 시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놀이의 전통이 오래임을 알 수 있다.

거리를 막고 석전(石戰)하는 것이 너무나 횡행하니(填街石戰太橫行)
 땅이 움직이도록 소리 질러 대는 것이 가이 놀랄만 하더라(動地號呼勢可驚)
 시골 마을 오늘 밤이 무엇 같을까(何似鄉村今夜月)
 반공에서 멀리 들리는 줄다리는 소리와 흡사하다(半空遙聞挈河聲)
 <새끼를 잡아 당기는 놀이를 설하(挈河)라고 한다(挽索戲曰挈河)>

조선 중기 이후 국수틀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수를 파는 가게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수가게에서는 국수틀로 만든 국수를 사리를 지어 싸리채판에 담아 판매하였다. 여기서는 국수장국 같은 조리된 것을 파는 음식점을 지칭하는 것 같다. 탕은 대체로 겨울에는 토장국과 곰국울, 여름에는 냉국, 봄과 가을에는 맑은 장국을 주로 끓여 먹었다.

‘허수아비를 뒤진 돈’이라는 것은 제웅치기를 해서 얻은 돈을 말한다. 국수 파는 국수집과 국을 파는 탕집이 문전성시를 이룬 어른 사회와 제웅치기를 하여 돈이 생긴 어린 아이들의 군것질로 실과 사먹는 풍속을 대조하여 노래하고 있다.

국수 파는 집과 탕(湯)을 파는 집이 길의 권세를 잡았으니(麵局湯坊當路權)
 들어가기를 다투는 사람들이 세도가의 문전과 같더라(爭登人似熱門前)
 아이들은 다만 다리 위에서 실과만 사서 먹으니(兒童但買橋頭果)

어제 저녁에 허수아비를 뒤진 돈이더라(稍得前宵打侖錢)

춘첩자(春帖子)는 입춘날 대궐 안에서 기둥에 써 붙이던 주련(柱聯)을 말한다. 대궐 외에도 사대부·일반민가·상점 등에도 춘련(春聯)을 붙이고 송축하였는데 이를 춘축(春祝)이라 한다. 춘첩자는 단구(單句)와 대구(對句)로 된 것들을 쓰게 되는데 여염집에서는 주로 대련(對聯)으로 된 것을 쓴다. 예를 들면 수여산 부여해(壽如山 富如海), 북당흰초록 남극수성명(北堂萱草綠 南極壽星明) 등을 쓰며 또는 유명한 두보시(杜甫詩)나 오언절구의 당시(唐詩) 중 입춘(立春) 분위기에 맞는 것을 골라 쓰기도 한다. 전하는 말로는 건양다경(建陽多慶)은 송시열(宋時烈)이, 입춘대길(立春大吉)은 허목(許穆)이 지었다는 얘기도 있다.

두보시나 당시의 춘첩 글구가 매년 같은 것이라는 것은 즐겨 쓴 시구(詩句)가 정해 있었다는 것이다.

시루(市樓)에 춘첩(春帖)이 연구(聯句)로 대하여 있어서(市樓春帖對聯聯) 난만하게 비치니 혼연(渾然)히 흰 방을 매단 것과 같다(照爛渾如白榜懸) 두보시(杜甫詩)와 당시(唐詩) 등 항상 같은 글구는(杜律唐詩茶飯句) 작년에도 그렇고 또 금년에도 그렇구나(前年面目又今年)

《동국세시기》는 정월 16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6일은 시골 풍속에 대체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일(忌日)로 여긴다. 이것도 경주의 유풍(遺風)을 답습한 것이다.” 또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하여 외출을 하지 않는데 만일 외출을 하면 귀신이 붙는다고 한다. 이 날은 일도 하지 않는데 남자가 일을 하면 연중 우환이 있고 여자가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는 속신이 있다. 또 이 날 일을 하면 가을에 까치가 목화를 모두 쪼아 버린다고 하여 까치날 이라고도 한다. 그 외 정월의 쥐날·용날·말날·돼지날에는 모든 일을 꺼리고 삼간다고 한다. 그런데 16일이 이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일에 답교놀

이를 하는 것은 상원(上元)날에 답교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제대로 답교를 할 수 없으며 또 하나는 체통 있는 양반들은 상민(常民)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 하여 14일이나 16일에 답교놀이를 하게 된다. 이를 가리켜 ‘양반다리밟기’라고 한다.

정월 열엿새날(上元翌日)

상원(上元)의 다음날이 어찌하여 무료할까(上元翌日豈無聊)

유녀(遊女)들이 무리를 이루고 가서 다리를 밟는다(遊女成羣去踏橋)

비록 노래하고 휘파람 부는 풍류는 적지만(縱少風流歌嘯樂)

종소리와 달빛은 어제 밤과 같구나(鍾聲月色似前宵)

<상원 다음날에 여염집 여자들이 답교놀이를 한다(上元翌夜 閭閻女輩作踏橋遊)>

시절음식[時食]은 계절의 특산식품으로 만들거나 또는 상용식품을 계절에 맞추어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다. 계절의 식품을 음미하고 즐기려는, 일정한 절일(節日)을 맞아 그 뜻을 기리면서 먹는 절식(節食)과는 다르다. 시절음식은 크게 생선류와 술, 떡 등속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떡에 관한 《동국세시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떡집에서는 맴쌀로 희고 작은 떡을 만드는데 모양이 방울 같다. 그 속에 콩으로 소를 넣고 머리쪽을 오므린다. 그 방울 같은 떡에 오색물감을 들여 다섯 개를 죽 이은 것이 마치 연주(聯珠)와 같다. 흑청·백색으로 반원같이 만들기도 하는데 작은 것은 다섯 개를, 큰 것은 두세 개를 이어 붙인다. 이것들을 산병(餠餅·뽕장떡)이라고 한다. 또 오색의 둥근 떡을 만드는데 송피(松皮)와 청고(靑蒿·제비쑥)를 섞어 둥근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들을 환병(環餅)이라 한다. 이 중에서 큰 것을 마제병(馬蹄餅)이라 한다. 또 찹쌀에 대추의 살을 섞어 증병(甑餅·시루떡)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봄철의 시절음식이다. 남산(南山) 아래에서는 술을 잘 빚고, 북부에서는 좋은 떡을 많이 만듦으로 서울 속담에 남주북병(南酒北餅)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 시에서 남쪽 술과 북쪽 떡은 곧 남주북병을 말한다.

남쪽 술은 진미요 북쪽 떡은 고운데(南酒之珍北餅佳)
 봄 상에 시절음식이 너무 사치로움이 혐오스럽다(春盤時食太嫌奢)
 해마다 좋은 일 하돈(河脰)의 모임은(年年勝事河脰會)
 동산의 복사꽃이 활짝 피기 전에 다투어 나간다(爭趁園桃未放花)
 <남쪽 술과 북쪽 떡은 명칭이 많다(南酒北餅多名稱)>

“영등회(影燈會) 날 저녁에는 전례에 따라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다. 온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부터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 달아 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혹 어떤 이는 악기를 들고 거리를 쏘다니며 논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불의 성을 만든다. 그렇게 떠들썩하기를 밤을 새워서 한다. 장안 밖의 시골 노파들은 서로 붙들고 다투어 와서 반드시 남산의 잠두봉(蠶頭峰)에 올라가 이 장관을 구경한다.” 이것은 《동국세시기》의 기록이다. 지금의 서울 야경은 별 흥미를 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 년 내내 야경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일 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였으므로 대단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관등(觀燈)하는 시절에 서울과 시골이 움직이니(觀燈時節動京鄉)
 무수한 시골 안 늙은이들이 한양으로 올라온다(無數村婆上漢陽)
 불바다를 이룬 산 전폭(全幅)의 승경(勝景)을 보고자 해서(要看火城全幅勝)
 잠두산(蠶頭山) 높은 곳에 바빠바빠 올라간다(蠶頭高處走忙忙)

“영등회(影燈會) 날 저녁에는 전례에 따라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다. 온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부터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 달아 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혹 어떤 이는 악기를 들고 거리를 쏘다니며 논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불의 성을 만든다. 그렇게 떠들썩하기를 밤을 새워서 한다.” 이것은 《동국세시기》의 기록이다. 초파일은 일종의 축제와 같은 성

격의 행사였던 것 같다. 그래서 통소와 북 등의 악기를 가지고 흥을 돋구었고 남산과 북악산 등지에 올라가서 밤이 늦도록 아름다운 장안의 밤 풍경을 즐겼다.

인정(人定) 소리가 이미 울린 뒤에도 여항(閨巷)에서는 아직도 떠들썩하니(昏鍾已歇巷猶囂)

통금을 무서워 안 하는 이 밤을 만났구나(不怕金吾遇此宵)

노래부르는 것이 흡사 정월 대보름을 즐기는 것과 같으니(歌吹悅如元夕樂)

만 사람이 달 밝은 다리를 밟으며 지나간다(萬人行踏月明橋)

《경도잡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손님을 청해다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볶은 콩·느티떡·삶은 미나리 등을 내놓는다. 이를 ‘부처 생신날 소밥(고기반찬이 없는 밥)’이라 한다. 또 어린이들이 동이에 물을 떠다 등간(燈竿) 아래에다 놓는다. 그리고 바가지로 엮어 놓고 빗자루로 두드리며 논다. 이를 수고(水鼓：水缶·물장구)라고 한다.”고 소개한 다음 콩볶는 것은 장원(張遠：중국 송나라 때 사람)의 《오지 隴志》에 그 기록이 있으며 물장구의 기록은 《제경경물략 帝京景物略》의 태평고(太平鼓)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누런 느릅나무 싹 잎은 연하여서 느티떡 하기가 좋으니(黃榆芽葉軟宜糕) 팔도 삶고 고기도 찌서 한 소반에 많이 놓았다(煮豆蒸魚一桌饒)

새 달이 돋고 등불이 켜진 뜰에서 수부(水缶)를 울리니(新月燈庭鳴水缶) 꽃이 떨어진 마을에서 은은한 것을 깨친다(落花村裡破窸)

<바가지로 동이의 물을 덮은 것을 수부(水缶)라고 한다(匏覆盆水曰水缶)>

단옷날 서울 젊은이들이 남산(南山)의 예장동(藝場洞)이나 북악산(北嶽山)의 신무문(神武門) 뒤에 모여서 씨름을 하여 승부를 겨

루었다. 이 씨름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이들은 씨름 구경을 하면서 신바람이 나게 놀았다. 힘겨루는 경기를 보기 때문에 아이들도 힘겨루기 분위기에 동화되어 그 놀이가 거친 행동으로 연출되었다.

이 날 서울의 젊은 여인들은 한강 변에 있는 버드나무나 남산에 있는 소나무에 그네를 매고 그네뛰기를 하는데, 단오빔을 산뜻하게 차려 입고 그네를 뛰기 때문에 마치 신선이 날아오르는 것같이 보였다. 이것은 젊은이들한테 씨름 구경보다 훨씬 인기 있었다.

신무문(神武門) 곁 씨름하는 마당에는(神武門邊角抵場)
건강한 아이들이 서로 쫓으며 노는 것이 마치 미치광이와 같다(健兒相逐劇癡狂)

이는 한강의 버드나무와 남산의 나무에서(不如漢柳南山樹)
나는 신선놀이를 하는 색시들이 다투어 나오는 것만 같지 못하다(競出飛仙戲女娘)

5. 《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세시기 歲時記》의 저자인 조수삼(趙秀三 : 1762~1849)은 조선 후기 정조~헌종 때 활동한 학자로, 초명은 경유(景漣), 자는 지원(芝園)·자익(子翼), 호는 추재(秋齋)·경원(經畹)이다. 조수삼은 한양(漢陽) 조씨로,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원문(元文)의 아들이고, 조선 말기의 화원(畫員)인 중묵(重默)은 그의 손자이다.

조수삼의 《세시기》 서문에서는,

우리나라는 기성(箕聖)이 가르침을 세운 이후로 오랑캐에서 중화로 변하였다. 우리 조선에 이르러도, (중화의 문화를) 닦은 지가 이미 오래되어, 민속(民俗)에도 문채가 나니, 신라와 고려의 고루한 문화가 한꺼번에 씻기었다. 세상은 더욱 평안해져, 인제는 많고 물산은 풍족하며, 해마다 즐거워하고, 나날이 노닐며 감상하니, 자못 볼 만한 것이 많다. 옛날에 ‘소중화(小中華)’라고 칭한 것은 가히 믿을 만하다. 그 앞 시대의 옛날 풍속을 그대로 기록하여 모두 남겨 둔 것은 고금 성쇠의 차이와 제노일변(齊魯一變)의 구별을 보인 것이지, 존양지애(存羊之愛)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저작 동기와 함께, 을묘년 맹추월이라 하여 조수삼이 34세 되던 해인 1795년, 정조 19년 7월에 쓴 것이다.

《세시기》에 나타난 세시풍속 중 정월이 그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당시에는 정월의 세시풍속 비중이 가장 컸다. 전반적인 구성은 《동국세시기》와 같이 월별로 하되, 월 안에 날짜순으로 세시풍속을 적어 놓았다.

《동국세시기》가 편찬되기 이전부터 이만큼 다양한 풍속들이 전해지게 된 것은, 조수삼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를 여행하면서 듣고 경험한 것과 함께 《형초세시기》뿐만 아니라 《풍속통》까지 참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앞 시대의 옛날 풍속을 그대로 기록하여 모두 남겨 둔 것은 고금 성쇠의 차이와 제노일변(齊魯一變)의 구별을 보인 것이지, 존양지애(存羊之愛)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세시풍속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지 않고 모두 자료로서 남기고자 한 조수삼의 《세시기》 편찬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⁸⁾

● 원조(元朝)

신라시대 설날에는 왕이 궁궐 앞에 나아가 단향회를 베풀었다. 많은

8) 조수삼(최순권 역), 《세시기 歲時記》,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pp. 19~26.

스님들이 법의를 입고 불경을 외우고, 뜰에서 백희(百戲)와 단료(檀燎)를 베풀었다.(新羅 元朝 王御前殿 設檀香會 僧徒百隊 法衣念經 庭設百戲檀燎)

또한 밤에 다리밟기를 하며 노는데, 12다리를 다 밟으면 다리병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이 날 밤에 노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수레와 말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답지하여 왁자지껄하며, 생황 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고, 술과 음식이 즐비하니, 대개 일년 중에 제일의 명절로 여긴다.(又夜踏橋游玩 曰踏盡十二橋 可無脚病 是夜 游人盡出 車馬匝沓 街衢闐咽 笙歌絡繹 酒食若流 盖一年中第一名節)

또한 사방으로 통하는 네거리의 흙을 취하여 문안[門內]에 뿌리면 집안에 재물이 불어난다고 한다.(又取十字通衢中土 鋪之門內 令家發財云)

집 밖의 흙을 파다가 자기 집의 부엌이나 마당에 뿌리는 풍속으로, 이를 복토(福土) 흠치기라 한다. 음력 정월 14일날 저녁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남몰래 들어가 마당이나 뜰의 흙을 파다가 자기네 부뚜막에 바르면 부잣집 복이 모두 전해 와서 잘 살게 된다고 믿었다. 이 날 밤에 부잣집에서는 흙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불을 밝혀 두고 머슴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한양에서는 이른 새벽에 종각(鐘閣) 네거리의 흙을 파다가 자기네 집의 네 귀퉁이에 뿌리거나 부뚜막에 바르면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하였다.

《면암유고》에는 “이 날 오영에서 통행금지법을 풀어 주어 장안의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답교를 행하는데, 바빠 달리며, 인정의 종소리를 듣는다. 혹은 광통교 거리에 난로를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군철의 집에서 술잔을 돌리기도 한다. 이 날 답교를 하면 한해 동안 다리에 병이 없다고 하니, 이는 교(橋)와 각(脚)의 훈고가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해동죽지》에는 성종 때 관에서 금지하여 남자들만 답교를 하였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한양세시기》에는 광통교가 가장 붐빈다고 하였다.

《열양세시기》에는 12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세시잡영》에는

36개의 다리를 모두 밟는 것으로, 《해동죽지》에는 12다리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른 기록에는 12번 다리를 건너야 한다거나, 서울에 있는 다리를 모두 건너야 한다는 설도 있다.

● 꽃구경(賞花)

봄추위가 여전히 남아 있어 3월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꽃봉오리가 맺히고, 10일 뒤에야 만발한다. 도성 안팎으로 여러 곳에 꽃을 심었는데, 필운대, 육각정, 도화동, 성북동 등이 빼어남을 다룬다. 많은 남녀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종일토록 즐기니, 그 모습이 마치 벌과 나비가 모인 듯하다. 이를 화류(화류는 모여 즐기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매화꽃을 찾고 버드나무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고, 꽃이 떨어질 때까지 늘 계속된다.(地多春寒 至三月初 始作蓓蕾 旬後乃爛漫 京城內外 種花百十區 而弼雲臺六角亭桃花洞城北屯爭檀 甲乙士女 紛集壺觴流衍終日 如屯蜂簇蝶 曰花柳(花柳 會讌之名 爲訪花隨柳故也) 以至花落 大率 常日)

최남선은 《조선상식》에서, 음력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 매화, 철쭉 등이 피기 시작하여 3월 중순까지 복숭아, 살구, 배꽃 등이 피는데, 이 때 전국 각지에서 등고(登高)나 보교(步郊)를 겸한 상화(賞花) 놀이가 행해지니, 이를 화류라고 한다. 화류를 꽃놀이이라 하였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화전(花煎)한다고 하였다.

《열양세시기》에는 경성의 화류는 3월에 가장 성한데, 남산의 잠두봉과 북악의 필운대와 세심대가 가장 운집한다고 하였다. 한말에는 창의문 밖 당춘대와 승례문 밖 이태원, 혜화문 밖 성북동이 복숭아와 살구꽃 중심의 화류가 가장 성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6. 《세시기속》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세시기속 歲時記俗》은 저자 자신이 서(序)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4계절의 세시풍속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으로, 모두 16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매 절기마다 간단히 그 절기의 뜻과 세시풍속을 행하는 목적을 적고, 그 내용에 대해 7언 절구시(絶句詩) 한 수씩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최영년의 《해동죽지 海東竹枝》에서도 볼 수 있다. 매 절기에서는 조상숭배·기복·기풍·점복·놀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시기속》의 가치는 첫째,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시기속》을 제외한 다른 세시기에서는 민속의 연원을 모두 중국의 풍속에서 찾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둘째, 세시기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동국세시기》보다 먼저 쓰여져 우리나라 세시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세시기》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셋째, 사대부의 눈으로 본 당시의 풍속을 잘 알려주고 있다. 즉, 새해 행사로 임금께 하례 드리는 일과 절일제를 치르는 일, 조상숭배의 일환인 사당 참배 등은 사대부 풍속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다리 밟기의 모습 중 담비 갓웃과 비단저고리 입은 모습도 일반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듯 《세시기속》은 19세기 초 서민들의 모습과 우리 고유의 풍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대부의 작품으로, 그 당시의 사회상과 인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⁹⁾

바람 앞의 가는 연실에 종이연 가볍고(風前細縷紙鳶輕)
 줄지어 떠 있는 액(厄) 자 멀리 날려보내네(厄字盛行遠勢橫)

9) 조운중(이창희 역), 《세시기속》,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pp. 77~85.

연날리기 그만 둔 어린 마음 미련두지 않으니(斷戲童心無願戀)
저 버들고리 백정이라는 말 면할 수 있네(免他柳器白丁名)

정월 대보름날 못된 아이들과 천한 무리들이 편을 지어 돌싸움을 하니, 이를 변전(邊戰)이라고 한다. 돌덩이와 몽둥이로 머리를 치고 이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며 죽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만, 죽음을 보상해 줄 방법도 없으니 매우 좋지 않은 풍속이다. 포도청에서 특별히 금하고 있으나 폐습이 고질화되어 고쳐지지도 않는다.(上元日 惡少下賤輩 輒結隊投石 謂之邊戰 塊石椎木 打頭傷額 雖至流血致殞 亦無償命之法 甚是不美之俗也 左右捕廳另行禁戢 而弊習成痼 亦無以全革)

못된 아이 패를 나누어 벌이는 돌싸움(惡少分朋架石場)
무단히 들판에 흘린 피 검고 누렁네(無端野血見玄黃)
조신들의 낙촉당도 일찍이 괴로웠건만(朝紳洛蜀猶曾苦)
이 무리들은 어찌하여 못된 짓을 본받는지(此輩何爲又襲狂)

정월 대보름날에는 오영(五營)에서 통행금지법을 풀어 주고 장안(長安)의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리밟기’를 한다. 달려가서 인정(人定)의 종소리를 듣기도 하고, 혹 광통교¹⁰ 거리에 난로(煖爐)를 설치하기도 하고, 군칠(君七)의 집에서 돌리는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오고 가며 밤새도록 떠들썩하다. 대개 이 날 밤 다리 밟기를 하면 한해 동안 다리에 병이 없다고 하니, 이는 교(橋)와 각(脚)의 ‘다리’라는 훈(訓)이 같은 소리이기 때문이다.(上元夜 五營弛禁 長安年少 羣行踏橋 走聽人定鐘聲 或設煖爐於廣通之街 或飲巡盃於君七之家 來來去去 竟夜喧闐 蓋是夜踏橋 則終年無脚病云 橋與脚釋音 相似故也)

금오에서 통행금지 해제하고 달빛도 환한 밤(夜放金吾月滿霄)
담비 갖듯 비단 저고리의 소년들 뽐내며 다니네(貂裘錦襖少年驕)

10) 종로 네거리에서 남대문으로 가는 큰 길을 잇는, 청계천 위에 놓여 있던 다리, 본래 이름은 광통방에 있는 큰 다리라는 뜻의 ‘대광통교’이다. 태조 때에 토교(土橋)로 축조되었다가 폭우로 인하여 무너지자 태종 10년(1410)에 석교(石橋)로 다시 축조되었으나, 1958년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철거되었다.

술마시고 노래 부르며 홍교를 두루 밟으니(醉歌行踏虹橋遍)
 올 한 해 동안도 다리 병 없어진다고 해서라네(道是新年脚病消)

○ 상사(上巳)¹¹⁾

청명일(淸明日)과 삼진날 즈음에 꽃이 만발하니 장안(長安)의 놀러 나온 사람들이 서로 짝을 지어 경치 좋은 산과 계곡을 찾아간다. 어떤 이는 피리와 거문고를 연주하고, 어떤 이는 시를 읊조리며 각자의 회포를 편다.(淸明上巳之間 花事方闌 長安遊人 携伴往溪山勝區 或奏琴笛 或賦詩律 以各暢叙)

○ 욕불(浴佛)

중국의 등불 놀이는 정월 대보름날에 하지만, 우리나라의 풍속은 반드시 4월 8일 욕불(浴佛日)에 등불을 건다. 등석(燈夕) 며칠 전에 선비나 서민들의 집에서는 대나무를 묶어 등걸이를 만들어 세우고, 가게에서 세우는 등걸이는 가장 높이 세우려고 힘쓴다. 등불은 시장이나 거리에서 파는데 대부분 수막이나 마늘 모양이다. 혹 특별히 만들어 비싼 값에 팔거나 기이함을 자랑하는 것도 있다.

이 날 저녁이 되면 장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정자나 산기슭 높은 곳에 올라가 가장 먼저 걸리는 등을 구경한다. 아이들은 각각 자기 집 등걸이에 매단 등불 아래에 왜나무 잎 떡과 삶은 콩을 진열해 놓는다. 물

11) 음력 3월 첫 뱀날을 상사일(上巳日)이라 하던 것을 후대에 삼진날로 정착된 것이다. 상사(上巳)의 뱀이 물과 관련된 월동물(月動物)이고, 제주의 사신(蛇神)인 차귀신(遮歸神)도 모두 물과 관련이 있는 생생상징(生生象徵·부활)인데다, 제비·진달래꽃도 봄의 부활을 상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 날 만물의 소생을 축원하고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춘경제(春耕祭)를 지내기도 하며, 요사(妖邪)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물가에서 계제(禊祭)를 지내기도 하는데, 상사일에 행하던 것이 3월 3일 중일(重日)로 고정되었다. 부너자들은 화전(花煎)을 지져 먹기도 하고, 머리를 감으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소담스럽고 아름다워진다고 해서 머리를 감기도 한다. 삼진날에는 나비점을 치는데,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조로 여기지만, 흰나비를 먼저 보게 되면 부모의 상(喪)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또 이 날에는 복숭아꽃 1말 1되를 타서 도화주를 빚고, 복숭아꽃을 넣고 삶은 물에 목욕을 하는데, 어린 아이의 피부병 치료나 여자들의 미용에 좋다고 한다.

위에 박을 띄워 놓고 이것을 두드리며 즐기기도 하니, 이를 ‘물장구¹²⁾’라고 한다.(中國燈戲 每於上元 而東俗則必以四月初八浴佛日懸燈 燈夕前數日 士庶之家 各束棚竹豎之 列廬之棚 務勝最高 燈則街市所賣 大半是西瓜蒜子形 或有朮出別製 重價銜奇者 至其夕長安士女 競陟亭麓高處 以觀其始懸 兒童輩 各於其家燈棚下 列槐餅蒸蒜 汎匏於水 擊以爲樂 是謂水缶)

수박과 마늘 모양 그 밖의 화려한 등불(蒜瓜燈外製形奢)
 줄지어 선 가게들 높은 채붕을 자랑하네(列肆高棚意氣誇)
 구슬처럼 반짝이는 등불은 도성을 밝히고(小樹珠星穿市夜)
 아이들의 물장구 소리 집집마다 울리네(兒童水缶響千家)

○ 시월(十月)

사대부부터 일반 부녀자들까지 10월을 상달이라 여겨 무당을 맞이해 푸닥거리를 하며, 성조신(成造神)을 맞이하여 집안을 편안하게 하였다. 또한 이달 중 말의 날을 골라 떡을 썰 먹었으며, 그 중에 무오(戊午) 말날이 가장 좋다고 한다. 아마도 주(周)나라 시대에 “말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과 “길한 날이 무(戊)날”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는가 보다.(士夫閭巷婦女 輒以十月爲上月 邀巫祈禳 迎入成造之神 以安宅兆 且揀此月內午日 輒蒸餅喫之 而戊午午日最良云 或因周祭馬祖¹³⁾ 及吉日維戊之遺義歟)

12) 물동이에 물을 채워 그 위에 바가지를 얹어 띄우고 두드리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수부(水缶)’라고도 한다. 《경도잡지 京都雜誌》에 “《제경경물략 帝京景物略》에 ‘정월 보름날 밤 어린이들이 북을 치며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내는 것을 태평고(太平鼓)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풍속의 수고(水鼓)는 곧 태평고와 같으며, 부처 탄신날이 등석(燈夕)이므로 이 날로 옮겨 온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13) 원문의 마조(馬祖)는 말의 수호신이며 조상신인 방성(房星), 즉 천사성(天駟星)의 별칭이다. 별은 천자를 호위하고 천마와 수레를 관장한다고 하며, 이 방성이 양도(陽道)에 들면 천하가 태평하고, 음도(陰道)에 들면 기근이나 국상(國喪)이 난다고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에 태조가 동대문 밖에 마조단(馬祖壇)을 설치하여 중춘(仲春)에 길일을 택해 제사를 지냈으며, 《시용향악보 時用鄉樂譜》에는 마제(馬祭) 때에 부르던 노래인 ‘군마대왕’이 전해지고 있다.

○ 납일(臘日)¹⁴⁾

우리 나라에서는 미일(末日)로 납일(臘日)을 정하고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큰 제사를 지낸다. 약방(藥房)에서는 각종 환약(丸藥)을 만들어 이 날 바쳤으니 이를 납약(臘藥)이라고 한다.(本朝置臘用末日 舉大享於廟社 藥房各種丸劑 以是日封進 名曰臘藥)

납향에 쓰는 고기는 멧돼지 혹은 산토끼를 사용한다. 참새고기는 역병에 걸리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먹이면 더욱 좋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반드시 이 날 활과 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는다.(臘肉 或供豬 或捉兔 而黃雀未疫 小兒飼之則尤好 故閭里羣少 必於是日 張弓挾銃以捕雀)

○ 제석(除夕)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로, 선달그믐 또는 제야(除夜)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이 날이 되면 궁중에서 연종방포(年終放砲)라 하여 대포를 쏘았으며, 지금은 보신각(普信閣)에서 33천(天)에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을 33번 친다. 이 날에는 연중에 있었던 거래를 종결하기 때문에 빚이 있는 사람은 해를 넘기지 않고 모두 청산하였으며, 여자들은 세찬이나 차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였다. 남자들은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마당을 쓸고 난 쓰레기를 태워 잡귀를 불사르는 세속신앙이 있다. 사당에 절을 하고 어른께 절을 하는 일종의 묵은세배를 하고, 집안 곳곳이 불을 밝

14) 동지(冬至) 후 셋째 미일(末日)로, 납평(臘平) 또는 가평절(嘉平節)이라고도 한다. 납일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풍속이지만, 그 날짜는 나라마다 달라서 한(漢)나라·송(宋)나라에서는 술일(戌日), 위(魏)나라에서는 진일(辰日), 진(晉)나라에서는 축일(丑日)로 하였다. 그 후 대개 술일로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미일(末日)로 정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 芝峰類說》에서는 “청제(靑帝)는 미랍(未臘)으로 목(木)에 속하며 동방은 목에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날 나라에서는 납향(臘享)이라 하여 새나 짐승을 잡아 종묘 사직에 공물(供物)로 바치고 대제(大祭)를 지냈다. 일반 백성들도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명절에 사당에 올리는 제사와 같았다. 납(臘)은 엽(獵)의 뜻으로 사냥한다는 의미이며, 천지만물의 덕에 감사하기 위하여 산짐승을 사냥하여 제물로 드린다는 데에서 온 말이다.

히고 잠을 자지 않는 수세(守歲)를 한다. 평안도나 함경도에서는 빙등(氷燈)을 설치하고 세찬(歲饌)을 보내며, 여러 가지 놀이와 의례를 행하고, 고사 등의 제의를 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에 나가 있는 관리들은 조정관리나 친척에게 토산품으로 세찬을 보내기도 하였다.

7. 《세시잡영》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세시잡영 歲時雜詠》의 저자 권용정(權用正)은 순조 원년(1801)에 나서 활동한 당대의 유명한 문인화가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자(字)는 의경(宜卿), 호(號)는 소유(小游)라고 한다. 그의 몰년(沒年)은 알려지지 않았고 관직은 부사(府使)를 지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전하고 있을 뿐 가계나 행적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산수(山水)를 잘 그렸고, 《근역서화미 權域書畫微》에서 인용한 고(故) 이홍직(李弘植)의 《국사대사전 國史大事典》에 의하면 서법(書法)이 경건하고 청려한 기풍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세시잡영 歲時雜詠》은 설날부터 선달까지의 세시풍속을 25수의 7언절구 형식으로 읊조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시간과 절기를 따라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 정월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모두 15수로 가장 많다. 원래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절반 정도가 농한기였던 정월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세시잡영》 전체에서 정월을 읊은 시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들 작품들을 통해, 소유(小游) 권용정(權用正)은 세시의 풍성한

모습이나 넉넉한 인정을 읊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대한 우려 및 탄로와 같은 개인적인 심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¹⁵⁾

이곳에서는 25수 중 한 수만을 소개하고 박순호본을 참고하기로 한다.

• 다리밟기(踏橋)¹⁶⁾

달 밝은 대보름밤은 깊어가고(上元明月夜迢迢)
 남북으로 토하는 몇 갈래의 길(北里南村路幾條)
 36개의 다리를 모두 다 밟지만(三十六橋俱踏遍)
 그 중에 광통교로 먼저 나아가네(就中先數廣通橋)

8. 《한양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권용정(權用正)의 저서로는 《한양세시기 漢陽歲時記》와 《세시잡영 歲時雜詠》이라는 두 편의 세시기와 어린 아이들의 노래를 한역한 《동구 童謳》가 전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양

15) 권용정(이창희 역), 《세시잡영 歲時雜詠》,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pp. 141~143.

16)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다리를 밟으면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고 하여 성행하던 풍속이다. 12개의 다리를 건너면 12달 동안의 액을 막는 것이라고 하여 남녀노소와 귀천(貴賤)에 관계없이 늙고 병든 사람 이외에는 모두 참여하였다고 한다.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다리 3개를 건너기도 하고, 제일 큰 다리나 가장 오래 된 다리를 자기 나이 수대로 왕복하기도 한다. 대보름날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부녀자들은 16일에 다리밟기를 하고, 양반들은 상민등과 몸이 부딪치는 것이 싫어 14일에 다리밟기를 하였는데, 이것을 ‘양반 다리밟기’라고 한다.

의 세시 풍물과 노래를 기록한 것으로 당시의 세시풍속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의 양태가 어떠한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권용정의 《한양세시기》는 설날부터 설날 그믐날 밤까지의 세시풍속을 서술하고 있는 자료이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시별로 행하는 행사와 놀이 및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을 기록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세시와 관계 없이 항상 행하는 행사와 놀이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 본 《한양세시기》는 당시의 놀이 문화나 민속 행사와 현재의 그것들에 대한 비교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¹⁷⁾

민가에서는 길거리의 흙을 가져다가 아궁이 밑과 집의 사방 구석에 뿌리는데, 이를 복토(福土)라고 한다.(民家取街上土 布窠下及屋四隅 曰福土¹⁸⁾)

한양 사람들은 모두 다리밟기를 하면서 밤이 새도록 놀고 즐기는데, 광통교가 가장 붐빈다.(都人皆踏橋 徹夜游戲 廣通橋最盛)

돌싸움과 율놀이와 널뛰기와 법고승 같은 놀이들은 모두 그 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날에야 조금씩 찾아든다. 돌싸움은 아이들과 못된 젊은이들이 편을 나누어, 소리지르며 나아가서 돌을 던지고 몽둥

17) 권용정(이창희 역), 《한양세시기 漢陽歲時記》, 《조선대세시기》I, 국립민속박물관, 2003, pp. 137~141.

18) 집 밖의 흙을 파다가 자기 집의 부엌이나 마당에 뿌리는 풍속으로, ‘복토 흙치기’라고도 한다. 음력 정월 14일 날 저녁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남몰래 들어가 마당이나 뜰의 흙을 파다가 자기네 부뚜막에 바르면 부잣집 복이 모두 전해 와서 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이 날 밤에 부잣집에서는 흙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불을 밝혀 두고 머슴에게 지키게 하였다. 이런 풍속은, 흙에는 터주신이 있어서 그 덕으로 많은 재복(財福)을 누리고 있으니 흙을 옮겨 줌으로써 그 재복(財福)도 따라 옮겨 오는 것으로 믿었던 데에서 온 것이다. 한양에서는 이른 새벽에 종각(鐘閣) 네거리의 흙을 파다가 자기네 집의 네 귀퉁이에 뿌리거나 부뚜막에 바르면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휘두르며 그 기량을 다룬다. 맹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들이 거듭 금지시키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石戰擲柶跳板鼓曾¹⁹) 並自歲首有之 至上元浸止 石戰者 兒童及惡少輩 群謀隊進 飛石揮柶 鬪其技也 健鬪而至有死者 有司申禁 猶不已)

《한양세시기 漢陽歲時記》는 일찍이 1979년 박순호가 《향토문화연구》²⁰에 소개한 바 있는데, 그 후 1989년에 《한국민속학》 자료편²¹에 그 원본이, 그리고 2003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행된 《조선대세시기》 안에 번역본이 게재된 바 있다. 박순호의 서(序)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입수경로와 본 세시기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한양세시기》는 서울 동대문 고서점에서 우연히 입수된 《소유잡저 小游雜著》로서 미발표본의 원고 목록에 끼어 있으며, 가로가 15.5cm에 세로가 21cm 되는 200자 B 동경 원고용지로 도합 68p에 세시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1페이지며 그 외에 <금강유기 金剛遊記>·<총석유기 叢石遊記>·<삼일포기 三日浦記>·<설악내기 雪嶽內記> 등의 주로 여행문과 <동구 童謳>, 세시풍속(歲時風俗)을 주제로 한 <세시잡영 歲時雜詠>이란 한시 25수가 있다.

본 원고는 한문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 오자(誤字)와 자구(字句)에 의문부(疑問符)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자의 친필(親筆)이라기보다는 자손이나, 후학의 사본(寫本)으로 간주된다. 홍석모

19) 산사(山寺)의 승려들이 정초에 마을로 내려와 집집마다 방문하여 범고(法鼓)를 치면서 권선(勸善)을 행하는 것으로,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시주(施主)를 하고 승려들은 준비해 간 승병(僧餅)을 나누어 준다. 이 떡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천연두를 앓지 않는다고 하여,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집에서 만든 떡 2개를 승병 1개와 바꾸기도 한다.

20) 朴順浩, <漢陽歲時記>, 《향토문화연구》 제2집,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79, pp. 97~109.

21) <資料>, 《韓國民俗學》 제22집, 민속학회, 1989, pp. 173~176.

(洪錫謨)가 쓴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 비하면 그 내용이 간략한 편이나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 洌陽歲時記》보다는 내용이 충실하다. 같은 서울의 세시풍속을 약술한 《경도잡지 京都雜志》와 《열양세시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① 《경도잡지》와 《열양세시기》의 저자인 유득공(柳得恭)이나 김매순은 똑같은 한양의 풍속을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그 연원을 중국 풍속에서 찾으려는 공화사상(恭華思想)의 경향이 짙은 반면에 권용정은 그렇지 않다.

② 특히, 《열양세시기》에선 중국의 세시기(歲時記), 고사(故事), 한시(漢詩) 및 국내 문인의 한시, 속담(俗談)까지도 인용하여 주관적인 입장에서 쓴 반면에 《한양세시기》의 권용정은 객관적인 면에서 사실을 비판적으로 약술했다.

③ 《동국세시기》의 모태(母胎)가 된 《경도잡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점을 찾을 수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알차다고 여겨진다.

국립민속박물관 간행본과 대비·검토해 본 결과 박순호본(本)에는 ‘한양세시’ 중 묘일(卯日)/ 답교(踏)/ 석전(石戰)/ 법고승(法鼓僧)/ 풍차(風車)/ 2월 1일/ 2월 6일/ 한식(寒食)/ 3월 3일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시잡영》에 답교/ 석전/ 법고승/ 풍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필사자가 고의로 생략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7월 보름’에서,

중추에 가서 분묘에 제사하고, 7월 9일에 사당에 국화떡을 올리고……

라고 한 대목은 이해가 가지 않는 해석이다. 타본(他本)에 이 대

목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후학이나 자손의 오석(誤釋)이 아니었나 한다.

박순호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양세시(漢陽歲時)의 내용】

○ 정월 초하루

서울 풍속에 정월 초하룻날 사당에 탕병(떡국)을 올리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박채 하나니, 소위 채라고 하는 것은 병이다.

새옷을 입고 부모나 어른에게 절함을 세배라 하고, 부인과 의논하여 상을 잘 차려놓고 빌다가, 해가 저물면 빠진 머리칼을 태우게 되니, 이는 귀신(잡귀)을 물리치려 함이다.

《야장소아해 夜藏小兒鞋》에 이르되, 척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광신(夜光神)이 밤이면 인가(人家)에 다니다가 어린애의 홍역으로 들어 간즉 아이가 문득 이롭지 못하고(오줌을 싸지 못함) 또 그 귀신이라는 것이 산술을 좋아하여 숫대를 만난즉 미혹하여 능히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이 숫대를 쳐마나, 기둥에 매달아서 그 기꺼움을 그릇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짓할 겨를을 주지 아니한다.

○ 입춘

입춘(立春)에 연상시(延祥詩)를 지어 붙이는데 집집마다 춘첩(春帖) 걸어 올리신도 쓰고 혹은 매 세 마리도 그려 재앙을 빈다.

○ 정월 14일

정월(正月) 열나흘날은 민가(民家)에서 짚을 묶어 사람을 만들어서, 남녀노소가 그 형상을 따르니 말하되 처객(處客)이라 한다.

이 말은 신라(新羅) 때에 쓰여온 말로, 그 가운데 돈을 넣어 밤에 내 보내니, 아이들이 문 밖에서 얼정거리다가 문지방을 치며 처객(處客)이 나간다고 떠들면서 돈을 더듬어 간다.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이유는 집안에 손재가 없게 함이다.

○ 정월 보름

보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찬술을 마시니, 이는 말하자면 귀를 밝히는 술이니, 가히 귀머거리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또 참쌀을 찌서 대추와 꿀로 조합한 것을 약밥이라고 하니, 그것을 사당에 올리고(근본은 신라 때 까마귀한테 제사지내면서 썼다.) 사람들은 진채를 먹으니, 이는 더위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다.

• 연

보름날 연에다가 글씨를 쓰되 재앙을 없애고, 액을 막는다는 등의 글자를 써서 연실이 다 끊어져 나가고 다시 잡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다시 잡는 놈은 고로장이고, 백정놈이라 하였다.

• 용에게 밥줌

보름날 조밥을 지어 강가에 던지며 혹은 우물 가운데 던지기도 하니, 이는 말하자면 용에게 밥을 주는 뜻이다. 용이 배가 불러야 그 해에 수해가 없다고 한다.

• 영월

달의 빛깔로서 1년의 풍흉을 점치게 되니, 붉으면 가물고, 희면 물이 많고, 누르고 윤택하면 곡식이 잘 익는다고 하였다.

• 옷놀이

옷판을 그려서 종횡으로 29궁을 마치 전자(田字)와 같이 만드니, 속칭 항왕(項王)이 동성에 진치던 도식이라 한다.

• 널뛰기

널뛰기는 속칭 작은 집 딸이 애인과 더불어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보고자 함으로 남자는 그네를 타고, 여자는 널을 뛰었다고 한다.

○ 사월 팔일

사월(四月) 초파일(初八日)은 등 밝히는 밤이다. 그 달 초하룻날부터

서 등간대를 세우고 모든 등을 팔게 된다. 등막대는 대나무를 묶어서 만들고 등막대 목에는 꿩깃을 꽂히되 혹은 꿩깃이 아니면 전나무 잎을 대용한다.

채색된 기를 달고 아래에 가로 적은 나무를 묶고 나무 끝에 고리를 매고 고리에다 노끈을 끼어 등을 끌어 올리고 내리고 한다.

그 간대가 없는 자는 등을 처마 아래에다 달거나 혹은 나뭇가지에도 매달아 놓는다. 성 안팎 모든 곳의 등간대에 가장 크고 긴 것을 세울 때에 수십 백인이 지붕에 올라가서 줄을 다리며 고탈 소리가 흥흥할 세, 간대가 혹 부러지면 장사군이 원망하되 불길하다고 한다. 그 꼴을 보는 자들이 놀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기꺼워한다.

시중에 등이 가장 승하니 주역에 하도낙서의 괘법으로 28숙과 12진의 종류다. 해마다 그 제도가 변하니 무릇 등에 있어서 형판이란 것이 있고, 수판이 있으며, 기판이 있으며, 획판이 있으니, 북모양, 방울모양, 마늘모양, 외모양, 잉어모양, 아이모양 등의 형판을 하고, 태극이며, 음양이며, 오행이며, 칠성 등으로 수판을 하고, 기판이란 것은 곤등을 말하고, 획판이라 함은 곧 자등을 말한다. 오직 비단등이 있으니 형과 수가 정해지지 않고 기와 획도 정해지지 않음으로 신선이나, 부처나, 벌레나, 새나, 산수나, 화초를 새겨 채색을 하는데 새로운 기교를 부렸고, 또는 거북이, 학, 사자, 범, 일만 돌과 중등이 있으니 그것은 등이 아니라 한갓 회구일 따름이다.

이 날 괴화 앞으로 떡을 하고 검은 팥을 삶아서 서로 먹으며, 밤이 되면 등불을 사루어서 연화가 땅에 가득하니라. 연기가 빠찌르고 티끌이 팽창하여 달빛을 개릴 정도다.

거리마다, 저자마다 신사 숙녀가 섞여 돌며, 물방구를 치며, 만가를 불러 읊음하고, 명명하며, 혼미하여 그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할러라.

무릇 등을 달매 각각 그 집 아이 남녀 수로서 하되, 등 빛 밝고 어둠을 봐서 남녀의 길흉을 점치니 등이 밝은즉 온 집이 즐겨하고 어두운즉 부인이 탄식하야 혹 울기도 하나 마침내 영험은 없는 일이다.

○ 단오

이 날은 단오점을 올리게 되니, 집집마다 앵도를 올리고, 소아녀는

창탕을 얼굴에 바르며, 창포 대를 머리에 꽂고, 새옷을 입고, 관가의 부녀는 각각 정장에 화장을 하고, 추천 놀이를 한다.

이 달엔 호남과 영남에서 으뜸가는 스승이 부채를 진상하게 되니 임군이 문조신이라는 띠를 주어서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다.

○ 유두

이 날은 사당에 수단과 맥면, 감, 내금 등숙을 올리니, 소아는 유두국을 타되 찌살을 쳐서 비벼 끊어서 꿀물에 담근 것을 수단이라 하고, 보리가 누른 것을 가지고 소단(새알시미)을 구슬처럼 만들어 붉은 점을 쳐서 실로 꿰니, 그걸 유두국이라고 말한다.

○ 삼복

이 날 개국과 팔죽을 먹게 되니, 이르되 가히 더위를 물리친다고 한다.

○ 칠월 보름

이 날은 속칭 백중이라 하여 부처님이 공양을 받는 날로써 모든 절에 널리 도량을 베풀게 된다.

○ 중추, 중양, 10월 오일

중추에 가서 분묘에 제사하고, 7월(9월의 오기임.) 9일에 사당에 국화떡을 올리고, 10월 오일(午日)은 속칭 말날이니, 떡을 만들어 집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말은 양(陽)이라 양일에 제사를 지냄은 양을 돈으려 함이다.

○ 동지, 12월

동지에 팔죽을 쑤어 사당에 올리고 또 죽을 문호에 뿌림은 역귀를 몰아내려고 함이다.

이 날은 책력을 배포하고 12월은 시골 원이나 인천 동료 벗이 서로 선물을 보내게 되니 그것을 세찬이라 한다.

○ 납일, 제석

선달 납일은 참새구이를 먹고, 제석(선달 그림)엔 밤에 부모나 형 또

는 어른들에게 절함을 구세배라 한다.

이 날 궁중에서는 크게 병을 쫓는 푸닥질을 하기 위해서 포화를 놓고 (포성을 내고), 민가에서는 밤에 맞도록 등불을 키게 되니, 사당, 침실, 문간, 부엌, 마구, 칩간(변소)에다 등불을 켜놓았다.

어린애 희롱하기를 선달 그믐날 밤에는 마땅이 자지 아니 해야지, 만일 자게 되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날이 새도록 자지 아니하며, 무릇 1년 중에 가지가지의 희롱함이 달과 날에 관계없는 자 또한 많은데 이는 다 아녀의 일이다.

• 슬렁아(瑟稜兒)

땃조각을 깎아 양끝을 뾰족하게 하고 가운데에 두 구멍을 뚫어 실로서 꿰어 좌우 손가락에 걸고, 급히 잡아댕겼다다 급히 놓으면, 대가 좌우를 쫓아 빨리 돌면서, 그 소리가 슬렁슬렁한다.

• 팽등아(砰騰兒)

등근 막대기를 한치 남짓 끊어서 땅 위에 놓고, 채찍으로 치면 나무가 뛰어도니 그 소리가 팽팽하고 등등하다.

• 풀싸움(鬪草)

꽃이나 잎을 따서 각각 한 개씩을 내되, 먼저 낸 놈이 뒤에와 같은 즉 뒤에 낸 자가 이기고 뒤엎 것이 능히 같지 못한즉 먼저 낸 이가 이기므로 먼저 내고 진즉 옹하게 된다.

• 묵국(墨掬)

이것은 곧 시대라 각각 장기알 몇 개씩을 가지고 서로 잡고 쏘아 마치는 자는 매양 하나씩 내게 되니 이 때에 다 낸 사람이 이기게 된다.

• 투사(鬪絲)

돌을 실 끝에 매서 상대와 서로 던져 끊어지지 않는 자가 이기게 됨을 말한다.

• 착흑(捉黑)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어둠 가운데 사람을 잡는 놀이다.

● 고누(高壘)

땅에다가 고누판을 만들어서 그 법이 6괘 자는 하나를 끼고 치고, 4괘 자는 하나를 넘어 치고, 5괘 자는 모로 가고, 정괘 자는 구(句)로 간다.

● 공기(控棊)

기와 조각을 가지고 둥글게 갈아서 5개로도 하고, 3개로도 하여 위로 던지고, 아래로 줍되 제 손이 오히려 여한이 있어 종일 던져도 단 한번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 도삭(跳索)

두 손으로 새끼를 조금씩 땅에서 뛰면서 산대끼가 발밑을 지나게 하는 것이다.

● 척전(擲錢)

땅에 돈을 던지고 명중시킴이다.

● 와마(瓦馬)

새끼로 수키와를 매서 끄는 것을 말이라 한다.

● 각씨(閣氏)

대막대를 두어 치 남짓 끊어 가지고 풀(객살)을 맺어 상투를 하여 작으마한 비녀로 꽂고 붉고 푸른 저고리와 바지로 싸서 신부 모양을 만든 것이다.

● 유적(柳笛)

봄에 버들 꺾질을 틀어 벗겨 끊어서 분다.

● 잠자리잡기(捕蜻蜓)

여름에 권간을 만들어 거미줄을 묻혀서 쫓아 잡고, 혹 암것을 잡으면

목을 매여 날려 가지고, 수놈을 매개하면서 빌기를 가는 자는 죽고, 오는 자는 산다고 한다.

• 산장불기(吹酸漿)

여름에 산장사를 따서 속을 비게하고 껍질만 남겨서 입술 사이에 넣고 기운을 빨아드렸다가 천천히 누르면 소리가 짹짹하고 난다.

• 청등(靑燈)

겨울이나 겨울에 무뿌리가 등글고 좋은 것을 캐어 가지고, 그 배에 구멍을 내어 등불을 킴이다.

• 빙차(氷車)

겨울에 나무를 깎아 바퀴를 만들고 바퀴 가운데에 불을 넣어서 여름 위에 놓고 굴림이다.

• 유빙(溜氷)

겨울에 물 못에 얼음이 얼었을 때 발로 미끄럽게 문질러서 빨리 미끄러져 나감이 고기 뛰듯이 하며, 말이 엮치듯이 하며, 기족(夔足 : 한 발을 들고서 타고 나감.)으로 하며, 만궁(挽躬)으로 하며, 과두(裹頭 : 머리를 싸맴.)로 하며, 세수하는 시늉으로 타고 나가며, 처음에 앉아타고 나가다 중간에 서고, 처음에 섰다가 중간에 앉고 하되, 처음 앉았다, 중간에 섰다, 끝에 다시 앉아 두세 번 몸을 굴리는 자가 그 공교함이다.

이 밖에는 곧 소년의 각희이며, 거사의 전고며, 산봉의 선희며, 화랑의(동국풍속에 배우를 지칭.) 타령 같은 것 무고의 채납(혼을 내리고 귀신을 맞이하는 푸작질.) 소경 그 이유가 심히 많아서 다 사실을 불고 한다. 불싸움, 줄다리기, 윤달에 쥐불을 놓는 것 등이 다 시골에 있는데 죄 가보지 못하고 조금 뜻을 적는다.

【세시잡영(歲時雜詠)의 내용】

<세배 歲拜>

착착한 새적삼에

능나이를 지어 입고

은 동네 어린이들
해지냈다 절하도다
늪은이만 이 날에
홀로 슬퍼하느니
절할 데 전혀 없고
절반을 데 많도다

<탕병 湯餅>

해맑기는 백옥같고
적기는 돈짜 같은데
세찬이 올 때에
축하의 말도 전하도다
공손하며 기꺼하는 아이들에게
산자를 먹게 하니
대가의 재미가
해마다 한가지라

<웃놀이 (擲柶)>

소리소리 땅을 치며
돼지새끼야 이십구궁 가위데에
말가는 데로다
굴곡하매 능히 첩경을 가지 못하고
사방으로 돌아 더딤을 어찌하라

<널뛰기 (跳板)>

붉은 신 흰머선이 발에 적어서
차고차니 날이 다하도록
판자 밟는 소리 행랑을 돌도다
가벼운 몸이 나는 재미 같기를
배워서 달은 해에 헤아리건데
쉽게 행하리라

<매서 賣菘>

올해 물가는 작년보다 배하여
 기왓돌과 재물에도 버리지 않도다
 오죽 새벽에 더위 파는 자가 있으니
 해마다 웨쳐 팔되 값을 말하지 않는다

<귀밭이술 (聽耳酒)>

찬술 기운 스며들어
 컷부리에 통하니
 묘시에 마심이
 제일 좋다 들었노라
 나에게 술권하려
 애쓰지 말라
 내가 몰래 거짓으로
 귀먹은 양 했노라

<약밥 (藥飯)>

쌀알에 단사 섞어
 한 뭉치로 만들으니
 가난한 집 진손 얻기
 어려움도다
 다반사로 먹을진대
 호화한 줄 알을소냐
 항상 먹는 밥과 같이
 되어지리라

<나물 올리기 (陳菜)>

오이며 박속이며 무깍질을
 일손 놓은 늙은이 일없이 모았도다
 문득 봄소반 섬수 속에 들어서매
 진부 한때 없었던 양
 새로운 맛 되었구나

<종이연 (紙鳶)>

아이더러 낭비한다
꾸짖지 말라
가벼운 실 많이 사다
연날리기 하다가
떨어진다 한소리 듣는 즈음에
할일없이 낮을 들어
하늘만 보노라

<처용 處容>

한 다발 생필이 이른바 사람이니
본래의 면목 다 참다운 것 아니도다
문을 치며 하는 일 다투어 부르니
다만 푸른 구리 네 몸에 째했도다

<작저 瘡疽>

쇠도 침도 갖지 않고
의원질을 하게 되니
호도씨를 붓으며
밤껍질을 뚫도다
눈앞에 모든 것이
부럼으로 보이니
오늘 응당 모름지기
이빨 날칸 아이로다

<답교 踏橋>

이월이라 밝은 달
멀고 먼 밤에
남북으로 마을마다
굽은 길 몇 줄 긴고
크고 작은 많은 다리
두루두루 밟아가니

그 가운데 넓은 다리
 제일 먼저 셀세라

<달맞이 (迎月)>
 밤에 새 달을 맞으며
 새 사람 같으니
 햇불도 많을시고
 온동네에 나도다
 아이들 절을 알고 보면
 달도 응당 기뻐진대
 월광보살이 바로
 이 아이들 몸이로다

<석전 石戰>
 으스름달 먼지 속에
 사방의 고탈 소리
 몽둥이질 서로 하니
 치는 힘 거칠도다
 성내가 태평하여
 전쟁이 없거늘
 문득 사살을 잡아
 작난을 짓도다

<범고승 法鼓僧>
 춤의 대열 돌고 돌아
 북치기도 바쁘데
 금돈과 옥싸래기
 가운데에 있도다
 아미타불 상좌가
 홀로 일이 많으니
 속가에 참여하여
 도량을 지었도다

<풍차 風車>

나비깃 쌍쌍이
제비꼬리 열렸네
누구에게 아부하여
많은 재주 허비했는고
춘풍에 부는 힘을 잠깐 빌어
굴려서 붉은 바퀴 지으니
풀은 수레 오도다

<풀싸움 (鬪草)>

봄을 즐기는 아이들
청명한 날 나가서
잎을 따고 꽃을 따
앞뒤를 헤아리로다
평이나 토끼는 남의 꼬리가
다 쓸데 없고나
내 집에 따로 풀담는
다래끼가 있도다

<등시 燈市>

맑고 고른 일기에
밤의 풍경 어떠한고
물장구 치며치며
땅구르는 노래로다
온동네 두루두루 등불로 빛나니
사람집에 자녀 많음을
깨닫도다

<추천 秋千>

깊숙한 방 천금같이 조용한 아가씨
외인이 어찌하여 보거나 하리오
다정함은 오직 이 그네줄이니

청아를 꿰어올려 분당에 올리도다

<봉희 棚戲>

피리젓대 먼저
 제삼장을 치니
 큰소매의 장삼으로
 미친듯이 춤추도다
 한바탕 웃음 끝에
 다 함께 절도하니
 늙은 중이 비로소
 무당 적음을 보도다

<고누 高壘>

하늘이 교각을 내매
 그 형이 적고
 땅은 편벽되야
 속임수가 많도다
 다만 정전을 내리어
 처음 한번 부디치매
 세상의 높은 솜씨
 네가 어찌하라

<돈치기 (擲錢)>

돈 던지기 좋아 마라
 돈 따기는 어렵고
 돈 잃기는 쉬우니
 만다 해도 반드시
 부모가 좋아할 바 없고
 잃으면은 문득 성낼 테니
 돈치기 좋아 말라
 돈이 손에 이르렀을 때
 돈을 뒤집으면

그대의 봄이 바르지 못하며
한날 기와장 무늬 같은 돈이
오히려 아동에게 싸움만 가르치노라

<도간 稻竿>

여남자 긴 간대
사람같이 서 있으니
간대 머리 풀을 달어
바람에 나부긴다
부자집에 밭을 사매
기름진 밭이요
해마다 풍년을 비니
매해마다 풍년이라
여러 소가 바리바리 실어 날러
창고마다 채워노니
닭에게는 쌀이 남고
개에게는 조가 남네
가난한 집은 본래
송곳 세울 데 없으니
지붕에다 무슨 연고로
간대를 세울고
부자집 개나 닭만
갖지 못하여
온종일 힘써 봐야
밥을 얻지 못하도다
가난한 집이여
부자집 간대를 부러워 말라
순간에 빈부가 서로 번복되니라
작년에 동쪽집에
간대를 세웠더니
올해는 다시 서쪽집에 서 있도다

간대의 서고 늪이
스스로 연년이니
인생의 지원이 괴로울 것이 없다
어느 때에 다시
균전법이 행하여
모든 동네에 간대가
꽃이리요

<춘첩 春帖>

운연이 먹과 같고
눈꽃이 녹으니
곳곳마다 높은 문에
각각시를 엮도다
사립문이 또한
봄바람에 이르러서
어린아이 글읽으니
좋은 시절이로다

<척구 踢毬>

떠러진 물이 얼음을 이루매
붙어도 흐르지 아니하고
털신 털버선이 수심을 면하도다
아이들에게는 문득 추위를 이겨내는
법이 있으니 네거리 통한 길에
기운내어 공치도다

【동구(童謠)의 내용】

- 이슬꽃으로 술을 빚어
푸른 단풍에 권하니
어제에 푸르던 것
오늘에 붉도다

귀밑 털은 또한 가을잎과 같이
변하니 아침 이슬 저녁 눈에
바쁘기도 하도다

- 창해만경 침침히 푸르거늘
문노라 사부야 열고 깊음을 알겠더나
나 또한 서방님과 더불어
처음 인연 맺었을 때 낭군의 몇 겹의
마음인 줄 아지 못할레라

- 버들이며 오죽이며
오경같은 매화를
창 밖에 한가한 뜰
여기저기 심었네
정든 사람 술 가지고
오기를 기다려서
오늘밤 달을 보며
함께 잔만 기울이네

- 인간 이별 일만 가지 일에
독수공방이 가장 슬프도다
서로 생각하니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하루에 열두 시간
엷히어 있네

- 누른 나비 흰나비
유유히 번득이며
청산에 날저문데
꽃가로 행하도다
이제 가서 꽃에게
푸대접 만나거든

잎 사이 어느곳에
잘 수 있지 않으나

- 시냇물 흘러흘러
소리도 잔잔한데
한번 바다에 이르르면
다시 오지 못하노니
듣거라 인생들아
마음껏 즐기려무나
밤 깊으면 명월만
공산에 가득하다

- 바람이 물결을 몰아
뱃전을 치니
가는비 강남에
저물고져 하도다
장년에 키들리기 재촉하다
동정산 아래에
태호의 가이로다

- 슬슬부는 양풍아
불기를 멈추어라
정자나무 푸른 잎
다 떨어지노라
염염하는 세월이여
가기를 멈추어라
장안에 소년들
다 늙어간다

- 약산 동쪽 언덕
이즈러진 바위 머리에
꽃가지 꺾어다가

술잔을 세도다
가사 인생이
백년을 살지라도
1분만 환락이요
9분은 걱정이라

- 맑은 물 심리에
해당화 피었으니
불었다가 떨어짐을
한하지 말라
꽃은 명년이면
다시 필 수 있거니와
부생은 한 번 가면
어찌 능히 돌아오랴

- 닳을 겨우 들을 때에
배는 이미 떠나니
문노라 어느 날에
돌아오실까
은은하게 밤중에
노 울음 소리
연한 간장 끊어진지
남들이 어찌 알리

- 창머리에 푸른 오동 심어놓으니
사랑웁다 가을밤에
그림자 많도다
나홀로 근심으로
잠 못 이룬 곳에
소소하고 적적하게
빗소리가 무삼것가
백난 중에 오즉

사람 기다리기 어려우니
 닭은 세 해를 울고
 밤은 새어 가도다
 몇 번이나 문에 나가도
 사람은 보지 못하고
 벽오동 가지에
 달만 두렷하도다

- 호기있게 나귀 타고
 가시문 오리촌에
 도연명을 찾으니
 칩수건에 술 거르는
 소리 들으니
 앞마을에 세우성과
 흡사하도다

9. 《조선세시기》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작자 미상의 《조선세시기 朝鮮歲時記》는 한문 필사본 1책으로 김선풍(金善豊)이 소장한 유일본이다. 책의 표지에는 《세시기 歲時記》로 되어 있으나 속지에는 《조선세시기》로 되어 있고 상단(上段)의 변(邊)에는 《세시유사 歲時遺事》라고 되어 있다. 한문 필사본이지만 간혹 한글로 용어를 풀이한 곳도 있다. 이 책의 서언(叙言)에 보면 유조집서북양월장지절술자식(柔兆執徐復陽月長至節述者識) 곧, 병진년 11월 동지절에 지은이가 기록한다고 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1916년 병진년이 아닐까 한다. 또 지질적으로 볼 때도 철종 7년(1856년)의 병진년이 아니라 1900년대의 지질로 판단된다.

《조선세시기》의 편제는 월별 또는 절일별로 세시풍속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른 세시기와 달리 11월부터 시작하여 10월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달의 절일에 따른 세시풍속이 간혹 서로 맞지 않거나 섞여 있는 곳도 있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지 않은 곳도 더러 있다. 예컨대 반동인승(頒銅人勝)이 인일(人日)에 들어가야 하는데 입춘에 속해 있고, 인일패일(人日敗日)이 상원(上元)에 들어가 있으며, 매서(賣暑)·화적(禾積)이 상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상자일(上子日)에서 상해일(上亥日)까지 정초 12지일에 관한 풍속이 빠져 있기도 하다.

《조선세시기》에 수록된 세시풍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월

○ 동지/ 아세/ 반역/ 전약/ 천청어/ 천굴유/ 감자/ 진하전/ 명절시식/ 동침/ 용경
(冬至 亞歲 頒曆 煎藥 薦靑魚 薦橋柚 柑子 進賀箋 名節時食 冬沈 龍耕)

12월

○ 납일/ 납향/ 납약/ 납육/ 납설빙/ 납매/ 정절/ 수선화/ 상설/ 세찬/ 축국/ 대약/ 세모/ 고성군사신/ 제석/ 구세문안/ 발대포/ 폭죽/ 수세/ 벽은단/ 척사/ 장구회(장투)/ 방지포
(臘日 臘享 臘藥 臘肉 臘雪水 臘梅 靖節 水仙花 賞雪 歲饌 蹴鞠 確樂 歲暮 高城郡祀神 除夕 舊歲問安 發大砲 爆竹 守歲 辟瘟丹 擲柶 藏鈎戲 (藏鬪) 放紙礮)

정월

○ 원일/ 권농/ 세비음/ 차례세찬/ 범고/ 세함/ 덕담/ 세화/ 상치세전/ 계호화/ 삼재양법/ 청참/ 오행짐/ 소밭/ 야광
(元日 勸農 歲庇廕 茶禮歲饌 法鼓 歲銜 德談 歲畫 尙齒歲典 鷄虎畫 三災禳法 聽讖 五行占 燒髮 夜光)
○ 입춘/ 문첩/ 진산채/ 목우/ 반동인승
(立春 門帖 進山菜 木牛 頒銅人勝)
○ 인일제시/ 칠종채/ 상신기곡/ 훈서화/ 작중/ 약반/ 식진채/ 매서/ 타추

회/ 화적

(人日製試 七種菜 上辛祈穀 燻鼠火 爵瘡 藥飯 食陳菜 賣暑 打芻戲 禾積)

○ 상원/ 권농회/ 잡곡반/ 가수/ 영월/ 소월/ 답교/ 송경안택/ 석전/ 방지연/ 회회아/ 척전/ 고고매/ 만삭회/ 모충일/ 신일/ 야묘/ 팔일패일/ 한마감조/ 도판

(上元 勸農戲 雜穀飯 嫁樹 迎月 燒月 踏橋 誦經安宅 石戰 放紙鳶 回回兒 擲錢 姑姊妹 挽索戲 毛蟲日 愼日 夜猫 八日敗日 旱魔減潮 跳板)

2월

○ 중화척/ 벽마육부/ 참성점/ 화투모

(中和尺 辟馬陸符 參星占 花妒媚)

3월

○ 상사(3월 3일)/ 화전/ 유상곡수회/ 화류

(上巳(三月 三日) 花煎 流觴曲水會 花柳)

○ 청명(清明)

○ 곡우(穀雨)

○ 월내시식/ 신춘병고/ 사회/ 각씨자(투초)/ 전춘

(月內時食 新春餅餠 射會 閻氏者(鬪草) 餞春)

4월

○ 욕불/ 연등(호기)/ 연등/ 초하시식

(浴佛 燃燈(呼旗) 燃燈 初夏時食)

5월

○ 단오/ 창포탕/ 애호/ 술의초/ 오채/ 단선/ 추천회/ 각저/ 앵도반포/

채애/ 가조수/ 태종우

(端午 菖蒲湯 艾虎 戊衣草 五綵 端扇 鞞韃戲 角觝 櫻桃頒布 採艾 嫁棗樹 太宗雨)

6월

○ 유두면/ 복일/ 식구장/ 자적두죽/ 유두연/ 반빙/ 옥추단

(流頭麵 伏日 食狗醬 煮赤豆粥 流頭宴 頒水 玉樞丹)

7월

○ 7월 15일/ 백종절/ 설우란분회/ 세서연/ 봉선화(한진주·소도홍)/
종청(중송)/ 가배절/ 시식
(七月十五日 百種節 設盂蘭盆會 洗鋤宴 鳳仙花(旱珍珠·小桃紅) 種菁
(種菘) 嘉俳節 時食)

8월

○ 중추상월/ 도해/ 정처자(정희아비)
(中秋賞月 稻蟹 庭妻子(정희아비))

9월

○ 중앙절(중구)/ 등고
(重陽節(重九) 登高)

10월

○ 영성조지신/ 손석풍
(迎成造之神 孫石風)

《조선세시기》에 수록된 중구의 세시와 풍속을 원문대로 추출
하면 다음과 같다.

勸農戲 故事에 正月望日 大內에서 象邠風七月 경확상하야 分左右 角
勝하니 盖盛朝勸農之意也라 鄉里 農家도 亦是日에 以稊稈으로 作耒
耜農品及五穀狀하야 豎之場圃라가 月出後에 農丁이 雜作耕耘打穫之聲
을 謂之勸農戲라 하니

燈夕 上元夜를 謂之元宵오 亦曰燈夕이니 自新羅時代로 是夜에 有張燈遊
觀之盛하니 按史記에 漢家以望日로 祀太一호디 從昏時到明이라호니 上
元點燈은 似其遺跡而羅麗以來로 崇尚佛事하야 是夜張燈을 與漢唐齊盛하
니라

踏橋 上元夜에 踏過十二橋하면 謂之度盡十二月厄이라 하야 月出後에

都人士女 聽夕鍾於雲街鍾閣하고 散至諸橋하여 往來達夜不絶를 謂之踏橋라 大小廣通橋及水標橋가 最繁하여 人海人城에 簫鼓喧填하니 都邑遊觀之盛이 惟上元及四月八日이 爲最라

按李晬光芝峰類說云 上元踐橋之戲는 始自麗朝하여 在平時甚盛이라 士女駢填하여 達夜混雜故로 法官이 至於禁捕하여 今俗은 無婦復女踏橋者矣라 하니 近代는 以十六夜로 爲婦女踏橋遊하니 盖男女夜者也라

石戰 京城舊俗이 三門外及阿峴이 成羣分隊하여 或持棒椎하며 或投石하여 喊聲趕逐에 爲接戰狀於萬里峴上을 謂之便戰이라 하여 以見敗退走之邊으로 爲負하나니 或云 三門外勝則畿內豊하고 阿峴이 勝則八道豊이라 하여 龍山麻浦는 惡少結黨救阿峴하여 方其敢鬪之際에는 呼聲이 動天地하며 纏頭相攻하여 破額折臂에 見血不止하며 雖至死傷而不悔하고 亦無償今之法하니 人皆畏石回避하니 掌禁後司另行禁戰이나 而痼習을 無以全革이라 城內童豎도 亦放而爲之於鍾街琵琶亭等處하고 城外則萬里峴雨水峴이 爲便戰之場所하나니라 按唐書高句麗傳에 云 每年初에 聚戲泚水之上하여 以水石相濺擲하여 馳遂再三而止라하니 此爲東俗石戰之始라

都下年少有以善交鳶으로 噪名者면 豪貴家 | 往往延致觀賞하나니 每上元前一兩日에 毛橋水標橋沿河上下에 觀交鳶者簇如堵牆이라 羣童이 候斷搶絲호디 或追敗鳶하여 踰牆越屋에 勢眞可遏하니 人多駭怖라 過上元後면 不復飛鳶하나니라

回回兒 方言에 도로라미 亦稱風車라 其制는 糊貼五色紙於竹骨左右하여 方圓大小制樣不一하고 以柄으로 中插하여 小兒弄之에 當風而轉을 曰 回回兒라

跳板 閭巷婦女用木板橫置藁枕上하고 對踏而端하여 相升降而跳過數尺을 謂之板舞라 하여 自正初로 盛行하나니

대개 놀이나 세시 이름 뒤에는 한시가 덧붙여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10. 《해동죽지》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풍속

저자인 최영년(崔永年 : 1856~1935)은 철종(哲宗) 7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활동한 조선시대 마지막 서리(胥吏) 시인이자 한때 제국신문(帝國新聞)을 맡아 간행한 적도 있는 언론인이기도 하다.

최영년이 66세 되던 해인 1921년에 지은 《해동죽지 海東竹枝》에는 7언 절구형식으로 된 <명절풍속 名節風俗>이라는 한시가 실려 있다. <명절풍속>은 1년의 세시풍속을 읊은 것으로, 민속놀이와 음식, 풍속습관, 의복, 민간신앙 등 민중의 생활사가 잘 나타나 있어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민속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해동죽지》는 저술 당시 바로 출판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최영년의 시제자(詩弟子)인 물재(勿齋) 송순기(宋淳夔)가 편집하고, 김병채(金炳採)가 교주하여 1925년 4월 25일에 장학사(獎學社)에서 출판한 것이다. 권두에는 윤희구(尹喜求)의 서문(序文)과 아우 최만조(崔萬朝)가 쓴 제사(題辭), 그리고 송순기의 기언(紀言)이 실려 있으며, 권말에는 조면형(趙冕衡)의 발문(跋文)이 있다. 이 책이 간행될 당시 학계에서도 그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며 칭찬하였는데, 당대의 문장가인 정만조(鄭萬朝)는 “우리나라의 야사와 풍속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평가하였다.

《해동죽지》는 불분권 1책 신활자본으로 되어 있고, 전체 내용은 상·중·하 세 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편에 69수, 중편에 111수, 하편에 128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명절풍속》은 그 가운데 중편에 실려 있는 것으로, 월별·날짜 순으로 총 64수의 시가 실려 있다. 각각의 시에는 먼저 세시

풍속의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을 세 글자로 달고, 그 세시풍속에 대한 짤막한 유래와 풍속을 설명한 다음 한글 명칭을 붙였다.

최영년의 《명절풍속》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의 풍속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선달그믐의 풍속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각각의 시는 풍속을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어조보다 그 명절이나 절기의 정황 묘사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풍속》은 각각의 시 앞부분에서 읊고자 하는 풍속에 대한 설명이 있어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의 세시풍속과 각 달의 생활 풍습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풍속을 행하던 당시의 정경을 시로 읊음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명절풍속》에는 민속놀이, 음식, 풍속습관, 의복, 민간신앙 등 민중의 생활사가 잘 나타나 있어, 20세기 초의 민속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자료라고 할 수 있다.²²⁾

• 다리밟기(踏橋行)

옛 풍속에 정월 대보름날 밤에 12개의 다리를 밟으면 각기병(脚氣病)이 없어진다고 한다. 남녀가 뒤섞여 풍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종(成宗) 때에는 나라에서 금하여 남자들에게만 다리 밟는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하지 않으니 이를 ‘답교’라고 한다.(舊俗 上元夜 踏十二橋 無脚氣云 士女雜遶成風 成宗朝 自官禁之 只有男子踏橋之風 今則無之名曰 답교)

일 년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보름날 밤(一年先得上元宵)
 새 봄의 즐거운 일로 적적하지 않네(樂事新春不寂寥)
 스물 네 개의 다리마다 환하게 뜬 달(二十四橋橋上月)
 맑은 빛이 어찌 광릉교만 하리오(淸光何似廣陵橋)

22) 최영년(이창희 역), 《해동죽지》,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pp. 297~305.

• 채봉 세우기(立彩棚)

옛 풍속에 4월 8일을 욕불절(浴佛節)이라고 한다. 고려 때부터 채봉(彩棚) 놀이가 있었다. 큰 나무와 긴 대를 묶어서 꼭대기에는 꿩의 꼬리와 공작의 깃으로 장식하고, 중간에는 붉고 푸른 비단 깃발을 매단다.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니 높이가 4, 50 길이나 되고, 깃대의 중간쯤에 큰 등을 다는데, 종로 거리에는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기도 하고 그 밖의 거리에는 작은 채봉들을 세우니 온 성안에 가득 찬다. 이는 당나라 오산결채(鰲山結彩)에서 유래한 풍속이니 이를 '등대'라고 한다.(舊俗 四月八日 謂之浴佛節 自高麗 有彩棚之戲 縛束巨木長竹 頭粧雉尾孔雀 腰懸紅碧錦幟 萬人豎立 高可四五十丈 懸巨燈于中層 鐘路市街多至數百本 其他小棚遍滿城中 卽唐之鰲山結彩故俗 名之曰 등대)

수많은 사람 소리지르며 채봉을 세우니(萬口呼耶樹彩棚)
 꼭대기의 화려한 깃털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棚頭金翠入雲層)
 까마득한 푸른 하늘 별 언저리에는(渺渺蒼空星宿畔)
 만세의 태평등불이 높이 달려 있네(高懸萬歲太平燈)

• 물장구(水匏樂)

옛 풍속에 4월 초파일이면 느티떡을 찌고 검은 콩을 삶는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 새 옷을 입으니 이를 '팔일빔'이라고 한다. 물동이에 바가지를 띄워 놓고 풍풍 질장구 소리를 내며 노래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니 이를 '물장구'라고 한다.(舊俗 八日 蒸槐餅 煮黑豆 兒童皆着新衣 名之曰 팔일빔 泛匏於水盆 作淪淪土缶聲 或歌或舞 名之曰 물장구)

금부처 목욕마치고 다투어 공양 올리니(金身浴罷爭供養)
 느티잎 넣어 찐 떡에 검은콩이 향기롭네(槐葉蒸餅黑荳香)
 채색옷 입은 아이들 참새처럼 뛰놀며(彩服兒孫如雀躍)
 물장구 소리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추네(水匏聲裡舞翺翔)

• 병 없애는 부적(消病符)

옛 풍속에 단오날 정오에 이 부적을 들보 위에 붙이면 한 해의 온갖

병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무학대사(無學大師)의 비법으로, 그 부적에 이르기를 “5월 5일 천중절이라 위로는 하늘의 녹을 받고 아래로는 땅의 복을 얻어 구리 머리, 쇠 이마의 치우(蚩尤)신은 404가지 병을 한꺼번에 없애소서. 아! 울렁처럼 빨리빨리 시행하소서. 사바하.”라고 하니 이를 ‘단오 부적’이라고 한다.(舊俗 端午正午時 貼此符于梁上 能消一年百病 此是無學大師秘法 其符曰 五月五日 天中之節 上得天祿 下得地福 銅頭鐵額 蚩尤之神 四百四病 一時消滅 唵急如律令 娑婆呵 云 名之曰 단오부작)

구자를 그 누가 청엽종이라 불렀나(九子誰名靑葉粽)
오병도 물리칠 수 있는 적령부라네(五兵能辟赤靈符)
신승의 비결이 병 없애는 가장 좋은 것이니(最是神僧消病訣)
치우신 고향 소리에 온갖 귀신 도망가네(銅頭一喝鬼挪揄)

• 도당굿(都堂賽)

옛 풍속에 매년 10월이면 온 동네에서 농사신을 맞이한다. 이 때에 큰 굿을 행하여 풍년에 보답하니 이를 ‘도당굿’이라고 한다.(舊俗 每年十月 自大洞迓田祖 行大賽 以報豐年之功 名之曰 도당굿)

농촌에서 시월에 가을 추수가 끝나면(農家十月告秋成)
해마다 토지신에게 큰굿을 행하네(粉社年年大賽行)
양고기와 술 향과 꽃 그리고 등불 밝히고(羊酒香花燈影裡)
깃발 들고 북을 치며 신 맞으러 산에 오르네(萬人旗鼓上山迎)

• 납육 먹기(食臘肉)

옛 풍속에 포수들을 동원하여 깊은 산에서 산돼지를 사냥하여 납향일에 백관들에게 나누어 준다. 민가에서도 고기를 먹으니 이를 ‘납육’이라고 한다.(舊俗 發砲兵 獵臘猪於深山 臘享日 頒于百官 且民家亦食肉 名之曰 납육)

납제에 올리려고 추위 속에 사냥하여(臘祭衝寒大獵去)

곰과 노루 사슴과 돼지 수레 가득 실었네(熊獐鹿豕載山車)
 북쪽 마을 무쇠 난로에 수탄 붉게 달아오르고(北里金爐紅獸炭)
 매화주 마음껏 마시고 나니 흰눈이 비로소 개이네(梅花大酌雪晴初)

• 등잔 팔기(賣燈盞)

옛 풍속에 매년 설날 그믐날 밤이면 집집마다 등불을 내걸어 새해의 복을 맞이한다. 길 가득히 사기등잔을 팔기도 하고 길가를 돌아다니며 팔기도 하니 이를 '제석등잔'이라고 한다.(舊俗 每年除夕 家家張燈迓新年之福 滿路賣砂燈盞 或爲行賣道路 名曰 제석등잔)

설날 그믐 풍속으로 많은 등을 내거니(歲除風俗萬燈張)
 곳곳에 밝힌 등불 온 집안이 환하게 빛나네(處處通明滿室光)
 저들은 예사로이 해마다 한 번 외치지만(渠是尋常年一吶)
 이 소리가 내 머리 위에 서리를 재촉하네(此聲催我滿頭霜)

• 강정 팔기(賣薑飴)

옛 풍속에 설날 아침 차례에 강정을 좋은 음식으로 여겼다. 이는 대개 고려 시대에 부처를 숭상하는 풍속을 모방한 것으로, 유과(油果) 쓰는 것을 진귀하게 여기던 것이 그대로 굳어져 관습이 되었다. 상인들 중에 해마다 설날 그믐날 전에 돌아다니며 파는 자를 '강정장사'라고 부른다.(舊俗 元朝茶禮 用薑飴爲佳品 蓋倣高麗尙佛之俗 珍用油果因以爲例 商人每於除夕前 行賣者 稱之曰 강정장사)

고치 모양의 증배끼 청색홍색 물들이니(繭形粧粧色靑紅)
 부처를 숭상하던 고려의 풍속에서 비롯되었네(始自高麗尙佛風)
 항상 설날의 차례음식이 되었기 때문에(例作元朝茶禮品)
 하늘 가득 눈 내리는데 강정장사 소리치네(商人叫賣雪滿空)

제 4 장

근대 이후 중구의 세시와 풍속



1. 청계천 축제의 개발과 발전방안

1) 청계천변 축제의 소재와 대상

위슬러(C. Wissler)는 문화를 간단히 정의하여 “이런 저런 사람들의 생활방식(the mode of life of this and people)”이라고 하였고, 린튼(R. Linton)은 “어떤 사회의 전체 생활양식(the total way of life of any society)”이라 했으며, 그디나프(W. H. Goodenought)는 “생활(生活)의 유형(類型)”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생활’이란 단어를 벗어난 문화의 정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문화란 ‘생활’의 표현이요 생활의 설계(design for living)인 동시에, 이상향(理想郷)으로 치닫는 인간정서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도시문화뿐 아니라 지방문화도 수많은 문화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문화요소는 각기 무질서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수많은 문화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문화요소는 각기 무질서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를 문화복합(culture-complex)라고 한다. 또 문화는 통합원리(統合原理)나 중심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공리(文化公理, culture-postulate)라고 하며, 문화의 공리와 환경적 요인이 만든 것이 지방민속문화특소(地方民俗文化特素, oikotype : distinctive of geographic area)라 하겠다.

우리말에 ‘백리부동풍(百里不同風)’이란 속담이 있듯이 오랜 세월 속에 각 지역사회는 색다른 풍습과 그 지방만의 지방민속문화특소를 갖게 돼 있다. 이는 개성이 강한 지역문화가 독자적인 향토문화를 낳게 했다는 말과 같다.

과거 서구의 설화문학 연구자들은 범세계적인 동근설화(同根說話)의 타입(type)나 모티프(motif)를 찾는 데 열을 올렸으나 요즘은 어떤 점이 지방문화특소인가 하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산과 강 그리고 넓은 평야가 각기 향토문화(郷土文化)를 형성하게 한다. 심지어 작은 내나 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속적 현상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이 문화의 변이(變異)를 가져온 지리적 조건이다. 이처럼 지리적 조건 하나가 문화의 변이를 초래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그 지역권으로 보아 서울, 중부(中部), 영동(嶺東), 영남(嶺南), 호남(湖南)의 5대 문화권(文化圈)으로 나누기도 하고 달리 더 넓게 나누기도 한다. 물론 행정구역은 문화구획과 다르지만 편의상 그같이 불러왔고 각기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각기 소유하고 있는 강인한 지방민속문화특소는 다시 마을단위에서 군단위로, 군단위에서 도단위로 문화의 보편화(普遍化) 현상이 이루어진다. 지방민속문화특소는 원래 지리적 특소(特素)만을 뜻하지만,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만들어진 특소 외에 그 지방만이 겪어야 했던 순환의 역사가 만든 특소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지방문화(地方文化)와 도시문화(都市文化)는 어떤 변별력이 있을까? 도시문화는 도시문화대로, 지방문화는 지방문화대로 특질을 지니고 있으나 도시문화보다는 지방문화가 보수적이고 더 순수하며 옛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은 문화적 다양성(多樣性)으로 인하여 더 강한 문화접촉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의 흙의 소박한 문화속에서 배태한 농악(農樂, 풍물)이나 민요(民謠)로 족했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다양한 문화의 홍수 속에서 서구적인 문화감각에 점점 익숙해 가고 있다. 젊은이들의 음식문화도 된장, 고추장, 김치 문화에서 버터나 치즈 문화로 변모되고 있다. 그뿐인가. 노래도 쥐어짜고 비틀고 뛰는 광란의 형태나 체질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미국 자체 내에서도 재즈(zazz)를 일러 어느 목사는 '사탄의 음악'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구문화가 모두 그러다는 것은 아니다. 문화란 전통적인 향토문화(郷土文化)와 외래문화(外來文化)가 서로 만나기 마련이고 상호 보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남산과 청계천이 만나는 축제

바야흐로 중구는 청계천 ‘새물맞이’와 더불어 서울 문화의 중심 주로 지가 되었다.

청계천 민속사(民俗史)를 소급해 볼 때 광고·수표교에서의 다리밟기라든가 석전(石戰) 등 대형 민속축제가 주로 중구와 종로 구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청계천 물줄기는 인왕산, 북악산(백악산), 남산, 삼각산 물의 합수(合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의 용신사상(龍神思想)과 천신사상(天神思想)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조는 조선왕조를 개국하면서 목멱산신(木覓山神)과 한강 대택신(漢江大澤神)을 중히 여겼으니, 이는 고려의 왕건이 산천제(山天祭)를 꼭 지키라고 명했던 훈요십조(訓要十條)의 정신과 박혁거세(朴赫居世)나 그의 비(妃) 알영부인(閼英夫人)의 고사와 일맥상통한다. 도도히 흐르는 강의 물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은 작은 내[川]의 물마저 소중히 여겼으니, 박혁거세가 동천(東川)이라는 내(생명수)에서, 그리고 알영부인은 월성(月城) 북천(北川)이라는 내에서 목욕을 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거듭 태어난 재생적 부활이 그것이다.

세종대왕이 수표교(세종 23년)를 세워 홍수를 대비한 사연이나 정조가 어명으로 천변을 축조한 사실도 다 한민족의 용신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청계천의 맑은 물과 남산, 삼각산, 백악산의 맑은 물 속에는 개국주(開國主) 이태조 신화의 모티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중구에 흐르던 ‘미르내’는 당시 용신사상을 기호로 남긴 유일한 흔적이다.

그러므로 중구의 축제는 목멱산제와 용신제로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청계천축제도 목멱산신을 모시고 내려와 용왕맞이 축제를 해야 격에 맞는다. 이것이 신화축제의 품격이다.

신화의 이론 중에 '신화가 없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축제 주인공은 신과 신을 모시는 민중 곧 중서(衆庶)라 할 수 있다. 신이 없는데 벌이는 축제는 축제(festival)가 아닌 먹자판(feast)이요 이벤트다.

청계천에 물을 대준 백악산과 삼각산을 끼고 있는 구(區)는 모두 참석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대형 축제로 승화시킨다면 관광화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 등 서울신화의 대열에 끼어 있는 여러 구가 중심이 되어 같은 날 가장행렬만 하여도 세계적 주목거리가 될 수 있다.

무가(巫歌) 소리 중에 “서울 남산의 장구대감”이란 구절이 나온다. 중구 남산신을 모시고 한바탕 장구(풍악)을 울려야 청계천 축제가 축제다워질 것이다.

중구의 축제는 목멱산 곧 남산축제와 청계천축제가 연계되어야 부활할 것이다. 우선 단군신화로부터 이어지는 목멱산신의 위상을 추적해 보자.

한국 성황신은 산신(山神)과 동격 지위로 생각하기도 하나 산신은 지위가 좀더 높고 성황은 내객(內客)으로 간주된다. 물론 강릉의 경우처럼 국사성황사가 있고 소규모 성황당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한국 산신은 단군 시절로 소급되어야 한다. ‘단골손님’의 ‘단골’이 ‘단군’에서 왔다는 설로 감안할 때 단군은 큰 무(巫)의 위치에 있었던 사제자(司祭者)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로만 전하고 신화로만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사무가로 그의 일대기가 불러졌을 것으로 본다.

황해도 구월산 일대의 서낭설화가 단군신화였다는 것은 이미 선학(先學)들이 밝힌 바 있지만 굿판의 형식을 빌어 놀이화되었

던 과정을 우리는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신화의 세계는 ‘신바람’의 세계다. ‘신바람’이란 ‘신화의 바람’이다. 그것은 신과의 접신(接神) 상태의 흥이요, 멋이요, 흥청거림이다.

‘신명난다’, ‘신명스럽다’, ‘신난다’는 말은 신에 접한다든지 흥겨운 엑스타시[憑依現象] 경지를 맞본다는 뜻이다.

신(神) 나는(起) 데(處)는 노래만으로 부족하다. 신을 모방한 울동적 춤이 있어야 하고 노래가 있어야 하고 가사가 있어야 하며 무대 곧 ‘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단군신화의 무대를 추정해 보자.

토템 사회에는 곰 풀이와 범 풀이가 존재했으리라. 오늘날 잔존한 범굿(놀이)은 그 잔존 형태의 본보기가 된다.

다음 단계로 인지가 발달하고 저급문화 곧 원시문화 사회에서 고급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신화는 좀더 신성한 차원으로 줄달음칠 수밖에 없었다.

천신 곧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은 하느님의 아들로 인간 세계를 계속 동경하게 된다. 환웅을 맞이하는 토템신화 풀이는 이제 곰 풀이 서사무가든, 범 풀이 서사무가든 양자 택일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환웅이 남성이니 마땅히 지상의 여성 토템만이 환웅의 짝이 될 수 있다. 범이 정녕 여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M. 엘리어드는 일찍이 통과제의(通過祭儀) 중 재생모티브와 곰의 상관성을 지적하였다. 곧, 곰과 여성과 재생 모티브와 곰의 존재의 상관성을, 그리고 그 양자가 지닌 여성원리와의 상관성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곰과 여성과 재생 모티브는 일체로 포착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급 토템신화는 고급문화시대[人間英雄時代]를 맞으면서 신화를 바꿔 간 것이다.

이렇게 두 단계, 곧 토템사회의 제의(祭儀)와 고급문화 제의의 역사적 상황을 거쳐서 단군신화는 탄생하게 된 것이다.

여신인 곰 여인(곰네)과 환웅신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간(半神半人間)적 존재가 단군성조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분이듯이 단군신화도 새 고급신화를 잉태하기 위해 힘든 절차와 의례상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군신화는 오늘날 단순 신화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그 신화는 또 토털사회나 마찬가지로 단군난테본풀이(단군탄생풀이)로 진행되었을 것이니 이것이 왜정 때까지 남아 있었던 구월산 일대의 천손하강(天孫下降) 신화풀이다.

바로 이것이다. 신화를 비롯하여 무가든 민요든 우리는 신나게 부르고 울동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어야 직성이 풀렸던 개성이 강한 신명 깊은 민족이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문화의 큰 특징으로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것이다.

남산(南山)은 중구와 용산구에 경계하고 있는 높이 262m 정도 밖에 안 되는 산이다.

서울의 남산, 경주의 남산, 강릉의 남산 등 대대 각 지역에 산재한 남산은 풍수지리학상으로 안산(案山)에 해당하는데 서울의 남산은 안산 겸 주작(朱雀)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이태조가 한양에 터를 잡고 이곳 남산의 정상에 목멱산신사(木覓山神祠)를 지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면서 산 이름까지 목멱산이라 명명했다.

조선조 중기까지 국가에서 봄·가을로 초제(醮祭)를 지냈고 큰 신을 모셨기에 국사당제(國師堂祭)라 일러 왔다. 특히 조선조 말기 명성황후가 국가 안위를 걱정하여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격조가 높은 신당이었는지 알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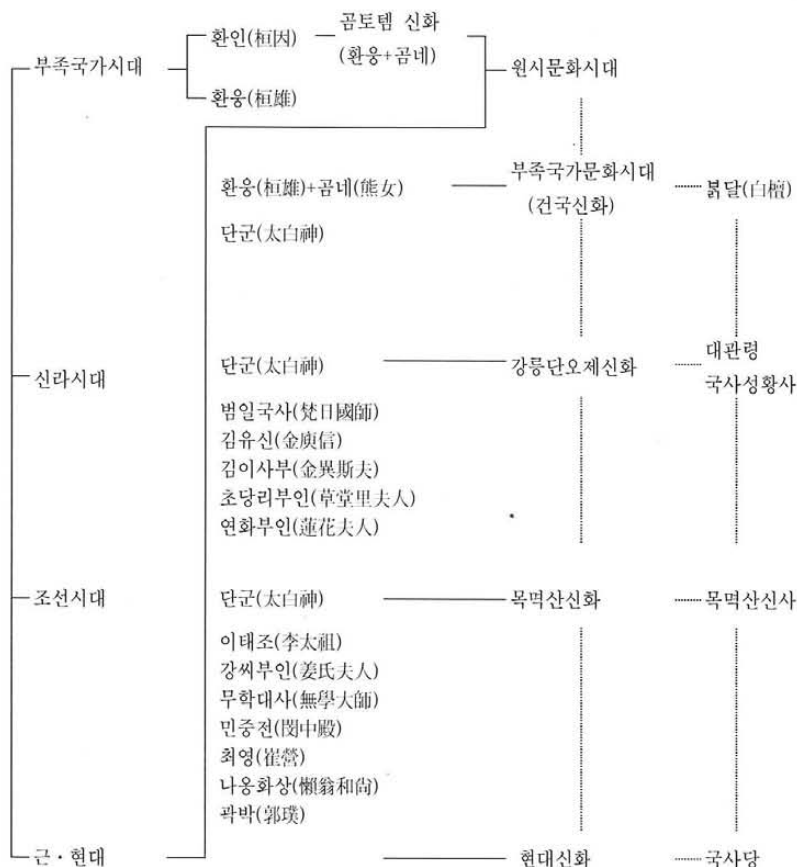
그러나, 이 땅을 강점했던 일제는 1925년 그들의 신당인 신사(神社)를 짓기 위해 국사당을 헐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민족혼이 서려 있는 소나무를 거세하고 망국수(亡國樹)인 아카시아까지 잔뜩 심어 놓았으니 저들의 문화정책이라는 허

을 좋은 구호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국사당에는 한국의 역사를 창조한 단군신으로부터 최근세사의 주인공인 명성황후신까지 등장한다. 그뿐 아니라 왕조를 초월한 민족신 모두가 모여 있다는 점에서 호국신과 국토신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한국인은 어떤 산악신과 바다신, 그리고 산천신을 모시고 살아왔는가.

3면이 바다인 한국인은 삼해신(三海神)을 모시고 있는데 동해(東海)의 양양(襄陽)과 남해의 나주(羅州), 서해의 풍천(豐川) 해상신이 그것이다.

강 또한 용신이 있어 풍농·풍어를 가져다 주는 곳으로 여겨, 남쪽의 웅진(熊津·公州)·가야진(伽倻津·梁山), 중앙의 한강(漢江), 서쪽의 덕진(德津·長湍)·평양강(平壤江)·압록강(義州) 그리고 북쪽의 두만강(豆滿江·慶源)에 칠독신(七瀆神)을 두었다.

또한 사악신과 산천신은 다음과 같다.

○ 사악신 : 남쪽의 지리산(智異山·南原)

중앙의 삼각산(三角山·서울)

서쪽의 송악신(松嶽神·開城)

북쪽의 비백산(鼻白山·定平)

○ 산천신(山川神)

● 산신(山神)

동쪽 : 치악산(雉岳山·原州)

남쪽 : 계룡산(公州)·죽령산(竹嶺山)·오불산(五佛山·蔚山)·주
홀산(主屹山·聞慶)·금성산(錦城山·羅州)·한라산(漢拏
山·濟州)

중앙 : 목멱산(木覓山·서울)

서쪽 : 오관산(五冠山·長湍)·우이산(牛耳山·海州)·마니산(摩
尼山·江華)

북쪽 : 감악산(紺嶽山·積城)·의관령(義館嶺·淮陽)·백두산(白
頭山·甲山)

● 천신(川神)

남쪽 : 양진명소(揚津溟所·忠州)·양진(楊津·楊州)

서쪽 : 장산곶(長山串·長湍)·하사진송곶(河斯津松串·安岳)·
청천강(淸川江·安州)·구진익수(九津瀾水·平壤)

북쪽 : 덕진명소(德津溟所·淮陽)·비류수(沸流水·永興)

위에 열거한 바대로 여러 한국신의 배열에서 서울의 산천신들

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곧, 사악신과 삼각산신, 칠독신의 한강신, 산신의 목멱산신이 한국의 정(正)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한국정신문화의 중심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가평에 가보면 ‘줄 바위’가 있다.

이성계가 줄을 타고 강원도 금강산에서 경기도 용문산으로 해서 관악산 북한산으로 내려왔다. 한국의 산 기운은 금강산에서 시작되어 서울 남산 끝자락에서 끝나는데 산 기운이 모두 남산에 가 뭉쳐 있다는 것이다. 줄은 산의 맥을 뜻한다. 이성계는 함경도에서 정감과 같이 산의 맥을 따라 내려왔는데 정감은 북악산에 자리잡고, 이성계는 남산에 자리잡았다. 이성계가 정감에게 “이 자리는 5대를 해 먹을 자리이고 북악산은 10대를 해 먹을 자리이니 내가 5대를 해 먹을 테니 양보해라.”해서 정감이 양보를 해주었다. 그리하여 이씨 왕조가 남산을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¹⁾

한국인은 풍수지리학적 맥락에서 왕도를 잡는다. 신라 경주, 백제 부여, 고려 송도의 기(氣)가 끝나고 이어진 왕조의 기가 조선조의 기인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인왕산 국사당에 있는 무신도는 중요민속자료 제 17호로 지정되어 있다. 무신도에 대해 이능화(李能和)는 그의 《조선무속고 朝鮮巫俗考》(1927)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4년(1404) 이조(吏曹)에게 명령하여 남산을 봉(封)하여 목멱대왕으로 삼은 뒤 향대부(鄕大夫)과 사서(士庶)는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여지승람에 의하면 목멱신사는 목멱산 마루에 있어 항상 춘추로 제를 행하였다고 한다.

오주연문(五洲衍文)에 의하면 경성 목멱산 잠두봉 국사당 음사(京城木覓山 蠶頭峯 國師堂 淫祀)라 하였고 목멱산신 정사시(亭祀時)에는

1) 제보자 : 김호열(남, 79세, 경기도 가평군 화악2리), 2000. 8. 4., 김선풍 조사.

전사청(典祀廳)을 속칭 국사당이라 했다. 거기에는 고려 공민왕, 본조(本朝) 승(僧) 무학(無學), 고려 승(僧) 나옹(懶翁), 서역(西域) 승(僧) 지공상(指空像) 및 기타 제신상(諸神像)을 걸어 놓았으며, 또 맹자상(盲者像)과 소녀상(少女像)이 있는데 소녀상은 두신(痘神)이라 하여 신전에 지분(脂粉) 등을 베풀어 지나치게 설혹(褻惑)하였고, 기도 또한 성대히 베풀어 나라에서도 금하지 못했다.

이상 내용에서 살핀 대로 이태조는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뒤 남산을 목멱대왕으로 봉하고 신성시하여 일반인들이 제사할 수 없도록 금하였으니 가히 국제적(國祭的) 성격의 제의에 해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태종 때는 3신과 이태조, 무학대사 등을 모시고 국사당이라 하였으니 당의 유래가 550~560년 전으로 소급된다.

인왕산 국사당의 신위는 다음과 같다.

나옹화상신	삼불 제석 신	무학 대사 신	강 씨 부 인 신	호 구 아 씨	최 영 장 군 신	별 상 신	산신
철성신							이성계신
							단군신
용궁신							신장신
							곽곽선생신
민중전신							창부씨신

《세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남산에 올라가서 목멱산사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니 가히 국토신(國土神)으로 섬겨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 경도한성부조의 “목멱산신사가 도성의 남산 꼭대기에 있어 소사(小祀)로 제를 지낸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멱산 산신당은 국제(國祭)를 지낸 당이기 때문에 국사당이라 명명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며 부정을 가시는 행사가 그 어느 당곳보다 엄했을 것으로 보며 큰 정성을 기울였던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에는 목멱산신사와 더불어 백악산신사(白岳山神祠)가 있다. 백악산은 북악산(北岳山)을 말하는데 당내에는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상을 모시고 있다.

한국의 신은 음양을 갖추고 있다. 남쪽 목멱산에 국토신인 남신을 모셨고, 북쪽 백악산에는 여신인 정녀부인을 모셨으니, 이는 태백산이 남신인데 비해 태백산 옆에 있는 함백산이 여신인 것과 그 궤(軌)를 같이 한다.

이 같은 깊은 사연으로 보면 태조 때의 주신은 백두옹(白頭翁)인 단군신이 주신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역시 뿌리를 아는 왕답지 아니한가.

그 당시 뿌리도 모르고 유학에 찌들어 있던 권필(權畢, 1569~1612)은 죽음을 자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다.

석주(石州) 권필은 어렸을 때 북악 꼭대기에 올라 놀다가, “도대체 조그마한 산신이 무엇이기에 이 대명천지에 못사람들이 우러러 믿는 단 말인가.”라 뇌이며 객기가 들었는지 신사 안의 정녀부인 신위 화상 족자를 발기발기 찢어 버리고 만다. 못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 급실거리는 모양이 기이하기도 하고 아니꼽기도 해서 그렇게 한 짓인데 그 날 밤 꿈에 하얀 저고리에 청색치마를 두른 나이 어린 예쁜 처녀가 나타나서 화를 잔뜩낸 채 나무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느님의 따님으로 하느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국토란 남자신에게 시집은 정녀부인이다. 하느님께서 고려의 운세가 다 되어 이씨를 도와서 한양에 도움을 정하고 국토신으로 하여금 남산에 날아와서 조선을 튼튼히 지키게 하고 나를 각별히 여기 백악으로 내려 보내셔서 남편과 함께 나라를 지키게 하셨다. 이제 2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어린 아이에게 모욕을 당하였으니 원수를 갚겠노라.” 하고 사라진다.

꿈결이지만 정녀부인 화상 그대로라 불안한 느낌이 평생 그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자리하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권필은 유희분(柳希奮)을 풍자한 궁류시(宮柳詩)를 썼는데, 그 시화를 입고 함경도로 귀양 가게 된다. 그 날 저녁 동대문 밖 여관방에서 술 한 잔하고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정녀부인이 나타나서, “이제 나의 원한을 풀게 되었노라.” 하며 등을 돌려 사라지니 석주는 그 날 밤 숨을 거두고 생을 마감하였다.

한편 남산의 신은 남신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네를 뛰어 신을 즐겁게 해주었던 것이다.

단오날 젊은 여인네들이 단오빔을 입고 한강변의 버드나무와 남산의 소나무에 그네를 매고 그네를 뛰었는데, 마치 신선이 날아오르는 것같이 시인의 눈에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빔’이란 신성공간에서 입는 예복이다. 빔은 비움이라고도 하는데 ‘빌다’에서 나온 전성명사로 해석된다. 곧, 신에게 빌 때 입는 예복이 빔인 것이다. 이규보는 그네를 일러 ‘반선희(半仙戲)’라 하였다. 단오빔을 입은 여인은 이미 신성공간의 선녀요, 제의공간의 사제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목멱산 남신과 백악산 여신은 호국신이요, 국토신의 위상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건국신화, 강릉단오제신화, 그리고 목멱산신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신화구조를 대강 살펴보았다.

단국신화라는 무격신화가 다름 아닌 건국신화였음을 증명하였다. ‘중귀신속(重鬼神俗)’이나 ‘유지귀신사(唯知鬼神事)’라는 옛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민족은 무속적 신앙심이 강했던 민족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물유신(萬物有神)’이라는 신관(神觀)을 갖고 있어 신은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 신령이 있다고 믿기도 했다.

원시시대에는 곰토텐 사상과 범토텐 사상이 가장 큰 줄기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고금문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신격(神格)이 고차원적으로 발전해야 할 시대적 상황 때문에 천신의 아들 환웅이 하강하여 ‘곰네(곰여인)’와의 사이에서 단군을 낳았고 시조신화(건

국신화)로 승화되어 갔다.

이는 철저하게 서사무가 형태로 이어져 왔던 것이니 신화와 놀이, 문화의 습합(習合) 관계 등 또 다른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강릉단오제에서의 관노가면회는 성황당의 제신과 인간과의 한바탕 놀이요 곳이다. 신과 어울려 하나로 이루어진 상태, 곧 접신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신과 가까이 만나게 된 것임을 알았다. ‘신난다’, ‘신명난다’는 말은 신(神)과 기(起 또는 來)의 합성어이다.

신과 같은 기(氣)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신의 모습과 실체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난다’·‘신명난다’는 말이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뜻과 신이 들려 내면으로부터 신기(神氣)가 올라오는 상태를 아울러 말이라고 본다. 신을 발견하고 만났던 우리네 선조의 슬기도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3) 성웅 이순신장군축제

민속(folklore)이라는 단어 속에는 ‘민간의 전승’, ‘민간의 풍속’이라는 뜻 외에 ‘민간의 지식(the knowledge of folk)’이라는 뜻이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세시풍속, 축제, 무가, 민요, 신화, 전설, 민담, 속담, 수수께끼, 금기어, 탈춤, 통과 의례와 같은 정신민속은 물론이려니와 물질민속 속에도 각기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민간지식과 민족혼을 간직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성웅 이순신장군 설화의 특징은 어디에 있으며, 영국의 넬슨 제독에 비견되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중구의 축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한국인은 삶의 주기(週期)를 삼분화(三分化)시키는 민족이다. 우선, 세시풍속 중 3대 명절을 든다면 설·단오·추석이 될 것이다. 명절의 개념을 분류함에 있어 우리는 신성음식이라 할 수 있는

부슴과 신성의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성의상인 빔에는 설빔, 단오빔, 추석빔이 있다. 유독 다른 명절보다도 이들 명절에 남·북한 공히 빔을 차려 입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바로 이들이 한국적 세시축제요 세시명절이기 때문이다.

서구식으로는 세시풍속을 ‘calendar custom’ 또는 ‘periodic festival’, ‘seasonal festival’, ‘cyclical rite’로 표현한다.

calendar custom이란 현재도 관행되고 있는 관습, 풍습이란 표현일 것이다. periodic festival이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년 단위의 축제란 뜻일 것이며, seasonal festival이란 계절적으로 다가오는 축제에 역점을 둔 말이고, cyclical rite이란 말은 세시풍속이란 것도 의례(儀禮)의 한 종류에 속해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세시풍속이란 관습인 동시에 축제요, 의례라는 말로 귀결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를 세 가지 속성 중 어떤 면(面)을 국제화 사회에 발맞추어 세계화시키고 관광자원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계절별 특성에 따라 계승되어 온 우리의 고유 세시를 중심으로 먼저 봄의 축제, 여름의 축제, 가을의 축제, 겨울의 축제로 나누어 세시풍속을 관광특성화 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경계해야 할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봄의 축제는 정월 대보름, 여름의 축제는 단오, 가을의 축제는 추석, 겨울의 축제는 동지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계절별, 그리고 지역별 세시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문화의 지식체계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우선하여 개발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총체적 축제는 제의, 놀이, 난장 등의 어울림의 장(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엑스포와 같은 성격의 축제행사로 각 지역의 자연관광 상품과 연계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간 한국인은 점잖은 예의지국의 양반임을 자칭해 오면서 ‘할거리’(참여), ‘먹거리’(음식), ‘볼거리’(관광)를 제한해 왔다. 세시풍속이

아무리 좋다 해도 세시풍속 자체만 보고자 물려드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자명한 일이다. 축제를 벌이되 축제의 3대 거리인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가 없어서는 그 축제는 일단 세계화, 관광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축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속성을 살려야 할 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신바람’과 ‘멋’을 들 수 있다. 흔히 ‘한’을 그 속에서 찾기도 한다. 한스러운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고, 누구도 허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삭이면서 다져온 비에 속에서 우리의 미의식으로 승화된 것이 바로 한(恨)이다.

신바람은 있어도 한바람은 없고, 신풀이나 한풀이로 표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음(-)과 양(+의 이분법적 지식체계 구조를 살피게 된다. 행위대상(行爲對象)만을 놓고 볼 때 풀이는 음의 세계이고 바람은 양의 세계이다. 풀이는 신의 뉘, 사자의 뉘를 풀어준다는 말이다. 그들을 풀어줌으로써 사자의 원한을 달랜다. 최영 장군의 한풀이 놀이가 발생하고 단종의 제의 놀이가 발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놀이판의 구조를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 > 한국 축제의 지식체계 분류

위의 도표는 호이징하의 이론을 적용하여 필자가 만든 것이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신풀이를 할 때 가락과 사설로 우리는 한을 풀어나갔던 것이다.

신풀이는 신의 위대성에 대한 풀이요, 그의 난데본(본향)에 대한 풀이로 대개 전통 축제판에서는 굿노래 가사와 그 가락의 흐름으로 풀어나간다. 간혹 악신에 대해서는 저주의 사설과 빙음으로 맺힌 고리 또는 매듭을 풀어나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노릇판에는 신명판과 재액판이 있고, 맺힌 고리를 푸는 고리푸리판과 한 맺힌 이들을 풀어 먹이고 달래는 판이 있다.

한편, 놀이의 경우는 굿판에서 춤과 연기로, 또는 가면극으로 나타난다. 가면으로 신의 모습을 만들어 신의 재림을 뜻하기도 하며, 춤의 역동성으로 신을 찬양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의 세계는 양의 세계이다. 신과 사자를 형상화시켜 풀어나가는 음의 세계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희원을 표현한 양의 세계가 어우러진 한바탕의 판이 굿놀이판 곧 한국적 축제의 장(場)이다. 그러니 굿판 속의 인간의 놀이는 놀이판이 아닌 바람판에 속하며, 이들 풀이판과 바람판이 어울려 굿판의 분위기는 신바람판으로 무르익어 간다. 풍(風)을 고어로 ‘발암’이라 함은 발양(發陽)의 변음이니 양기를 발동하는 것은 바람(風)이다. 그야말로 굿판은 신과 인간이 같이 즐기는 신인공연(神人共宴)의 장(場)이라 할 수 있는 바, 한국적 음과 양의 2분법적 조화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종교를 춤으로 연출한다.”고 하거니와 한국 종교의 현장성 또한 신바람의 놀이 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다. 다시 말해, 풍자와 해학 속에서 발생한 한국 고유의 멋 또한 이들 신풀이와 신바람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놀음판은 놀음놀이의 공간적 개념으로 그것은 대체로 신을 위한 춤판으로 잡색의 형태도 띄게 된다.

프랑스의 까이요와(Roger Caillouis)는 서구 사회 축제문화의 기본적

인 속성과 특질을 파이다(Paidia : rule), 루두스(Ludus : fantasy)라는 두 축(axes)과 아곤(Agôn : 경쟁), 알레아(Alea : 운수), 미미크리(Mimicry : 모의), 일링크스(Ilinx : 현기)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놀이와 가면 놀음, 노름, 난장 등이 연출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장(祝祭場)은 노래와 춤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과 경축적(競逐的) 의미의 놀이판이 있어 축제는 더욱 역동성 있게 진행되어 나간다. 물론 이곳에서도 미미크리나 아곤 등은 상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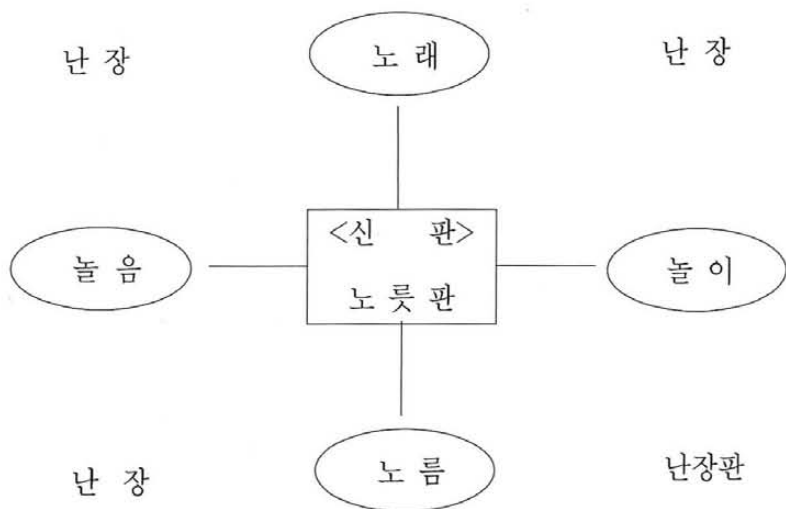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적 축제장은 난장이 서야 흥청거린다. 난장 없는 축제는 한국의 축제문화에서는 찾기 힘들다. 특히 부여의 <은산별신제>에서는 난장을 튼 외지 상인들이 기후 관계로 재미를 못 봤을 때는 며칠간 상당(上堂)의 ‘꽃내리기’를 연기한다. 이것이 한국 신의 인간적 휴머니즘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수수께끼로 죽음의 내기를 하기도 했다. 김시습(金時習)의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대로 저포놀이를 해서 운명을 점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굿판·아수라판·놀이판 등에 나타난 대로 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판의 구조 속에서 놀이판의 미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판의 규모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일정치 않다. 개인적인 껍판 판판이 있는가 하면, 탈판·소리판·난장판·춤판처럼 규모가 큰 것이 있다. 놀이로서의 의미는 큰 규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적 난장판이 어우러지는 판 구조는 아래 도표와 같다.

오늘날의 놀이판이나 탈(가면) 속에는 어린이나 미개인의 시가 들어 있다. 그것은 일상의 평범성을 뛰어넘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것은 놀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놀이는 모든 과거를 형상화하고 신의 세계를 구현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각 지역 지신밟기나 농악대에서도 그 옛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데 그야말로 놀이판은 신성한 성역, 생활의 마당, 가설 놀이판으로 되어 있으며 장식은 신상, 신대, 신기, 영기, 꽃 등 미려하게 꾸민 극락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표 2> 난장판의 구조

까이요와의 모순은 변장연극과 변장가면은 있되 신들의 연극, 신들의 대화, 신들의 형상화, 집단의 형상화 내지 구현화가 빠져 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서구축제와 우리 축제의 변별성이다.

요컨대 한국인의 얼을 심어주는 놀이문화라고 할진댄 굿놀이를 중심으로 한 놀이판과 조상숭배의 미풍이 들어있는 제의 공간(제사·축제)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의공간(가설서낭당)과 소규모의 난장도 제공하여 축제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한국적 놀이 상황(context)에서 아곤과 알레아·미미크리·일링크스를 스스로 체감하고, 축제와 놀이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화를 위해 관광적 차원에서

서구적 놀이문화와의 접목관계(接木關係)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원래 경상도 문화권(文化圈)은 경주문화권(慶州文化圈)과 더불어 상주문화권(尙州文化圈)을 총칭해 부르는 말이다. 경주가 경상남부권을 대표하고 있다면 상주는 경상북부권을 대표하고 있다.

경상북부권에는 상주 이외에도 예천(醴泉)·영주(榮州) 문화가 각기 역사적으로 독특한 문화소를 지니고 있어 이들 세 지역의 문화소의 통합적 이해가 있어야 그 본령(本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곳이 유교적 정체성이 두드러지고 유교적 삶의 터전으로 자리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문화적 사상과 배경이 있었다. 우선 이곳 문화를 주도(主導)해 온 인물 중에는 유학자가 가장 많다. 유학적 학자층이 두텁다보니 그들 생(生)을 기탁했던 유교문화제가 타문화권보다 많았고 사고법(思考法)이나 지식체계(知識體系)마저도 유가적 사유체제로 굳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지식자원을 유교문화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몇 십년 전부터 인류는 지방문화특소(地方文化特素 : oikotype)를 찾기에 열을 올려 왔다. 21세기부터는 현실로 다가온 과제요, 지향점이 될 것이다.

문화는 경제와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 지식사회·정보화시대·국제관광화시대일수록 이 같은 욕망은 점점 그 농도를 더해 갈 것으로 추단된다.

양보다는 질이, 단선보다는 복선이, 일양(一樣)보다는 다양(多樣)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되고, 정보화사회가 되고 여가를 즐기다보니 양질의 정보와 관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간 유교적 관광은 도외시한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시민이 될수록 양질의 관광을 요구할 것이며, 관광수요자들은 미(未) 체험의 교양습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방법이 요구된다. 어찌피 관광의 질적 변화와 건전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광화 상품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며, 자연 유교문화의 관광화 상품 개발도 다양한 변모와 더불어 질적 추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종래 한국적 전통축제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치중해 왔다. 물론 이들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금세기의 관광은 관광 대상의 질적 체험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앞으로의 축제의 관광화 사업은 자연적 여건과 문화적 유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를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을 상품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지역주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고감도의 어울림의 한판 한판을 꾸며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전통민속문화 관광자원 개발의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일차적으로 전통민속문화 관광코스는 종교적 입장에서 분류할 때 대략 다음과 같은 코스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 ① 유교 문화 코스
- ② 유·불 문화 코스
- ③ 유·불·무 문화 코스

우선 수요자의 기호에 따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재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어떤 이는 유교문화만을 오롯 보고 싶어할 것이고, 어떤 이는 유·불 문화의 습합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이는 무·불·유 문화의 색다른 특색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전통문화 관광에는 필수적으로 볼거리 외에 먹거리, 살거리가 풍부해야 한다. 현재 경상도 음식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맛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짜고 맵고 맛을 못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찰이나 양반가의 음식만큼은 예외임을 인정해야 할 것

이다. 안동·예천·상주 등 양반가에는 고풍스러운 옛 맛을 그대로 지닌 가양주나 전통음식이 풍부하다. 양반가의 먹거리 개발이 화급(火急)을 요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아직도 농촌 종가택 규수들은 과거 시집살이를 통해 습득한 비법을 고스란히 몸에 지니며 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규수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고보니 이들 종택(宗宅) 규수들이 세상을 등지기 전에 그분들의 여러 장기—음식 만들기·공예 등—를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조사 발굴·보전할 필요가 있다.

볼거리·먹거리·살거리·할거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유교 문화 볼거리·먹거리·살거리·할거리
- ② 유·불 문화 볼거리·먹거리·살거리·할거리
- ③ 유·불·무 문화 볼거리·먹거리·살거리·할거리

할거리라는 것은 관광의 ‘참여거리’를 말한다. 문화를 보고 먹고 즐기며 좋은 전통관광상품을 사고 나서 2차적으로 몸소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종의 문화수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양반가나 사찰, 무속제의(巫俗祭儀) 속에는 이들 거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문화관광자원이나 공예품 등 관광상품이 많은데, 대략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도자기, 번역본(古書), 제기(향교), 칠기·다기, 유학자·고승의 영정, 부적, 부처상·장승·숫대, 향토술(양반가)·민속주(民俗酒)·사찰주(寺刹酒), 붓·먹, 포 등.

이들은 다른 도와 변별성이 있는 상품개발이 되어야 한다. 어느 지역 축제나 관광 명소에서 볼 수 있는 상품판매는 가치가 없다.

도자기나 기타 상품을 일정 축제기간에는 싸게 팔도록 해서 양질의 관광상품을 축제 참여자가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매충동 정책이 필요하다. 이 같은 구매 충동 방식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들 지방 특산품과 공예품 판매는 시·군(市·郡)의 상설 판매장에 가면 늘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기간 난장을 통해 판매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관광사업은 무엇보다도 관(官)·민(民) 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행정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또한 관광사업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용인 민속촌이 한국관광문화의 센터격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그만큼 각고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행정당국은 일조일석에 큰 효과를 거두려는 욕심을 버리고 양질의 전통문화관광상품을 연차적으로 선보여야 한다. 지나친 모조관광상품(fakelore)은 이제 금세기에는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을 격감시키고 말 것이다. 축제와 상품은 그 자체가 전통지식자원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최상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순신장군 축제를 벌여야 할 것인가 하는 축제화 방안과 제언 몇 가지를 매거(枚擧)하기로 한다.

첫째, 장소 문제를 고려할 때 대운동장 같은 관중이 없는 곳은 피해야 한다. 관중 없는 축제나 공연은 하는 이나 즐기는 이 모두에게 피로감만 더해 준다.

둘째, 축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경기도 여주·이천·광주의 도자기 축제가 국제적으로 성공했듯이 독특한 상품이나 캐릭터를 소재로 한 축제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나 만화의 개발 및 충무로 아트홀을 통한 대형 오페라나 사극·춤이나 공연을 개발하여 중구의 이미지 하면 '충무공 정신'이 떠오르도록 세간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난장 트기는 필수적 행사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축제장에 몰려드는 이유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희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느냐 못하는냐에 따라 축제의 성

패는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축제가 개최될 때 소규모 박람회나 학술대회를 열어 지역 소개를 충분히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호이징하의 말대로 인간은 '축제적 인간'으로서의 두 면모를 체내에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충무공을 기리는 축제는 가장 행렬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중구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내가 내 고장·민속축제를 체험하며 '중구에 산다'는 자긍심을 한껏 갖도록 동별 대항 '충무공 이순신장군 가장행렬대회'를 한다면 큰 호응을 불러 올 것이다.

일곱째, 축제와 놀이는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 단오하면 씨름이나 그네가 연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족의 위기를 극복한 성웅 이순신장군의 축제에는 무술대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남산택견, 노들택견, 통씨름, 활쏘기대회, 석전(石戰), 풍물, 산대놀이, 강강술래, 여원무(女圓舞) 등을 새로 개발하여 경연대회를 한다면 시류(時流)에 맞는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다.

여덟째, 축제는 제의성을 요구한다. 건천동(乾川洞) 이순신장군 생가터에는 큰 표석과 제당을 설치하고, 제향을 올리는 향사는 남산이나 한옥마을에 건립했으면 한다.

아홉째, 율곡축제의 경우 출생지역인 강릉 오죽헌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파주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듯 중구의 충무공축제가 '서울축제의 핵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열 번째, 축제판도 이론이 서야 한다. 율곡학회와 율곡연구원이 있듯 성웅 충무공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학회지와 연구집을 꾸준히 발간해야 한다.

열한 번째, 축제일은 충무공이 탄생한 날이거나, 아니면 중구민의 날로 잡으면 좋을 것이다.

4) 광통교 다리밟기 축제

서울에 사는 상층계급으로부터 중인·평민·부녀자들까지 즐

졌던 놀이는 다리밟기²⁾이다. 명실공히 광통교 다리밟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집단놀이로 석전과 함께 중구민의 기상과 지역문화특소를 질게 안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본 놀이에 대한 문헌적 전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출 처	시 기	장 소	내 용
완서 잡기	16일 밤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자들이 때를 지어 다리 있는 곳에 놀 • 짝을 지어 다리를 건너는 것을 액막이 [도액(度厄)]이라 함
지봉 유설	정월 보름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름날 밤의 다리밟기는 고려 때부터 시작됨 • 태평시대에는 매우 성행(남녀들이 밤새 도록 줄을 이을 정도) • 법관들이 엄금하여 어긴 자는 체포토록 했음 • 부녀자들의 다리밟기가 없어졌음
경도 잡지	정월 보름	대광통교 소광통교 수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가에서 종소리를 듣고 난 후 다리를 밟음 • 다리를 밟으면 다리[각(脚)]에 병이 나지 않음 • 예에 따라 통행금지를 완화함 •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룸 • 악기소리로 난장판이 벌어짐

2)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국도팔영(國都八詠) 중 통교제월(通橋霽月)이 있다. 이 때문에 광통교 다리밟기가 더욱 유명해졌다고 본다. 국도팔영은 다음과 같다. 필운화유(弼雲花柳 : 필운대의 꽃과 버들), 압구범주(鴨鷗泛舟 : 한강변 압구정의 배 띄우기), 삼청녹음(三清綠陰 : 북악 삼청동의 시원한 녹음), 자각관등(紫閣觀燈 : 자하골 창의문에서 보는 관등놀이), 청계관풍(淸溪觀楓 : 靑楓溪의 단풍놀이), 반지상련(盤池賞蓮 : 서부 盤松亭의 西池 연꽃 구경), 세검빙폭(洗劍水瀑 : 세검정 계류의 시원한 폭포), 통교제월(通橋霽月 : 광통교에서 보는 비 개인 후의 맑은 달).

<p>열양 세시 기</p>	<p>정월 보름</p>	<p>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리 12개를 건너면 12달 동안의 액을 막는다고 함 · 위로는 재상과 귀인을 비롯하여 시골의 서민까지 모두 참여 · 가마탄 사람, 말을 탄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나막신을 신은 이들로 거리를 가득 메움 · 악기와 술병이 사람 모이는 곳마다 벌어짐 · 1년 중의 놀이가 정월보름과 사월초파일 가장 성함 · 해마다 이 두 밤에는 임금이 명령을 내려 야간통행 금지를 해제함
<p>동국 세시 기</p>	<p>정월 보름</p>	<p>대광통교 소광통교 수표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신각의 종소리를 듣고 각처의 다리를 밟음 · 인파의 행렬은 밤이 새도록 끊이지 않음 · 교(橋)가 다리[각(脚)]와 발음이 같으므로 다리를 밟으면 1년 동안 다리[각(脚)]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함 ·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치고 통소를 불기도 하여 매우 소란
<p>만연 사</p>	<p>정월 보름</p>	<p>광교 수표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리마다 밟음 · 주백병(走百病)이라 함
<p>답교 곡</p>	<p>정월 보름</p>	<p>장안의 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랫가락과 젓대소리로 흥겨우며 소란스러움 · 다리 위에서 다리밟기를 하고, 노래와 춤추는 사람들이 있음 · 밝은 달아래 광대들이 놀고, 생황과 노랫소리가 어지럽게 들림 ·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밟음

조선 의 향토 오락	정월 보름	서울 시내의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시내에 놓인 다리를 전부 찾아다니며 밟음 · 다리를 다 밟으면 일년내내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함
조선 상식	정월 보름	종가 근처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종 이후 다리 밟기 성함 · 종가로 모여들어 보신각 종소리를 듣고 각 곳에 있는 다리를 밤새도록 밟음 · 어깨와 허리가 부딪힐 정도로 붐빔 · 날나리와 장고를 울리고 시도 읊기도 함 · 달을 보며 1년 동안 좋은 일이 있기를 빕 · 14일 밤에 상류층 사람들의 ‘양반답교’ · 부녀자들은 14, 15일을 피하여 16일날 다리 밟음 · 조선 중엽 이후 부녀자의 문밖 출입을 심하게 단속하여 부녀자의 다리밟기는 자취를 감춤

그렇다면 이 놀이가 어떤 정신 하에서 놀이화된 것인지 그 문화적 배경부터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리를 밟으면 다리[脚]가 튼튼해지고 일년 내내 무병하다고 믿는 지극히 간단한 유감주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달이 가장 밝은 밤에 서울에 사는 상층계급과 중인계급 그리고 평민·부녀자, 이들 세 계급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축제는 1년 중 이 때 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9시만 되면 출입이 금지되었던 조선 사회의 남정네들이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이 때뿐이었다. 그들은 보신각의 종소리를 듣고 나서 12다리를 걷게 된다. 12다리를 굳이 고집하는 것은 ‘주백병(走百病)’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 가지 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 날 처녀들은 자기 옷의 옷고름을 몰래 떼어서 청계천에 내 버리기도 한다. 이는 자기 몸에 있는 액을 옷고름에 담아 없애겠다는 액막이 행위다. 다리밟기는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과부가 구체되는 성적(性的) 공간이기도 하였다.

10여 년 전 KBS 제작국에서는 사라져가는 서울의 답교놀이를 되 살리기 위해 마포대교에서 송파답교놀이보존회 팀이 주축이 된 답 교놀이 시연공연이 있었다. 당시 답교놀이를 총 지휘한 이는 영음 기획의 홍사인(전 KBS PD)으로 당시 박영호·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필자가 3시간여 해설을 맡아 생방송을 한 바 있다.

중구청에서는 작년부터 광통교다리밟기를 재연하였다. 광통교다 리밟기에서는 전 중구민의 한마당이 벌어졌는데 각 동별 다리밟 기 대회가 있었는데 하면 각계 인사와 더불어 한마당 축제도 성 대히 치러졌다.

2005년 광통교다리밟기 시나리오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광통교 다리 밟기 마당-시나리오】

처녀총각 다리밟기

사회 멘트

장 : 그럼 여기서 다리밟기 재연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리밟기 경연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처녀총각 다리밟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유 :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다리밟기 꽃 중의 꽃, 처녀총각 다리 밟기입니다. 오늘 총 OO팀이 신청했습니다. 그럼 중구민 각 동별 다리밟기 경연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자 라이온스 회장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장 : 네! 중구청 김용중 행정 관리국장님 소개합니다.

유 : 네!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하나은행의 000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장 : 네! 다동 무교동 번영회 소수영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유 : 그리고 오늘 해설을 맡아주신 김선풍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장 : 그럼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선풍 교수님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세요. 심사방법을 김선풍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풍 교수 : 처녀총각 다리밟기의 채점은 우선 가장 잘 어울리는 조화성과 협동성, 독창성, 예술성 그리고 관객 호응이 가장 점수를 많이 차지하겠습니다. ……

유 : 그럼 처녀총각 다리밟기는 편의상 3팀이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0분입니다. 자! 첫 번째 출연하실 처녀총각 커플은 이렇습니다.

참가번호 1번이신 000님과 000님! 참가번호 2호이신 000님과 000님! 참가번호 3번이신 000님과 000님!입니다.

장 : 자! 그럼 광통교 위에 지금 나와 있는 국내 최고의 MC겸 경연대회 진행자이신 전영근님과 안병현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처녀총각 커플 중에 첫 번째 경연팀 3팀을 소개합니다. 처녀총각 광통교 다리밟기 출발!

안병현 : 네! 그럼 먼저 처녀총각 다리밟기입니다.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깨끼걸음 바꾸고! 왼쪽 들고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깨끼걸음 오른쪽!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두발걸음 바꾸고!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반복)

사회 멘트

라틴댄스 형식으로! 닭싸움 형식으로! 트위스트 형식으로! 덩덕
쿵으로! 파트너 바꿔서! 등으로 진행(시상식 즉석에서 진행)

처녀총각 다리밟기

광통교 남북단 왕복 즉석에서 처녀와 총각들만이 참여하는 다
리밟기

시상식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 2팀/ 천생연분상 2
팀/ 찰떡궁합상 1팀

사회 멘트

유 : 네! 이렇게 해서 처녀총각 다리밟기를 마치고 병술년 정월
대보름맞이 광통교 다리밟기에 나온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다리밟기 경연을 해 보겠습니다.

장 : 네!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광통교 다리를 밟아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월 대보름에 다리를 밟으면 일년 내내 병이
안 생기고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전문 MC 전영근님께서 진
행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다리밟기

광통교 남북단 왕복 즉석에서 어린이 참여하는 다리밟기

시상식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깜찍상 1팀/ 귀염둥이상 1팀

유 : 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다리밟기를 마치고 중구 각 동
별 다리밟기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 아마도 다리밟기 하면 고려시대부터 내려왔다는데 바로 백

성들이 직접 다리를 밟았다고 하니 각 동별 다리밟기가 역사적인 다리밟기 재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 : 네! 각 동별 50명씩 참가를 하여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중구민 각 동별 다리밟기 경연을 심사해 주실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선풍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엄정한 심사기준을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 멘트

김선풍 교수 :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엇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랜 역사 속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놀이 문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값지고 기쁩니다. 무엇보다 중구청에서 전통과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광통교 다리밟기를 재현하게 된 것에 대하여 민속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중구청 000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사기준은 단체가 동시에 재현을 하는 것으로서 먼저 협동성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단합된 일체성을 보겠고 또한 단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냐 하는 조화성에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독창성과 예술성과 창의성까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객 호응 또한 점수로 가산이 됩니다. 시간은 각 팀당 1분 30초 이내가 됩니다.

장 : 자! 그럼 조금 전 어린이팀 진행을 해주신 국내 최고의 MC 겸 경연대회 진행자이신 전영근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중에 첫 번째 경연팀을 소개합니다. 중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 00동입니다. 중구 각 동별 광통교 다리밟기 출발!

전 : 안녕하세요? 전영근입니다. 다리밟기 시작!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깨끼걸음 바꾸고! 왼쪽 들고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깨끼걸음 오른쪽!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두발걸음 바꾸고!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반복)

기차놀이로 바꾸고! 칙! 칙! 폭! 폭! 칙! 칙! 폭! 폭! 칙! 칙!
 폭! 폭! 칙! 칙! 폭! 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강강술래로 바꾸고!

[강강술래 진양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강강술래/강강술래/달떠온다 달떠온다/강강술래/동해동창 달떠온
 다/강강술래/ 저달이 뉘달인가/강강술래/강호방에 달이라고/강강술
 래/ 강호방은 어디가고/강강술래 저달뜯줄 모르단가/강강술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00동 참가선수에 대하여 박수
 (박수). 올 한해 건강하실 겁니다.

유: 그럼, 계속해서 00동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전영근 : 요령, 전과 동, 또는 다른 형식.

명석말기/ 말자말자 명석말자/ 비온다 명석말자/ 풀자풀
 자 명석풀자/ 별난다 명석풀자

딩덕쿵/ 덩덕쿵 덩덕쿵/ 덩덕쿵/ 덩덕쿵

장 : 이번에는 전문 MC 안병현님이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00동
 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병현 : 네! 그럼 계속해서 다리 밟기입니다.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깨끼걸음 바꾸고! 왼쪽 들고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깨끼걸음 오른쪽!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두발걸음 바꾸고!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반복)
기차놀이로 바꾸고! 칙!칙!폭!폭! 칙!칙!폭!폭!칙!칙! 폭!폭!
칙! 칙! 폭! 폭! 강강술래로 바꾸고!

[강강술래 진양조]

강강술래/강강술래/달떠온다 달떠온다/강강술래/동해동창 달떠온
다/강강술래/ 저달이 누달인가/강강술래/강호방에 달이라고/강강술
래/ 강호방은 어디 가고/강강술래 저달뜯줄 모르단가/강강술래
자! 00동에 대하여 박수(박수)

유 : 계속해서 00동 순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같은 요령으로 계속 15개 동을 진행. 진행 MC와 소개 MC가
함께 진행.

각 동 다리밟기 경연

광통교 남북단 왕복 중구청 각 동 다리밟기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 다리밟기 경연(3보 후 정지 다시 3보 걸음-끼끼
걸음) 참가자/심사위원

시상식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상 2팀/ 대보름상 1팀
/ 끼끼걸음상 2팀/ 광통교 대상 1팀

사회 멘트

장 : 네! 이렇게 해서 15개 동 경연이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재미
있으시죠? 아마도 이 광통교 다리밟기 경연이 전국적으로 파
급되어 국민 건강 놀이문화로 자리잡을 날이 곧 올 겁니다.

유 : 네! 이렇게 해서 각 동별 구민 다리밟기를 마치고 병술년 정
월 대보름맞이 광통교 다리밟기에 참여하신 중구민 여러분

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 다리 밟기 순서입니다. 자! 모두 나와 주십시오.

장 : 네! 모두 광통교 다리를 밟아 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다리를 밟으면 일년 내내 무병장수와 다리가 튼튼해 집니다. 전문 MC 전영근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영근 : 어서 오세요! 나오세요.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깨끼걸음 바꾸고! 왼쪽 들고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깨끼걸음 오른쪽!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두발걸음 바꾸고!

하나! 둘! 셋! 짱! 둘! 둘! 셋! 짱! 셋! 둘! 셋! 짱! 넷!

둘! 셋! 짱! (반복)

(영음기획 홍사인 각본)

2. 청계천변 강독사 전기수의 부활

청계천축제는 지역과 개인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구축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이 축제를 통하여 즐거움과 협동심, 애향심 등의 고취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제를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는 축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은 축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공간과 시간 그리고 축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구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듣기, 보기, 사기, 하기, 먹기, 느끼기, 즐기기 등의 한마당 축제의 시간과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구축제의 행사내용의 정비·개편이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부단히 축제의 활력을 넣은 일이 중요하다. 또한 중구축제의 내용은 내실을 기하고 참여자를 확대하는 중구 지역주민의 축제로서 먼저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역량결집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재정의 확충, 공간의 재구성, 관광자원과의 결합, 전국화·국제화 전략, 환경개선 등의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청계천은 삭막한 도시문화에서 친환경적 도시문화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청계천축제도 청계천축제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만한 소재의 발견이 시급하다. 이에 필자는 청계천 축제의 제1막이 되어야 할 강독사(講讀師) '전기수(傳奇叟)'의 부활을 제창하고자 한다.

강독(講讀)이나 강담(講談)이란 소설책을 낭독 혹은 이야기하는 형태를 말한다. 조수삼(趙秀三, 1762~1847)에 의하여 알려진 전기수(傳奇叟)는 조선 후기의 전문적인 소설강독사 내지 강담사였다. 그는 동대문 밖에 살았는데, 청계천변과 종로를 6일 간격으로 오르내리면서 매일같이 청중을 모아놓고 소설을 구연하였다.³⁾ 이처럼 전기수는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소설을 낭송하였다는

3)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蘇大成·沈清·薛仁貴等傳奇也 月初一日坐第一橋下 二日坐第二橋下 三日坐梨峴 四日坐校洞口 五日坐大寺洞口 六日坐鍾樓前 溯上既自七日 沿而下 下而上 上而又下 終其月也 改月亦如之。(秋齋集 卷7, 紀異, 傳奇叟)

cf. 林榮澤, <18·9世紀 '이야기꾼'과 小說의 發達>, 《古典文學을 찾아서》, 서울, 1976, p. 316.

것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우리 나라의 강독사에 관하여 잠깐 언급한 내용이 있다. 공중(公衆)을 모아 놓고 소설을 구연하는 강독사가 있는가 하면 가정을 돌아다니며 소설책(고담책, 이야기책)을 읽어주던 강독사도 있었다.

이들은 국문소설을 구연할 때, 때로는 웅장스럽게 체스처를 써서 옹호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곱고 살살 녹이는 예쁜 계집의 자태를 짓기도 하는데, 대개 소설의 내용에 따라 백태(百態)를 연출해 나갔다.

이와 같은 구연(口演)의 형식은 국문소설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일 수 있다. 구연이라는 방법은 필연적으로 구연상의 현장성(現場性)이 소설에 간접할 여지를 주었다. 전기수는 청중 앞에서 소설을 구연하다가 긴밀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일부러 낭송을 중단한다. 하회(下回)가 궁금해진 청중이 다투어 돈을 던져주면 그 다음을 낭송해 주곤 하였으니 이를 ‘요전법(邀傳法)’이라 한다.

청중의 동태에 민감한 전기수들은 소설을 낭송하는 가운데 결코 대본대로만 읽어 나갔던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의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야기를 꾸밀 수도, 자를 수도 있는 것이 그들의 능사였다. 국문소설은 바로 이들에 의하여 제작되고 재창작되면서 형성되었다. 국문소설이 가지는 구연이라는 성격이 이끌어 온 현장성의 조건은 국문소설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읽는 소설이 아니라, 듣는 소설인 까닭에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와의 맥락 이전에 시청각적으로 대목 대목 그 나름의 흥미와 감동적 요소로 충만되어 있어야 했다. 차라리 전후 문맥보다는 장면 장면의 인상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국문소설에 있어서 비 논리성을 용인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된다. 구연되는 국문소설의 경우, 부분은 그것대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청중의 기대를 외면하고서까지 전체와의 비중을 따져서 어떤 부분이 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

각할 수 없다. 구연이라는 시청각 과정에 의하여 소설을 접하게 되는 민중들은 소설의 사건을 계기적 구성에서보다는 구연의 여러 가지 조건인 사실이나 몸짓, 표정, 음성 등의 동시적 결합을 통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본격적 국문소설은 문자화가 결코 그 본령일 수 없다. 오히려 문자화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구연을 위한 하나의 비망적(備忘的) 대본의 구실을 하는 데 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⁴⁾

그러면 이 같은 직업적 강독사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조선 후기 전기수들의 출현으로 청계천 일대는 새로운 문화의 한 마당이 창출되었으니 이른바 강창사·강담사·강독사의 등장이 그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전문적·직업적인 예능인으로서 이야기꾼의 활동이 특이하다고 보았다. 이 때의 이야기꾼의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즉,

① 강담사(講談師) : 이들의 강담은 이야기, 소설에 취미를 가졌던 지식인에게 직접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글로 옮겨져 한문단편이 되었다.

② 강창사(講唱師) : 판소리 광대로 이들로 말미암아 판소리가 국민적 예술로 상승되고, 이들은 성장된 민중의 사회의식을 대변하였다.

③ 강독사(講讀師) : 직업적으로 소설을 청중에게 낭송하던 계층으로 시가에서 흥행하던 전기수(傳奇叟), 도시 부유층의 가정이나 지방을 순회하던 형태가 있었다. 이들은 소설의 보급, 독자층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문통속소설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에 알맞은 낭독소설로 씌어졌다.⁵⁾

오늘날 판소리 발생의 계기도 기실 알고 보면 청계천을 중심으

4) 김동욱·황패강, 《고소설 연구》, 1998, pp. 200~105.

5) 林榮澤, <18·9世紀 '이야기꾼'과 小說의 發達>,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p. 311.

로 한 전기수와 강담사·강창사·강독사들에 의한 활동이 그 효시가 아닐까 한다. 경기도당굿에서 부르는 창법이나 판소리에서 부르는 창법이 유사한 점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적 관광이나 축제마당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상황에 맞게 원용해야 할 것인가.

5년 전 미국의 동화작가 브라드리(Bradley)가 중앙대학교 연구실에 찾아온 적이 있다. 아직도 한국에 강독사류나 그와 유사한 직업 구연자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찾아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뜸 전기수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후예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고다 공원에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오늘날 전남이나 전북, 충청도 일원에 극소수의 고소설을 전창하는 강독사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들 자체나 국가 문화단체들이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이야말로 어느 분야의 인간문화재보다 먼저 발굴·보존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각설하고, 중구 청계천에 그들을 내세운다면 관광계의 톱뉴스가 될 것이다. 동화작가 브라드리는 필자에게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구득한 강독사의 유니폼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현란한 의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10여 년 전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양산(涼山) 이족의 민속을 조사했을 때 아름답고 위엄이 서린 의상에다가 칼을 찬 강독사가 운동장 한 가운데에서 청중을 웃기고 사로 잡는 광경을 목도한 바 있다. 한국의 전기수도 거지 차림의 초라한 복색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청계천 광장에 내세울 제1호 관광자원은 전기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자면 전기수(강독사)를 뽑는 전국대회를 거쳐 현대판 전기수를 등장시키는 일이 화급(火急)하다.

남산의 지류(支流)라고 할 수 있는 미르내는 용신사상(龍神思想)과 잇대고 있는 내[川]이다. 미르는 용을 상징하고 있으니 용수(龍水) 곧 성수(聖水)로 인해 필연적으로 영웅이 탄생할 길지

(吉地)를 형성하여 이곳에서 성웅 이순신장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박성서는 <스카라 계곡>이란 은유법을 동원하여 가요의 부활을 외치고 있다. 흥미롭게도 그가 언급한 가요의 계곡을 오갔던 가인(歌人)들은 전기수의 후예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제창한 스카라 계곡의 근대사를 들어보자.

‘가요인의 메카’이자 ‘스타의 거리’의 축, ‘스카라 계곡’ ……

‘스카라 계곡’의 중심부, 스카라극장은 한국 대중예술의 산 역사이다.

이렇듯 충무로가 ‘영화인의 거리’라면 스카라극장(옛 수도극장)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은 ‘가요인들의 거리’로 일컬어진다. 이 스카라극장 앞에서 명보극장에 이르는 도로는 복개되기 전 개천이 흘렀고 때때로 장마철이면 냇물이 범람, ‘스카라-명보극장 앞 대로’는 항상 질펀했다. 원로 작사가 반야월을 비롯한 가요인들은 그 당시부터 이곳을 ‘스카라 계곡’이라 명명했고 이 애칭은 가요인의 가슴에 여전히 깊게 각인되어 있다.

이 ‘스카라 계곡’ 일대에는 1956년 대한레코드작가협회를 시작으로 한국가요작가협회, 한국가요예술작가동지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단체의 사무실을 비롯해 미도파 레코드사(후에 지구 레코드사와 그랜드 레코드사로 분리)를 중심으로 한 음반사와 녹음실, 음반 도소매상, 그리고 음악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던 ‘가요의 산실’이자 ‘가요인의 메카’로 원로부터 가수 지망생까지, 24시간 가요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스카라 계곡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 말을 만들게 된 동기는 비가 많이 내리면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수도극장 앞이 대로로 복개되기 전 그 계곡을 타고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스카라 계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카나리아다방, 국제다방, 임다방, 무지개다방, 영산다방, 폭포수다방, 불국사다방 등지에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가수들이 진을 쳤다. 그리고 진고개 식당 주변으로는 스타다방, 명다방, 아폴로다방, 태극다방, 초록다방 등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주로 영화배우들이 모였다……. 명실공히 가요 탄생의 주역이자 요람, 이 일대, 즉 충무로, 명동, 을지로, 청계천 등은 수많은 노래들의 소재가 되었다. 우리나라 문화의 리더이자 선남선녀들의 데이트

코스이기도 했던 이곳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전 국민에게 애창되어온 노래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봄비를 맞으면서 춤무로 걸어갈 때’로 시작되는 ‘서울야곡(현인)’을 비롯해 ‘진고개 신사(최희준)’, ‘안개 낀 장충단공원(배호)’, ‘덕수궁 돌담길(진송남)’, ‘무교동 에레지(정중숙)’까지. 특히 ‘이별의 15메타(남일해)’의 노래 배경은 바로 스카라극장 거리의 건널목이기도 하다.⁶⁾

춤무로 일대의 영화의 거리나 가요의 거리는 우리 근대사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 두 문화도 청계천 상류에서 시작된 문화로 볼진댄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근자 배호의 가요제를 중구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보다 큰 규모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영화의 거리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청계천변 ‘옥쉬다리’의 부활

한국의 귀 설화 중에 신라 경문왕의 귀에 관한 설화가 있다. 소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경문대왕의 귀’, ‘여이설화(驢耳說話)’가 그것이다. 《삼국유사》 권2 48 경문대왕조(景文大王條)에는 ‘세 가지 좋은 일로 임금이 된 응림(鷹廉)’, ‘뱀과 함께 자는 임금’ 이야기와 함께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경문왕은 임금 자리에 오른 뒤에 갑자기 그의 귀가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되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으나 오직 왕의 복두장이(幞頭장이: 예전에 왕이나 벼슬아치가 머리에 쓰던 복두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던 사람)만은 알고 있었다.

6) 박성서, <스카라 계곡-가요, 가요인의 메카>, 《중구문화》, 2005, pp. 120~121.

그는 평생 그 사실을 감히 발설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 이르러 도림사(道林寺)라는 절의 대밭 속으로 들어가 대나무를 향하여 “우리 임금님 귀는 나귀 귀처럼 생겼다.”라고 소리쳤다.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면 대밭으로부터 “우리 임금님 귀는 나귀 귀처럼 생겼다.”는 소리가 났다. 왕은 이것을 싫어하여 대를 베어 버리고 산수유를 심게 하였으나 그 소리는 여전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설화성이 매우 풍부하여 널리 구전되고 있고, 또한 그 분포 지역이 국내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거리가 되어 왔다.

아아르네-툼슨의 ‘마이더스 왕과 당나귀 귀(Midas and the Ass's Ears)’는 기본적으로 ‘당나귀 귀를 가진 사람’, ‘이발사에 의하여 발견된 비밀스러운 육체적 특이성’, ‘주술적인 갈대가 비밀을 폭로하다’와 같은 모티프로써 이루어져 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것으로서, 오비드(Ovid)의 《변신 Metamorphoses》에 보이며, 그 내용은 소아시아 반도의 프리지아(Phrygia)의 왕 마이더스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이더스의 귀가 당나귀 귀로 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프랑스·루마니아·러시아·그리스·아일랜드·칠레와 같은 지역에선 당나귀 귀 외에도 말이나 수산양(山羊)의 귀로도 나타난다고 한다.

한편, 우리의 ‘복두장이’가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에서는 ‘이발사’로, ‘대나무’가 ‘갈대’로 되어 있는 점은 조금 다르다. 아시아권에서의 이 유형의 분포 지역은 우리 나라 외에도 인도·몽고·터키·투르크스탄·키르기즈 등에도 존재함이 확인되었는데, 내용상으로는 각각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주인공들이 모두 당나귀 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⁷⁾

7) 崔南善, <新羅景文王과希臘의 미다스王>, 《怪奇》 1, 1929. 5.

Paik, L.G., <Korean Folk-Tales and Its Relation to Folk-Lores of the West>, 《朝鮮民俗》, 1934. 5.

李寬逸, <景文王說話와 카타르시스>, 《文湖》 4, 1966.

曹喜雄, <韓國說話學史論稿>, 《한실이상보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87.

경문왕 설화 말고 조선조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하자.

“다리 아래에서 원을 꾸짖는다(다릿목 아래서 원 꾸짖기).”는 속담이 있다. 맞대고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잘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남을 꾸짖어 욕한다는 말이다. 이 속담은 세간에 널리 유행하던 속담이어서인지 《순오지 旬五志》에는 ‘교하타쉬(橋下詫倅)’이라고 되어 있고, 《송남잡지 松南雜識》에는 ‘교하질쉬(橋下叱倅)’라고 번역해 놓았다.

《송남잡지》의 주석(註釋)에 보면 안동(安東) 땅에는 남 몰래 산에 들어가서 원님[倅]을 욕할 수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욕쉬산(辱倅山)’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한양 서울사람들이 남 몰래 욕할 수 있는 장소는 고작 청계천 다리 밑이었다. 청계천 다리 밑은 이처럼 정치적·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場)이기도 하였다.

청계천 일대는 중인(中人)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보니 얼치기 반쪽 양반인 중인들의 한(恨)이 서린 지역이었다. 중인뿐이겠는가, 그들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곳도 바로 이 곳 청계천이었다.

조선왕조 임금 중 세심히 민생을 살폈던 이는 숙종과 성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 문학상에도 이들 두 임금은 자주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굳이 어느 분이 더 자주 설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고 묻는다면 숙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광고(廣橋)에 행차했던 성종의 일화 한 결례를 소개해 본다.

이야기 제목이 <광고의 인연>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가을 달 밝은 밤이었다.

평복 차림으로 대궐에서 나온 성종은 무예별감(武藝別監) 몇 사람을 멀찌거리 뒤따르게 하고 고요히 잠든 서울 거리를 이곳저곳 살피고 다녔다.

그 때 무심코 종로 광고 다리 위에서 성중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출지는 않았으나 밤이 깊어 인적이 끊어진 다리 밑에 어떤 흰옷 차림의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수상하게 여긴 성중은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등에 무슨 보통이를 짊어지고 있는 그 사나이는 나이 한 사십 쯤 되어 보이고 옷이 매우 초라한 시골 사람이었다.

왕이 그에게,

“누구요?”

하고 물으니 그는 몹시 반가운 듯이 바싹 다가오며,

“예, 나는 경상도 홍해 땅에서 온 김희동이올시다. 사십이 넘도록 임금님이 사시는 서울 구경을 못하였기에 오래 버르기만 하다가 간신히 노자를 변통해 가지고 나섰는데 잠 잘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 앉아 밤새기를 기다리는 중이오.”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분명히 시골 사람이었다. 이어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택은 뉘시기에 이 밤중에 다니시나요? 보아하니 생김새도 앞전해 보이시는데 혹시 임금님이 계신 집을 아시거든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차피 서울엔 올라왔으니 어질고 착하신 우리 임금님을 찾아뵙고 가야겠소.”

성중은 그의 너무나 순박하고 어수룩함에 도리어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침이를 툇 떼고 말하기를,

“나는 동관 사는 이침지란 사람이오. 임금 계신 곳을 알긴 하오만, 그레 가르쳐 주면 임금님을 뵈옵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오.”

하고 물었다. 시골 사람은 히죽이 웃으며,

“말이 났으니 말이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우리 고을에서 사람마다 말하기를 임금님이 어질고 착하여서 백성들이 아무 걱정없이 잘 산다고 합니다. 내 기왕 올라왔으니 그렇게 어지신 임금께 인사나 여쭙자는 거지요. 또 빈손으로 뵈울 수 없어서 우리 고장에서 나는 해삼과 전복을 좀 짊어지고 왔지요. 그걸 임금님께 드려서 한 때 반찬이나 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레 택이 임금 계신 곳을 아신다니 좀 가르쳐 주시오.”

하였다. 그 때 무감이 가까이 오자, 왕은 가만히 귓속말을 한 다음,

“당신이 이 사람을 따라가 있으면 내 어떻게든지 임금님을 뵈옵도록 해드리리다.”

하여 무감을 따라가게 하였다. 물론 그 시골 사람은 곡절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므로,

“서울 양반은 참 인심도 좋구만!” 하며 무감의 뒤를 따라갔고, 무감은 왕의 분부가 있는 터라 전혀 내색을 보이지 않고, 자기 집에서 묵게 하였다. 그 이튿날 왕은 또 미행으로 무감의 집에 행차하였다. 시골 사람은 매우 반가워하면서,

“이침지는 참말 무던한 사람이외다. 처음 보는 시골 사람을 잊지 않고 또 찾아 주시니, 그런데 임금님은 뵈게 될 수 있는지요?”

하고 물었다.

이 무엄한 언사에 무감은 주먹이 부르르 떨렸으나 왕의 분부가 있었던 만큼 참고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성종은 웃으면서,

“당신의 정성은 무던하오만 벼슬을 못한 사람은 임금님을 뵈옵지 못하는 법이오. 그러니 당신이 임금님을 꼭 뵈오려거든 먼저 벼슬 한 자리를 원하시구려. 내가 되도록 힘써 볼 터이니, 그래야만 임금을 뵈올 수 있소.”

하였다.

시골 사람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 벼슬 이야기가 나오자 어리둥절하여 반신반의로 사양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이 무슨 벼슬을 할 수 있겠소. 그러나 우리동네 박충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충의란 벼슬 좋습디다만, 당신이 무슨 수로 그런 좋은 벼슬을 시켜 주실 수 있겠소. 아무래도 임금님을 뵈올 수 없다면 그냥 돌아갈밖에.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어떻게 연줄이 있으시거든 이거나 임금님께 전해드려 주시오.”

하고 해삼과 전복 썩 보통이를 내어 놓는다. 왕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선하던지 그 충의의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힘써볼 테니 하루만 더 기다려 보오. 그래서 벼슬이 잘 되면 당신 손수 갖다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소.”

하였다. 그날, 성종은 돌아가서 이조에게 명해서 김희동이란 시골 사람을 충의초사(忠義初仕)로 임명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무감의 집에서 이첨지의 회보를 고대하고 있던 김희동은 이윽고 집 주인인 부감이 갖다 주는 영문모를 사모와 관복 그리고 나막신을 받았다.

“당신이 충의 벼슬이 되었으니 지금 곧 의관을 정제한 다음 대궐에 들어가서 상감님께 사은하십시오. 하는 무감의 말이였다. 김희동은 너무도 생각 밖의 일이라 미덥지가 않아,

“그래 이첨지는 어디 갔소? ”

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보았으나 무감은 아무 대꾸도 안하고, 어서 들어가자고 재촉하였다.

이윽고 김희동은 무감에게 안내되어 해삼과 전복집을 챙겨 가지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 때 성종은 마침 조회를 마치고 난 뒤였다. 아주 쉬우리라고만 생각했던 임금 만나는 일이 부닥치고 보니 무척 어려운 노릇이라고 생각하며 김희동은 전도관이 시키는 대로 두 번 절하고 꿇어 엎드렸다. 그런데 위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임금을 보고자 한다니 내가 바로 임금이다. 겁내지 말고 보아라.”

희동이 간신히 머리를 들고 보니 이 어찌된 영문인고? 해와 달을 그린 오색 병풍 앞의 용틀임을 한 붉은 좌상(座床)에 높이 앉아 있는 이는 바로 그 이첨지가 아니인가? 그는 부지불각 중에,

“아니, 이첨지가 어떻게 여기 있소?”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내시와 사알(司諫)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쉬-잇!”

하고 위엄을 주었다. 동시에 모든 신하들의 서릿발 같은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제서야 김희동은 이틀 밤이나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 받던 이첨지인 그가 바로 왕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성종의 전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여러 신하들은 새삼스레히 성은의 망극함을 칭송했다. 김희동은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해삼과 전복 보따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나갔다. 왕은 웃으면서,

“저 물건은 김희동이 나를 위하여 육로 천리 머나먼 길을 지고온 것이니 내가 고맙게 받아먹지 않을 수 없다. 어서 들어오라.”

하였다. 그리고 김희동에게 상금을 많이 내려 금의환양케 하였다. 김희

동은 천을 감격하면서 시골에 내려갔다는 것이다.⁸⁾

본 설화의 주인공 김희동은 바닷가 촌양반이다. 서울의 중인들 처럼 사회나 국가를 상대로 꾸짖는다거나 욕지거리를 하려고 청계천 다리 밑을 찾아간 이가 아니다. 정반대로 어질고 착한 성종을 존경하여 뵈고자 무조건 상경한 순진무구한 시골분이다. 이처럼 청계천 다리 밑은 노자가 떨어진 과객이 잠시 머물러 가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그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쳤고 청계천 다리를 세인들은 찾아갔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인간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는 인격체란 뜻이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지니고 있어 본 것—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은 말을 해야 하는 이성적 동물이다. 하지 않고는 병이 들고 말 것이며, 불의를 보고 느낀다면 죽음을 담보하고서라도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조선왕조 때 신문고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청계천 다리 밑에서는 주로 서민과 중인들이 소위 ‘하고 싶은 말’을 주고 받았고, 홀로 외쳐보기도 하였으니 그것이 ‘욕쉬다리(욕쉬산장)’이요 ‘욕쉬방’이다.

필자는 청계천변에 ‘욕쉬산장’을 만들어 주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그가 외치는 욕은 며느리가 시아비를 향하는 소리일 수 있고, 남편을 향한 저항의 소리일 수 있고, 어른을 몰라보는 젊은이를 향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며, 무능한 정치인을 질타하는 항거의 소리일 수도 있다.

그곳은 개인적으로 갈 수 있지만 단체입장도 허용된 공간이다. 어떻게 보면 현대판 신성공간의 재창출 공간이기도 하다. 욕하는 법도 법도가 있다. 의식적 행위를 거친 욕은 욕이 아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욕말의 철학을 배우면 더욱 좋다. ‘욕쉬산장

8)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9권, 한국문화도서관출판사, 1972, pp. 136~139.

(욕취방)은 유료화되면 더욱 좋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 욕귀산장 옆에 ‘웃음산장’도 개설하면 더욱 좋을 성싶다. 욕을 통해 내면의 앙금을 모두 떨쳐 버린 이들에게 웃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곳이 웃음산장이다.

웃음산장을 졸업한 이들이 가는 또 하나의 코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만 접기로 한다.

4. 청계천변 속담 몇 컬레

과거 광통교 일대에는 점쟁이를 비롯하여 무당패, 걸립패, 기생 등이 많았다. 광통교 일대에서 발생한 ‘광통교 선사가 언짢다면 좋은 법’이란 속담을 소개하기로 한다.

<광통교 선사의 점>은 《용재총화 慵齋叢話》에 나오는 선설화(先說話) 후설화(後說話) 형(型) 속담에 속한다. 즉, 어떤 이야기가 구전되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속담의 대열에 끼어든 것을 말한다.

이야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경을 읽는 장님은 모두 머리를 깎으니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들을 선사(禪師)라고 부르고 있다. 늙은 장님 김을부(金乙富)는 광통교(廣通橋) 다릿목에서 점을 치고 사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점이 맞는 일은 없으니 부인네들은,

“광통교 선사가 언짢다면 좋은 법이야.”

하고들 말했다.

참판(參判) 김현보(金賢甫)의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현보가 자기 아들의 글을 갖다 보고서 말하였다.

“네 글이 아주 변변치 못하다. 과거에 붙을 리 만무하다.”

나중 급제한 사람을 발표하였는데 그 아들이 높직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현보의 동료들은,

“광통교 선사가 언짢다면 좋은 법이라니까.”

하고들 웃었다.⁹⁾

광통교 선사가 잘 된다면 못 되는 것이요, 못 된다면 잘 된다는 뜻으로 그곳 선사의 점풀이를 거꾸로(정반대로) 생각하면 무난하다는 해학적인 속담이다.

다음은 “다동(茶洞)에서 놀았다.”는 근세 속담을 소개한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이나 지방 젊은이들은 서울역을 기점으로 운집하였다.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 속담에 “다방골 잠”이라는 시체말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 다방골로 불렸던 오늘의 다동에는 종로의 육의전에 가게를 가진 상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이 밤늦도록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실컷 잠을 잤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다동은 땅의 생김새가 마치 거북을 닮아서 예로부터 나라에 변란이 생겨도 화를 면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전설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일부러 허름하게 꾸민 대문과는 달리 집안의 화려함은 조선 정부의 높은 관리의 뺨을 찼던 ‘알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동은 오늘날에는 이름난 술집 동네인 무교동과 북쪽을 맞대고 있으면서 낮에는 온통 밥집이고 밤에는 온통 술집이 되는 집들로 들어차 있다. 점심때가 되면 가까운 고층 건물에서 토해내는 ‘유니폼’을 입은 남녀 월급쟁이들이 점심을 때우려고 이곳의 좁은 길을 메우고 또 밤에는 가까운 건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대문과 한

9) 홍기문 외, 《패설작품선집》(1),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p. 369.

강 너머에서 일부러 들어온 사람들까지 먹고 마시고 밤늦도록 ‘노니는’ 곳으로 바뀌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름을 날렸던 ‘낙지 골목’은 재개발 사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만 이곳에는 ‘월드컵’, ‘엠펙이어’와 같은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에 드는 이른바 극장식 술집을 비롯하여 갖가지 오락장과 대중음식점, 맥주홀, 나이트 클럽들이 내노라 하는 미인들을 앞세워 영업을 하고 있다. 강남 지역이 개발되면서 유흥업소가 그 언저리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기는 하나 이곳처럼 밀집된 유흥 거리를 이를 성실지는 않다. 아직은 그런 낌새가 없지만 앞으로 얼마쯤이 지나면 서울의 시체말 속에 “다동에서 놀았다.”는 말이 “다방골 잠” 대신에 쓰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옛날에 상인이 늘어지게 잤던 잠인 다방골 잠만큼이나 뜻이 분명한 질탕하게 놀았음을 상징하는 말이 될 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중구의 문화를 일컬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 문화라고 말한다. 명동과 무교동과 다동과 남대문시장과 수많은 호텔들 위에 떠있는 듯한 중구를 둘러보면 넉넉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중구의 문화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생산문화라고 맞선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의 어머니라는 말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숨막힐 듯한 고층 건물 속의 아주 작은 공간에 촘촘히 박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소비를 창출하여 한국경제를 끌어 나가는 생산 공장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¹⁰⁾

다동에서 이와 같은 속담이 근세사에 생긴 것은 한성권변 때문일시 분명한데 한성권변의 기녀에 대한 논급은 뒷 절로 미룬다.

이밖에 속담으로 “남산골의 셋님” 등이 전하고 있다.

10) 고도원, <중구>, 《서울》, 뿌리깊은 나무, 1992, pp. 176~177.

5. 청계천변 다동의 기방문화

기생(妓生)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를 가지고 흥을 돋는 것을 업으로 삼는 계집, 곧 기녀(妓女)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기생은 오늘날의 몸을 파는 술집 작부와는 차원이 다른 예기(藝妓)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진이와 경우처럼 아무리고 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예(禮)와 인격이 모자라면 몸을 허하지 않았던 특수 집단이었다.

서울에는 궁이 있어 궁중 안의 연희 봉사자 노릇을 한 관기가 있었는데, 그들은 18C부터 산업이 발달하면서 일부 관기들이 조금씩 궁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궁중의 기생들이 민간 상대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탑골공원 뒤편과 마포 지역, 남대문 바깥 등지로 색주가(色酒街)가 형성됐다. 색주가의 위치는 기생들의 주된 일터인 관청과 가까운 곳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궁중 기생들은 활발한 상업으로 거액의 돈을 쥐게 된 신혼 줄부들에게 춤과 노래 그리고 웃음을 팔았다. 이것은 훗날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관기제도(官妓制度)가 폐지되어 관기들이 기생집에 ‘취업’을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로 해석된다. 즉, 공무수행용 차가 은근슬쩍 민간 영업을 하듯, 궁궐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손님 접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색주가가 형성될 당시 “서울의 쇠고기와 어물의 절반 이상을 안주로 소비하는 바람에 서울시민의 찬거리 값이 폭등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기생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기록도 있다.

구한말 조선왕조가 멸망하면서 관기들은 ‘정식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됐다. 생존의 위기에 몰려 궁궐 밖으로 나온 기생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1패, 2패, 3패로 나뉘어 경쟁을 벌였다. 쉽게 말해 이런 구분의 기준은 기생이 얼마나 품격을 갖췄는

나, 남자 손님에게 성적(性的)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하느냐에 따른 것이었다. 1패는 전통적인 조선 관기의 풍속 그대로 임금님 앞에서 가무를 선보였던 품격 있는 1급 기생이며, 2패는 재상집 등에 출입했던 기생들인데 은밀히 매음도 했다고 하여 ‘은군자(隱君子)’에 빗댄 ‘은근짜(慇懃-)라고 불렸다. 가장 천박한 기생은 3패인데 춤과 노래 같은 기예에 능하지 못한 채 잡가나 부르고, 몸을 파는 작부들을 이른다. 그중 관기 출신인 1패 기생들은 당시 고급 요릿집 1호로 태어난 명월관 등의 기생관에서 민간인의 술시중을 들며 전에 없던 새로운 밤문화를 꽃 피운다.¹¹⁾

1909년은 우리나라 기생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해이다. 수백 년간 전통을 이어온 관기제도(官妓制度)가 폐지됐고, 관청에 매여 있던 기생들이 공식적으로 민간사회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상경한 기생들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기생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생조합의 효시는 1911년 조선 정악전습소 학감이었던 하규일이 궁중 여악이 폐지된 뒤, 뿔뿔이 흩어진 기녀들을 불러 모아 설립한 다동조합(茶洞組合)이었다. 다동조합은 서도지역(西道地域) 출신의 기생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가졌다. 이 다동조합에 맞서 서울 출신과 남도 출신 기생들이 모여 광고기생조합(廣橋妓生組合)을 구성하였다.

기생조합들은 1914년부터는 일본식 이름인 ‘권번(券番)’으로 개칭한다. 한성조합은 한성권번으로, 다동조합은 다동권번으로 명칭을 바꿨다. 당시 서울에는 한성권번, 대정권번, 경화권번, 조선권번 등이 있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남원, 개성, 함흥, 진주 등에도 각각 권번이 있었다.

권번에는 1번수(番首), 2번수, 3번수의 우두머리들이 있으며 연령에 따른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엄격했다. 윗사람을 부르는 호칭도 ‘언니’ 한 가지가 아니라 나이 차에 따라 제각각 달랐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 살 많은 기생에게는 ‘언니’, 두 살 위면 ‘형님’, 다섯 살 이상 많으면 ‘아주머니’라고 불렸다. 덧붙여 밤의 꽃이라

11) 김명환·김중식, 《서울의 밤문화》, 생각의 나무, 2006, pp. 22~24.

불리는 기생들답게 각각의 권번은 권번화(券番花)가 정해져 있었다. 한성권번은 모란, 대정권번은 국화, 한남권번은 월계꽃, 경화권번은 해당화가 권번화였다.

권번은 조선시대 기생을 총괄하던 기생처의 후신 역할을 담당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까지 존속되면서 수많은 명기를 배출해 냈다. 당시 한국의 가요계를 주름잡던 이화자(李花子)도 권번 출신이었다. 권번은 기생들의 영업 조직일 뿐만 아니라 기생들에게 노래와 춤, 판소리와 기악 등 능란한 기예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기녀 양성기관이었다.

권번은 기녀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시켰을까? 1934년 월간 《삼천리》는 기생의 양성과정을 밀착 취재한 기사를 실는다. 이에 따르면 대동 강변에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지어 놓고 기생을 지망하는 소녀들에게 갖가지 과목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 커리큘럼을 보면 1학년에게는 가곡, 서화, 수신, 창가, 조선어, 산술, 국어를, 2학년에게는 우조, 시조, 가사, 조선어, 산술, 음악, 국어, 서화, 수신, 창가, 무용을, 3학년에게는 가사, 무용, 잡가, 창가, 조선어, 국어, 동서음악, 서화, 수신, 창가 등을 지도했다.

평양기생학교의 신입생들은 보통학교 6학년을 마친 13~15세의 소녀들이었다. 또 평양권번의 ‘교육 학칙’에 따르면 8세부터 20세까지의 소녀들을 입학시켜 만 3년을 교육시키는데 ‘졸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졸업증서를 받았으니 엄격한 교육기관이었던 셈이다.¹²⁾

그러면 필자가 학계에 처음 소개한 《조선미인보감 朝鮮美人寶鑑》을 통해 중구 다동(茶洞)을 중심으로 한 권번의 풍속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미인보감》은 가로 26cm, 세로 18.5cm의 사육배판 총 312페이지의 활자본(活字本)으로 1918년 7월에 발간되었다.

발행자는 당시 경성신문사장(京城新聞社長)이었던 청류강태랑(靑柳綱太郎)이다.

인쇄자는 심우택(沈禹澤, 京城府 公平洞 五五番地), 인쇄소는 성문사

12) 김명환·김중식, 《서울의 밤문화》, 생각의 나무, 2006, pp. 24~27.

(誠文社, 京城府 黃金町 三丁目), 발행소는 조선연구회(朝鮮研究會, 蓬萊町 一丁目 七七番地)와 신구서림(新舊書林)이 병기(並記)되어 있다.

편자(編者)가 ‘미인보감서’에서 밝혔듯이, ‘조선 전도(全道) 미인의 사진과 기예(技藝)와 이력을 수집하고 조선언문과 한문으로서 술(述)한 책’이다.

또 비록 웃음을 파는 청루미인(靑樓美人), 곧 기생이라고 하나, 나중에 부호의 총첩(寵妾)으로 또는 남의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될 터이므로 행신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충언도 덧붙이고 있다.

이제 그 폐막을 만일이라도 교구코저 해야 미인보감을 비로소 저술할 시 조선 전도 청루 예기의 용티 연추와 기예 우열이며 그 락력의 디기를 혹 포장도 하며 혹 평논도 하며 왕왕 경계하는 말을 기록해야 저의로 해야금 이 칙을 지미 잇게 보아 부지불각 중 씨다름이 잇서 용심 형신을 그르지 안케 하고 디인 접물을 바르게 흘지면 사회에 적이 유익함이 잇스리라 호노라.

서문(序文) 뒤에는 권번(券番 : 원래 일본말로 ‘기생조합’에 해당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권번의 특징과 분위기 등을 시조(時調)와 가사(歌辭)로 표현하고 있어 흥미롭다.

당시 다동(茶洞)에 있었던 한성권번(漢城券番)이 오래도록 변영하라고 다음과 같은 시조 2수와 가사 ‘홍진곡(紅塵曲)·(춘면곡(春眠曲) 일례(一例))’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조만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원화림중(東園花林中)에 무엇무엇 붉었던고
촉구화(蜀葵花)는 이로(已老)하고 도이화(桃李花)는 편시(片時)로다
아마도 부귀번화(富貴繁華) 괴상(氣像)은 목단화(牡丹花)인가 호노라

세상사(世上事) 번복(顛覆)함이 어이 그리 용이(容易)하고
벽해(碧海)가 상전(桑田)이오 상전(桑田)이 벽해(碧海)로다
아마도 영구확장(永久擴張)은 한성권번(漢城券番)인가 호노라

역시 다동에 있었던 대정권번(大正券番)을 묘사한 시조 두 수와 가사 ‘신찬죽지사(新撰竹枝詞)’가 소개되어 있는데 시조만 소개하기로 한다.

국화(菊花)야 너는어이 삼춘가절(三春佳節) 다보시고
 한노상풍 중앙절(寒露霜風重陽節)에 홀노만발(滿發) 하얏는고
 아마도 도리(桃李)와 짝지음을부그럼인가 호노라

평지돌기(平地突起)는 청산(靑山)의 괴절처(奇絶處)오
 중류분파(中流分派)는 강수(江水)의 장관처(壯觀處)라
 아마도 산지괴절 슈지장관(山之奇絶水之壯觀)은 대정권번(大正券番)
 인가 호노다

세 번째 한남권번(漢南券番 : 다동에 있었고 사진의 간판에는 ‘漢南藝妓券番’이라고 쓰여 있음.)에는 시조 두 수와 가사 ‘춘색사(春色詞, 黃鳥詞 일례)’가 소개되어 있고, 네 번째 경화권번(京和券番)에도 시조 두 수와 사설시조(辭說時調) 한 수(鳥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고절색양티진(千古絶色楊太眞)은 꽃중에 무슨꽃고
 아침이슬 지근가지 죠는 미인방불(美人彷彿)하니
 아마도 명사십리(明沙十里)에 히당화(海棠花)인가 호노라
 유곡(幽谷)에 저 쇠소리 교목(喬木)으로 올라와서
 환우(喚友)하니 고희소리 속이(俗耳)를 침핍(針砭)하니
 아마도 금중황조(禽中黃鳥)는 경화권번(京和券番)인가 호노라

시편(鳥編)(花編 一例)

봉황(鳳凰)은 티평상(太平像)이오 학(鶴)두루미 신선(神仙)이라
 잉무변스(鸚鵡辯士)오 청조스신(靑鳥使臣)이라
 가치는 라졸(羅卒)이오 솔기는 장수(將師)로다
 제비는 기생(妓生)이오 쇠소리는 가객(歌客)이라
 즈규원객(子規遠客)이오, 공작(孔雀)이논 문장(文章)이로다

그남아 백구어객(白鷗漁客)이오 원앙비취(鴛鴦翡翠) 징경이는 죠흔씩
인가 흐노라

지방 각 권번 조합도 시조 두 수와 가사 ‘삼오야곡(三五夜曲, 相思別曲 일례)’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조는 종장(終章)에 모든 주제를 집중시키고 있기에 다섯 권번
을 묘사한 시조의 종장 부분만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마도 부귀변화기상은 목단화인가 흐노라

아마도 영구확장은 한성권번인가 흐노라(漢城券番)

아마도 도리와 싹지음을 부끄럼인가 흐노라

아마도 산지기절수지장관은 대정권번인가 흐노라(大正券番)

아마도 그 꽃 일흠은 월규화인가 흐노라

알패라 한남권번은 남방지강인가 흐노라(漢南券番)

아마도 명사십리에 해당화인가 흐노라

아마도 금중황조는 경화권번인가 흐노라(京和券番)

나비아 높고 야즌 가지를 가려 무슴일가 흐노라

진실로 뿌리와 근원은 각지방인가 흐노라(地方各券番組合)

한글 가사의 운율(韻律)은 8에 5박자(拍子)라고 하는 8·5조(調)
로 달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림갓흔 눈섭에는 봄뜻깊혔고
추슈갓치 맑은눈에 정을먹음어
티장부의 구든마음 썩슬것이오
기름흐고 도담하며 고훈얼골은
벽도화가 비에져져 식로피엿네

또 8·8조 등이 이용되고 있어 그 당시 개화기(開化期) 가사의
운율적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맑고동근 너의용모 일룬명월 이안이며
썩혀나고 고흔티도 추슈부용 이안이나
초월갓치 가는눈섭 만괵춘수 잠겨있고
벼을갓흔 눈뭍에는 무한춘정 먹음엇네



츄천의 명월은 요너나 용모라
호걸의 외입장 날보고 웃네요
강릉의 경포대 달구경 가자고
년짓시 날보고 손짓을 흐는가
남원의 광한루 놀너올 가자고
은근히 날보고 손목을 잡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특기(特技)는 ‘기예(技藝)’ 난(欄)에 표기되어
있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종별(種別)이 있어 무용과 국악 방면에서
참고가 되고 있다.

경서잡가(京西雜歌), 경성잡가(京城雜歌), 서도잡가(西道雜歌), 서관
잡가(西關雜歌), 서남잡가(西南雜歌), 남중잡가(南中雜歌), 남도잡가(南
道雜歌), 잡가(雜歌), 내지잡가(內地雜歌), 시조(時調), 남중이곡(南中俚
曲), 남방이곡(南方俚曲), 관중이곡(關中俚曲), 관서이곡(關西俚曲), 서
방속요(西方俗謠), 서도이요(西道俚謠), 남방이창(南方俚唱), 입창(立
唱), 좌창(坐唱), 서도행가(西道行歌), 남도행가(南道行歌), 가(歌), 가사
(歌詞), 창가(唱歌), 경서거리(京西巨里), 풍류(風流), 병창산조(竝唱酸
調), 양금(楊琴), 풍금(風琴), 현금(玄琴), 가야금(伽倻琴), 장고(長鼓),

집박(執拍), 우조(羽調), 우계면(羽界面), 삼미선(三味線), 산술(算術), 선위기(善圍碁), 서화(書畵), 흑화(黑畵), 예서(隸書), 장삼무(長衫舞), 승무(僧舞), 입무(立舞), 남무(男舞), 검무(劍舞), 춘앵무(春鶯舞), 무산향(舞山香), 남무(男舞)바지, 남중속무(南中俗舞 살푸리춤), 정재무(呈才舞), 서양무도(西洋舞蹈), 내지무(內地舞), 국어(國語), 한어(漢語)

그러면 그들의 출생지는 어디고 현재 어떤 기방(妓房)에 속해 있으며 그들 기생생활(妓生生活)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를 도표를 만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기녀원적 妓女原籍>

	도·부	군·동·정	기녀 수	소 계
1	경성부	원적무	67	동·정 68 기녀 수 300
		인사동	12	
		황금정	8	
		다육정	5	
		서대문정	4	
		안국동	4	
		관철동	4	
		낙원동	4	
		냉동	4	
		장사동	3	
		태평동	3	
		유창동	3	
		돈의동	3	
		남대문	3	
		전동	3	
16×2	32			
38×1	38			
2	경기도	고양군	8	군 7 기녀 수 17
		개성군	3	
		안성군	2	
		교하군	1	
		장서군	1	
		양주군	1	
		광주군	1	

3	경상남도	진주군 창원군 동래군 부산부 통영군 김해군 밀양군 함안군 창녕군 울산군	31 12 10 7 5 3 2 1 1 1	군 10 기녀 수 72
4	경상북도	대구부 달성군 고령군 영월군 경주군 의성군 안동군 김천군 청하군 영천군 치구군 칠곡군	96 5 4 4 3 2 1 1 1 1 1 1	군 12 기녀 수 120
5	전라남도	광주군 함평군 익산군 함창군 무안군 담양군 구례군 남원군 곡성군 순천군	6 2 2 1 1 1 1 1 1 1	군 10 기녀 수 170
6	전라북도	전주군 장성군	6 1	군 2 기녀 수 7
7	충청남도	공주군 아산군 연기군	2 1 1	군 3 기녀 수 4
8	충청북도	충주군	1	군 1, 기녀 수 1

9	강원도	인제군	1	군 1, 기녀 수 1
10	황해도	해주군	3	군 3 기녀 수 5
		서흥군	1	
		황주군	1	
11	평안남도	평양부	151	군 5 기녀 수 156
		진남포부	2	
		성천군	1	
		진남포부	1	
		대동군	1	
12	평안북도	의주군	1	군 2, 기녀 수 2
		선천군	1	
13	함경남도	영천군	1	군 1, 기녀 수 1
총계	12도 1부			동·경 69 부·군 57 기녀 수 605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도별로 볼 때 경성부의 기녀 수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56명인 평안남도, 세 번째가 120명인 경상북도, 네 번째가 72명인 경상남도, 다섯 번째는 전라남도과 경기도가 각기 17명이고, 그 나머지 도는 10명 이하이다.

도시별로 볼 때 경성부를 제외하고 보면 평양부(平壤府)가 15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부(大邱府) 96명, 진주군(晋州郡) 30명, 고양군(高陽郡) 8명, 연기군(燕岐郡) 7명, 광주군(光州郡) 6명, 전주군(全州郡) 6명의 순인 점으로 감안하여 문화의 고장, 낭만의 고장 및 당시 교통이 편리했던 곳에 기녀의 후예가 그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그들의 현주소는 대부분 경성부였다. 경성부에서도 다옥정에 73명, 청진동에 69명, 황금정과 관철동에 각각 43명, 서대문정에 29명, 삼각정에 24명, 서린동에 22명, 무교동에 20명, 인사동과

광화문동이 각각 18명, 수하정과 공평동이 각각 18명, 종로에 13명, 낙원동에 9명, 관훈동에 8명, 장교동과 수송동에 각각 6명, 태평동, 수표정, 돈의동에 각각 5명이 분포되어 살고 있었다.

이 밖의 지방으로는 경북 대구부, 경남 동래면, 창원리, 전남 광주면, 평남 평양부, 진남포부, 충남 연기군의 조치원리가 약간씩 있는데 수원면 남수리가 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권번별로 기녀 수의 통계를 내면 다음과 같다.

<권번별 기녀 수>

	권번	기녀 수	지역
1	한성권번	190	경성부
2	대정권번	182	
3	한남권번	75	
4	경화권번	40	
5	수원조합	33	지방
6	대구조합	32	
7	동래조합	11	
8	평양조합	7	
9	광주조합	7	
10	연기조합	7	
11	안성조합	5	
12	인천조합	5	
13	김천조합	3	
14	개성조합	3	
15	진남포조합	3	
16	창원조합	2	
계		605	

권번별로 기녀 수를 따지면 경성부가 447명으로 엄청난 기생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고, 지방은 조합이라 불렀는데 그 중에서는 수원조합이 33명의 기녀를, 대구조합이 32명의 기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조 속의 “뿌리업는 나무업고 근원업는 물업는니 정성
청루(京城靑樓) 여러미인(美人) 그고향(故鄕)이 어디믿고 진실(眞
實)로 뿌리와 근원(根源)은 각지방(各地方)인가 하노라”라는 구절
(句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기생 대부분이 지방 출신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당시 기녀들이 기방(妓房)에 몸 담고 있었던 기간을 통
계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한다.

나이 (세)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3	연령층 9~30세 사이
기녀수	2	2	5	4	19	37	44	81	55	67	90	53	42	37	16	14	13	4	10	6	2	1	1	계 605

통계에 나타나 있듯이 기녀들의 기방생활 연령은 9세~33세까
지 계속되고 있다. 본표대로라면 14세~22세까지가 기녀생활의
절정기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방년 이팔청춘의 나이인 16세부
터 19세까지가 정점을긋고 있으며, 19세 이후부터 점점 줄어가
는 현상을 나타낸다.

<표>에는 33세가 1명 있는데 기방에서 30세란 거의 ‘기녀환갑
(妓女還甲)’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25세 이부용(李芙蓉)에
대한 언문 가사를 들어본다.

……청루종적 여덜흐에 가는 청춘 어이홀고, 이십오세 놀나웨라, 어셔오
소 어셔오소 의증인아 어셔오소 닥가보세 닥가보세 여자힝실 닥가보세

나이가 든 30세 김영희(金英熙·前名 錦香)에 대한 묘사는 다음
과 같다.

……이십이세 폐업흐고 한중 세월 보늬다가 여흥 미진 다시 영업, 앓

가을사 삼십광음

내용 중에는 남성을 꼬집는 내용도 적지 아니하니, 대정권변 송채봉(宋彩鳳·16세)의 하소연을 들어 본다.

여보우리 동무님네 드러보시오
 팔즈신슈 사오나와 기싱된후에
 춤과노리 골우비와 놀음단일적
 어엽부다 아담답다 모도일너서
 친찬부리 헛지만은 맛지말게라
 경박하고 무정남자 거동보시오
 압해서는 다정히도 돌아서면은
 로류장화 지목하여 속을안주고
 발나맞쳐 헛는슈작 정말분헛데
 도덕군자 친차하니 멋이없으며
 하이카라 알자하니 위인무셔워

가사의 내용 속에는 포주가 누구였고, 전 주인이 누구였으며, 선배, 스승이 누구였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 당시 기방사회의 인맥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원래 권변은 수수료를 받고 기녀를 요정으로 보내 주는 일종의 중개업자였다. 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가사에서 알아본다.

서덕문 일정목에 경복현의 문패붓고
 네모번듯 장명등에 예기치옥 못보았나
 그기생은 누구런고 한성권반 리룡주라
 인물도 남과같고 가무도 배운중에
 서관잡가 소장시오 일쌍묘목 돌오히면
 업는티도 절노나네 여보시오 벗임네야
 장춘명월 논일적에 이천사변 던화불너
 룡주있나 무러보소

아무튼 《조선미인보감》은 개화기 최초의 개인별 인물가사집으로 국문학, 민속학, 사회학, 관광학, 한문학, 국악, 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고, 기생사의 유일한 문헌인 이능화(李能和)의 《조선해어화사 朝鮮解語花史》와 더불어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¹³⁾

6. 길모어가 체험한 중구의 세시와 풍속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吉毛 : 1857~?)는 1883년 프린스턴(princeton)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뉴욕의 유니언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고종 때 유니언신학교 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신교육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부임하였다. 이 책은 귀국 후 한국에서의 체험담과 풍물을 회고담 형식으로 기술한 것인데, 그 당시 한국에 온 어느 선교사나 정치인의 견문록보다 상세하고 정교한 필치를 자랑하고 있다.

그가 쓴 《서울풍물지》에 나온 한국의 놀이는 널뛰기, 탈놀이, 동전던지기, 연띠우기, 석전, 팽이치기, 줄넘기, 줄타기 등이다.

그는 남산과 북한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사람들은 지나치게 언덕을 좋아한다. 그 결과 남산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휴양지가 되었다. 북한산은 궁터에 속해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중 거의 화창한 날에는 작은 무리들이 산을 넘어 거닐거나 나무 아래 누워서, 때로는 도시의 벽에 기대앉아 남쪽의 강의 경치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¹⁴⁾

13) 金善豊 편, <朝鮮美人寶鑑解題>, 《朝鮮美人寶鑑》, 韓國研究會, 民俗苑, 1984,

14) G. W. 길모어,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p. 134.

이처럼 중구에 있는 남산이 가장 훌륭한 휴양지 구실을 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그 인상을 묘사하고 있다.

원래 중구의 민속놀이로는 《동국세시기》 등에 나타난 바대로 연과 석전 그리고 담교놀이가 유명하다. 이들 세 종류 중 그가 몸소 보고 체험한 연과 석전에 대한 그의 외래자적(外來者的) 해석과 인상, 그리고 그 나름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자.

연에 대한 글은 이러하다.

일년 중 어떤 시기에는 하늘이 연(鸞)으로 물드는가 하면, 또 어느 계절에는 아예 연을 볼 수 없다.

가장 대중적인 오락은 연을 날리는 것이다. 조선의 연을 날리는 것은 미국의 연을 날릴 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조선에서는 그것을 연이라고 부르는데, 연은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은 거의 네모난 것으로서 질긴 종이로 덮인 얇은 대나무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에는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며, 연의 윗부분 가까이의 양끝과 밑부분의 중심부와 연결되는 세 가닥의 끈이 줄로 연결되어 있다. 연의 균형을 잡은 줄을 달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술과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윗부분 근처의 점은 연이 돌진하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러한 사황을 연을 조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이는 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다.

연에는 대체로 꼬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상당부분 풀려질 때까지 연의 움직임은 대단히 불안정한 편이다. 줄을 잡아당기거나 푸는데 조선사람들이 사용하는 열레는 서양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연을 날리는 모두 기선의 외륜을 축소한 것과 같은 열레를 사용한다. 굴대는 손잡이를 이루는 한쪽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감은 손잡이는 다른 쪽에 있는 굴대 위예까지 미치고 있다. 연의 당기는 힘에 의해 줄이 팽팽해지면 굴대가 달린 감개를 줄과 평행하게 하면 줄이 풀려 나간다. 소년은 줄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줄과 엇갈리게 굴대를 돌리고 한 손으로는 감개의 끝을,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굴대를 잡는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한 번 휘두른 후 빠른 속도로 줄을 잡아당긴다. 이와 동일한 조종 방식이 낚시줄과 같고리 낚시를 할 때 사용된다.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일본이나 중국의 연을 날리는 것은 조선의 연을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어느 휴일에 세 명의 미국인 교사들이 이것을 시도해 보았다. 그들은 집에서 연을 날려 본 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줄을 조정하면서 조선사람들이 취하는 기묘한 행동과 몸짓에 유념해 왔지만 이것이 조선사람들의 선천적인 연 조정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연날리기가 유일하게 성공되는 것은 몇 개의 연을 잃어버리고 난 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곧 연이 돌진하면서 이웃집 마당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소년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꼬리가 없는 연은 이러한 노리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줄을 풀면 연은 대체로 곧바로 돌진하게 되는데, 그 때는 신속한 행동으로 연을 조정하고 아주 잦은 눈길로 주목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연날리기의 특징은 모든 세대의 어른과 소년들이 그러한 유희에 빠져든다는 사실에 있다.

연싸움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의 하나이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가게 주인은 손님 접대를 중단하거나 매상의 손실을 감수할 것이다. 손님들도 대개 그 놀이를 보는 데는 아주 열심이다. 연싸움의 방식을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연을 바라보면서 연이 움직이기에 알맞은 방식으로 연줄을 움직여대는 어른이나 소년은 우선 재미를 즐기고 다소의 흥분을 불러일으킬 것을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연을 띄운 후 적당한 거리에서 줄을 풀어놓는다. 그리고 나서 그가 떨어뜨리기를 바라는 상대방의 연줄을 가로질러 가도록 하기 위해 연을 조정한다.

상대방의 연줄 끝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숨씨가 좋을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연을 피하거나 비틀어 돌릴 것이다. 일단 두 개의 줄이 마주치게 되면 그들은 서로 얽히게 된다. 그리고 연들은 자신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쉽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공중에서 돌진하거나 튀어 오르고 상대방의 연을 향해 돌진하여 추락시킨다. 연이 서로 얽히면 상대방 연을 잡을 수 있는 곳까지 끌어당기거나 그럴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의 줄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상대방 연을 생포한다. 또는 상대방의 연줄을 끊거나 그것에 손상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 연의 끈에 마찰시킨다. 이러기 위해서는 능숙한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연이 패배하거나 승리할 가능성은 동등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연은 습격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신속해서 공격받는 연의 줄이 마치 칼로 자르는 것처럼 끊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에서의 이러한 회전(會戰)에 대한 관심은 아주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약 1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숨막힐 듯한 흥분과 아주 예리한 관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점수를 얻거나 또는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격려나 또는 실망의 절규와 외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유희는 설날이나 단오절(端午節)에 그 절정을 이루는데 그 때 수많은 어른들과 소년들은 그러한 유희를 즐기고 그 밖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게 된다. 밤이 될 무렵 연줄이 하나 둘 끊어져 연이 날아가 버리면 그 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부터는 혹시 자신들에게 불운이 닥치게 될는 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게 된다.¹⁵⁾

위에서 길모어는 한국 연의 구조와 조종방식, 연싸움, 액연 날리기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영국·미국·일본·중국의 연을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지목하고 있다.

이어서 그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석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늦겨울과 이른 봄에 모두가 들썩거리는 것은 돌싸움[석전(石戰)]이다. 조선 사람들이 놀이를 통해 평소의 삶을 분발시키고 대부분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놀이가 경쟁 지역의 소년들 사이에서 종종 벌어지는데, 조선에서는 소년들이 어른들의 놀이에 참가한다. 마을은 일반적으로 분지에 형성되어 기복 있는 구릉과 산맥의 지맥 축으로 갈라져 있다. 그렇게 형성된 두 마을 사이에는 흔히 평평하고 커다란 땅이 있고 이곳이 일년간 싸움터가 된다. 놀이는 대체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는데 그것은 거의 불화나 격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싸움에 참여하는 숫자는 마을의 크기

15) G. W. 길모어,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pp. 122~124.

에 비례하는데, 한 마을에서 대략 800~1000명이 참여한 돌싸움이 내가 보았던 가장 많은 인구였다. 그러나 부락의 인구가 10여 명을 넘지 않는 곳에서도 이 돌싸움은 일어난다.

소년들이 오후 일찍 싸움을 시작하며 저녁 무렵까지 산만한 싸움이 지속된다. 그리고 나서 어른들이 도착하여 여기에 참가하면 전쟁은 격렬해진다. 해가 지면 싸움도 끝난다. 참가자들의 무기는 손이나 밀짚 줄로 만들어진 줄로 던지는 돌과 곤봉이다. 곤봉은 짧고 딱딱하고 이따금씩 그랬듯이 이를 휘둘러 상대방을 즉사시킬 수도 있다. 싸움은 각 편의 몇 명이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땅의 중앙에 모임으로써 시작된다.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야유를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며 도전한다. 싸움꾼들이 모임 때 근처와 멀리서 온 구경꾼들은 이따금씩 돌맹이가 참가자들 사이에 떨어질지라도 위험이 미치지 않는 곳에 모인다. 두 편의 거리는 돌맹이의 사정 거리 이상이지만 선발대처럼 보이는 전투부대의 선두는 돌을 던지면서 적을 쉴새 없이 공격하고 밀집한 무리로 돌을 던지는 대담한 인물들이다. 곤봉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공격을 주도하면서 돌을 던지는 무리의 엄호를 받으면서 일진일퇴한다. 반대편에서는 곤봉을 든 무리들이 공격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전위부대는 공격하는 편의 명사수들에 의해 고통을 당한다.

돌격이 성공하면 ‘가자’라는 큰 함창으로 신호를 보내고, 소떼 소리와 닮은 이 소리가 일어나면 상대방은 적을 상대할 만큼 충분한 용기가 생겨날 때까지 전력 질주하여 후퇴한다. 주력부대보다 훨씬 앞서 따라 오던 주력부대의 숫자가 작은 것을 본 퇴각부대가 뒤돌아서면서 ‘가자’라고 외치면서 반격을 가하면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도 있다. 내가 목격했던 가장 큰 싸움 중에는 아마 2천 명의 어른들과 소년들이 참가했는데, 그 때도 한쪽 편이 돌격해서 상대방의 반을 그 마을로 몰아넣었다. 한숨 돌린 후, 돌진이 계속되어 선발대가 자기의 집으로 쫓겨 들어가면, 패배자들은 적들이 승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돌을 던지면서 건물의 외관을 망가뜨리는 동안 이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험악한 느낌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내일 사람들을 모아서 이단자들을 박살내자.”고 말한다.

때때로 이러한 투석전은 단순한 놀이 이상으로 발전하여 마을 사이에 생겨난 나쁜 감정을 푸는 기회가 된다. 이 돌싸움은 각 마을이 분견대를 강화하고 이웃 마을들끼리 힘을 겨룸으로써 주민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던 지난 날을 회상하는 행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매해 정월에 주민들은 이러한 모의전투에 몰두한다. 이따금씩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너무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너무 위험하여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려야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부상자가 적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숨을 넣어 만든 늘어진 외투를 포함해서 참가자들이 겨울옷을 입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위험이 훨씬 적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조선을 방문하고도 이런 싸움을 전혀 보지 못한 여행자는 이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목격되는 가장 특징적인 광경 중의 하나를 놓친 것이다.¹⁶⁾

그가 실제로 보았던 석전패의 인원이 800~1000여명, 많게는 2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석전을 왜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고, 돌격 신호는 어떻게 보내며, 쓰는 무기는 무엇 무엇인지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길모어의 글은 그다지 긴 문장은 아니나 19세기의 남산과 청계천 문화를 일별(一瞥)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7. 새비지-랜도어가 체험한 중구의 세시와 풍속

1) 새비지-랜도어가 체험한 중구의 민속놀이

새비지-랜도어(A. H. Savage-Landore)는 영국인으로 1900년 초

16) G. W. 길모어,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pp. 132~134.

에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이다.

앞에서 언급한 길모어보다 중구의 민속, 특히 풍속이나 놀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현장에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는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석전에 참가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묘파(描破)하고 있다. 석전뿐만 아니라 청계천 다리밟기도 길모어보다 소상히 당시 놀이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래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동문 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곧 우측 편에 있는 다른 큰 통행로에 이른다. 그 모퉁이에는 난간으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오래된 누각이 있다. 이것은 ‘거대한 중’으로서 서울의 명소 중의 하나이다. 그 중은 커다란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땅으로부터 약 1피트 정도만 떨어져서 세워져 있다. 그 중을 치면 아름답고 풍부한 음색을 내지만, 멀리 울려 퍼지지는 않으며 소리가 낮아질수록 쓸쓸하고 단조롭게 들린다. 종치기가 큰 나무봉으로 그것을 세게 쳐서 소리를 울리는데, 이른 아침에 그것이 처음 울리면 졸음이 가시지 않은 문지기들은 다시 수도와 외부 세계 간에 교신할 준비를 한다. 일몰 무렵 우울한 마지막 종소리가 바람의 파고를 타고 사라져 갈 때, 육중한 문은 닫힌다.

만약 남성이 심한 채찍질이나 심지어 사형당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성이 아닌 모든 남성은 다음날 일몰 전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법과 규율은 지난 몇 년간 매우 엄하게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어두워진 후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남자를 결코 본 적이 없다. 그에게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겠지만, 밤에 돌아다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조선 사람에게서는 아마 매우 호된 매질이 그 댓가로 주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어두워진 후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매우 조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경우에 남성 사회는 밤에 배회하는 것이 허락되며, 그들은 마음껏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커다란 사건의 주된 것은 ‘다리를 밟는(踏橋)’ 밤이다. 이 행사는 남자와 어린아이들의 참가가 허용된 축제로, 이 과정에서 그들은 거리를 배회하고 다리를 반복해서 건너는 데 온 밤을 보낸다. 이와

같은 시간에 거리는 요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농담, 그리고 환상적인 연극으로 밤의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꾼, 요술쟁이, 그리고 익살꾼들로 활기에 찬다.

달빛이 비추는 밤은 항상 ‘다리를 밟는’ 소풍의 밤으로 선택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오히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석조로 된 교각과 이것들 위에 사람들이 밟고 설 수 있는 크고 편평하며 널찍한 돌들이 놓여 있다. 다리의 폭은 대체로 약 6피트 정도이지만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어떤 종류의 난간이나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세월과 날씨 때문에 이와 같은 돌은 상당히 닳았고 여기저기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며 게다가 매우 미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환한 대낮에도 물이 흐르지 않는 강바닥에 빠지지 않기 위해 튼튼한 줄을 숨씨있게 다루는 일종의 수원을 발휘해야만 한다. 전체적으로 조선의 남성이 밤에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날은 다섯 번이다.

일년의 마지막 날은 아마도 더 많은 무리들이 거리를 바쁘게 활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일 것이다. 왜냐 하면 그날 밤과 다음날 밤 동안에 자신의 모든 친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을 방문해 축원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떡을 선물로 가져오고 기쁘게 받는 관습이 조선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신년의 밤도 역시 자유로운 밤이지만 집에 머물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남성 사회의 대다수가 술과 흥분으로 매우 ‘흥청거린다.’ 그 외에도 두 번의 자유로운 밤이 있는데, 하나는 정월의 14일과 15일, 그리고 유월달, 즉 ‘반년’의 날들 중 하루이다.¹⁷⁾

새비지가 파악한 조선 남성들이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다섯 번의 밤 문화에 대한 기술은 자못 흥미로운 바 있다. 특히 다리밟기 때 찾아오는 예능인들, 곧 이야기꾼, 농담꾼, 요술쟁이, 익살꾼 등이 청계천에 찾아온다고 하였는데 그는 필시 전기수(傳奇叟)의 후예를 그곳에서 만난 행운아일시 분명하다.

17)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107~108.

정월 대보름에는 도시 한복판의 밤 문화가 일신되어 변신하는 공간이다. 월신(月神)이 찾아온 공간이기에 인간계(人間界)가 흥분과 광란으로 휩싸이게 되는 시간대로 변하게 된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온통 대도시는 집단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집단 싸움이 전개되기 전에 개인 격투기로부터 일은 벌어지고 있다.

세비지가 보고 기록해 놓은 당시 정월 대보름의 분위기를 들어 보자.

조선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경 중의 하나는 일 대 일의 격투이다.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온순한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웬만큼 감정이 격해져도 그다지 싸움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자주 다른 도시의, 혹은 같은 도시의 다른 지역의 패거리들간에 현상금을 건 격투를 보면서 흥겹게 즐기는데, 많은 군중들이 그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다. 싸움꾼들은 대체로 주먹을 이용해서 싸우나, 프랑스에서처럼 무릎과 발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 흥분한 대부분의 관중들은 내기를 걸며 격투는 곧잘 난투극으로 비화된다.

도시의 하류층에게는 이와 같은 격투가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소한 신경전에서 비롯되어 큰 싸움으로 변진다. 그들의 격투에서 흥미를 끄는 점은 새해 정월에 벌어지는 모든 싸움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법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신속하게 대충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고 결투하는 것밖에는 거의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목은해의 모든 분노는 새해의 축제가 끝날 때까지 간직되는데, 그 때 자유로운 결투를 통해 억눌린 격분을 발산한다. 만약 한 남자가 이러한 합법적으로 인정된 시기에 싸우는 동안 상대를 죽이기까지 했다면, 나는 그가 옥살이를 하거나 형벌을 받지 않을까 궁금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15일 동안 거리의 광경은 참으로 무시무시한데, 어느 곳을 다니든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거나 격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돈 때문이다.

거리에서 심상치 않은 싸움이 벌어져도 별일 아니려니 하고 지나치는 것이 좋다. 모든 빛은 항상 새해가 오기 전에 갇아야 한다. 때때로

신년 들어 보름 동안 채무 연장이 허용되기도 한다. 그 기간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즉결 재판을 받게 된다. 빚쟁이들은 채무자를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니다 그를 붙잡는 순간부터 대개 몇 차례 욕설이 오가다 난투극으로 번진다. 그러면 빚쟁이는 즉시 모자를 벗어 주위에 모여든 구경꾼 중의 한 사람에게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맡겨 놓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그렇듯이 빚쟁이가 채무자에게 달려든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싸움의 주요한 특징은 싸움꾼들이 서로 상대방의 상투를 잡아채려고 하는 것이다. 일단 한 손으로 상대방의 상투를 잡은 다음에는 심하게 머리를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소나기처럼 강타를 퍼붓는 동시에 쉴 새 없이 발길질을 하며 더욱 상스럽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정말 적대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때때로, 아니 실제로 자주 이러한 과격한 행동들이 도시의 좁은 거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죄 없는 통행인들만 피해를 입는다.

격분한 상태에서 조선 사람들은 매우 잔인무도해질 수 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아끼지 않으며, 싸우는 동안 활귀고 물어뜯는 것은 흔히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일본 공사관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오후에 그레이트하우스(C.R. Greathouse) 씨의 말을 타고 약간 경사진 곳을 내려오다가 나는 아주 살벌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느 도축업자와 상인이 서로를 난타하는 호쾌한 방법으로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있었다. 마침내 도축업자는 이런 싸움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경찰의 곤봉과 같은 단봉으로 상대를 때려눕혔다. 그가 일격을 받고 그대로 땅에 넘어지자 도축업자는 더욱 의기양양해서 고기를 다질 때 쓰는 커다란 나무토막을 힘겹게 들어올려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마치 견과(堅果)를 때려부수듯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무토막 위에 당당하게 걸터앉아 구경꾼들의 찬사를 유도했다.

여자들간의 싸움도 흥미롭다. 그들의 싸움은 주로 하류층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일당으로 번 돈을 잃어버리거나 좋아하는 남자를 두고 쟁탈을 벌이는 데서 비롯된다. 상류층은 자신의 평판이 깎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먹질을 벌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들간의 이해 관계는

비싼 돈을 치르고 산 싸움꾼들이 그들의 면전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내 생각에 그들은 감정을 폭발하거나 언성을 높여 따지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여겼다.

모든 경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돌과 곤봉을 가지고 하는 싸움인데, 그것은 나라에서 공인하고 만백성이 후원하는 국민적은 행사이다. 그들은 때때로 정규전을 벌이는데, 만약 한 마을이 주변의 마을에 질투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새해 정월에 돌싸움은 늘 불화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된다. 그들이 싸우는 방식은 이쪽 마을의 가구와 그 친지들이 다른 쪽 마을의 가구와 그 친지들과 맞붙거나 때로는 상인 동업 조합이 다른 동업 조합과 맞붙어 싸우는데, 그럴 때면 몇 백 명의 남자들이 양편으로 갈려서 격전장에 모여든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강인하고 대담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이러한 경기에도 참여하도록 종용한다. 나는 엄마들이 기껏해야 8살이나 9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출발선에 데려나와 같은 수의 동년배들과 싸우게 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각 편 의 가장 용맹스러운 소년이지휘관을 맡고 있는데, 그는 조그만 곤봉을 지니고 있었으며 머리에 가해질 수도 있는 강한 충격에 대비해서 화관(花冠)을 두른 큰 모전(毛氈)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소년의 뒤에는 자그만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열 내지 스무 명 이상의 다른 소년들이 각각 곤봉을 들거나 한아름씩 돌맹이를 안고 따르고 있었다. 싸움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개 후방에 군수품들을 보관하는 안전한 제방을 쌓는다.

이제 전격적인 교전을 위해 두 지휘관을 앞세운 양쪽 병력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돌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두 지휘관이 곤봉으로 서로의 머리통에 세찬 강타를 몇 차례 교환하면서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편이 다른 편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일제히 돌 세례가 난무하며 곤봉들이 춤을 춘다.

이러한 종류의 싸움은 아이들 사이에서조차도 몇 시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싸움이 끝날 무렵에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이가 부러졌으며 심한 타박상을 입게 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쪽은 그들의 부모와 친지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이 싸움 기간 동안에는 서울의 주요 거리와 개방된 장소들은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치며, 스페인들이 투우에 흥미를 가지듯이 그 싸움에 많은 관심을 가진 다수의 군중들이 모여든다.

어린 소년들 간의 싸움보다 더 위험천만한 것은 두 동업 조합간에 종종 벌어지는 교전이다. 내가 서울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에 도축업자들과 진흙을 집에 바르는 희귀한 기술로 먹고사는 사람들 간에 큰 반목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두 업자들은 조선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싸움은 더 살기등등하고 난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싸움을 벌일 날 짜가 정해졌으며 싸움 장소는 남대문 바로 바깥의 평지로 잡혔다. 싸움터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얼어붙은 개울로 나누어져 있었다. 싸움터는 성벽의 서쪽 편의 낮게 언덕진 곳에 있었는데, 결투를 벌이기로 약속된 날 나는 스케치북과 메모할 공책을 가지고 나가 자리를 잡았다.

양 패거리들이 정시에 도착한 다음 개울을 중심으로 각각 반대편에 운집하여 대치했다. 그 곳에는 모두 약 1,800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한편에 약 900명씩이 되는 셈이다. 내가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은 너무 높아서 싸움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나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막상 싸움이 시작되고 나서야 나는 갖가지 무게와 크기를 가진 돌들이 엄청난 속력과 강도로 머리 위를 빗발치듯이 날아다니는 사태를 인식하게 되었다. 양편은 미리 돌무더기들을 수북히 쌓아 놓고 있었으며, 설새없이 새로운 돌들을 공급해 왔다. 투석기로 쏘아 올린 돌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나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곳에 온 목적을 달성할 경황이 없었다.

대단한 혼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다시 산더미같이 모으느라 바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돌을 가지러 가거나 새로운 탄약을 앞쪽으로 나르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면서 두 진영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좁은 개울의 양쪽 기슭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투석을 통해서 어느 일방이 타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내가 위치한 곳의 반대편의 사람들의 급습으로 이쪽이 수세에 몰리는 듯했으나 힘을 배가해서 다시 돌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시 그들이 선봉대를 앞세워

상대의 취약한 쪽을 공격하며 이쪽의 우측 전선을 무너뜨리면서 개울을 건너왔다. 나는 물론 싸움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았으나 난투극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는 머리통이 부서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내가 심하게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난투극은 점차 격해져 곤봉을 휘두르거나 급기야는 칼을 꺼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 물론 나도 자연히 적지않게 얻어터져 타박상을 입었으며 실제로 살기등등한 장면을 몇 차례 마주치기도 했다.

만약 당신이 비교적 제한된 공간에서 혼잡하게 뒤엉켜 두 진영으로 나누어 싸우는 1,800명의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극도로 흥분한 그들이 내지르는 날카로운 비명과 노호(怒號)와 같은 괴성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먼지로 뒤범벅된 그 아수라장을 실감할 수 있다면, 당신은 투석전의 개념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싸움은 3시간 남짓 동안 활기차게 계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통이 깨졌다. 쓰러진 채 죽도록 짓밟힌 사람도 있었고 칼에 매우 깊이 찢린 사람도 있었으며 그 중의 몇 사람은 숨이 끊어졌다. 싸움이 끝났을 때, 극소수의 몇 사람은 아무런 타박상이나 부상도 입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들의 격렬했던 난투극에 비하면 사망자의 수는 매우 적었다. 성의 폐문(閉門)을 알리는 대종(大鐘)이 울림에 따라 그들이 떠난 뒤에 싸움터에 남은 시체는 도합 여섯 구에 불과했다.

양측의 지도부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친 뒤에 싸움은 무승부로 결론지어졌으며, 따라서 다음날 오후에 다시 싸움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가 들은 바로 싸움의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용케도 한쪽 진영이 상대 진영을 침입했지만 완전히 패퇴시키지는 못했고 끝이 강렬한 저항을 받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폭설이 내려 싸움이 연기되었고, 정작 난투극이 재개되던 날 애석하게도 나는 입궐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나로서는 만족스럽게도 내 쪽에 있었던 미장인들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고 들었다.

포졸들은 대체로 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석할 뿐, 교전에 개입할 수 없다. 군인은 자신들과 무관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이 금지되었으나 법으로 인정한 자유로운 기간 동안은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싸움판을 벌일 수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격렬하게 싸웠으며 군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옷통을 벗은 채로 싸움을 시작했다. 2주일 간의 무시무시한 싸움이 끝나면 나라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물론 그 동안에 새로운 부채가 생기고 새로운 증오와 시기들이 빚어져, 그로 인해 이듬해 정월의 투석전을 초래했다.

이상이 조선 사람의 생활 내역인데, 투석전이 벌어지는 15일 동안을 제외하고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국가적 별칭에 부합하게 아침뿐만 아니라, 낮과 밤 모두 지나칠 정도로 고요하다. 조선 사람들은 언제나 삶을 영위한다기보다는 초목 이상으로 단조롭게 생활한다. 이러한 결점을 별충하기 위해 한 해에 한 번 정도 그들이 난폭한 반작용을 분출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며, 투석전 이상으로 그들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난폭하고 더 격렬한 경기를 고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국왕도 다른 동업 조합들간의 최종적인 싸움의 결과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승리한 쪽의 지휘자나 궁중의 고위 관리를 통해서 싸움의 결과를 즉시 보고 받는다.¹⁸⁾

이상의 장황한 예문에서 우리는 당시 현장의 놀이 모습과 함성, 그리고 페이스스를 느낄 수 있다. 그가 남겨 놓은 현장조사를 우리는 오늘의 삶과 놀이에 원용하고 부활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청계천변 민속놀이였던 연날리기 놀이를 지켜 본 그의 견해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워하는 놀이는 집밖의 놀이일 것이다. 그 중에서 연(鳶)날리기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놀이일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조선에서 거의 하나의 기술로 여겨지는데, 어린이들도 그것을 널리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른들도 이와 같은 아이들 놀이에 적

18) A. H. 새비지-렌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233~238.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선의 연은 폭이 14인치, 길이가 20인치 정도로 매우 작다는 점에서 비교적 일본이나 중국 것과는 다르다. 더구나 구조가 평평한 대신에 조선의 연은 아치형이다. 조선 사람들에 의하면 연을 아치형으로 만듦으로써 훨씬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

영국인이 경마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듯이 조선 사람들은 연 날리기에 그만한 흥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른들은 전투원과 자유롭게 내기를 한다. 또한 공중에서 시작된 전투가 바람이 덜 부는 지역에서 확실한 일격으로 끝나 한 연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시의 높은 담장 위에 서서 이와 같이 흥미 있는 놀이에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작고 붉은 조끼를 입은 어린아이들의 행렬을 보는 것은 색다른 재미를 준다. 담이 2피트 너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던고 설 만한 틈이 거의 없다. 설 새 없이 줄을 끌고 잡아당기는 데에 몰두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은 높이가 30피트 정도 되는 담장 곳곳에서 겨우 발만을 던고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나로서는 항상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는 그들 중의 하나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몇 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나에게서는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결코 다치지 않았다!¹⁹⁾

2) 새비지-랜도어가 체험한 중구의 풍속

새비지-랜도어는 남산을 비롯해 남산의 봉화, 남대문 수문장과 남대문 시장의 보부상, 시구문 주변의 장례식, 중국인의 거류지, 인경, 서대문 돌다리 등을 영화처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체험하고 느끼고 연구·관찰한 것을 소재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86~87.

<서울의 모습>

도시로서 서울의 매력은 별로 없다. 서울에는 건물이 거의 없고 거리에는 오물이 넘쳐 나며 세계 곳곳을 유람하는 여행자들의 이목을 끌 만한 명소도 없다. 서울의 도시 미관은 엉망이며 불거리가 전혀 없다. 만약 당신이 독특하고 진기한 것을 찾으려 한다면 도시는 당신에게 별다른 흥미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을 주변을 둘러보자. 만약 당신의 코가 본래 민감하다면 당신은 가장 자극적인 술을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서대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부터 우리의 여행을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서울의 간선 도로에 있다. 우리는 더 좁고 황량한 다른 거리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교통량 때문에 간선 도로 위에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오래된 왕궁을 따라 내려갈 때 양편에 늘어서 있는 진흙집은 초라하고 더러웠으며, 전면으로 보이는 공간은 쌀과 마른 과일 등과 같은 식료품을 파는 상점으로 이용되었다. 서로 근접해 있는 기둥들로 지탱되는 초가 지붕이 약간 돌출하여 있어서 햇볕과 눈발로부터 상품을 보호했다.

우리는 2백 야드 전방에 놓여 있는 작은 돌다리에 이른다. 그것의 폭은 5피트 정도이고 난간은 없으며 아래는 하수구인데, 전면에는 작은 광장처럼 넓은 공간이 있다. 그런데 보시라! 당신은 저기 거적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남자가 보이는가? 길고 흰 나풀거리는 험거운 옷을 입고 있고 검은 얼굴에 크고 뾰족한 밀짚모자를 쓴 그가 마치 그림 같지 아니한가? 그가 햇볕과 눈에 의해 그을린 손을 내밀고 거기에 앉아 통행인에게 동냥을 구걸할 때, 그는 거의 아랍인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는 얼굴이 매우 새까만 장님이다. 그는 서울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비가 오나 햇볕이 내리쬐나 당신은 항상 똑같은 태도로 같은 장소에 거적을 깔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를 볼 수 있다.

조선에서 거지들을 보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 하면 거리가 꼭 차는 어떤 특별한 경우나 경축 행사를 제외하고 그들은 거리를 배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당한 액수의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려는 당신 앞에 가장 무시무시한 질병, 불행, 사고, 그리고 흉한 몰골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때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와 같은 광경에 쉽게 연민이 일어

나 훨씬 덜 소름이 끼쳤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일찍이 내 평생에 없었던 행운이었으므로 나는 거지를 봤을 때 사실은 무서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무시무시한 상대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즈음에, 작은 돌다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전경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 돌다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물체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사람은 아니었다. 그것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발가락과 손가락이 없이 걸어다니는 해골이었다. 그는 허리 주위에 걸친 몇 조각의 냅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벌거벗다시피 했다. 뼈를 거의 덮었다고 볼 수 없는 그의 피부는 종기투성이였다. 그의 머리는 흉측했고 눈은 움푹 꺼졌기 때문에 페루(Peru)의 미라(mummy)는 그와 비교할 때 훨씬 미남일 것이다.²⁰⁾

<남산과 봉화>

서울의 남쪽을 향하여 도시의 성안에 남산(南山)이라고 불리는 높은 언덕이 원추 모양으로 솟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이 언덕에 관해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것은 마치 그림 같다. 둘째, 남산처럼 도시 가운데에 산이 솟아 있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셋째, 이 특별한 언덕의 정상에서 왕국의 모든 일상사가 늘 감시되고 있다.

남산 꼭대기에 감시인이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이 자리하고 있다. 이 앞에는 다섯 개의 돌무더기가 세워져 있는데 그 위로 햇불의 수단을 통해 신호가 조선 왕국의 한쪽 끝단에서부터 다른 끝단까지 전달된다. 말하자면 고요한 아침의 땅의 안전이 이 다섯 더미의 돌에 달려 있어 어두워진 뒤 밤의 적막 속에서 타오르는 돌 위의 불들을 지켜 보는 것은 아름답고 기묘한 모습이였다.

조선의 모든 최고봉 위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장소들이 있어 다른 햇불 신호 방식으로 가장 먼 지방에서 신호를 보내면, 다시 그것을 전달하고 응답하는 식으로 몇 분 안에 궁궐에 있는 왕은 수도로부

20)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93~95.

터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먼저 불을 통해 신호가 발신되는 것은 궁전에서부터이고 다른 산꼭대기로부터 불을 통한 신호를 마지막으로 받는 곳도 역시 궁궐이다. 조선의 해안선을 따라서 주요 갑(岬)에 설치된 봉화대는 오랫동안 해안에 약탈자가 접근해 온다든가 그 외의 침략이 있을 때 수도에 알려주기 위해 이용되었다.

최근까지 해안 마을과 도시들은 중국의 해적들에 의해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해적들은 붙잡히면 틀림없이 참수당하는 처참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밤을 틈타 빠른 범선을 타고 해안으로 접근한 뒤 기습하여 마을과 심지어는 소규모 도시들까지 약탈했다. 이들의 공격은 대개 매우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불쾌하고 탐욕스러운 침입자들의 공격에 대해 조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가라앉힐 무렵이면, 이 약삭빠른 중국인들은 전리품을 챙겨서 다시 바다로 내뺐다.²¹⁾

<거의 닫혀 있는 도성>

나는 저 멀리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천천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아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남녀노소들이 걷거나 말을 타고 두 방향으로 그 대문을 통해 황급히 오가고 있었다. 그 분명한 사람들의 물결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잠시 멈추었을 때 나는 제물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즉, ‘인경’이라고 부르는 큰 종의 서글픈 소리가 나면 쇠막대기가 줄줄이 달린 무거운 나무 대문은 닫히며, 그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 도시에 출입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태양은 바로 지평선 위로 그의 마지막 이글거리는 햇빛을 비치고 있었다. 그 종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흥분은 점점 더 커 갔다. 흥분한 사람들과 짐승들이 함께 뒤범벅이 되어 길거리는 마치 노도처럼 강어귀에 닥쳐오는 밀물에 비교될 수 있었다.

나도 떼지어 들어가는 사람들 속으로 처박혀 지나가는 조랑말에 발을 밟히고 사람끼리 부딪치며 때로는 황소와 얼굴을 맞대고 끝내 안으로 겨우 들어갔다. 문지기들이 시간이 다 됐으며, 도읍지의 관할 구역

21)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 120.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친 여행자들을 재촉하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의 그 킁킁하고 쉰 듯한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 휩싸여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며 서 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소리치고 발길질을 하면서 들이밀려 성깔 나쁘게 굴었는지를 지금도 회상할 수 있다.

마지막 사람들이 통과하고 나면 거대하고 녹슨 돌쩌귀 위의 큰 대문에 빗장을 채고 결국 그 대문은 다음날 해뜰 때까지 잠근다. 밖에 있는 너무 늦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애걸하는 고탐소리만 못 들은 채 메아리친다. 거창한 맹꽁이 자물쇠와 빗장은 철저히 잠겨 있으며 서울은 다음날 아침까지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었다. 그 대문에 인접해서 문지기의 집이 있고 그 집의 문 앞에는 줄줄이 서 있는 몇 개의 녹슬고 쓸모없는 창들이 널려 있는 선반이 그 도시와 주민들을 돌보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반면에 파수꾼들은 그 날의 임무를 마무리짓고 일몰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그리고 이제까지 근무 시간을 채웠던 놀이나 도박을 다시 하기 위해 따듯한 방안으로 되돌아갔다. 해가 지자 정적이 깃들었다. 선량한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 역시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²²⁾

<여성의 특권>

한 가지 매우 이상한 조선의 관습은 어두워진 후 마을의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다. 반면에 남자는 일몰 약 한 시간 전부터는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데 만약 ‘여성의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투옥과 태형(笞刑)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는다. 따라서 여성은 거리를 활보하도록 허용되어 있어, 혹 있을 지도 모르는 남성들로부터의 어떤 추근거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우 밤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부모나 친구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왜냐 하면 불행하게도 조선에는 많은 호랑이와 표범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문이 일찍 닫힘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높은 담을 뛰어넘어 밤마다 마을을 배회

22)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50~51.

하다가 도중에 발견하는 개와 심지어 사람까지도 잡아먹는다. 호랑이는 실제로 진흙집의 침입받기 쉬운 종이 창문을 자신의 발톱으로 무참히 뚫고 들어온 다음, 잠에서 선뜻 깨어나 몸부림치는 몸뚱이를 잡아 끌어내 길 한복판에서 유유히 먹어 치운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달밤을 거닐다가 이와 같은 굶주린 야생 동물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은 어딘가 섬뜩하므로, 야밤에 처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여성은 조선에서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가 갖는 유일한 특권은 그가 합법적으로 외출할 때 사나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먹힐 기회이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시기할 만한 특권은 아니라는 것이다.²³⁾

<물장수>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물을 길어 파는 품팔이꾼(water-collier)과 도성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들이다. 교양 없고 거칠다는 점에서 물을 길어 파는 사람은 거의 마부(馬夫)와 같다. 노동량에 비해 매우 박한 수입을 올리지만 묵묵히 감내하는 그의 인내심은 확실히 대단하며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가 하는 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물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이 일은 여름에는 그리저럭 할 만하지만 겨울에는 문제가 다르다. 왜냐 하면 이때가 되면 거의 모든 샘은 얼어붙어 버리는데, 물은 우물에서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팔을 자유롭게 흔들 수 있도록 긴 막대를 가죽끈으로 십자형으로 묶어 어깨뼈에 걸치도록 한 독특한 장비를 지고 다닌다. 이것은 한번에 두 양동이의 물을 저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비는 폴란드 여인들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스위스의 여러 지방에서 우유를 운반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이다.

겨울에는 물통이 우물에서 길어 올려지자마자 얼음 통으로 변하며 그 때 추위로 손 전체가 트는 바람에 피가 나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23)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70~71.

가없기 그지없다. 그들은 물을 젖을 때 상당한 속도로 달리며 그들의 보조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헤! 헤!헤!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충돌을 피하는 데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 준다. 그들은 왕국 내에서 최하의 부류로 간주되며 복장의 면에서 어린이나 미혼 남자와 같은 특권을 약간 누린다. 예를 들어 그들은 국상 기간에도 대개 밝고 푸른색 상의를 입는다. 그들은 일할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자를 쓰지 않으며 어떤 때에는 머리띠도 두르지 않고 대신 머리에 푸른 수건을 두른다. 그들은 마부들이 하는 것처럼 긴 파이프를 늘 등뒤에 꽂고 다닌다.²⁴⁾

<수문장>

이제 자물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결코 조선에서 가장 불결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싶어도 기름과 먼지 때문에 그의 복장은 어쩔 수 없이 늘 지저분하다. 그는 정부가 고용했으므로 국상 때면 검은 옷을 입고 곡(哭)을 한다. 그는 얼굴과 신체의 절반이 가려질 정도로 큰 모자를 쓰고 있다. 그는 솜양말과 신발을 거의 신어 본 적이 없으며 가장 추운 날에도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채 맨발로 걸어 다닌다. 그는 오직 해뜰녘이나 해질녘에만 볼 수 있는데, 그 무렵에 그는 자물쇠를 점검하고 열쇠를 가지러 오거나 가져가기 위해 성문 주위를 살살이 돌아본다. 그는 모양과 무게가 각각 다른 수많은 철제 도구들을 담은 테니스 가방처럼 생긴 큰 가죽 가방을 등에 메고 다닌다. 그는 무뚝뚝해 보이며 누구에게나 경멸받는다. 나는 그가 누구와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며칠 동안 세면을 하지 않은 채로 밤마다 이 성문에서 저 성문으로 성벽을 따라 돌고 있는 그가 매우 측은하게 느껴졌다. 이에 관한 일화로 나는 일전에 어느 조선 사람에게 “참으로 도시의 안전이 저런 지저분한 자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를 몹시 화나게 만든 적이 있었다.²⁵⁾

24)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127~129.

25)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 129.

<호랑이>

호랑이 조각물이 이상하게도 조선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에는 이러한 종류의 짐승들이 많은데, 몸집이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사나운 표정으로 사람을 곤잘 잡아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심지어 성벽에도 호랑이의 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끔 호랑이들이 야간에 출몰해서 사람을 잡아먹고는 시체를 성안에 남기고 아침 일찍 성벽 밖으로 유유히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용서를 구하기 위해 종교적으로 호랑이를 숭배한다.

조선 사람들과 함께 성 밖으로 멀리 나갈 경우에 좁은 길에서는 내가 그들보다 빨리 걷지만 매번 내가 맨 뒤에 처져 있곤 한다. 그럴 때면 조선 사람들은 즉시 내 앞으로 달려와 내가 맨 뒤에 처지지 않도록 한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가 항상 맨 뒤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여 죽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외국인과 동행할 때는 그를 맨 뒤에 건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물론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먼 길을 나설 때면 나를 호위하는 하얀 옷을 입은 병사가 내가 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많은 신경을 쓴다.²⁶⁾

<보부상>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법 운영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이상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이 지워지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 백정, 미장이, 주막 주인, 목수, 모자 상인 등과 같은 소매상인은 동업조합(guild)으로 단합해 있는데, 조합의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 우두머리가 처벌하며 그 지방의 수령은 개입하지 않는다. 마부나 보부상(褌負商)도 동업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지방에서 조직의 결속력과 관리 체제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들의 조직에는 수천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편망이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및 그 지역 내의 도시들

26)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 192.

간에 상호역도 관장하고 있다. 이 조합의 우두머리는 지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구성원들에게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가장 최고의 벌로 태형까지만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 재판을 당국의 간섭 없이도 그들 자체 내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분별력이 있음을 대단히 자부하고 있다. 양반들 역시 자신의 노비나 하인에게 매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그들 자신의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 흔히 길을 지나가다 비명이나 신음 소리를 들으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태형을 가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만약 개인적으로 벌을 줄 때면 모든 노비나 포졸, 그리고 하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형벌을 참고 복종하는 것은 봉건 제도의 한 잔재임에 틀림없다.²⁷⁾

<시구문>

이미 언급한 것처럼 조선의 다른 도시의 문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문도 해질녘에 닫힌다. 그러나 모든 규칙이 그렇듯이 한 가지 경우에는 예외이다. 즉, '시체의 문'(屍口門)이라고 알려진 작은 문이 있는데, 이것은 밤늦은 시간까지 개방되어 있다. 그 이름이 그의 목적을 매우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조선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그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조선에서 장례식은 거의 밤에 치러지며, 시신은 늘 도시로부터 외곽으로 운반되어 묻힌다. 일생 동안 당신이 원하는 어떤 문을 통해서도 도시를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이 허락되지만, 최종적인 출구가 결정되면 이와 같은 선택의 자유는 죽은 사람에게도 부여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 이유는 방금 언급한 작은 문만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의 장례식이 나에게서 흥미로운 광경이지만 서울에서의 그것은 아마도 다른 지역보다 더 흥미로울 것이다. 왜냐 하면 유럽인의

27)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213~214.

눈에 그것은 단지 장례식에 불과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행렬 선두에 서는데 그들은 각각 커다랗고 노란 우산을 들고 간다. 우산 막대기 중간쯤 되는 곳에 삼색의 매우 큰 종이 달려 있다. 다음에는 네 개의 긴 장대로 치켜 든 일종의 천개(天蓋) 밑에 관이 있는데, 망자(亡者)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둘, 넷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운반한다. 각기 장대로 버틴 종이 등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관 옆과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온다. 그들은 만가(輓歌)를 부르거나 고인을 위해 기도와 찬양을 읊조리며 바빠 걸음을 옮긴다.

만약 고인이 악령들에 의해 장악되었거나 잡혀 갔다고 판단될 경우, 만약 친족도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불행한 고인이 살았던 집 근처에서 몇 날을 계속해서 종을 울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 그 날 카로운 소리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인 악령에게 당신들의 존재가 드러났으니 합법적인 주인에게 집을 남겨 두고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보여 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조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나는 이 소리가 울리는 몇 시간은 가장 착한 귀신을 악령으로 바꾸어 놓기에 실로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이제 장례식 행렬로 되돌아가 보자. ‘죽음의 문’에 이르면 이 행렬은 해산된다. 영구를 쫓아온 친구들은 불을 끄고 노래와 기도를 멈춘다.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두세 사람만이 고용된 운반인들이 나르는 관을 계속해서 따라간다. 적당한 지점에 이르면 이들은 시신을 묻기 시작한다. 언덕진 땅은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사람의 뼈를 묻기 위한 마지막 안식처로서 선호하는 곳이다. 관이 묻히면 조그마한 흙 두덩이를 그 위에 쌓는다.

매장지는 대개 고인이 문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관(地官)의 충고에 따라 선택된다. 때때로 시체는 똑같은 지관의 충고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굴된다.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영혼들과 직접 교통해 처음에 선택된 위치가 적합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이장이 요구된다. 물론 여기에는 격정과 아울러 잘못 매장되었다는 정보에 대한 경비 지출과 특별 요금도 수반된다.

윤회(輪廻)는 그들의 마음속에, 특히 부유한 계층 사이에 일반화된

관념이다. 예를 들어 망자의 영혼은 때때로 새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럴 경우에 친족은 날개 달린 고인의 계승자가 걸터앉을 수 있도록 무덤의 봉분 주위에 조심스럽게 반원형의 돌 난간을 만든다.

이탈리아의 장송(葬送) 합창(Tutti i morti)과 매우 흡사한 의식이 중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들이 고인의 무덤으로 가 기도할 때 슬픔에 잠긴 부모와 함께 소풍을 즐기는 친족들을 의미하려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음력 초하루, 즉 설날에도 흔히 무덤에서 의례가 치러진다. 가족은 일몰 직후에 묘지로 가 기도를 올린 다음 긴 향을 사르면, 동양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친숙한 향내가 사방에 그윽해진다. 결과적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와 같은 원정에 참여한 문상객들은 대개 음식과 술을 가져와 먹는다. 3월에 유사한 연회가 다시 베풀어지는데, 어린아이들과 덜 활동적인 소풍객들이 유쾌히 떠드는 가운데 대개 무덤을 청소하고 수선하며 석상과 말들을 문질러 닦는다.²⁸⁾

3) 새비지-랜도어가 체험한 중구의 무속

19세기 조선의 생활상과 사유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종(1844) 때 중구 필동(筆洞)의 당숙집에 왔다가 중구의 해괴한 산속(産俗)과 무속을 보고 글을 남긴 이규경(李圭景)의 기록에서 당시 무속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규경은 미신적인 방법이나 사고가 아닌 적극적인 방법으로 종두를 퇴치해야 한다면서 변증을 통해 그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지론을 피력하고 있다. 가령 두창이나 여역(癘疫)에 귀신이 간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허황됨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28)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114~117.

질병이란 내부로는 칠정(七情 : 喜·怒·哀·樂·愛·惡·欲)에 손상되고 외부로는 육기(六氣)에 감촉되어 발생하는데, 어찌 귀신이 그 사이에 간여할 수 있겠는가. 두창·여역에만 신귀(神鬼)가 있다고 하므로, 이를 괴이하게 여겨 변증한다.

또 19세기 천연두에 대한 미신을 설명하는 가운데 당시 민중들의 풍속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신(痘神)을 호귀마마(胡鬼媽媽) 또는 객지(客至·손님이 왔다)라 칭하는데, 영남에서는 서신(西神)이라고도 한다. 어린이가 두역을 앓게 되면 매일 정결한 소반에 정화수 한 사발을 비롯하여 온 솔의 밥과 온 시루의 떡을 장만하여 기도를 드리고, 두역이 끝나면 지번(紙幡 : 종이로 만든 표기)·유마(柎馬 : 싸리나무로 만든 말)·짚신 등 두신에게 드릴 물건을 마련하여 전송하는데 이를 배송(拜送)이라 한다. 어린이가 처음 두역을 앓을 적에는 모든 동작(動作 : 집안의 각종 토목공사)이나 그 부모의 합방 등을 일체 삼가야 하고, 두역을 앓는 어린이가 혹 다른 증세를 보이면 두신의 빌미[祟]나 다른 옹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속에서, 노봉 민상공(老峯 閔相公, 閔鼎重)이 죽어서 두역을 맡은 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허황된 말이다.(《五洲衍文長箋散稿》 권 57, 痘疫有神辨證說.)

이 밖에도 입던 옷이나 망건 등이 의약의 재료가 된다고 하여 회충을 치료하는 데 망가진 망건을 뜯어다가 가루를 내어 초수(醋水)와 섞어 마시는 풍속, 난산 등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사모(紗帽) 삶은 물을 먹는 풍속, 급사할 위기에 처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항상 입는 면 옷의 때를 미지근한 물에 빨아 그 즙을 먹는 풍속 등이 변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술되었다. 이규경은 자신이 현종 갑신년(1844), 서울 필동 당숙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한 부인이 역산(逆産)으로 이미 태아의 손발이 나온 위기에 처했는데 시아버지가 계속하여 사모 삶은 물을 먹이자 곧 순산하였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두었다. 하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변증하지는 못하겠노라고 토로하였다.(《五洲衍文長箋散稿》 권 57, 衣冠入藥辨證說.)

《무원록 無冤錄》 등에 자주 등장하는 고독(蠱毒)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조선의 사술(邪術)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염매(魘魅)라는 괴이한 것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질하여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인다. 때로 맛있는 음식만을 조금씩 주어 먹이는 바, 그 아이는 살이 속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른다. 이따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다음 죽통(竹筒)에다 좋은 반찬을 넣어놓고 아이를 피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아이는 좋은 반찬을 보고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죽통을 뚫고 들어가려 하는데, 이 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빨리 찢어 죽인다. 아이의 정혼(精魂)이 죽통 속에 뛰어들 후 죽통 주둥이를 꼭 막아 들어간 정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죽통을 가지고 부유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도록 한다. 오직 이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않고 배도 앓는다. 그 모든 병자들이 낮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앓는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과 곡식은 자기의 이득으로 만든다. 이것을 세속에서 염매라고 한다는 것이다.(《五洲衍文長箋散稿》 권 11, 魘魅蠱毒辨證說.)²⁹⁾

새비지도 중구 남산의 굿·바람신·기우제·기자암·장승 등을 통해 중구의 무속 세계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를 소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굿>

조선의 신들은 매우 민감해서 주의를 요한다. 신들은 점술가들을 통해서 사람들, 특히 부유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내리거나 위험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서 중개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것을 고

29) 주영하·김소현·김호·정창권,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돌베개, 2005, pp. 62~65.

치거나 회개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은 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준 댓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도심지 외곽에는 무당들이 여러 방식으로 주술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정렬해 있다. 가난한 사람이나 지체 높은 사람 모두 이 곳의 단골손님이다. 귀청이 터질 듯이 고향을 지르고 손뼉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굿을 함으로써 병마를 쫓고 고통을 약화시키며 재앙을 예방하고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무당 집단을 앞서 말한 종교 집단으로 여기지는 않으며 한두 집 정도는 도성 안에서도 볼 수 있다. 지독히도 시끄러우며 특히 여자들이 무척이나 신봉하는 그러한 집 한 채가 서울의 경계를 따라 서대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남산의 등성이에 도 역시 한두 채가 있다.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곳은 대체로 집 앞의 탁 트인 평지에서 이루어진다. 무아지경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무당을 중심으로 여러 기원자들이 둘러앉는다. 더 많은 돈이 놓일수록 소리는 커지며 푸닥거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가운데에 앉아 있는 무당은 이따금씩 일어나서 원을 만들고 있는 한 여인에게 급작스레 다가 가서 그의 몸 안에 악귀가 섞여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등을 격렬하게 두드리거나 흔들여 낸다. 그는 별도의 돈을 더 내서 특별한 굿을 함으로써 그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암시를 받을 것이다. 몸 안에 무엇인가 들어와 있다고 느낀 그는 공포 때문에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고 북을 두드리고 고향을 질러대는데, 결국 악귀를 내쫓은 후에는 무당이 특별히 요구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한다.³⁰⁾

<기자암 祈子庵>

비록 남산이긴 하지만 봉화대로부터 2~3야드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사당을 갖고 있는 그림 같은 붉은 색의 중국 절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특별한 중국 절을 방문하면 아이를 쉽게 갖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조선의 여인들은 믿고 있다. 만일 내 기억이 맞다면 기도자가 몇 개의 돈 꾸러미를 준비하여 절

30)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 197.

에서 하룻밤 머무르는 것으로도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충분한 봉사가 된다. 나는 많은 경우에 신탁(信託)이 아주 잘 먹혀서 적당한 때에 어린애를 낳는 것으로 그 기복(祈福)을 보상받게 된다고 분명히 들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중국 절의 관리인은 근육질의 건강하고 힘센 남자였다.

우리는 지금 새의 눈으로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지점에서 있으므로 도시를 한 번 죽 훑어보는 것도 괜찮을 성싶다. 목전에 두드러져 보이는 궁궐의 큰 담 뒤로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다. 우선 남산의 언덕 기슭에는 작은 일본 공사관이 있고 그 아래로 일본인촌이 보인다. 그 주변의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에 중국 공사관이 있으며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붉은 벽돌집은 영국 영사관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국과 러시아 공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구역이 있다. 궁궐 더 가까이에는 독일 영사관 위에 나부끼는 독일 국기가 보일 것이다. 독일 영사관은 유럽식으로 개조되어 매우 안락한 몇 채의 한옥들이 있는 담 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협판이 살고 있는 집은 유리로 앞면을 한 큰 집인데,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수녀원과 몇몇 선교사들의 집은 대개 일본인들의 집과 이웃하여 있었다.³¹⁾

<기우제>

봄이 완연해질 무렵 현관 밑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악마 같은 소리가 종종 들려온다. 만약 날씨가 매우 가문 때라면 당신은 여러 명의 남자와 수많은 아이들이 서너 개의 커다란 북을 두드리며 목청을 높여 비오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우제(祈雨祭)는 그들이 악마 같은 소리를 지르며 기후의 신(Weather-clerk)의 주목을 끌어내는 댓가로 지주들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치러진다. 만약 구름 때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출에서 일몰 때까지 이것은 계속된다.

현명하며 맑은 날씨를 흐리게 흐린 날씨를 맑게 바꾸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는 안경을 쓴 한 점성가는 자신의 신비로운 의식이 수행될 장소에 군중을 모으기 위해 구세군과

31) A. H. 새비지-랜더,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122~123.

똑같은 방식으로 제등과 꽃줄을 들고 수도의 간선 도로를 말을 타고 지나간다. 이제 시종들의 시봉을 받고 그가 높은 안장에서 내리는데, 그는 여전히 팔 아래를 부축 받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은 혼자 힘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윽고 그는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그 장소에 도착한다. 그를 숭배하는 조선 사람들은 “그의 모든 지식을 운반하는 데는 실제로 상당한 피로를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비오기를 기원할 때 이 점성가는 자신의 양손을 펼치고 가장 강력한 독설로 태양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비난을 퍼붓는다. 그리고 나서 그가 태양을 향해 대노하자 참석 한 모든 사람들은 고함을 내지르며 저주하듯이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비의 신은 자기 뒤통만큼의 모욕을 받고, 점성가는 즉흥적으로 비의 신을 심하게 책망하며 자신의 일을 계속한다. 때로는 비의 신에게 간청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이와 같은 악마적인 의식 행위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된다. 이와 같이 낡고 유령이 출몰하는 궁궐의 현관은 이러한 의식을 행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내가 식객으로 머물고 있던 그레이트하우스(C. R. Greathouse) 씨의 집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광신자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당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내는 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난폭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³²⁾

<바람신>

조선 사람들의 생각에 바람은 신이 매우 강하게 숨을 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 번개, 전쟁, 기근, 곡식 등에도 각각 특별한 신이 깃들여 있어서 적절한 때를 골라 올바른 방식으로 기원하지 않는다면 예기치 못할 때에 사람들은 앙갚음을 당한다.³³⁾

32)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101~102.

33)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p. 196~197.

<장승>

조선의 신작로의 이정표는 아주 이상하다. 만일 당신이 밤에 처음으로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신이 잠들자마자 악몽에 시달릴 것임에 틀림없다. 이정표들은 높이가 8피트쯤 되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맨 위쪽 부분에는 길다랗고 송장같이 무시무시한 얼굴이 멋대로 조각되어 있으며 흰색과 붉은 색으로 칠을 했으며 눈은 검고 빛난다. 얼굴의 주요 부분인 입은 크기가 굉장한데 딱 벌려 있고 뾰족한 이빨이 두 줄로 된 것을 보여 주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레스 해협(Torres Strait : 스콜틀랜드 북부 지방에 있는 조랑말 산지.)의 상어의 이빨을 연상케 한다. 머리의 양쪽에는 각각 삼각형의 나무 췌기가 귀를 표상하고 있다. 거리가 얼마, 등등의 표지들은 머리 바로 밑에 새겨져 있고 한자로 표기된 그 글은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씌어져 있었다.³⁴⁾

8. 신문 잡지에 나타난 중구의 세시와 풍속

1900년 초기의 중구 세시와 풍속 일반을 파악하기 위해 잡지 《신여성》·《삼천리》·《별건곤》과, 그리고 신문 《매일신보》·《조선일보》·《동아일보》 속의 각 사설류를 추출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들 자료에서는 1920년대부터 제기되어 온 이중과세(二重過歲)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회적 반응이 흥미롭다.

<오늘은 음력설, 이중과세(二重過歲)의 고통(苦痛) 설 하나는 지났는데 또 설이 닥치어 이래저래 빗쟁이의 성화만 맞는다.>

34) A. H. 새비지-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신복룡·장우영 역주), 집문당, 1999, p. 43.

북부가두(北部街頭)엔 신춘색(新春色)

천구백이십구년은 벌써 정월도 다 지나가고 이월이 잡혀 아흐렛날까지 이미 지나가지만 음력 무진(戊辰)년은 어제로써 마지막 영점의 저 공간으로 흘러가 버리고 기사 음력(己巳)년 초하로 날을 오늘부터 헤이게 된다. 이중과세를 말자 양력설을 지키게 하자 하는 소리가 이미 낡아 빠졌 슬 만치 되어 버리었다. ‘근하신년’의 년하장도 양력설에 띄웠다는 아주도 썩국은 오늘 아침에야 먹고 세배도 오늘 아침에야 허리를 굽힌다. 새로운 사람들이 ‘근하신년’을 몇 천 몇 만장을 띄우되 빗쟁이는 나머지 회계조를 성화가티 재촉함도 음력 그믐날에 더욱 심하다. 남대문과 배오개장에 설빔, 반찬거리가 산가티 싸히고 종로 큰 거리에 끈목장사의 허리띠, 대님, 당기감이 오색이 찬란하게 바람에 나뭇기며 포목दन 전렬대에는 주단릉라가 휘황하게 행인의 안목을 유인하고 있다. 모도가 설 괴분이다. “돈업서 죽겟군! 빗쟁이 때문에 살 수가 있다. 북어 한 켤도 못 사겟군.”이 가튼 비명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난다. 바람이 차게 분다. 거지가 은행 압해서 울고 있다. 이것이 이중과세를 하는 조선인 시가의 정경이다.

《동아일보》, 1929. 2. 10.

<폐지론(廢止論)을 압두(壓頭)하고 구정기분농후(舊正氣分濃厚) 집집마다 썩국다례 / 거리거리채의 동너>

정월 초하로날이 도라왔다! 구력 정월을 폐지하자는 ‘이론’을 덤퍼 누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깃붙이나 시러운 드시 구력 정월 초하로날은 고요히 열니자 집집마다 ‘썩국다례’가 거행되며 애기네들의 설빔임 타령이 꽃 다음게 시작된 것이다. 슈표명(水標町) 일대와 서소문(西小門) 정동(貞洞) 일대에서 들니는 지나 인물의 ‘중’소리 짝총소리며 곳곳이 문이 잠긴 가개가 즐비하여 정월 괴분은 북촌 일대에 가득히 찻섯으며 오정이 지내며 부터는 진척과 지구간의 세배꾼들이 거리에 버려스니 노랑 적오리 당홍 치마 남두루막이에 보라바지 싸리 애기네가 골목마다 거리마다 훗터져 북촌 일대에는 거의 어린이들의 꽃밭이 된 듯 하얗스며 해가 지며 부터는 집집마다 윗 노는 소리며 널뛰는 소리가 밤이 깊도록 쫓치지 안이하야 금년 구력 정월도 여전히

구습을 떠나지 못하고 ‘이중과세타파론자(二重過歲打破論者)’들 탄식 소리를 덩을 만치 즐겁게 지내게 된 것이었다.

《매일신보》, 1926. 2. 14.

<예년(例年)보다 한산(閑散)한 작일(昨日)의 정초경황(正初景況)
진고개 일인촌도 그 전보다 쓸쓸 조선인 양력 과세는 늘어가는 듯>
새해! 새해가 왓스니 새해의 첫 날을 맞는 서울의 모양은 엇더한가.
새해라고 갑자기 푸르든 하늘이 희여지는 것도 아니며 누르든 쌓이 푸
르러지는 것도 아니지마는 갑자의 새해를 맞는 작일의 하날과 쌓은 이
상하게도 부드럽고 고무어 수일 전까지 서늘이 푸르게 춤든 일기는 평
화의 신이 나란 듯 하였다. 평화에 주리고 우습에 주리고 그리고 고통
만든 지난 해를 도리켜보는 인생은 신년벽두에 차저 온 이 평화로운
첫 날을 엇더케 마짓는가. ‘새해의 복을 비는’ 년화장은 특별취급을 폐
지한 싸닭인지 금유의 군색으로 허례를 폐지한 싸닭인지 작년의 절반
도 못되야 의례히 총총할 듯 하든 테전부의 행색도 매우 유유하였다.
계절 마즌 진고개의 줄침하도 재수가 사나워서 울긋불긋하든 레년의
가진 장식은 고사하고 질소한 ‘몬스끼로-렌’ 사이에 ‘벼집’과 조희 조각
만 가벼운 바람에 흔들릴 뿐이며 삼사 덩목 부근에는 세배 다니는 사
람조차 극히 드물어서 옷 입은 일본 아해들의 ‘하네’ 빗기만 엽섯드면
새해의 새빛도 찾기가 어려웠을 듯 하였다. 남촌이 이러하거든 오랜
습관을 버리지 안은 북촌조선인 부락 일대는 말할 것도 업시 아주 적
막하다. 그러나 종로거리도 자세히만 살펴보면 문을 닦친 상담이 작년
보다는 만흔 듯 하니 이는 일본사람의 상담이었는지 조선사람도 차차
양력을 실행하여서 그러한지 하여간 작년보다 쉬이는 상점, 만흐며 튼
튼히 보히는 중국사람의 덩방에도 오색기대 밋헤 문을 굳게 닦쳤스나
음력을 만드러내인 중국인이라 그런지 역시 적적하다. 북촌 조선인 만
히 사는 길거리에는 세초의 한잔 술을 마시었는지 얼골이 붉어 다니는
사람도 간혹 있고 더욱 보통학교에 다니는 어린 도련님과 아가씨네들
은 새 옷을 입고 일본인 선생의 집에 들가는 모양도 제법 설인 듯 하
며 썩집에도 가래떡이 보통 재보다 만히 팔리고 소고기도 평시보다 더
팔리는 것을 보면 년년히 양력과세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모양이다.

《동아일보》, 1924. 1. 2.

<설명절을 하나로 하자(2)>

더군다나 장사하는 사람으로 은행이나 회사가튼데 거래가 있는 사람 외국사람 교제가 만든 사람일수록 설 두 번을 지내게 되는 것이다. 양력설에는 양력으로 세찬을 해야 하고 세배를 가야 함으로 새 옷도 입어야 하며 신년회니 망년회니 하는데 참여도 해야 하며 남도 대접도 해야 한다.

음력설에는 음력설대로 일가집 친구집에 세찬을 난호아야 하며 로인들에게 세배도 가야한다 그럼으로 꼭 두 번 설을 세계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학교 출신이 만취질사록 회사원이나 은행원 가튼 월급 생활하는 사람이 만취질사록 음력 설법 업시 은하지 못하는 이상 일년에 두 번 설을 지내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음력설을 내 설이라고 하며 양력설을 왜설이라고 하지마는 우리의 력사의 가르치는 바에 의지하면 음력설이 우리의 력사덕으로 고유한 우리의 설이 아니라 지나에서 온 것이다. 그럼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설명절이 업다고 하여도 관계치 안다. 오래 지내 내려온 인습에 저저 그것이 내 설 갖고 우리 설 갖지마는 실상은 그것도 남의 설이다.

양력설을 왜설이라고 하지마는 이것도 왜설이 아니라 서양설이다. 일본사람도 예전에는 지나식 설을 지내 왓지마는 그들은 양력설도 곳 처야만 되겠다는 것을 얼는 깨닷고 음력설을 버리고 양력설을 따르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 1926. 1. 2.

《신여성》 잡지에 의하면, 그 당시부터 이중과세와 힘든 설 준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며느리들의 하소연이 사설을 통해 사회에 제기·반영되기도 하였다.

<한머니의 설과 어머니들의 설>

“나야 다 늙어 죽게된 것이 설이면 무엇하나. 그도 젊었을 때 이약이지 이려구 안저 먹기만 하네 그러.”하고 움으라진 불짜귀를 움을 움을 하시며 맛난 것만 독차지하는 것이 설날 할머니의 일외다. 그리고

절맞기에 허리가 압호다면서도 반절이나 혹 절 안이하는 이에게 “어른 모르는 놈”이니, “업수가 너기는 년”이니 하고 욕 잘하는 것도 설날 한머니의 일ियो, 그리고 아가씨 도련님들예세 감정 잘 사는 이도 한낫 일이라 할 수 잇습니다. 한머니의 설날은 이밖에 업구요, 어머니의 설날은 짝 분주합니다. 오는 소님 가는 소님 인사도 인사려니와 음식차려 대접하기에 정말 바쁩니다. 마술 한 번 갈 틈은 고사하고 뒷 간에만 으래 안저도 연방 차차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날이 □□ 새 옷 한 벌을 못 입고 행주치마 두른 채 방으로 부엌으로 연방 왔다 갔다 하지요. 누가 세배를 하라도 명년에 보자고 연해 피하지요. 어머니의 설날이란 참 분주하지요.

《신여성》, 1925(제3권 제1호).

<며누리의 설과 짜님들의 설>

세상에 녀자치고 남의 집 며누리 안되야 볼 사람이 누가 잇겟습닛가 마는 며누리 노릇하기야 말로 괴롭습니다. 식부모의 감독 남편의 감독 식동생들의 말성 이웃 어른의 눈치- 모든 것이 다 부자유인데 설날가튼 날도 한 푼의 자유가 업시 방구석에서 한숨만 지우며 지난 담니다. 식부모나 혹 남편이 일년 안에 처음 사다주는 당기를 드리긴 드렸스나 누구와 자랑할 곳이 업고 모처럼 어더 신은 신발이 잇스나 어대갈 곳이 업습니다. 널도 함부로 뛰지 못하고 웃도 함부로 노지 못 합니다. 설날이지만 자기방 속에 외로히 턱을 고이고 안저 친당을 생각하게 됨이 보통이고 그러지 안으면 식어미와 가티 부엌시종으로 종일 해를 지운 담니다. 게다가 니악한 식어미나 맛난 이는 맛나다고 함부로 먹다가 불통이를 어더 맛기도 하고 물 안이 갖는다고 불기짜도 찌끔해 지군 한담니다. 하두 궁금하야 혹 대문받기나 바재 엽해 팔장을 끼고 나섰다가는 식아비나 남편의 독한 눈살에 그만 쏙드러 숨어버린 담니다. 며누리의 설날이란 참말 불상하지요.(혹 인심 조흔 집 며누리면 일가 친척의 집에 멧 시간 가서 노다도 오지만)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짜님들의 설이란 참말 조치요, 아주 자유랍니다. 연두저고리 당홍치마 오복수 당기 힘자라는 대로 차리고 나서 이 집저 집 친척의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며 널뛰기 웃놀이 수박치기 조개질

하기 신수보기 원님노름 여호노름 - 별별 노름을 다하지요. 그리해도 누가 욕하지도 안코 누가 두려운 것도 업고 맘대로 웃고 뛰고 한담니다. 이것을 보는 며누리들은 속이 상해서 쏘는 친뎡 생각도 나서 쏘는 처녀 쎄 노든 생각이 나서 방안으로 드러가 한참식 운담니다. 그래서 며누리들은 이런 명절 쎄면 엇더케 하든지 반듯이 친뎡으로 가게 된 담니다. 시골 설날의 가장 풍성 풍성하고 흥미 잇기는 짜님들 모인 곳 이람니다.

《신여성》, 1925(제3권 제1호).

이제 서울이나 평양가튼데 공부갓든 녀학생이 이런 설날을 리용하야 가뎡에 돌아간다 하면 그야말로 그 동리의 부녀자게는 자괴 혼자 썩인 것처럼 아주 거만을 피우면서 얼어나 집난이들의 촌 꼴을 보고 실눅 실눅하며 “엇저면 저래.” 하고 아조 거드름을 쎄담니다. 서울 이약이 평양 이약이 괴차 이약이 자동차 이약이 연극장 이약이 진고개 이약이 학교 이약이 던둥 던화이약이 심지어 서울의 변소 이약이까지 한바탕 쎄드러 놋는 담니다. 이 쎄 식골 녀자라 말귀를 잘 몰라 혹 곱집어 못기만 하면 “아구, 저러케 몰라 드러 엇재. 아이 성가시어-.” 하고 눈을 힐끔하군 한담니다.

이 녀학생은 남에게 칭찬을 들을 겸 자랑도 할 겸 거만도 피일 겸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웬만한 집은 다- 방문한담니다. 방문도 오래하지 안코 잠깐 잠깐 다니며 빗만 보인담니다. “나는 이리케 잘 입고 잘 지내는 사람이란다.”는 자랑도 자랑이려니와 시골 동무들이 부러워해주는 맛에 작구 돌아다닌 담니다. 반듯이 분 바르고 향수 뿌리고 반지 끼고 구두 신고 쌈정치마 입고- 그리고 다닌담니다.

그러나 이 녀학생은 이웃 사람들의 욕하는 줄은 전혀 모른 담니다. 비누 냄새를 맛고 왜놈내 난다고 코를 막는 로파가 잇는 줄도 모르고 트레머리한 것을 쇠뿔머리헛다고 수군거리는 산애들이 잇는 줄도 모르고 굽 눅흔 구두 신은 것을 당나귀 발통 갖다는 소리도 모르고 반지 한 개만 해도 우리는 일년이나 살갓다는 말이 잇는 것도 모르고 “저런 하야카라 녀학생은 엇던 놈이 더불고 사누.” 하는 말도 못 아라 듯고 그저 제멋대로 지낸담니다.

설날 가튼 사람 만히 활동하는 때는 더 한층 기세가 조와 생긱한담니다.
시골의 겨울 기분! 또는 설날의 기분은 대개 이렇습니다. 구수 - 하
지요. 그럴 듯 하지요?(웃)

《신여성》, 1925(제3권 제1호).

설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남대문³⁵⁾·종로통·서대문통을 오
갔던 당시 주민들의 모습이 선히 보이도록 묘사해 놓은 아래의
사설을 통해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정서도 읽을 수 있다.

<오채영롱(五彩玲瓏)한 세시(歲市) 가로 만들기에 분주한 호초장스
오식이 령롱한 각거리 그림쳐즈>

회동좌리가 지나면서부터는 미년의 전례와 꺾치 길거리에 가가 가만
히 느러간다. 남대문통 종로통 서대문통 등 큰 가로의 삼거리 스거리
모퉁이에는 봉지 호초를 싸놓코 서리찬 아참 바람에 입김을 올리우며
호초가루를 만드노라고 연질을 헝기에 분주이라 허리씩 주머니 단임
주머니쓴 쌈지 엽랑 당귀 도투락 등 가지 각종 령롱한 설비음의 물건
을 회석가 휘도록 가득히 거러 가지고 억기가 굽게 들너메이고 허리씩
단임이나 당귀 주머니쓴을 사러헝고 외오고 가는 소리는 설비음 준비
를 미쳐 못헝 으히 부모의 마음을 더욱이 분망헝게 헝는 듯헝더라. 파
장스 무장스는 팔단장안을 안이홀 말로 무엇 차단이 듯 헝는딴 각 집
어멈의 복음이 썬 모양 치롱머인 그림즈는 복까듯이 황릭 헝다 못지
안이헝야도 과세헝정인가 보다. 종로 각전의 약간 남어잇는 여러군들
은 일년 열두달 중에 오스이가 데일 도흔 세월이라. 손님을 쓰는 목소
릭도 기운츠게 들니우는 것은 헝정이 도흔 바름에 여손이가 주머니를

35) 곡식·잡화·건어·과물·수산물 등 불박이로 벌여놓고 대규모로 날마다
도산매하던 서울의 큰 시장은 동대문과 남대문의 둘을 들 수 있다. 동대문을
‘배우개장’-예지동에 있었으므로-이라 헝고, 남대문장을 ‘남문안장’ 또는
‘신창(新倉)안’이라고 일컬었다.

‘신(新)’ 자가 붙은 것을 보면 배우개장보다 뒤에 생긴 것을 추측할 수 있
으며 이 근처에 미창(米倉)이 있었던 관계로 남문안장 자리를 남창동이라고 하
게 됐다. 신창안이 생긴 뒤 배우개장을 동창(東倉)이라고 부르기도 했다.(趙
豐衍, 《서울잡학사전》, 정동출판사, 1991, pp. 128~129.)

부르게 하는 모양이라. 이전 갓하면 음력 선달 금음의 이맘 석에 좀도 적이 각처에 흥흥하야 각처의 피히가 하로에 몇 가지식 되고 골목에서 옷을 벗긴다 흥기를 가진 강도가 드러간다.

놀나올 쇼식이 쓰엄 잇섯지만은 금년 겨울에는 절도 스고도 극히 적고 강도는 아조 업는 세움이라. 이것을 위쥬하야 경찰기관이 완비하며 또한 세월이 다른 히보다 민우 도와서 빈곤한 량민으로 하야곰 도적이 되게 하는 비참한 일도 업섯슴도 중대한 원인이라. 아직 관청회사의 월급이 나오지 안이한 사담에 그것들을 기다리고 잇는 편이 만치만은 경성시가에 가득한 가가 머리의 광경은 셋들 금음의 빛이 정히 깃혔더라. 모를던의 령롱한 남바위불찌도 보기에 고우거니와 담비가가에 식부업되는 당기혀피 등도 고와보이기 흥량업다. 세월 도흔 세모에 식스러운 남바위 식스러운 허리띠를 못 가지난 으히는 얼마나 불상한 누구의 집즈너일가. 람루한 으히들이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모양이야말로 분주한 금음 밋최 홀로 한전하야 보이더라.

《매일신보》, 1917. 1. 20.

쓸쓸하지만 새배객으로 충만한 경성시중의 모습과 오색찬란한 아희들의 설빔차림, 세찬 준비, 그리고 신년(세모)의 시장 경기를 묘사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번화(繁華)한 신년(新年)의 시장(市場) 쓸쓸한 경성시중에는 세비직으로 충만하엿다. 오치 령롱한 아희들 설빔>

시디진운에 짜러서 도선에서 데일 디절하게 역이는 음력 정월 초하로 명절도 히마다 그 다시 디절하게 역이지 안어 오는 상티는 더욱 현저히 보이는 바이지만은 금년 경신의 시히를 당하야는 작년보다 투철히 달너서 별로 명절다워 보이지도 안는 것 갓다. 이것에는 음력 명절을 차차 세우지 안으라는 풍도도 잇는 것의 원인도 되겠지만은 금년에는 온갖 물종이 텃디기벽 이후에는 처음가게 고통하야 좀체 형체로는 시시히 명절을 제법하게 차려 먹을 수 업는 사담도 한 원인이다. 변번치 못흔 밤 한 되 신승으로 히도 팔구십전이요 호곡감(胡乾柿) 흥 접에도 이원 이상이며 쏘는 더 말홀 것도 업시 치자 한 기에 일전식이라는

말이다. 쏘는 저사락갓흔 썩 한 가래에 이전으로 이전 오리식이다. 이와갓치 낫뚜녕이 믹히는 고등훈 물가에 명절인들 무슨 명절갓흐리요. 그러헝기에 남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의 음력 년말 시황은 크게 썰치지 못 흐았다. 그러나 집집마다 철물으는 어린 아히의 줄으는 것에 못 익이여 그러도 울긋불긋하게 입혀니여 세우며 다만 조금식이라도 차려 지닌 모양이요 시니에 각 상덤은 모다 털시햐야 거리는 아조 쓸쓸훈 가운데 오석이 령롱하게 도라 다니는 것은 다만 세비 단이는 어린아히들 뿐이며 쏘는 어린 아히들의 세비햐야 바든 돈을 췌앗느라고 고무로 만든 공기선과 피리 갓흔 것 등의 여러 가지 장난쌘을 팔러 단이는 쯤씨러운 장사도 잇스며 아직까지도 습관으로 내려오는 구풍이 업서 지지 안어서 홍식 면쥬실 갓흔 것도 팔너 단이는 로파도 잇스며 한 편으로 지나 사람들은 상덤을 굳게 닷고 남묘(南廟) 동묘(東廟) 갓흔 곳에 참비도 흐며 쏘는 몇 히 동안 보지 못하든 폭죽도 노아서 그 사람들은 제법 명절인 듯이 지내는 것도 볼만한 광경이다. 그러나 이와갓치 쓸쓸히 보되는 명절이라도 혼 가지 깃분 것은 우리의 데이 자손될 의업부고 잔양그러운 어린아기들의 혼 살식 더 먹어 무력 무력 자라가는 것이 그 중에 혼 가지 깃분 것이다.

《매일신보》, 1920. 2. 21.

<구세모(舊歲暮)와 경성시황(京城市況)>

첫째 도름전을 보면 별로 갓진 옷감은 써갈 생각도 업고 아히들 당기 감이나 쏘는 쇼익의 치마감 기타 줄닥홀 흥정이 간혹 잇슬 다름이오 데일 그 중에 가관홀 것은 본목(本木)을 정월 하로놀브터 입게 된다 하야 각 포목전에 본목 진렬이 이왕 보지 못하던 상황인 중에 흥정이 업서서 가가 쥬인은 눈썰만 씨프리고 잇다. 그리고 길거리에 간혹 끈목 장스들의 오고 가는 것만 눈에 띄우나 혼 가지 팔니는 경황이 업습은 놀놀 만한 일이며 늑대문 동대문시장을 볼작이면 다른 것은 고만 두더 리도 일용품은 더러 팔리는데 북어 혼 췌에는 팔구십전식하며 싱치자 용에 일원륙십전식이오 고기 한 근에 사십오전을 하나 정말 대목에 가셔는 엇지나 될나는지 지금 갓은 질덩치 못하겟스며 세찬은 근리 와서 아췌 업서섯다 하여도 과언이 안이나 그러도 년년히 세찬하는 사름은

다쇼간 준비하는 모양인데 두 시장에 스름은 테를 매울만하게 잡담하
지만은 물건 한 가지 스가는 스름은 별로 업서서 싸구료 소리에 목구
녕만 터질 디경이라. 데일 만히 쓰이는 곡감도 다소 빗싼 시세로 조흔
것 한 점에 이원을 넘겨 주어야 하며 밤감이 좀 빗싸서 한 말에 구십
전하던 것이 별안간 일원이 삼십전식이니 되었다.

《매일신보》, 1923. 2. 10.

<음력세모(陰曆歲暮) 골목 골목마다 힌 썩치는 소리>

시디가 빗귀고 풍속이 변함에 싸라 우리 조선에서는 과세하는 것조
차 일치하지 못하여 혹은 양력으로 혹은 음력으로 디방과 디방 사이에
인심이 다르고 사회와 사회 사이에 관념이 갖지 안이한 것은 밋우 유
감으로 싱각하는 바이나 아직도 우리 조선에서는 양력보다도 음력으
로 설을 쇠는 사람이 만히 잇서서 금년도 오날오서 □을 막고 식해도
하로 날뵈게 남지 안이 하였는 바 시내 각 시장에서는 설홍정을 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밋밋도 더러 잇는 모양이오 골목 골목
에서 이러나는 썩치는 소리는 설날을 당하는 소식을 던하는 듯하다.
그러하나 금년에는 경제가 꺾박한 싸둑에 전과 갖치 성왕하지는 못하
야 설디목을 일년 사이에 다시 업는 장사하기에 조흔 시기로 알고 기
더리든 상인들은 실망이나 다름업는 디경에 이르렀으며 길거리에 늘
어선 설보임 형상조차 손뿌만 불고 잇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심을 말지 안이 하겠더라.

《조선일보》, 1923. 2. 15.

경성신사에서 지낸 일본식 신년제 기록과 진고개의 일인 풍속
을 읽으면서 우리는 을시년스런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감정에 휘
말리게 된다. 또 《동아일보》는 그 당시 중구에 주로 체류했던
중국인들의 신년 풍속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놓고 있다.

<경성신사(京城神社)의 기년제(祈年祭)>

풍우가 업시 오곡이 풍등흔 축원제>

금 십칠일은 년력에 풍우의 지희가 업시 오곡의 풍등을 신전에 기도

흔는 기년제(祈年祭) 당일인 바 도령에서는 이 세신궁에 칙스를 보너 시는 일이 있고 관국폐스(官國幣社)를 위시호야 전국 일반의 신사는 대제식에 의호야 제단을 집형호고 모든 폐빅을 드리는 일이 잇서서 건국 이리의 신던제가 되야 제스상에 그의 의기가 상 김흔디 제일인디 경성신사에서서는 당일 오전 열시삼십분부터 대제식에 의호야 제전을 집형호는디 당일 아침에 직원은 신던 기타 장식을 호고 덩각에 지쥬 이하 지원 령인을 위시호야 씨즈 총니부윤도장관 등이 발소에 참침흔 후 일동이 덩흔 곳에 안지고 지쥬가 승던호야 고아흔 화금(和琴) 경필 중에 어비를 열고 각 지원이 슈십□의 신찬을 쥬악 속에 맞치고 맞치면 지쥬는 경성부에서 공진한 폐빅을 신던에 맞치고 기년제 축스를 쥬상호고 옥관을 드리고 참렬흔 각 원 일동도 옥관을 받들고 다시 쥬악 속에 신찬을 거두고 지쥬가 어비를 닷고 제식을 맞치는 바 일반인스는 그 제의의 유리잇는 것을 알고 함피 성의로 참비호야 기도홀 일이더라.

《매일신보》, 1920. 2. 17.

<원일(元日), 시내(市內)의 난관(難觀) 나막신 소래가 요란한
진고개 도소주에 취한 세배군의 얼골>

작일은 양력 정월 초하루날이라 진고개 거리에는 가문(家紋)을 붙친 쎄배두루마기를 썰져란 세배군의 나막신 소래가 요란하얏스며 테던부들은 설날도 놀지 못하고 세배편지를 전하기 위하여 가가호호로 발재이게 도라다니는 것도 한 가지가 이 업슨 일로 보이엇다. 조선 사람 편으로는 그 다지 정초 가튼 맛이 보이지 아니 하얏스나 엇지 하얏던지 던차는 평일보다 매우 복잡하얏스며 보통학교 성도와 녀학생들은 학교의 신년례식이 맞친 후 각각 동모들끼리 쎄를 지어 선성 집으로 짜로히 세배 겸 놀너다니는 모양도 정월초하루의 길거리를 변화하게 하얏스며 북촌거리에도 제상(祭床)이 왔다 갔다함을 보면 아마 조선 사람 중에도 정말 양력으로 설을 쇠인 사람이 차차 느러가는가 하는 생각을 이르키게 하얏스며 더욱히 일기가 봄날 가치 짜썻하얏스므로 시증으로 도라 다니는 사람이 만햏는데 레복에 놓흔 모자를 쓰고 인력거를 타고가는 신사의 량협에 귀발기 술빚이 불그

레한 것이 더욱 새해인가 하게 되었더라.

《동아일보》, 1922. 1. 2.

<음력설도 하루뿐 중국인들은 폭죽 준비에 분망>

음력 설날인 정월 초하로가 래일로 박두하였는데 아직 넷날 관습을 직히는 대다수의 일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설준비에 분주하는 중인 바 더욱 서울에 재류하고 있는 일반 중국 사람들은 고국을 떠나 있는 신세라 여러 가지로 성대하게 지내려 준비하는 중이며 그 중에도 자기 네의 풍속대로 폭죽(爆竹)노리를 하고 저 화상총회(華商總會)에서 이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경기도 경찰부에 교섭 중이더니 작일 아래의 조건대로 하여도 무관하다고 허가하였더라.

◇ 장소 중국인자택원(中國人自宅前)

◇ 일시 1월 23일 오후 6시 - 12시 24일 오후 7시 - 오후 1시 25일 오후 6시 - 오후 8시 27일 오후 7시 - 오후 10시 결(迄) 8일 동상(同上)

그런데 이 폭죽 가튼 불노리로 말미암아 만일에 화재 가튼 일이 난다면 그 책임은 전부 화상총회에서 지기로 하였더라.

《동아일보》, 1925. 1. 23.

《신여성》과 《동아일보》에서는 정초 민속놀이를 통해 민족정기를 되찾아야 함을 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러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정월

<달마지와 답교(踏橋)>

정월 보름날에는 녀자도 남자와 가티 달마지를 하는데 총각이 먼저 달을 보면 그 해에 장가를 가고 처녀가 먼저 달을 보면 그 해에 시집을 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날에 다리(橋)를 여러 곳을 밟아가면 그 해에 각기(脚氣)가 업다고 하여 남녀가 모도 나아가서 다리를 밟으며 달구경을 하는데 그것을 위지 답교(踏橋)노리라고 한다. 서울에서는 전날에 대소광중교(大小廣橋)와 수포교에서 답교를 만히 하였는데 남자

는 14일 여자는 15일에 하였다. 지봉유설(芝峰類說)이란 책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풍속은 옛날 고려시대(高麗時代)부터 있던 것으로서 이 조에 와서 꼭 승행하였었는데 남녀가 너무 혼잡하여 풍기상자미업는 일이 만었슴으로 법관이 금지하여 남자 답교는 그대로 잇었스나 여자 답교는 점차 엄서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풍속은 비단 우리 조선에만 잇는 것이 안이라 중국에도 잇스니 중국에서 소위 주교(走橋) 주백병(走百病)이라 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신여성》, 1934. 1.(8권 1호).

<답교>

보름날 초저녁부터 남녀로소할 것 업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가 노힌 데로 가서 이 다리에서 저 다리로 저 다리에서 그 다리도 다리라는 다리는 모조리 밟아가며 삼오야(三五夜) 밝은 달을 보고 이속해서 도라와 자는데 일년 열두 달에 응해서 열두 다리를 밟아야 그 해 일년 동안, 다리를 알치 안는다고 합니다. 이 풍속은 고려 때 당(唐)나라에서 건너온 풍속이라는데 다리를 알코 아니 알코는 그만두고라도 정월 십오야(正月十五夜) 달 밝은 밤에 다리로서 다리를 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시적 정취(詩的情趣)에 넘치는 풍속입닛가. 그러니 더욱 이 색다른 거리의 다리일수록 더욱 변화할 것도 상상할 수 잇는 일이요 또 이 날이요 이 저녁이니 죄업는 청춘의 ‘리-브썬’도 귀엽지 안습니까. 옛시조(時調)에 “사랑이 쓰드냐, 달드냐, 궁그드냐, 모지드냐, 길드냐, 짤드냐.”라는 말이 잇거니와 이따의 청춘 이 시대의 남녀야! “저 달을 보라!”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1937. 2. 24.

<설(雪)의 상원(上元) 정월이라 보름날 답교노리를 갈가>

음력 정초도 그럭저럭 다 지나가고 오날을 벌써 보름이로구나. 속담에 일년지익을 주어 보닌다는 제옹하조롱은 벌써 십사일적벽에 집집마다 단이며 “제옹이나 조롱 줍시오.” 흐는 도령님네를 너여주니 인년 너에 신수 불길흔 일은 업슬 것이요. 또 연날리는 사름들은 보름 동안 유패히 날니던 연은 공중에 높히 날너 익막이도 흐앗슬 터이니 마음에

좀 섭섭은 하나

▲ 금년은 만스형통 어웃도 남즈의 유희라 홀만 혼 평평 쉼녀 노는 웃도 오날씨지 밧게는 못 놀겟다 햐야 목이 쉬도록 모야 웃치야 햐는 사롭도 잇슬 터이니 이리흔 일은 일시 홀만 혼 유희라 햐겟지만은 혹 신년에 손가시를 썸이다가 창뵈당흔 사롭이나 업는지 안이라. 그러흔 일을 엇더흔 사롭이 신년 정초에 햐리가 잇슬리요. 엇더 혼던지 정초에 홀 일이라고는 아마 오날 저넛ㄴ지에 다 햐얏슬 터이지 그러햐면 오날 밤에는 아마 곳도 홀 것 잇나 안이 안이어 작데일 점잔코

▲ 유패햐고 즈미잇고 홀만 혼 것이 썸 하나 남얏스니 이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이저 바리지 안이햐고 햐마다 의례햐 햐는 답교라느 낫이라. 그러치만은 금년 답교는 우극히 유치홀 것이라. 다른 햐에도 혹 업지는 안이 설이 기지햐야 밝고 밝은 보름달이 업셔도 한번 사삼오오히 작반햐야 답교를 홀만 혼디 더구나 밝은 달이 둥글고 둥글어 조금도 흠뎀업시 중련에 둥둥 썸잇스니 한번 답교햐지 안이햐고 엇지 햐리요. 그러치만은 남의 모양년 버션 등은 부디 밧지 마시오. 하.....

《매일신보》, 1915. 2. 28.

<보름노리 류행하는 여러 풍속 경성에서 성풍한 답교, 부인네들의 직성푸리와 잣불, 미신의 습관은 버리자>

금일은 음력으로 정월 십사일이다. 발서 음력 정월 초승도 썸결가치 지내가고 대보름달을 하로 압혜 격햐야 온 것이다. 정월 초하로에 다 음가는 보름노리도 지난 초하로날의 상황을 도라보와 여러 가지 구습이 되푸리될 것은 의심할 것 업슬 것이다. 임의 시내 각 시장과 ‘모전’에는 ‘호도’ ‘잣’ ‘밤’ 등 부름가음이 느러 노혀 잇스며 ‘제용’을 지고 다니는 아해들도 곳곳이 보히게 되얏다. 보름노리로는 일족의 행복을 덤치는 잣불 - 아해들의 가장 고대하는 부름짜기 - 산아회들의 작란으로 ‘익매기’ 연날니는 것 - 일반덕으로 성행되는 ‘답교’ - 부억득이들의 큰 일거리가 되는 ‘오곡밧’ 짓기 - 등 진진한 재미잇는 노리는 음십사일 십오일 량일에 열니는 것이다. 구습에 의햐면 십사일 밤은 상민의 답교날이요 십오일 밤은 량반의 답교날이요 십륙일은 기생의 답교날이며 답교는 광교(廣橋)가 중심이 되얏스나 요사히 답교는 ‘데모크라시’

화해야 너나 업시 한 날에 답교를 하며 다리도 개화를 하여 광고보다도 돈량이나 잇는 사람들은 자동차로 그러치 아니하면 던차로 한강털교를 차저가며 더욱히 수직성에 든 아해가 잇는 집안에서는 ‘어부심’을 싸 가지고 한강으로 차저 나아가는 이가 만흔 것이다. 보름날은 새해의 첫 노리의 마조막 가는 날임으로 사랑에서는 윤노는 소리 안에서는 널뛰는 소리가 더욱히 세차게 들리는 것이며 십사일 밤에는 ‘제룡직성’이 든 집마다 제용치러 다니는 사람들의 “제용이나 조롱 주십시오.” - 소리가 밤이 깊도록 들리는 것이다. 더욱히 미신 김흔 안로인이나 잇는 집에서는 집안 곳곳이 불을 켜노와 집안을 밝게 하기도 하며, ‘오패 책’과 ‘오챙’ 보기에 밤이 깊혀가는 줄도 모르는 것이다. 자손을 ‘남묘’이나 ‘동묘’에 비러 나흔 이나 혹은 ‘절’에 비러 나흔 집에서는 반다시 ‘술아’이나 ‘불공’을 밧치어서 압호로 일년 동안의 청복을 빌며 겸하여 ‘남묘’ ‘동묘’에 가서는 일년 신운을 덤치는 ‘침시’도 내려보고, 아해 기다리는 부인네는 ‘일산’도 들려보아 압일을 덤치는 습관이 잇는 것이니, 보름노리는 대개 압호로 일년 동안의 운명을 빌며 덤치는 것이다. 그러나 미신의 시대는 지나갔다. 현재의 조선사람은 그 짜위 미신의 말을 밧기에는 너무 썩이었다. 해마다 보통학교로 드러가는 도련님과 아가씨네는 이것을 되푸리 하지 안으리라. 공설시장에서 매매되는 보름 시세는 아래와 같다.

- 잣, 소두 한 말에 일원 사십전
- 호도, 소두 한 말에 이원으로 이원오십전까지
- 밤, 소두 한 말에 일원이십전으로 일원팔십전까지

《동아일보》, 1924. 2. 18.

<답교상 踏橋床>

서울 안의 열두 다리를 밟으면 일년 중 재앙도 업고 다리사병도 업다 고 하여 성행하였다. 하나 보통 큰 광종교 작은 광종교 수표교 - 세 다리만 밟는 것이다. 이 날사밤은 야금(夜禁)도 아니함으로 답교하는 남녀가 사람사물사결을 일워 밤새도록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한 때 무뢰지배가 썩을 지어 단이며 부녀를 룡락한 일이 잇서 중고부터 녀자 답교는 근지되고 말었다. 그 썩더러 답교에도 번상의 등분이 상사람

담교는 열나흘 날 저녁이요 양반담교는 보름날 저녁이다.
담교하고 나서는 음식을 먹나니 이를 담교사상이라 함.

《별건곤》, 1933. 3.

<명일(明日)은 대보름>

명 이십오일은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날! 골목길 가가머리에는 부으
름과 제옹이 기절의 신호수가 되어 묵은 민속(民俗)을 말하고 있다. 이
날 제옹을 버려 일년간 액을 물리치고 부으름을 먹어 일신의 병마를
막는다는 것은 오래 흘러 내려온 죄없는 미신이겠지마는 문안 문박 사
녀들이 이 해의 첫 보름달을 마즈며 담교(踏橋)를 하는 고습관도 요지
음 젊은 남녀들의 철을 가리지 않는 ‘란데브’로 박구어 짓고 해동한 뒤
를 따라 훈훈하게 뺨을 시처가는 일은 봄바람이 코압해 닥친 화절의
첫 예고를 끼치고 갈 뿐이다.

《조선일보》, 1937. 2. 25.

<풍흉을 점치는 여러 가지 풍속>

정언학인(鼎言學人)

정월의 노리도 지방 지방이 다르니만큼 그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닙
니다. 첫째 윷노리를 비롯하여 연날리기 변쌈, 줄다리기 쏘싸움 걸넛패
별감(別監)노리 등이 있고 부녀자의 유희로는 박윷노리 널뛰기 상륙치
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널뜨기는 옛날 지라 당나라 현종(玄宗)의
총애를 맞든 양귀비(楊貴妃)가 늙은 임검의 따뜻한 사랑을 흠신 밧으
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록산(安祿山)이라는 어엽분 남자에게 추파를 보
내어 때때로 만나 사랑을 속살거리고 십호나 구중 궁궐에 갇히 잠긴
몸이 되어 뜻차치 못함으로 교묘한 꾀를 비저내인 것이 이 널뛰기이니
높은 궁성을 사이에 두고 양귀비는 궁성 안에서 널을 구틀고 안록산이
는 궁성 밖에서 널을 굴너 공중에 몸을 소슬 때에 서로 그림든 사랑의
실마리를 잇게 되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전설이니 만큼 누가 꼭 맞는다 할 수야 잇겠습니까.

또한 연날리기로 말하면 옛날 지라 전국(戰國) 때에 군중에서 서로
격서(檄書) 가튼 것을 보낼 때에 한 통신방법으로 썼다는 전설이 또한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전설노만 들어들 것 뿐입니다. 그런데 고려(高麗)의 최영 장군이 일즉 탐라(至今 濟州)를 칠 때에도 또한 연을 군용으로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별감노리라는 것은 별감들이 때를 지어 가지고 정월 열나흔날 저역에 새로 교방(敎坊)에 들은(지금으로 비유해 말하면 권번) 기생집을 차저 다니면서 기생을 시달리는 유희이니 물론 좃치못한 악습인 것은 더말 할 필요가 없으나 이것이 당시에는 한 풍속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월노리에 대하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오리(梧里) 리정승이 전라감사로 잇서 그 곳에서 과세를 하게 됨으로 가족 중에서 새해 인사차로 내려간 사람이 잇는데 리정승은 그 손님에게 대하여 뜻 아닌 말을 물었습니다.

오리 : 요사이는 정초이니 예전 모든 풍속이 여전 잇을 것이다. 첫째 남북촌 사랑의 윷 노는 것이 어떠한가?

손님 : 전보다는 신신치 못합니다.

오리 : 그레? 그러면 중촌 사람의 연날리는 것은 어떠한가?

손님 : 그것도 그대지 굉장하지 못합니다.

오리 : 흥 그레! 그러면 문밧게 변쌈하는 것은 어떠한가?

손님 : 그도 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오리는 손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매우 처참한 얼굴빛으로 들어가며 못다가 꺾호로 그만 눈물을 흘리며 매우 비참해 하였습니다. 그 손은 오리의 못는 말과 더구나 우는 것이 모다 알 수 업는 일이었습니다. 오리는 평일 어느 때를 물론하고 매양 국사를 염여하여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니 오래간만에 맞나는 사람에게 웅당 조정의 형편을 물을 것이 어늘 어찌해서 그런 말을 서곳에도 올리지 아니하고 별안간에 윷 놀고 연 날리고 변쌈하는 것을 못는가? 하고 이상하여 그 꼭절을 오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리는 매우 비참한 태도로써 대답하기를 “윷노는 것으로 양반계급 자질의 괴상을 알 수 잇고, 연날리는 것으로 중인계급의 괴상을 알 수 잇고, 변쌈으로 하등계급의 괴상을 알 수 잇는데 그와 가티 세 계급의 노름노리가 부실한 것은 세 계급의 괴상이 모다 줄어진 것이오 세 계급의 괴상이 모다 줄어지는 것은 장차 나라의 운수가 줄어지는 것이니 어찌 슌호지 아니하냐.” 하는 말이 잇다 합니다. 아닌게

아이라 유희라는 것은 잠시 작란이라 하겠지만은 그것으로써 그 국민의 품성과 기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문명국 사람들도 엿보는 사실입니다. (끝)

《조선일보》, 1934. 2. 17.

<편싸움>

삼문밖(서대문 서소문 남대문 밖) 사람과 아현 사람과의 편싸움인데 룡산 삼개(麻浦) 사람은 아현을 응원하여 주는 것이다.

싸움 터는 지금 양정보고 부근에 있는 만리사재나 청패 부근에 있는 우수사재다.

삼문밖이 이기면 경기도가 풍년들고 아현이 이기면 팔도가 풍년든다고 하고 서로들 성벽을 내어 혹은 몽둥이를 들고 혹은 돌맹이를 들고 나와 싸우는데 고향을 치고 겨르며 이마 깨지는 이 팔 부러지는 이 혹은 죽기까지 하는 이도 있다. -그만 둥시다.-

《별건곤》, 1933. 3.

<편싸움(石戰) 제석부터 사원까지>

金秉坤

편싸움! 이름만은 배부르게 들었스되 보지는 못하였다. 그 경기방식에 있어서도 돌로서 팔매 친다는 것, 돌에 마자서 머리가 벌어지면 싸움여매고 덤빈다는 것, 편싸움을 하다가는 죽는다 하여도 법률에까지 아모 일이 없다는 것, 이러한 단편적이었다.

그랬더니 이번에 춘원(春園)께서“세시풍속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 듣고 이것 저것을 뒤져 보다가 이 편싸움에 관한 기록을 처음 보았다.

그것은 도애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와 냉재 유득공의 《경도잡지》와 《당서 唐書》 고려전에서이다.

이제 이상에 열거한 새책에서 본 것을 종합하여 말하면 이리하다. 신정이 되면 서울서는 편싸움이라는 풍속이 있다. 삼문(三門外)박게 사는 사람들과 아현(阿峴)사는 사람들이 각기 한 편씩 째를 지어 가지고 혹 방망이도 들고 혹 돌로서 서로 던지며 ‘악’ ‘악’ 소리를 질고 아주 전쟁 상태가 터 열들을 내어서 싸운다.

그런데 대개 만리재(萬里峴)에서 접전이 되는 것이며 어느 편이든지 방망이와 돌 탄환을 무서워하여 만리재에서 물러서는 편이 지는 것이다.

속설에 삼문박기 익이면 경귀도의 그 해 농가가 잘 되고 애고개(阿峴)편이 익이면 외도(外都 : 이를테면 평안 함경 경상 전라 등)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케 용졸들이 몽치와 돌로다 서로 죽어라 하고 싸움을 하는 판에 룡산과 마포에 사는 악소년들이 수업시 결당을 하여 가지고 애고개 편을 후원 하였다. 한창 열중하여 싸울 때는 고함치는 소리에 땅이 꺼지는 듯하다. 몽치나 돌에 마저서 버러진 머리를 싸 동여매고 번개가티 서로 치고 바드매 이마가 깨어지고 억개가 찌러지며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물과 가티 흘리면서도 악을 쓰고 덤빌 뿐만 아니라 비록 죽는다 하여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또한 죽거나 죽이거나 법률이 이 마당은 침범치 못하였다. 그러하므로 행인들은 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피하였다.

이 싸움이 이러듯 위험하매 당시의 사법기관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적지 안흔 함을 □스되 원체 궂게 든 병이오 뿌리 기픈 습속이라 완전한 치료를 못하게 되어 성 안에 있는 아이들도 편싸움을 질겨 하였다.

종로거리와 피과정 근처이며 성외에 만리□ 우수현(雨水峴) 가튼 곳은 편싸움의 진터로 이름이 높다.

《동아일보》, 1932. 2. 20.

<지연(紙鳶)의 교비동천(交飛東天) 동문박게 연구경 >

민년 정초 보름 안이면 네전부터 어른 〇회를 불문하고 극히 숭상하고 힘쓰는 것은 연놀이니 노름이라 정초 안에 청풍히 날니다가도 보름 날을 당하면 그때는 마즈막으로 익막이연이라고 날녀 바리고 고만 두는디 만일 보름 후에 어린히히라도 날리게 되면 익쏘익쏘 고리 벽덩이라는 조롱을 일카려 희롱한다는 일도 있는 터이라 그러케 숭상하고 열심으로 놀니던 연이 근년에 조금 등은 모양이더니 작년 정초부터 여러 사름이 돈을 니여 연줄과 연을 만드러 가지고 각기 편세를 가리여 동대문박게서 진일토록 놀니던 일이 잇던 결과 본년 이 때에도 또한 시작되야 동대문박게서 모다

▲ 연을 날리기 시작하야 여러 천명 모힌 구경군 가운데에서 도흔 연
도흔 줄로 풍세를 보아가며 한참 얼너 가다가 베어 먹는 것도 한 가지
장관이오 또흔 썬바리는 것도 볼만한 일이라 그럴 때마다 구경군의 조
세로 아호성을 쳐가며 잘 날닌다. 도타 소리는 실로 근처를 들비이는
중에 각닥 위 썬 어린 으희들은,

▲ 세상이 나 맛난 것처럼 펄펄 뛰여 단이며 한참 즈미있게 날니는 연줄
을 중간에서 썬줄을 쳐서 가는 것과 연만 짜해 박이면 받서 으희들 손에
들어가고야마는 살어름판이라. 그 일이 다른 일 곳호면 엇털는지 몰으겟
스나 호화호히 노는 작란임으로 그런 짓호는 것이 또흔 볼 만한 작란으
로 보고 쌀쌀 웃고마는 법이라. 요스히 경성 니외 인기는 못척 왕성하야
씨름에도 야단들이오 연날리는 디에도 법석이 되야 런일 아참부터 저녁
까지 동디문밖 연날리는 곳에는 여러 천명이 모혀 장관을 일으코 씨름도
역시 그러하야 희가 저도 도라가기를 이저 바리는 모양이더라.

《매일신보》, 1915. 2. 19.

양스실에 감치먹여네 칭얼레에 살이 넘도록 암아들고 허리동이 구머
리장군 가지각식 장지연을 죽죽이 지여 가지고 훈련원 조산모통이 동
대문성 각구에 서풍을 타서 언썬워서 배혀 먹고 썬느가는 공중의 대전
정 장쾌호고 또흔 활발호다. 연놀이 노리가 여러 나라에 잊지만은
데일 유쾌호고 어른의 작란다운 조선의 연이 여러 연 중에 장원이라.

《매일신보》, 1917. 1. 23.

<법고 法鼓>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 속에 잇는 승려들은 항상 인류의 복을 비는 것
이 그네의 전 생애로 볼 수 잇다 죽음 전까지도 정초가 되면 중들이
여염으로 내려와서 복을 팔고 가는 일이 잇섯다.

동국세시기에 승려(중)들이 복을 지고 시가에 들어와서 ‘남무아미타
불’이나 ‘관세음보살’ 가튼 염불을 불으고 복을 두들기면서 골목마다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서로 돈을 던져 주는 풍속이 있
다. 돈을 던져주면 중은 돈을 밧고 그 갑으로 썬을 던져주는 법이며 사
람들이 썬 한가락을 던져주면 중들은 두 가락을 던져주는 것이다. 그

런데 이러케 어든 중의 썬을 어린아이를 먹이면 천연두를 잘 한다는 것이러라.

그런데 나라에서 승려의 성 안에 출입함을 검한 후에는 중들이 성 밖으로 다니면서 염불을 하고 북을 울리고 하여 성 외에 사는 사람만은 이 북을 어들 수 잇섯스나 성내에서는 눈을 멀것케 쓰고도 못 타게 되었다.(돈이나 썬을 가지고 중의 썬을 박구량으로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잇섯든가?)

그리하여 중이 성 안을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는 상좌들이 정초에 여염으로 내려와서 자루를 들러 메고 새벽부터 인가로 돌아다니면 이것을 만나는 집에서는 다 쌀주기를 맞건지 아니하였스니 대개 새해의 북을 마춤이라 한 것이 잇스니 이것이 소위 법고(法鼓)란 것이다. 그러나 성 안은 말고 중들이 안방까지도 드나드는 오늘날은 엇지하여 법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업는고?

《동아일보》, 1932. 2. 8.

<음력 정월(正月)에 율노리 개최(開催)>

Y.W.C.A 주최(主催)와 본사(本社) 학예부(學藝部) 후원(後援)으로>

시내 서대문정(市内 西大門町)에 잇는 경성 여자 기독교 청년회(朝鮮女子基督教青年會) 주최와 본사학예부(本社學藝部) 후원으로 음력 정초의 하로入저녁을 택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율노리를 하기로 하얏습니다. 율으로 말하면 통속 오락물과 달라 우리 조선 고유의 흥미진진한 율회물로 한번 손에 잡으면 시간가는 줄 몰으게 자미잇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엇겠지요. 이 날밤엔 율노리 외에 여러 가지 흥미잇는 여흥도 잇스미 또 상품도 만히 준비가 될 것입니다. 되도록 만히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날 회비는 30전이요 신청은 서대문정 동회관으로 미리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중앙일보》, 1935. 1. 29.

4월

<명일(明日)이 사월팔일(四月八日) 석가여래탄신일>

명 삼십일은 음력으로 사월 팔일이라.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가티 이

날은 인도에서 세계덕 종교의 창설자인 석가여래(釋迦如來)가 탄생한 날이라 조선에서도 종래 가령에서 이 날에 등을 달아 축하도 하고 서울무인들은 문밖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남묘(南廟)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이도 잇섯는데 금년에도 년례에 의지하여 그런 일이 만갯스며 각 사찰에서도 모다 축하 설법이 잇스리라더라.

《조선일보》, 1925. 4. 30.

<신장(新粧) 일운 종각(鐘閣), 등주화단(燈柱花壇) 설치(設置) 사십팔년만에 재현된 관동>

활기(活氣)뽀 북부상계(北部商界)

중앙번영회(中央繁榮會) 주최로 오는 음력 사월 팔일(양이십륙일) 관동회를 전후 기회로 하여 지난 이십일일부터 금음날까지 열흘 동안 경□부치기 대매출을 한다 함은 기묘한 바어니와 예당대로 지난 이십일일부터 북부일대에는 각 상덤마다 움긱붓긱한 각 색기가 첫 녀름 바람에 펄럭이며 상덤의 진렬장은 어느 때보다도 색달르게 찬란히 솟여 잇서 저자를 걸어가는 일반객들의 눈을 이슬어 자못 번창한 기세가 농후하여 잇는데 작이십일일부터는 광화문 동본사 정문압과 조선은행 압과 밧 장충단에는 화제봉찬회에서 화단을 만들기에 벌서 착수하얏스며 특별히 번영회에서는 종로 네거리에 높히 룡십서의 등대를 세워 사월팔일 당야에는 종로 바닥에 사십팔년 전 넷일을 말하는 불기둥이 한을을 씨를 듯이 솟게 되었다.

《동아일보》, 1928. 5. 23.

5월

<조선(朝鮮)의 연중고사(年中故事) 5월의 일>

오월은 천체(天體)의 운전(運轉)이 정중(正中)되여 낮이면 태양(太陽)의 황동(黃道)가 밤이면 성신(星辰)의 포열(布列)이 가운데로 모히며 또는 지기(地氣)의 상승(上昇)이 한끝 되어가 백초(百草)의 번영(繁榮)과 만수(萬樹)의 성장(成長)이 한참 우거지므로 일년 중 이 때가 가장 거룩한 절기(節期)이자 우연(偶然)히 5월부터 월중고사(月中故事)

를 쓰게 되었다.

이 달의 명절(名節)은 5월 5일인 단오(端午)뿐으로 이 날 오시(午時)를 천중절(天中節)이라 부르게 되니 이는 열대(熱帶)나 한대(寒帶)에는 부적(不適)한 말이겠고 즉 우리의 사는 바 인류생활상(人類生活上) 가장 적당(適當)타는 온대지방(溫帶地方)에만 쓰기 알맞은 것이다.

이 날을 기하여 전역적(全域的)으로 고금(古今)을 통(通)한 바 습속(習俗)으론 오죽 근네뛰기니 남묘(南廟) 안 북악(北岳) 밑 송림(松林) 속에서 높은 가지에 엮어맨 동아줄이 길고도 흔들거리는데 울긋불긋한 새옷을 입은 이팔가려(二八佳麗)의 당혜(唐鞋)는 앞뒤로 공중(空中)을 충상(衝上)하여 반원형(半圓形)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날 같이 여자(女子)의 체육(體育)을 역시(亦是) 주중(注重)하여 힘쓸 때에는 추천(鞦韆)의 필요가 그리 없겠으나 고대의 규중처녀(閨中處女)나 시하소부(侍下少婦)로는 청조(淸早)부터 심야(深夜)까지 침선(針線)의 수공(手工)이나 주식(酒食)의 공급(供給)에 노력할 뿐이오 아무런 체육상(體育上), 위생상(衛生上)의 운동(運動)이 없었으므로 오죽 북방이적(北方夷狄)이 한식(寒食) 때에 추천희(鞦韆戲)로 육체(肉體)의 날쌘을 익히던 여습(餘習)이 중원여자(中原女子)로 거처어 조선 여자(朝鮮子女)에게 옮기매 정초(正初)에 널뛰기와 같이 일년 중 유일(唯一)의 부녀운동(婦女運動)이 되었고 현금(現今)에는 유해(乳孩)나 아동(兒童)의 유희적(遊戲的) 소유(消遣)의 도구(道具)도 이러한 양식(樣式)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은 씨름이니 태산(泰山)을 깰듯한 소장(少壯)패가 이 날을 기회(期會) 삼어 남록(南麓)의 왜장(倭場)터나 북산(北山)의 궁문(宮門) 뒤에 모히어 무쇠팔뚝들 근육(筋肉)으로 각력(角力)의 희(戲)를 어우를 제 마주 반(半)쯤 굵어 서로 우수(右手)론 허리를 흥키며 좌수(左手)론 좌교(左股)를 쥐고 일어나면서 메뜨느끼니 어느 때부터 시행인 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의 유일한 남한(男漢)의 연무적(演武的) 유희(遊戲)로 중토(中土) 사람도 이 날에 효(效)하여 고려기(高麗技)라 부르렀다 하며 근일(近日)의 반도(半島)에서는 향촌(鄉村)에서 씨름대회(大會)를 흔히 부치게 되었다.

<작일(昨日)의 단오절(端午節)>

작일의 단오(端午)는 맛참 일요일 됨에 의하면 으춤부터 각 거리에는 스람이 심히 복잡하였으며 관왕묘 춤비 각 그네터에 모히는 스름 기타 삼청동 장춘단 등 유원지와 약물터 갖흔 데는 발을 디디될 곳이 없는 중 아히들 성장은 극히 변화찬란한야 넷날 풍속 상상하게 되었고 각각 각각의 창포는 으춤에 일즉이 동나게 되었다고.

《조선일보》, 1920. 6. 20.

<경성(京城)과 단오절(端午節) 관왕묘와 창경원은 단오를 독차지한 듯 아기씨의 발자취도 단오가절을 말하여>

작 이십일은 마참 단오이자 겸하여 공일이였슴으로 삼십만 경성시민은 거의 다 풀너온가 심혔는데 어엿분 아기씨네들은 송화식 적삼에 분홍치마를 싹가치 입고 곱게 비슨 머리에 향취가 촉비하는 창포를 싹고 초록 바탕 비단신을 삼뿍삼뿍 내노흐며 고사리 가튼 손에는 다 각기 작난감들을 사들고 거리거리로 왕리하는 양은 보는 자로 하여곰 단오라는 감상을 진절히 늦기게 하였스며 남대문밖 관왕묘와 창경원에는 매우 사람이 답지하였스며 문밖으로는 청량리와 만정사 부근에도 매우 사람이 만히 모이어 드러서 매우 성황을 이루었스며 일즉이 신롱씨가 빅 가지 약의 맛슬 보와와서 인성의 행복을 조장하는 약을 마련하였다는 력사를 근본삼아 신롱씨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해마다 이 날이면 지내이는 그림제도임의 보도와 가치 시내 던동 조선병원에서 상오 십일시부터 이삼십인의 관계자가 모히어 리응선(李應善)씨의 집례하에 승엄한 제단을 거행하였는데 오후 두시부터는 하늘이 흐리고 약간 비가 오기를 시작하여 오히려 얼마썸 단오노리의 흥취를 덜게 하였더라.

《동아일보》, 1920. 6. 21.

<포록앵홍(蒲綠櫻紅)한 단오가절(端午佳節) 오늘이 단오>

오월 단오가 도라왔다..... 잉도가 붉고 창포는 푸른 련중가절이 도라왔다. 밍상군(孟嘗君)의 성일이오 굴삼려(屈三閭)의 죽은 날로 중국 고대의 력사와 께일 수 업는 그날이 다시 왔다. 느리진 슈양에 추천하는

청년 남녀와 관왕묘를 비롯하여 각처에서 치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더욱이 서도 사름들은 씨름판(角力場)이 버려져 산과 들에 사름의 장을 세우는 놀이다. 경성에서도 오늘의 하르른 질기노라 창포 쫓고 주스식은 아히들이 로상에 왕리하는 것을 보았으며, 경북궁 궁습회에 향하는 구경군의 얼굴에도 단오라는 기분이 잇스며, 송동과 참외밭으로 인도 먹으러 가는 사람의 여름치장에도 단오라는 인상이 삭이여 있다.

《매일신보》, 1923. 6. 18.

<단오(端午)는 조선(朝鮮)의 올림픽?>

안승희(安承誨)

단오(端午)노리와 운동(運動)

단오노리는 단오의 다례와 음사의 여흥이다. 그러나 여흥으로는 규모가 보다 크고 노리로는 의의가 보다 크다.

여기에는 격구(擊毬), 경마(競馬), 그네, 씨름, 석전(石戰) 등등이 있었다.

그네는 밖결은 말도 말라 해야 대부분 규중에서만 밤이요 낮이요 하던 옛날 조선 여성의 스포츠다. 푸른 그늘 사이로 반 공중에 몸을 날리던 그 쾌미란 테니스며 빠스켓뿔이며 스케트를 맘대로 즐기는 오늘날의 여성이 상상할 바가 못 된다.

씨름은 중국인이 일르는 고려기(高麗技)다. 남성적 경기(競技)로 일종의 무술이다. 시골에는 이저 고을의 편씨름이 있었고 서울에는 남산의 왜장(倭場)과 북산의 신무문(神武門) 밖이 옛 해 이 날의 씨름터라. 씨름판을 찾아서 3·40리 씨름 구경으로 두, 세 밤을 걷고 새우던 나의 어릴 때 일이 눈 앞에 선연하다.

《신가정》, 1925. 6.

<상(賞)타고 구경(求景)하고 관람참가(觀覽參加)

전부무료(全部無料) 본사가 주최한, 단오노리는 장충단에서 보배찾기 미인찾기, 기타 여러 가지 경지>

시민운동(市民運動) - 금사일(今四日) 장충단(獎忠壇)에 개최(開催)

오늘은 룩월 사일..고대하는 단오노리날은 이른 것이다. 본사에서 삼

십만 경성시민 제씨에게 하로의 위안이라도 드리고자 주최한 제 2회 시민 위안 무료 운동회는 각 방면의 다대한 찬동을 힘입어 만단 준비는 예기 이상으로 정돈되었스니 이제는 다만 단오날 아침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기생의 잔기한 운동회 보배찾기 심여 종 시민경기 소 한 필 썰기 쓰름판 상타는 변장한 미인찾기 금시게 타는 [마라손] 경주들이며 록음 사히에 매어노흔 추천노리까지 겸하여 모든 것에 참가금을 밧지 안으며 모든 구경에 입장료가 업시 마음대로 구경을 하시고 누구나 매일신보사를 사랑하시는 손님이 되시여 마음대로 참가를 하실 수 잇는 것이니 오시요..오시요..오시요.. 삼십만 시민 제씨 단오의 하로를 마음껏 즐기려 장충단으로 오시요..

이천점(二天點)의 대탐보(大探寶)

• 네 명의 변장미인 찾기

미인찾기는 시내 세 권번에서 작란 조화하는 기생 네 명을 쓴 바 당일 낮 열두 시 반부터 반 시간 동안 장충단에서 변장을 식혀 몰닐 터인대 찾는 분에게는 경대, 화장품, 본보 구독권, 은메달의 여러 가지 상이 잇스며 보배찾기는 오후 한 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도 아모나 찾는 것으로 약 이천 가지의 상품이 잇스니 이 만큼 풍부한 보배찾기는 근리에 드문 일이다.

• 소 한 머리 건 큰 쓰름판

또 당일 하오 한시부터는 경기의 일등력사만 모화 가지고 쓰름 심판에 일흠 높흔 박승필(朴承弼)씨를 심판장으로 청탁하여 큰 쓰름판을 버릴 터인대 상품은 일등 소 한 머리요 그 이외에도 상품이 만아 더 한층 인기를 집중할 것이니 쓰름판에 뛰어드는 것도 아무 수속 업시 자유로 될 수 잇는 것이다.

• 마라손 경주(競走)의 신청(申請)은 금일(今日) 11시까지 접수(接受)

마라손 경주의 신청은 삼일까지 밧으러 하얏스나 참가하기는 편의를 돌보기 위하여 사일 당충단 운동회장에서 오전 열한 시까지 신청을 밧아 가지고 동 열두시 정각에 출발케할 터인대 순로는 장충단을 썸나서

동대문 안으로 도라 종로로 올라와서 동아일보사 앞으로 본사를 도라 황□정으로 내려서 장충단으로 다시 도는 것이다.

《매일신보》, 1927. 6. 4.

<단오장안(端午長安)-환락절정(歡樂絶頂) 장충단두혈용육약(獎忠壇頭血湧肉躍) 거리마다 고(高)된 대회(大會)의 기분(氣分) 명랑 또 화창한 일기는 이 날을 축복하는 듯>

본사 주최 제6회 시민위안단오대운동회(市民慰安端午大運動會)와 본사 주최와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 후원의 제1회 상공영진대회는 감격과 환호하에 마지되어 단오가절(端午佳節)인 20일 오전 10시에 록음이 무르녹은 장충단 원누에서 성대히 막을 여렸다. 청명한 일기에 축복된 단오가절은 획기적 대계획(劃期的大計劃)인 본사 주최의 운동회와 상공대영진회도 말미암아 더 한층 이따를 도루고 기다려어지던 부민의 환희는 밀려드는 조수가터 폭발하였다. 상공영진이 시내를 일주하는 동안에 처처에서는 이다편에 손을 들어 환호하였고 대회장에는 정각 전부터 수만 관중이 모여들어 넓은 공원의 전□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전의 내용을 구비한 대운동회는 다시 취미진진한 야외극(野外劇) 무용(舞踊) 등을 연출하여 장충단 일원에서 전개된 장관은 열(熱)과 력(力)과 환희(歡喜)에 결정된 립폐상(立陞償)을 이루웠다.

《매일신보》, 1931. 6. 21.

<총각과 처녀가 그네줄을 다루다 처녀가 마침내 중상을 입어 단오(端午)노리의 부산물(副産物)>

단오 명절날 총각과 ‘그네’ 싸움하다 닳친 처녀 - 5일 오후 10시 부내 다옥정(茶屋町) 55번지 박육일(朴六日)의 장녀 박영순(朴英順)(□)은 부내 탐동공원에서 그네를 뛰다가 마침 그곳에 와서 그네를 뛰려든 부내 관□동(貫□洞) 108번지 편덕창(片德昌)의 장남 편유옥(片裕玉)(□)이가 이 때 서있다가 자기가 먼저 뛰겠다고 하며 □□붓게 되어 마침 싸움이 되자 비의손은 그네 줄에 감니여 너머져 허리에 중상을 입었는데 편유옥은 방금소□ 종로서에서 과실상해로 엄중 처벌을 받고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5. 6. 7.

<불귀(不歸)의 단오(端午)노리 추천(鞦韆)타다 추락사망(墜落死亡) 남산(南山) 약수대부근(藥水臺附近)에서 피로 몰드린 천중가절(天中佳節)>

유쾌한 단오노리의 나머지 그네를 뛰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고양군 한지면 봉두리(高揚郡漢芝面□頭里)에 사는 최윤덕(崔允德)(□□)은 6일 오후 여덟시 경에 부내 남산약수대(南山藥水臺) 부근에 5일 단오노리로 설치하여 논 건너(鞦韆)을 뛰다가 노피 25척 가량되는 공중에서 겨구루 떠러져서 머리를 몹시 강타당한 동시에 량쪽 귀에서 피가 흘러 나와 졸도된 것을 즉시 부민병원(府民病院)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입원치료 중 7일 오후 여덟시 30분경에 불행이 죽고 말었다 한다.

《조선중앙일보》, 1935. 6. 8.

<창포에 머리 감고 그네뛰는 단오명절(端午名節)이 날을 직히는 뜻과 풍습>

단오(端午) 유래(由來)

6월 15일은 음력 오월 단오(端午)날입니다. 단오라는 말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이 다르나 제일 만히 하는 말은 일년 중에 해가 자오선(千年線) 한가운데 오는 것을 가로친 말이라 하니 단오라는 말은 단정(端正)하게 오선(五線)에 해가 왔다 갔가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중국인(中國人)들은 이 날을 천중가절(天中佳節)이라고 하여 굉장한 명절의 하나로 □습니다.

이 날에 전하여 오는 고속(故俗)은 조선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날은 수뢰일(水瀨日)이라 하여 밥을 새로 지어 강물에 던져 물에 빠져 죽은 굴삼려(屈三閭)를 제사 지낸다 합니다. 굴삼려는 그 벼슬 일홈이요 실상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초사(楚) 나라에 낫든 굴원(屈原)이니 그가 삼려대부(三閭大夫)란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굴삼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굴원의 호(號)는 영균(榮均)이니 초희왕(楚懷王)을 섬기니 충성을 다하였으나 소인의 모함을 얻어 강남(江南)에 귀양을 갖셨습니다. 그 후 초사나라 국에 가기 우러져서 초희왕이 진(奏)나라에 들어가서 붓들리어 3년만

에 객사하였습므로 이 말을 들은 굴원은 이를 슬퍼하고 먹나라(汨羅水)에 빠져 죽었는데 밥을 지어 물에 버리는 것은 그 혼을 위로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은 후한(後漢) 때 구회(歐回)라는 이가 물에다 밥을 띄웠더니 물속에서 굴원이 나타나서 “그대들이 나를 위해서 때마다 이렇케 레를 지내두는 것은 고마우나 입때까지 그 밥은 이목이란 놈이 썩어 먹었기 때문에 나는 먹어보지도 못하였스나 이 다음부터는 밥알에 색칠을 하고 콩나무 입새에다 짜서 너어주도록 해주게.”하드랍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그 말대로 하려 하니 밥에다가 색칠을 하기가 거북해서 색떡을 만들어 너어 주엇답니다. 지금 혼인 때 쓰는 색떡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조선에서는 서울 식골을 물론하고 창포(菖蒲)를 구해다가 삶어서 그 물로써 머리를 감고 그 뿌리는 잘라서 무쓰레 주사(朱砂)를 찍어 머리에 쪼지면 염병 귀신이나 잡귀를 쫓는다 합니다. 그리고 육모초라는 약풀로 찹을 만들어 먹으면 그 때의 잡병을 물리친다고 하여 이것을 해먹는 이도 만습니다. 이 날 서울시는 천하 장사들이 남산 왜성대(南山)와 북편 신무문(神武門) 뒤에 모여 씨름을 하였고 그 씨름이 어찌케 장대하든지 중국인들이 배워다가 고려기(高麗技)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 부인네나 새악씨들 늘어진 록음에서 그네(鞦韆)를 뛰는데 전 조선에서 다 뛰지만 평양에서는 제일 성대하여 어찌한 가덩의 귀부인이라도 이 날만은 그네를 뛰러 나오는데 새 옷과 어엿분 단장이 천하의 미관을 이룬다 합니다. 지방에 짜라 유희도 각색이 잇서서 경상도 김해(金海)에서는 석전(石戰)을 하고 군위(軍威)에서는 김유신(金庾信)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며 강원도 삼척(三陟)에서는 금비녀에다 제를 지내고 안변(安邊)에서는 선위대왕(宣威大王) 부인에게 제를 지낸다 합니다. 이 날을 수레일(車日)이라 하여 쭉찰떡을 수레모양 가치 만들어 먹기도 한다 합니다.

《매일신보》, 1937. 6. 13.

<상득천복(上得天福) 하득지복(下得地福)하는 단오(端午) 천양가절(天陽佳節)>

경성(京城)

서울에서는 그 전엔 남산 기슭에 씨름판이 열리고 여자가 주로 모히는 남묘(南廟) 그네 터와 남자가 모히는 동묘(東廟) 그네 터가 그 중 유명했으나 지금 와서는 그 흔적도 없고 그냥 유명한 양반가정에서는 들약에 땅그네를 매여노코 귀여운 딸 손녀들을 즐거히 놀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는 특히 생선으로 맵그는 어채가 유명합니다.

《조선일보》, 1938. 6. 2.

우리나라에서는 전부터 류월을 망한 고약한 달로 녀어왔습니다. 지금도 썩은 달이라고 하여 이사 아니하고 장까지 담으지 않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런 망한 고약한 달이니 재앙이 업술리 잇습나까. 그러니까 만흔 재앙을 머리로 풀어서 물로 썩이든 것입니다. 무당판수를 드려서 풀고 썩이는 것보담 훨씬 재미잇는 일입니다. 류월이 썩은 달 노릇하게 된 것은 아마 기후(氣候)가 너무 더워서 사람의 동정을 사지 못한 까닭이겠지요. 그러기에 너무 치운 선달도 썩은 달이라고 하지요. 무슨 달은 리유가 잇는 지는 몰읍니다.

이 날은 우리가 약물터를 차저가서 물을 먹기도 하고 맛기도 합니다. 서울로 말하면 그 전성제응물 지금 악박골가튼 데는 사람사태가 나고 야 맵니다. 또 사당잇는 집에서는 류두차례를 지냅니다. 밀보리를 천신(薦新)합니다. 보리수단 밀가루 그릇은 사당이 귀한 오늘날도 구경할 수 잇습니다. 보리수단은 못 먹어도 탈이 업지만 밀국수는 안 먹으면 못씹니다. 이 날 밀국수를 먹으면 더위 아니 먹는다고 네전 사람이 어련히 알고 말하였을 것이 아니니 오늘 던심은 밀국수들을 해서 잡숫는 것이 조홀 듯합니다. 본래는 햇밀까루라야 쓰는 것입니다만 오늘날 세상이 세상이니 중국 밀까루로 대신하여도 더위가 미리 알려차리고 아 니 덤빌 듯합니다.

《동아일보》, 1924. 7. 16.

<초복(初伏) 약수(藥水)와 탁족(濯足) 악박골의 약수 장충단의 탁족>

금석을 태일 듯한 더위가 날마다 더하기만 하야 흥노 속에 든 것 갖

흔 경성시민은 정히 더위에 못 견디일 때가 되엇는 바 금일은 음력으로 룡월 십이일이오 일흠만 드러도 늦기게 되는 초복날이다. 경성에서는 복날이 되면은 여러 가지 놀이가 잇는 중 장충단(獎忠壇)의 탁족(濯足)과 악박골 약수는 년리로 유명한 것이라 룡음은 무르룩고 시내물은 맑은 요사이의 장충단은 피서하기에 매우 조흔 곳이라 하겠다. 청아하게 다과(茶菓)를 준비하여 가지고 룡음을 좇차 점점 드러가면 드러갈수록 룡음은 더욱 무성하고 시내는 더욱 맑은대 그늘 아래에 잇는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 땀흐르든 몸을 마음껏 씨스 후 소나무 사이로서 부러오는 맑은 바람을 마음껏 쏘히는 것도 조홀 것이오, 악박골 물터는 요사히 그 약수를 관리하는 주인이 새로 길을 수선하고 돌다리를 노아서 물 먹으러 오는 사람의 편리를 돕게 하여 노앗다. 바위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심은 만병을 통치하는 효험이 잇다 하여 남녘로소를 물론하고 복날이면 그 물을 먹으러 오는 중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기를 질겨하고 순실한 생각을 가진 부인들은 각기 쌀과 미역을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물을 먹는 것도 매우 자미스러운 일이라. 어대서 나오는지 모르는 달고 맑은 심물은 뒤를 이어 퍼내이어도 뒤를 이어 소사나오는데 물 먹는 곳을 두 곳으로 나누어 남자 편과 부인 편을 갈나 오는 것도 전보다 매우 편리하게 되엇다. 한 목음만 먹으면 가슴까지 서늘한 그 약물을 실컷 퍼먹고 룡음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조홀 것이다. 더욱 약물터 압혜 땃주, 사이다, 라(리)무네 과자 등속을 파는 가가까지 싱기엇더라.(사진은 요사이 한참인 악박골물터)

《동아일보》, 1921. 7. 15.

8월

<달빅 죠코 성묘 가기도 도타>

반달 동안을 두고 하로도 빠지는 일이 업시 지루하게 오는 비에 금년의 추석에는 아쵸 달을 못보리라 햅약더니 불행히 일전의 큰 비에 슈히는 다쇼 잇섯스느 그리도 추석의 전날부터 하늘은 구름 흔 덤 업시 뭉게 기이고 일기도 아쵸 가을털 다음게 쌀쌀햅야져서 달구경햅기도

아쵸 좃코 만히 부즌 송편에 토런국도 상홀 넘려는 조곰도 업서 아쵸 맞침 도흔 추석 일기라. 금년 가을에는 다른 해보다 그러케 편황히지도 안코 또안 작년과 갓치 공진회에 쓸려 목주머니될 넘려도 업של 뿐안이라 이전 풍습을 직혀가는 일이 년리로 조곰식 회성되야 가는 듯흔 고로 추석으로는 민우 조흔 추석이다라. 음력 십스일의 아참 남대문과 리현의 두 시장에 추석 준비의 흥정을 혀라 오는 사람이 비상히 만하 작년의 추석 전날보다는 매미된 물품도 만했다 혀며 지나 사름과 거리히는 상덤에서 추석 전날의 큰 파슈회계도 대지 다수히 치리간 모양이다라. 추석날의 아침은 어지간히 서늘히얏스나 성묘가기는 아쵸 훌륭한 일기이다. 여름 동안은 산사름 사라가기에 골몰히노라고 성묘가지 못히얏던 사름들 심흔 장마 지난 뒤이라 산소에 아모 연고 업섯는가. 한식 다음에 추석 일년 이츄 성묘가는 명절이다. 아참부터 성묘가는 사름이 스방으로 퍼져나가 인력거 병문마다 반슈는 문밖버리오 즈전거포의 세늦는 즈전거도 여간 썩썩흔 것은 한 치도 남지 안엇다는 성황이다. 아참 찌가 지나 열한시 갓가히 되여는 추석차례의 음식을 나르는 목판 근처 산소에 올너가는 마누라의 송편보통이 등이 뒤를 이어 왔다갔다, 경성의 추석은 이와 갓치 변화히더라.

《매일신보》, 1916. 9. 13.

9월

<금일 구월 구일(今日 九月九日)>

...구일을 중구(重九)라고 하니 구월 구일이다. 구(九)가 거듭 들엇다는 뜻이요 또 중양(重陽)이라고 하니 구(九)가 양수(陽數)라 중구와 뜻이 갓습니다. 중양 이튼 날 노리하는 것은 던중(展重)이라 하니 구일 뒤푸리라는 뜻이람니다. 네전 우리나라 서울서 구일 날이면 국화주와 국화로 부친 화전을 가지고 남산이나 북악산에 올라가서 놀았더람니다. 이 노리 일음을 풍국노리라고 하니 단풍 국화 썰 노리란 뜻이람니다. 구일 날 산에 올라가는 것은 중국서 온 풍속인데 왜 구일 날 산에 올라가는 풍속이 생겼는가? 중국 여남(汝南) 사람 환경(桓景)이가 비장방(費長房)이라는 도사(道士)를 선생으로 섬기고 오랫동안 팔어다니엇담니다. 하로는 장방이가 환경이더러 하는 말이 너의 집에 큰 재앙

이 잇슬 터이니 밧비 돌아가서 구일 날 집안 식구가 다 각각 붉은 주머니를 지어 수유(茱萸)를 너허서 팔에 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화술을 마시라. 그리하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잇슬이라고 하얏답니다. 환경이가 선생의 말대로 식구를 다리고 구일 날 하로를 높은 곳에서 보내고 저녁 때 집에 내려와서 보니 집에 잇든 개 닭이 모다 일시에 폭사(暴死)하얏더랍니다. 이것이 환경이 식구의 수 싸움으로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일 날 산에 올르는 것과 부인네들이 수유주머니(茱萸囊)를 차는 것이 이 환경의 일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수유를 벽사옹(辟邪翁)이라고 일음하고 국화를 연수객(延壽客)이라고 일음하여 이것으로 양구(陽九)의 액을 제한다는 말도 잇습니다. 양구는 액회라는 뜻이니 양(陽)의 액수(厄數)는 다섯이요 음(陰)의 액수는 넷인데 합하면 아홉이 됩니다.

《동아일보》, 1924. 10. 7.

<각처(各處)의 성탄축하(聖誕祝賀) 각 레비당의 크리스마스>

종로중앙청년회(鐘路中央青年會)에서는 이십삼일부터 이십팔일까지 계속하여 구췌탄강축하회를 연다는데 그 일즈 빠턑에 더하여 드른 바를 기록허거디 이십삼일에는 임의 보도헌 바와 꺾치 찬양회(讚揚會)의 성대홀 터이라 하며 또 이십오일에는 동회 영어성경반에서 거행하고 (이십륙일은 주일임으로 휴식) 이십칠일에는 로동야학교에서 거행허는디 당일은 특히 만상이부도진(萬像이 不盜眞)이라는 뜻으로 연극을 홀 터이며 또 이십팔일에는 동학관 유빈관에서 거행홀 터이라 하며, 명동(貞洞) 레비당에서는 이십오일 오후 칠시에 장년유년이 합하여 축하식을 거행홀 터인데 회당 안은 나무와 등으로 임의 췌이여 노앗고 또 당일에 오는 유년들을 주기 위하여 과즈 오빅봉 가랑을 만드러 노앗으며 또 미년 흥허던 전례에 의하여 당일에 빈궁한 슝들을 구제홀 터인데 작년보다는 인명슈를 주리고 쌀되 슈를 췌끔 만케 하여 칠십명 위한하고 구제를 흥홀 터이라 하며...

《매일신보》, 1915. 12. 24.

제 5 장

마 무 리



문화란 말은 인간에게만 통하는 일종의 인간사회의 학습 체계를 말한다. 문화는 인간에게 사회관, 윤리관 내지 우주관까지 제시해준다.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까닭은 인간만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화상징을 통해 세계관을 조감하고 제반 생활에 원용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직 인간만이 문화를 체계화한 지표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들이 구축한 상징체계 속의 해안을 통해서 자연과 우주를 이해한다.

특히 문화 중에서 민속문화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적층문화를 말하며 일부 습합된 문화를 이에 포함하기도 한다.

세시와 풍속은 한국의 민속문화 중 가장 원초적(原初的)이고 시원적(始原的)인 문화요소에 해당한다. 《농가월령가》 머리 노래에는 우리 민족의 세시 역사를 더듬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온다.

“하나라 오백 년 동안은 정월(인월)로써 햇머리를 삼고, 주나라 팔백 년 동안은 십일월(자월)로써 햇머리를 삼기로 새로 정하니라.”

이처럼 조선조에는 하나라 역법을 따랐으나 주나라 역법의 흔적도 없지 않으니, 정초와 11월에 하는 수인사에서 그 흔적을 읽을 수 있다. 곧 “떡국 한 그릇 먹었느냐?”는 말의 떡의 의미나, “팔죽 한 그릇 먹었느냐?”는 말의 팔죽의 의미가 공히 한 살의 뜻이기 때문이다.

중구의 세시풍속을 굳이 필자가 중구의 세시와 풍속으로 제목을 달은 이유는 세시의 역사를 조명한 가운데 오늘날의 풍속의 잔존상(殘存像)은 어떠한지 그리고 역사적 상관관계에서 오늘날 어떤 세시와 풍속이 중구에 남아 있는지 조망하기 위함이었다.

제1장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세시 역사를 사록과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환세일(換歲日)에 해당하는 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부여의 영고(迎鼓) 축제가 그것이다. 영고는 일월신을 경배하는 유숙에서 생긴 것으로 그 전통이 신라, 고려, 조선조로 연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구의 축제인 광통교 다리밟기의 근원을 알 수 있는 다리밟기가 이미 고려시대 성행했고, 씨름이 중국에서 ‘고려기’라고 널리 알려질 정도였으며, 기타 연날리기, 호기희 등이 조선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학이 성행한 조선조의 세시나 풍속의 특색을 거론하자면 다리밟기나 석전 등 대규모적인 민속놀이가 계급별 축제로 이행되어 가는 경향을 지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시대 패수에서 왕이 참여하여 행하던 석전과 조선 말기 ‘조합간의 싸움’으로 변질된 석전의 양태가 이를 예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동국세시기》나 《열양세시기》 등 세시풍속에 관한 모든 문헌을 통해 중구 세시풍속에 관련된 대목을 추출·정리하여 과연 중구 세시풍속의 위상이 타 지역에 비해 어떠한지 고찰하였다. 다리밟기나 석전 등 문헌상에 나타난 세시놀이나 축제, 그리고 지명의 빈도수가 서울시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산이라는 안산(案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청계천이라는 옥수(玉水)가 중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고증되었다.

오리(五里) 이원익 선생이 남북촌 사람들의 율놀이와 중촌 사람들의 연날리기, 문밖 사람들의 석전하는 모습(상황)이 신실치 못하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장차 나라의 운수가 기울 것을 걱정했던 대목에서 추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구를 중심으로 놀이화되었던 변전이나 다리밟기, 연날리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들의 성쇠가 국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깊은 속내를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과거 중구에 생긴 속담이나 설화를 통해 중구인의 기질을 살펴보았다. 신라 시절부터 위정자는 육먹을 정치를 하면 육을 먹게 되어 있었다. 안동 땅에 육을 내뿜을 옥취산이 있었거니와 한국인은 바위를 향해 외치기도 했고, 서울 장안 사람들은 청계천 다리 밑에서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토론의 광장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계천변은 강독사 전기수(傳奇叟)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였다.

조선조에 딸각발이 양반이 살았던 남촌(南村)은 왜정 때 혼마치[本町]라 불렸고 일본인들의 집단거주지였기 때문에 개화도 다른

곳에 비해 속도가 빨랐으니, 퇴계로의 영화의 거리나 스카라극장 일대의 가요의 거리가 바로 그 흔적이다.

“다동에서 놀았다.”는 말은 다동에 처음 생긴 한성권변을 중심으로 호화롭게 놀았다는 속담이다. 당시의 기생은 궁중에서 나온 예기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남자도 있었다. 그들은 돈 많은 상류층과 어울렸으나 함부로 몸을 허하지 않는 그들 나름의 철학이 있었던 부류였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전기수의 후예라 할 수 있다.

중구의 민속은 이처럼 대형 놀이가 전개되고, 대형 낭만이 싹튼 서울 민속의 1번지다.

오늘날 각 민족은 국가차원의 대형 민속축제를 개발하여 관광화해 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때 중구는 남산이라는 안산을 끼고 있는 서울 민속문화의 중심터인즉 남산의 목멱대왕신과 청계천의 미르, 곧 용신을 연계한 축제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끝으로 세시와 풍속을 통해 개발되어야 할 몇 가지 대형 민속축제와 민속놀이를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남산의 목멱대왕신과 한강의 대택신, 청계천 용신이 만나는 대형축제
- 미르내에서 출생한 성웅 이순신장군 축제의 개발
- 광통교 다리밟기 축제의 대형화
- 남산과 장충단의 연등축제 개발
- 석전(石戰)의 부활

한편 관광화를 위한 소형축제의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니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명동·남대문·동대문 일대의 살거리 축제
- 진고개 일대와 다동, 장충단, 신당동의 한식과 떡볶이·족발 등 먹거리의 연계축제
- 충무로 영화축제와 스카라극장·명보극장 일대의 가요축제
- 파리공원의 정례적 축제

▣ 참고문헌 ▣

[원전류]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高麗史》
- 《稼亭文集》
- 《牧隱集》
- 《西河集》
- 《益齋亂藁》
- 《圃隱集》
- 《東國李相國集》
- 《太宗實錄》
- 《山林經濟》
- 《象村集》
- 《京都雜志》
- 《洌陽歲時記》
- 《東國歲時記》
- 《歲時風謠》
- 《歲時記》
- 《歲時記俗》
- 《歲時雜詠》
- 《漢陽歲時記》
- 《朝鮮歲時記》(遺事歲時)
- 《海東竹枝》
- 《三國志》

[단행본]

- 고도원, 《서울》, 뿌리깊은 나무, 1992.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편), 2003.
- 권용정(이창희 역), 《세시잡영 歲時雜詠》, 《조선대세시기》 1, 국립민속박물관, 2003.
- 권용정(이창희 역), 《한양세시기 漢陽歲時記》, 《조선대세시기》 1, 국립민속박물관, 2003.
-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 김동욱·황패강, 《한국 고소설 입문》, 개문사, 1985.
- 金東縉, 《家庭百方吉凶秘訣》, 德興書林, 1924.
- 김명환·김중식, 《서울의 밤문화》, 생각의 나무, 2006.
- 金善豊,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형설출판사, 1977.
- 金善豊, 《韓國口碑文學大系》(2-3), 강원도 삼척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金善豊, 《韓國口碑文學大系》(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金善豊, 《아방리 줄다리기》, 광명문화원, 2003.
- 金善豊, 《중구의 축제》, 중구문화원, 2004.
- 金善豊 외,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 金善豊 외,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도서출판 월인, 2000.
- 김선풍·장정룡·김경남, 《평창군의 세시풍속》, 평창군, 2004.
- 金善豊·金利淑 《三角山 都堂祭》, 삼각산 도당굿보존회, 2005.
- 金善豊, 《朝鮮美人寶鑑》, 朝鮮研究會, 民俗苑, 1984.
- 김승찬, 《부산지방의 세시풍속》, 세종출판사, 1999.
- 金彥基, 《高麗時代史》, 東國出版社, 1971.
- 金烈圭,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 金宅圭, 《韓國農耕歲時的 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 대례(李能植·尹志善 共譯), 《朝鮮教會史》, 대성출판사, 1947.
-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9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 方鍾鉉, 《歲時風俗集》, 研學社, 1946.
- 孫晉泰,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8.
- 유열, 《(풀이한)농가월령가》, 한글사, 1948.
- 吳晴, 《朝鮮の年中行事》, 朝鮮總督府, 1937.
- 李江魯,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京畿篇), 文化財管理局, 1978.
- 임기중 역주·해설,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 任東權, 《韓國歲時風俗研究》, 集文堂, 1985.
- 任東權·鄭炳浩·金善豊, 《民俗論》, 集文堂, 1996.
- 조수삼(최순권 역), 《歲時記》, 《조선대세시기》 1, 국립민속박물관, 2003.
- 조운중(이창희 역), 《세시기속》, 《조선대세시기》 1, 국립민속박물관, 2003.
- 趙豊衍, 《서울잡학사전》, 정동출판사, 1991.
- 주영하·김소현·김호·정창권,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돌베개, 2005.
- 秦京煥 역주, 《都下歲時紀俗詩》, 보고사, 2003.
- 崔南善, 《朝鮮常識》, 東明社, 1948.
- 崔永年, 《海東竹枝》(中編), 獎學社, 1921.
- 최영년(이창희 역), 《해동죽지》, 《조선대세시기》 1, 국립민속박물관, 2003.
- 홍기문 외, 《패설작품선집》(1),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 村山智順, 《朝鮮の郷土娛樂》, 朝鮮總督府, 1941.
- G. W. 길모어(신복룡 역),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 A. H. 새비지-랜도어(신복룡·장우영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집문당, 1999.

[논문]

- 金善豊, <三陟 기줄다리기에 대하여>, 《韓國民俗學》 제8집, 1975.
- 金善豊, <외마귀 수레[獨輪車] 싸움 研究>, 《韓國民俗學》 제19집, 1986.
- 金善豊, <嶺東地方의 家神說話와 呪術歌考>, 《關東語文學》 제1집, 1978.
- 金善豊, <청계천 축제의 개발과 발전방안>, 《청계천 중심마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중구문화원, 2006.
- 김원룡,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문화사대계》 1, 1964.
- 金烈圭, <韓國民俗信仰의 生生象徴的 研究>, 《亞細亞問題研究》 9권 2호, 1967.
- 김정학, <한국민속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1, 1964.
- 박성서, <스카라 계곡-가요, 가요인의 메카>, 《중구문화》, 중구문화원, 2005.
- 朴順浩, <漢陽歲時記>, 《향토문화연구》 제2집,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79.
- 林熒澤, <18·9世紀 ‘이야기꾼’과 小說의 發達>,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 李寬逸, <景文王說話와 카타르시스>, 《文湖》 4, 1966.
- 曹喜雄, <韓國說話學史論稿>, 《한실이상보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87.
- 崔南善, <新羅景文王과 希臘의 미다스王>, 《怪奇》 1, 1929. 5.
- Paik, L. G, <Korean Folk-Tales and Its Relation to Folk-Lores of the West>, 《朝鮮民俗》, 1934. 5.

▣ 찾아보기 ▣

(ㄱ)		걸교(乞巧)	85
가곡(歌曲)	169	걸교제(乞巧祭)	86
가락국기(駕洛國記)	54, 78	걸납패	325
가배일(嘉俳日)	86	걸립희(乞粒戲)	93
가수(嫁樹)	209	검무(劍舞)	274
가야진(伽倻津)	226	게줄다리기	30
가조수(嫁棗樹)	209	격구(擊毬)	83, 334
가평	227	경마(競馬)	334
각씨(閻氏)	194	경문왕(景文王)	257, 259
각씨자[鬪草]	209	경서거리(京西巨里)	273
각저(角抵)	209	경서잡가(京西雜歌)	273
각희(角戲)	195	경성신사(京城神社)	319
간송(澗松)	160	경성잡가(京城雜歌)	273
간송자(澗松子)	160	계룡산	226
갈전(葛戰)	170	계욕(禊浴)	54
감악산(紺嶽山)	226	계욕지일(禊浴之日)	78
감악신	112	계음	115
강담사(講談師)	254	계절축제	16
강독사(講讀師)	254	계제(禊祭)	181
강문동(江門洞)	18	계호화	208
강씨부인(姜氏夫人)	225	고고매(苦苦妹)	157, 209
강씨부인신	228	고누(高壘)	194, 201
강정 팔기(賣繭糕)	216	고독(蠱毒)	306
강정장사	216	고려기(高麗技)	
강창사(講唱師)	254		151, 332, 334, 338
객지(客至)	305	고려희(高麗戲)	159
건천동(乾川洞)	241	고성군사신	208

고싸움놀이	30	교방(敎坊)	169
곡령신앙(穀母信仰)	19	9대 속절(九大俗節)	69, 71, 74, 82, 90
곡물집	24	구세모(舊歲暮)	318
곰국	170	구세문안	208
곰네(熊女)	225	구월산(九月山)	222
공기(攻碁)	194	구장(狗醬)	209
공불악신지회(供佛樂神之會)	133	구지봉(龜旨峰)	54
공진회	341	구태	62
과세	319	구회(歐回)	338
곽곽선생신	228	국도팔영(國都八詠)	242
곽박(郭璞)	225	국사당제(國師堂祭)	224
관경대(觀耕臺)	22	국화떡	192
관노가면희	231	군신신앙(軍神信仰)	32
관등(觀燈)	173	굴삼려(屈三閭)	333
관서이곡(關西俚曲)	273	굴원	337
관중이곡(關中俚曲)	273	권농	208
관훈동	277	권농희(勸農戲)	209
광교(廣橋)	167, 221, 259	권오규	18
광교기생조합(廣橋妓生組合)	268	권용정(權用正)	184, 185, 186, 188
광릉교	213	권필(權畢)	229
광문회(光文會)	146	귀밝이술(聰耳酒)	197
광중교	324	귀신날	171
광진사	123	그네	334
광통교(廣通橋)	148, 162, 164, 167, 177, 180, 248, 264, 265	그레이트하우스(C. R. Greathouse)	289, 309
광화문	166	그림자점	34
광화문통	277	금강산	227

금강유기(金剛遊記)	187	나주(羅州)	226
금성산(錦城山)	226	낙랑원(樂浪原)	78
기년제(祈年祭)	319	낙신부(落神賦)	80
기우제	120, 306, 308	난로(煖爐)	152, 180
기자암	306, 307	난로회(煖爐會)	152
기판	191	남 추석 북 단오(南秋夕北端午)	57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吉毛)	280, 286, 285	남대문	311, 316, 341
김매는 날[除草日]	36	남대문 수문장	294
김매순(金邁淳)	16	남도잡가(南道雜歌)	273
김병채(金炳採)	212	남도행가(南道行歌)	273
김성호	59	남묘(南廟)	318, 324, 331
김승찬	59	남무(男舞)바치	274
김시습(金時習)	235	남바위	317
김영희(金英熙)	278	남방이곡(南方俚曲)	273
김유신(金庾信)	62, 68, 225, 338	남방이창(南方俚唱)	273
김을부(金乙富)	264	남산(南山)	149, 150, 158, 174, 221, 222, 224, 227, 230, 255, 280, 296, 306, 307, 337, 339
김이사부(金異斯夫)	225	남산골의 셋님	266
김진국	20	남산신	222
김창흡(金昌翕)	152	남산약수대(南山藥水臺)	337
김현감호(金現感虎)	61	남산의 봉화	294
김희동	262	남산택견	241
까이요와(Roger Caillois)	234	남주북병(南酒北餅)	149, 156, 172
까치날	171	남중속무(南中俗舞 살푸리춤)	274
(ㄴ)		남중이곡(南中俚曲)	273
나물 올리기(陳菜)	197	남중잡가(南中雜歌)	273
나옹화상(懶翁和尚)	225, 228	남춘	167
나옹화상신	228	남한산(南漢山)	151

납매(臘梅)	208	다리밟기	158, 161, 162, 168,
납설빙(臘雪氷)	208		185, 186, 213, 221, 242
납약(臘藥)	208	다리병	161, 162, 177, 185
납육(臘肉)	208, 215	다방골	266
납육 먹기	215	다방골 잠	265
납일	192	다옥정(茶屋町)	336
납제	215	단가(短歌)	169
납향	208	단군	225
내왕신	18	단군난데본풀이	224
내지무(內地舞)	274	단군신	228
내지잡가(內地雜歌)	273	단군신화	222, 224
냉국	170	단료(檀療)	177
널뛰기	196, 280, 325	단선	209
널뜨기	325	단오 부적	215
노농일기(老農日記)	48	단오선사(端午宣賜)	121
노들태견	241	달거리	167
노룡란(撈龍卵)	28	달거리민요(月令體民謠)	48
노인성 제사	129	달거리요	41
농사신	215	달맞이(迎月)	199, 321
농사점 노래(農占詩)	41	달불음[月滋]	34
농신(農神)	19	답교(踏橋)	74, 148, 162, 164,
농언(農諺)	27		165, 166, 168, 172, 188, 198,
농점시	45		209, 321, 322, 323, 325
누더름날	36	답교놀이	281
느티떡	214	답교상(踏橋床)	324
(ㄷ)		답교지희(踏橋之戲)	161
다동(茶洞)	265, 266, 269, 271	답청(踏靑)	78, 115, 116, 149
다동조합(茶洞組合)	268	당서(唐書)	327
		대광통교(大廣通橋)	157

대부인연회(大婦人宴會)	59	동대문	328
대소광중교(大小廣橋)	321	동대문시장	318
대악	208	동동(動動)	77, 87
대정권번(大正券番)		동맹	64
	268, 271, 272	동맹제(東盟祭)	89
덕담	56, 208	동명성왕사(東明聖王祠)	66
덕진(德津)	226	동명성제	130
덕진명소(德津溟所)	226	동명성제사(東明聖帝祠)	130
녕동(貞洞)	342	동묘(東廟)	318, 324, 339
도간(稻竿)	202	동업조합(guild)	301
도깨비불	28	동인승(銅人勝)	72
도당궐(都堂賽)	215	동전던지기	280
도름전	318	동지하장	137
도림사(道林寺)	258	동천(東川)	221
도봉산(道峯山)	151	동침	208
도삭(跳索)	194	두보	171
도소주	320	두신(痘神)	228, 305
도순(都巡)	165	등간(騰簡)	140
도순찰(都巡察)	165	등간(燈竿)	174
도순찰칙(都巡察飭)	165	등고(登高)	178, 210
도액(度厄)	158	등대[燈竿]	158, 214
도판	209	등석(燈夕)	74, 158
도해	210	등시(燈市)	200
도화동	178	등잔 팔기(賣燈盞)	216
돈의동	277	디방	319
돈치기(擲錢)	201	(ㄹ)	
돌싸움	186	룡산	327
동구(童謳)	185, 187, 203	리응선(李應善)	333
동근설화(同根說話)	219		

리현	341	목멱산	222, 230
린튼(R. Linton)	219	목멱산신(木覓山神)	221, 222
(口)		목멱산신사(木覓山神祠)	224
마니산(摩尼山)	226	목멱신사	228
마제(馬祭)	182	목영점(木影占)	34, 47
마한(馬韓)	51	목우	208
만리재	328	몽점(夢占)	163
만리현(萬里峴)	32, 156	묘성(昴星)	26
만복사저포기	235	무교동	265, 276
만삭희	209	무산향(舞山香)	274
말곡(末谷)	30	무원록(無冤錄)	306
맑은 장국	170	무학대사(無學大師)	225
매서(賣暑)	197, 208	무학대사신	228
매화주	216	묵국(墨掬)	193
맥근점(麥根占)	29	문묘(文廟)	23
맹상군(孟嘗君)	333	문첩	208
면암유고	177	문화공리(文化公理)	219
명성황후신	225	문화권(文化圈)	220
명절풍속	212	문화복합(culture-complex)	219
모방주술	27	물방구	191
모의전쟁놀이(mock battle)	31	물장구(水匏樂)	214
모충일	209	물재(勿齋)	212
모티프(motif)	219	미미크리(Mimicry)	235, 236
목멱대왕	228	미인보감	270
목멱동명사(木覓東明祠)	120	민간의 지식(the knowledge of folk)	231
목멱묘 제사	131	민락향(民樂鄉)	58
목멱사(木覓祠)	131	민상공(閔相公·閔鼎重)	305
목멱산(木覓山)	222, 226, 230	민중전(閔中殿)	225

민중전신	228	백악산신사(白岳山神祠)	229
(ㄴ)		백오(百五)	79
바람신	306, 309	백틴(Baktin)	93
박성서	256	범일국사(梵日國師)	225
박순호	189	법고(法鼓)	208, 329, 330
박승필(朴承弼)	335	법고승(法鼓僧)	186, 188, 199
박연(朴淵)	120	법화원(法華院)	59
박제가	154	벽마육부	209
박지원	253	벽온단	208
박충의	261	변쌈	325
박혁거세	221	변전(邊戰)	31, 180
반동인승(頒銅人勝)	208	별감(別監)노리	325
반빙(頒氷)	209	별곡(別曲)	167
반선희(半仙戲)	230	별상신	228
반야월	256	별예기은소(別例祈恩所)	68
반역	208	별제(別祭)	68
발대포	208	보리뿌리점	29
방물가	167	보부상	301
방상씨(方相氏)	92	보신각(普信閣)	183
방야(放夜)	163	복두장이	257, 258
방지연	209	복일	209
방지포	208	복토(福土)	186
방택	105	복토(福土) 흠치기	160
배오개	311	복합직선적	17
비장방	341	봉선화	210
백구사(白鷗詞)	167, 168	봉은사	100
백리부동풍(百里不同風)	219	부내(府內)	30
백악산	221, 230	부적	214
		북	159

북경세화기(北京歲華記)	157	산장불기(吹酸漿)	195
북둔(北屯)	149	산천제(山天祭)	221
북산(北山)	332	삼각산(三角山)	221, 226
북악산(北嶽山)		삼각산신	227
	158, 174, 221, 227	삼개(麻浦)	327
북천(北川)	221	삼국지(三國志)	51
북촌	167, 320	삼문(三門)	31, 327
북한산(北漢山)	151, 227, 280	삼불제석신	228
불계(祓禊)	83	3영절(三令節)	118
불노리	321	삼일포기(三日浦記)	187
붕희(棚戲)	201	삼재양법	208
브라드리(Bradley)	255	삼천리	269, 310
비백산(鼻白山)	226	삼청동(三清洞)	155, 333
비파정(琵琶亭)	31, 149, 328	삼해신(三海神)	226
빈풍시	40	삼현	167
빙등(冰燈)	184	상사절(上巳節)	78
빙차(冰車)	195	상설	208
		상원갑자년	163
(入)		상춘	115
사검서(四檢書)	154	상치세전	208
사발재점	34	상행기	208
사악신	226, 227	상화(賞花)놀이	178
사일절(巳日節)	78	상황(context)	236
사직신(社稷神)	22	새물맞이	221
사탄의 음악	220	새비지-랜드어(A. H. Savage-Landore)	
사회	209		285, 287, 294
삭전(索戰)	170	새점[鳥占]	24
산림경제	39	서관잡가(西關雜歌)	273
산병(餽餅)	172	서남잡가(西南雜歌)	273

서대문	316	세경본풀이	20
서대문 돌다리	294	세경신(世經神)	20
서대문정	330	세모(歲暮)	208, 319
서도이요(西道俚謠)	273	세배	56
서도잡가(西道雜歌)	273	세배군	320
서도행가(西道行歌)	273	세배편지	320
서방속요(西方俗謠)	273	세비음	208
서소문(西小門)	311	세사	15
서양무도(西洋舞蹈)	274	세서연	210
서울풍물지	280	세속오계(世俗五戒)	63, 66
서이수	154	세시풍요	20
서출지	60	세심대	178
석북집(石北集)	169	세악(細樂)	167
석전(石戰)	20, 31, 37, 121, 156, 170, 188, 199, 209, 221, 241, 280, 281, 283, 334, 338	세찬(歲饌)	184, 208, 317
선농단	22	세함	208
선유가	167	세화	208
선희(仙戲)	195	설디목	319
설빔	56, 317	세찬	318
설악내기(雪嶽內記)	187	소광통교(小廣通橋)	157
설인귀(薛仁貴)	112	소매각시	19
설하(挈河)	170	소발	208
성북둔	178	소월	209
성조신(成造神)	18, 182	소의문(昭義門)	156
성황신사(城隍神祠)	118	소점[牛占]	24
성황제	105	소춘향가	167
세경놀이	21	소싸움	325
세경무지침	21	속가(俗歌)	169
		속담시(俗談詩)	45
		손석풍(孫石風)	210

송경안택	209	슈표딩(水標町)	311
송남잡지	259	스카라 계곡	256
송순기(宋淳夔)	212	슬(瑟)	52, 53
송시열(宋時烈)	171	슬롱아(瑟稜兒)	193
송악신(松嶽神)	226	시구문	294, 302
송채봉(宋彩鳳)	279	시령	15
송화강(松花江)	51	시민위안단오대운동회 (市民慰安端午大運動會)	336
수고(水鼓)	158, 174	시시딱딱이	19
수단	124	시절가(時節歌)	169
수락산(水落山)	151	시절가조(時節歌調)	169
수뢰일(水瀨日)	337	시절단가(時節短歌)	169
수룡음(水龍吟)	167	시조(時調)	169, 273
수문장	300	시조장단	169
수부(水缶)	182	시조창(時調唱)	169
수서(隋書)	55	신농씨(神農氏)	22
수선화	208	신당서	170
수세(守歲)	165, 208	신돈	108
수송동	277	신무문(神武門)	150, 174, 334, 338
수신(隧神)	64	신수(神隧)	65
수점(數占)	24	신승겸 장군	31
수판	191	신여성	310, 313
슈표교(水標橋)	147, 148, 157, 162, 164, 221, 321, 324	신일(愼日)	56, 209
슈표정	277	신장신	228
수호신전(守護神殿)	32	신찬죽지사(新撰竹枝詞)	271
순라군(巡邏軍)	163, 165	신춘병고	209
순오지	259	심방(沈榜)	148, 158
순환의례	16	심우택(沈禹澤)	269
술의초	209		

십이월절후풍임가 (十二月節侯豐稔歌)	27, 48	약수대	337
십이잡가(十二雜歌)	167	양반광대	19
십장가	167	양반다리밟기	162, 172
쌀어미	19	양반답교	325
씨름	159, 334	양산(涼山) 이죽	255
(○)		양양(襄陽)	226
아곤(Agôn)	235, 236	양진명소(揚津溟所)	226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258	언어질병적(言語疾病的)	162
아세(亞歲)	91, 208	얼음진상	119
아아르네-툼슨	258	엑스타시[憑依現象]	223
아현(阿峴)	31, 327	여이설화(驢耳說話)	257
악박골	339	역서풍습	15, 16
안동	32	연경궁	100
안록산(安祿山)	325	연날리기	282, 325
알레아(Alea)	235, 236	연놀이	157
알영부인	221	연등	209
알천(闕川)	78	연등제(燃燈祭)	77
애호	209	연등화산	78
액막이[度厄]	162	연등회(燃燈會)	69, 71, 76, 101, 110
액정서(掖庭署)	168	연상시(延祥詩)	189
앵도반포	209	연수객(延壽客)	342
야광	208	연싸움	157, 282
야광신(夜光神)	189	연안부(延安府)	29
야장소아혜(夜藏小兒鞋)	189	연중행사	15
야화(夜話)	165	연화부인(蓮花夫人)	225
야회(夜會)	165, 167	열운가(闕雲街)	148, 163
약밥(藥飯)	197	열하일기	253
		염매(魘魅)	306

영동달	37	옹락(雍洛)	164
영동할머니	37	와마(瓦馬)	194
영등맞이	19	왕건	221
영등할머니	19	왜성대	338
영등할미	18, 19	왜장(倭場)	150, 332, 334
영등회(影燈會)	173	외바퀴수레[獨輪車] 싸움	31
영산회상(靈山會相)	167	요교(撩跤)	151, 159
영성조지신	210	요언(謠諺)	45, 48
영월(迎月)	157, 209	요전법(邀傳法)	253
영이록(靈異錄)	165	요하(遼河)	51
예맥(濊貊)	51	욕불(浴佛)	209
예장동(藝場洞)	174	욕쉬다리	257, 263
오강(五江)	158	욕쉬산(辱倅山)	259
오관산(五冠山)	226	욕쉬산장(辱倅山莊)	263
오기일(烏忌日)	60	용갈이[龍耕]	29, 35
오불산(五佛山)	226	용경(龍耕)	29, 208
오비드(Ovid)	258	용산지회(龍山之會)	89
오산결채(鰲山結彩)	214	용신사상(龍神思想)	221, 255
오상시(五常市)	58	용알뜨기	28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306	용재총화(慵齋叢話)	264
오지(隩志)	158, 174	용정(龍井)	18
오채	209	용천(龍川)	35
오챙	324	우두주(牛頭州)	62
오행점	35, 208	우란분회	210
옥산(玉山)	159, 160	우물점[泉占]	24
옥추단	209	우수현(雨水峴)	32, 149, 328
온신(瘟神)	112	우이산(牛耳山)	226
음괘책	324	우혁정(于奕正)	148
		운종가(雲從街)	163, 167

올려신	189	유산가	167
웃도드리[細還入]	167	유상곡수회	209
웅진(熊津)	226	유어우(柳於于)	43
원광법사(圓光法師)	63	유적(柳笛)	194
원구(圓丘)	65, 105	유진(劉臻)	72
원로회(鵷鷺會)	131	유행가	169
원시광명승배사상 (原始光明崇拜思想)	76	유희분(柳希奮)	230
원인(圓仁)	59	육각정	178
원형심성(原形心性)	67	육계굉(陸啓泓)	148
월령(月令)	15	육영공원(育英公院)	280
월성(月城)	221	육의전(六矣塵)	265
월신(月神)	288	육조거리	166
월자점(月滋占)	47	윤희구(尹喜求)	212
위봉루(威鳳樓)	90	웃노리	325, 330
위술(韋述)	163	웃놀이(擲柶)	47, 186, 196
위슬러(C. Wissler)	219	은산별신제	235
위지(魏志)	51	은승(銀勝)	73
유감주술(sympathetic magic)	16, 27	응렴(鷹廉)	257
유니언신학교	280	의관령(義館嶺)	226
유두국	192	의인달방(儀仁達坊)	22
유두면	209	의전(擬戰)	32
유두연	209	이규경(李圭景)	304
유득공(柳得恭)	16	이규보	43, 44
유리왕	58	이능화(李能和)	227, 280
유만공(柳晚恭)	160	이덕무	154
유빙(溜氷)	195	이부용(李芙蓉)	278
유사주술	161	이성계	227
		이성계신	228
		이세춘	169

이수광(李睟光)	74	자청비	21
이야묘	209	작저(嚼疽)	198
이어(俚語)	160	작종	208
이원론적(二元論的)	56	잔치놀이	128
이존성	121	잠두봉(蠶頭峯)	150, 173, 178, 227
이지백(李知白)	67, 74	잠두산(蠶頭山)	173
이태조(李太祖)	225	잠자리 잡기(捕蜻蜓)	194
이학규(李學逵)	169	잡가(雜歌)	168, 273
이현(梨峴)	156	잡곡반	209
이홍직(李弘植)	184	жат불	323
이화자(李花子)	269	장교동	277
인사동	276	장구대감	222
인승낙패(人勝祿牌)	73, 98	장구희(藏鉤戲)	208
인왕산	221, 227	장산곶(長山串)	226
인일제시	208	장송(葬送) 합창(Tutti i morti)	304
인일패일(人日敗日)	208, 209	장승	306, 309
일기점	24	장완(張琬)	159, 160
일링크스(Ilinx)	235, 236	장원(張遠)	158, 174
일월권(日月圈)	158	장자마리	18, 19
임춘(林椿)	80	장충단	257, 333, 335, 339
입당구법순례행기 (入唐求法巡禮行記)	59	장타령	48
입창(立唱)	273	장화일(藏火日)	117
입춘(立春)	171	재매곡(財買谷)	62
입춘토우(立春土牛)	76	재매부인(財買夫人)	62
(ㅈ)		재즈(zazz)	220
자신전(紫宸殿)	109	저포놀이	140
자적두죽	209	적령부	215
		적벽가	167

전기수(傳奇叟)	252, 255, 287	조면형(趙冕衡)	212
전약	208	조선권번	268
전춘	209	조선미인보감	269, 280
점매년십이월절후풍입가 (占每年十二月節候豐稔歌)	45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280
점무(占霧)	45	조수삼(趙秀三)	175, 252
점세법(占歲法)	24	조진국	20
점일(占日)	45	좁생이점(좁생이보기)	26
점전(占電)	45	종가(鐘街)	
점천(占天)	45	31, 149, 150, 156, 157, 167	
점홍(占虹)	45	종각(鐘閣)	161, 163, 177, 331
정감	227	종늬(宗懷)	72, 145
정단례(正壇禮)	60	종로	158, 214, 221, 265, 316
정동(貞洞)	311	종로거리	328
정만조(鄭萬朝)	212	종루(鐘樓)	163, 166
정수남	21	종묘	23
정언학인(鼎言學人)	325	종이연(紙鳶)	198
정월 보름날	158	종청종송	210
정재무(呈才舞)	274	좌창(坐唱)	273
정절(靖節)	208	종로중앙청년회(鐘路中央青年會)	
정처자(정희아비)	210	342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		주교(走橋)	322
157, 158, 174, 182		주기제의	16
제룡직성	324	주기축제	16
제비가	167	주백병(走百病)	158, 162, 244, 322
제석	327	주역	162
제용	324	주흘산(主屹山)	226
제웅치기	170	죽령산(竹嶺山)	226
조리지희(照里之戲)	170	줄넘기	280
		줄다리기	30, 37, 47, 325

줄타기	280	차례세찬	208
중계천(中溪川)	32	차전놀이	31
중동팔관회	92	착흑(捉黑)	193
중인촌(中人村)	167	참성점	209
중촌	167	창가(娼家)	166
중추상월	210	창부씨신	228
중화척	209	창포김치	122
증병(甑餅)	172	창포노리개	122
지공상(指空像)	228	창포탕	209
지리산(智異山)	226	채봉(彩棚)	81, 214
지방민속문화특소 (地方民俗文化特素 : oikotype)		채애	209
	219, 220, 237	처객(處客)	189
지봉유설(芝峯類說)		처용(處容)	198
	158, 161, 168, 322	척구(踢毬)	203
지연(紙鳶)	328	척사	208
직선적 차원	17	척전(擲錢)	194, 209
직성পুর이	323	천굴유	208
진고개	320	천신사상(天神思想)	221
진산채	208	천청어	208
진수(陳壽)	51	청계천 160, 219, 221, 254, 257, 263, 285, 293	
진채(陳菜)	208	청구영언	168
진하전	208	청등(靑燈)	195
짐대	18	청류강태랑(靑柳綱太郎)	269
집불음[戶滋]	34	청상요(靑孀謠)	166
집장가	167	청엽중	215
		청진동	276
(ㄸ)		청참(聽讖)	24, 208
차귀신(遮歸神)	181	청천강(淸川江)	226

청초호	29	출인가	167
청풍계(淸楓溪)	151	충무공	241
체제(禘祭)	103, 117	치암(鷗巖)	122
체협(諦裕)	117	칠독신(七瀆神)	226, 227
초당리부인지신(草堂里夫人之神)	18, 23	칠성신	228
초제	106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163
초하시식	209	칠중채	208
촉류(燭遊)	167	(ㄱ)	
총석유기(叢石遊記)	187	키점[柳箕占]	24
최동수(崔東秀)	123	(ㅍ)	
최만조(崔萬朝)	212	타이프(type)	219
최영(崔瑩)	225, 228, 326	타추희	208
최영년	179, 212, 213	탁무(鐸舞)	52, 53
최윤덕(崔允德)	337	탈구기시간(脫拘忌時間 · desacr-	
추천(秋千)	200	alized time)	93
추천(鞦韆)	79	탈놀이	280
추천희	209	탑골공원	267
축(筑)	53	탑동공원	336
축국	208	탕병(湯餅)	196
춘경제(春耕祭)	181	탕춘대(蕩春臺)	155
춘련(春聯)	171	태백산	229
춘면곡(春眠曲)	167, 270	태조동명목먹묘	
춘색사(春色詞)	271	(太祖東明木覓廟)	131
춘앵무(春鶯舞)	274	태종신	18
춘원(春園)	327	태종우(太宗雨)	20, 209
춘첩(春帖)	171, 189, 203	태평고(太平鼓)	158
춘첩자(春帖子)	75, 171	태평통	277
춘축(春祝)	171		

토레스해협(Torres Strait)	310	폭죽(爆竹)	208, 321
토우	101	플레아데스	26
도장국	170	푸닥질	193
토정비결	35	풀싸움(鬪草)	193, 200
토지신	215	폼팔이꾼(water-collier)	299
통리	26	풍국노리	341
통씨름	241	풍백(風伯)	61
투란희(鬪卵戲)	93	풍속통	176
투사(鬪絲)	193	풍신제(風神祭)	77
투석전	285, 293	풍차(風車)	188, 200
통소	159	필동(筆洞)	304
		필운대(弼雲臺)	149, 155, 178

(교)

팔관정회(八關筵會)	70
팔관회(八關會)	65, 69, 70, 71, 74, 76, 134
패수(溟水)	156, 170
팽등아(砰騰兒)	193
팽이치기	280
페루(Peru)	296
편가(篇歌)	168
편덕창(片德昌)	336
편싸움	31, 327, 328
편쌈	170
편유옥(片裕玉)	336
편전(便戰)	170
평양가	167
평양강(平壤江)	226
평양기생학교	269

(ㅎ)

하원갑자년	163
하정례(賀正禮)	60
한강대택신(漢江大澤神)	221
한구(寒具)	80
한남권번(漢南券番)	271, 269, 272
한라산(漢拏山)	226
한마감조	209
한성권번(漢城券番)	266, 268, 270
한성조합	268
한양가	169
한청성(韓淸城)	138
함백산	229
합덕지(合德池)	28
항왕(項王)	190
향토문화	220

허목(許穆)	171	햇불놀이	30, 37
허수아비	170, 171	회회아(回回兒)	148, 209
현저동	227	획관	191
협제(裕祭)	103	후조당(後凋堂)	151
형장가	167	후직씨(后稷氏)	22
형초세시기	176	후토신(后土神)	22
호곡감(胡乾柿)	317	훈서화	208
호구아씨	228	훈요십조(訓要十條)	
호귀마마(胡鬼媽媽)	305		70, 76, 89, 133, 221
호기(呼旗)	81, 209	홀형	120
호이징하	234	홍륜사	61
홍석모(洪錫謀)	16	홍인문(興仁門)	149
홍진곡(紅塵曲)	270		
화간(禾竿)	46	(영문)	
화류(花柳)	149, 209	calendar custom	232
화산(火山)	108	cyclical rite	232
화상총회	321	M. 엘리어드	223
화승(花勝)	72	periodic festival	232
화적(禾積)	208, 209	seasonal festival	232
화전(花煎)	209		
화투연	209		
화포(火砲)	83		
환경(桓景)	341		
환웅(桓雄)	223, 225		
환인(桓因)	223, 225		
활쏘기대회	241		
황계사(黃鷄詞)	167, 168		
황금사목(黃金四目)	92		
황토우(黃土牛)	92		

김선풍(金善豊)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 경력

현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명예교수
현 국제아세아민속학회 명예회장 겸 이사장
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전 한국민속학회 회장
전 한국민요학회 회장
전 강원도민속학회 회장
전 우리문화회 회장

◇ 저서

자저(自著)로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1977), 《한국구비문학대계 - 강릉시·명주군,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편》(1980·1983·1986), 《남해안별신굿》(1997), 《시조가집 시여 연구》(1999), 《아방리 줄다리기》(2003), 《중구의 설화》(2003), 《중구의 축제》(2004) 외 공저로 《우리 민속문학의 이해》(1980), 《강릉단오굿》(1987), 《민속론》(1989), 《몽골민속》(1992),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1993), 《속담이야기》(1993), 《강릉단오제 실측조사 보고서》(1994), 《열두띠 이야기》(1995), 《한국의 민속사상》(1996), 《한국육담의 세계관》(1997), 《강릉단오제 연구》(1998),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2000), 《삼각산 도당제》(2006) 및 논문 다수

중구의 세시와 풍속

중구의 향토사 관계 자료 10집

발행처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 남 상 만

질 필 : 김 선 풍

발행일 : 2007년 2월 28일

제 작 : 상 원 사

© 중구문화원. 2007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 B/D 1층

TEL : (02) 775-3001 FAX : (02) 775-3068

E-mail : cc100@junggu.seoul.kr

이 책은 중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